셜록 홈즈의 모험

The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92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The Strand Magazine 1891–92)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1661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헤미아 왕국 스캔들

셜록 홈즈에게 그녀는 언제나 '그' 여인이었다. 홈즈가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홈즈의 눈에 그녀는 여성 전체를 압도하며 그 빛을 가릴 만큼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렇다고 그가 아이린 애들러에게 사랑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감정,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차갑고 정밀하며 경이로울 정도로 균형 잡힌 그의 정신에 있어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세상이 마주한 가장 완벽한 추리 및 관찰 기계였으나, 연인으로서의 모습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다. 그는 부드러운 열정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조소나 비웃음을 섞곤 했다. 관찰자에게 그런 감정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이라는 베일을 벗겨내는 데 아주 훌륭한 도구였다. 하지만 훈련된 추리가에게 있어, 자신의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정된 기질에 그런 감정이 침범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방해 요소였다. 그것은 그가 도출한 모든 정신적 결과에 의구심을 품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예민한 정밀 기기에 낀 모래알이나, 고성능 렌즈에 생긴 금만큼이나 그의 성정에는 강렬한 감정이 큰 혼란을 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으니, 의구심과 논란의 기억으로 남은 고(故) 아이린 애들러였다.

최근 들어 홈즈를 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나의 결혼 생활로 인해 우리는 서로 멀어졌다. 결혼 후 누리는 온전한 행복,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린 이에게 찾아오는 가정 중심의 관심사들은 내 모든 신경을 쏟기에 충분했다. 반면, 보헤미안 기질이 다분하여 어떤 형태의 사교 모임도 혐오하던 홈즈는 베이커가 숙소에 머물며 낡은 책더미 속에 파묻혀 지냈다. 그는 매주 코카인과 야망 사이를 오갔다. 약 기운에 취해 나른해졌다가도, 이내 예리한 본연의 성격이 발휘되며 격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곤 했다.

그는 여전히 범죄 연구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홈즈는 자신의 방대한 지적 능력과 비범한 관찰력을 동원해 단서를 추적했다. 경찰이 가망 없다고 포기해 버린 미스터리들을 해결하는 데 그 능력을 쏟아부었다. 가끔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막연한 소식들을 전해 듣곤 했다. 트레포프 살인 사건으로 오데사에서 소환되었다는 이야기, 트린코말리에서 발생한 앳킨슨 형제의 기이한 비극을 해결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왕실을 위해 아주 섬세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한 임무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일간지를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이런 활동 소식 외에, 나는 예전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1888년 3월 20일이었다. 당시 나는 다시 일반 진료를 시작한 상태였기에, 환자를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 베이커가를 지

나게 되었다. 그 문을 지나칠 때면 늘 내 마음속에는 구혼 시절의 기억과 『주홍색 연구』의 어두운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 문을 지나며 나는 홈즈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가 그 비범한 능력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의 방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가 가리개 너머로 그의 키 크고 마른 실루엣이 두 번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가슴 쪽으로 숙이고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급하고도 열정적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모든 기분과 습관을 꿰뚫고 있는 내게, 그 자세와 몸짓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홈즈는 다시 사건에 몰두하고 있었다. 약물로 만들어낸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사건의 흔적을 쫓느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벨을 눌렀고, 예전에 내가 일부 사용했던 그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의 태도는 살갑지 않았다. 평소에도 그리 다정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별다른 말도 없이 친절한 눈빛을 보내며 나를 안락의자로 안내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시가 상자를 내 쪽으로 밀어 놓더니, 구석에 있는 술 상자와 탄산수 제조기를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벽난로 앞에 서서 특유의 그 사색적인 방식으로 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결혼이 잘 어울리는군." 홈즈가 말했다. "내 생각엔 왓슨, 자네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몸무게가 7.5파운드는 늘었어."

"7파운드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 난 좀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조금 더 말이야, 왓슨. 그리고 자네, 다시 실전에 복귀했군. 현업에 다시 뛰어들 생각이었다는 말은 내게 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아신 겁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을 통해 추론한 겁니다. 당신이 최근에 비를 흠뻑 맞고 다녔다는 사실과, 아주 덜렁대고 부주의한 하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보게, 홈즈," 내가 말했다. "이건 정말 너무하군. 자네가 몇 세기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분명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했을 거야. 목요일에 시골길을 산책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옷을 갈아입은 마당에 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메리 제인 건도 그래. 그 애는 정말 구제 불능이라 아내가 이미 해고 통보를 했네만, 그것 역시 자네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그는 혼자 낄낄거리며 길고 초조해 보이는 두 손을 맞비볐다.

"아주 간단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당신의 왼쪽 구두 안쪽, 마침 화로의 불빛이 비치는 곳에 거의 평행하게 여섯 줄의 칼자국이 나 있군요. 누군가 밑창에 눌어붙은 진흙을 떼어내려고 구두 가장자리를 아주 부주의하게 긁어낸 게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죠. 당신이 아주 궂은 날씨 속에 외출했다는 것과, 당신의 구두를 유독 엉망으로 긁어대는 런던 하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신사가 요오도포름 냄새를 풍기며 내 방으로 들어오는데, 오른쪽 검지에 질산은 자국이 검게 남아 있고, 신사 모자 오른쪽이 청진기를 숨겨둔 듯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면, 그가 현직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게 오히려 멍청한 일이겠지요."

그가 자신의 추리 과정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홈즈, 당신이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나는 참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네." 내가 말했다. "당신이 논리를 풀어내기 전까지는 매번 갈피를 못 잡고 헤매면서도, 막상 설명을 듣고 나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 하지만 내 눈도 당신의 눈만큼은 멀쩡하다고 믿고 있다네."

"정확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대답했다.

"자네는 보고는 있지만, 관찰하고 있지는 않군. 그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 예를 들어보지. 자네는 현관에서 이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아주 자주 보았을 테니까."

"자주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글쎄요, 수백 번은 넘게 그랬을 겁니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몇 개나 되느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자네는 보긴 했지만 관찰하지는 않았어. 내 말은 바로 그 점이라네. 계단이 열일곱 개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건, 단순히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관찰했기 때문이지. 아, 마침 자네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 보잘것없는 경험 중 한두 가지를 기록해 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고 있으니, 이것도 흥미로울 걸세."

홈즈는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분홍빛이 도는 두툼한 편지지를 내밀었다. "방금 도착한 우편물이라네." 그가 덧붙였다. "소리 내어 읽어보게."

쪽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고, 서명도 주소도 없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귀하를 방문할 신사가 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귀하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귀하가 최근 유럽의 왕실 중 한 곳을 위해 수행한 업무를 통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임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귀하에 대한 이러한 평판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방문객이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수수께끼군요." 내가 말했다. "이게 대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단서가 없네. 자료를 확보하기도 전에 이론부터 세우는 건 중대한 실수야.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실에 이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론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하거든. 하지만 이 쪽지 말일세. 자네는 이 쪽지를 보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겠나?"

나는 글씨와 그 글씨가 적힌 종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마도 형편이 꽤 넉넉한 사람일 겁니다." 나는 동료의 추리 방식을 흉내 내며 말했다. "이런 종이는 한 꾸러미에 반 크라운도 안 되는 값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유난히 질기고 빳빳하군요."

"기묘하군. 바로 그 단어가 정답이야." 홈즈가 말했다. "이건 영국 종이가 전혀 아니야. 빛에 비춰 보게."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종이 질감 사이로 커다란 'E'자 하나와 작은 'g'자, 'P'자, 그리고 작은 't'자가 섞인 커다란 'G'자가 짜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물었다.

"제조사 이름이겠지. 아니, 아마도 그 사람의 모노그램일 거야."

"전혀 아니네. 소문자 't'가 붙은 'G'는 'Gesellschaft'를 뜻하는데, 독일어로 '회사'라는 의미지. 우리 식의 'Co.'처럼 관습적으로 줄여 쓰는 거야. 'P'는 당연히 'Papier'를 뜻하고. 자, 이제 'Eg.'를 볼까. 유럽 지명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

홈즈는 선반에서 두툼한 갈색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Eglow, Eglonitz—찾았군, Egria네. 독일어권 국가인 보헤미아에 있고, 카를스바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 ‘발렌슈타인이 사망한 장소로 유명하며, 수많은 유리 공장과 제지 공장이 있다’라고 적혀 있군. 하하, 이보게 친구, 자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눈이 반짝였다. 홈즈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승리감에 젖은 듯 커다란 푸른 연기 구름을 내뿜었다.

“그 종이는 보헤미아에서 만든 것이군요.” 내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쓴 사람은 독일인이에요. 문장 구조가 아주 특이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세요. ‘당신에 관한 이 소식을 우리는 모든 곳으로부터 받았다(This account of you we have from all quarters received)’라고 썼죠. 프랑스인이나 러시아인이라면 결코 이렇게 쓰지 못했을 겁니다. 동사를 이토록 무례하게 다루는 건 독일인들의 특징이니까요.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뿐입니다. 보헤미아식 편지지를 사용하면서, 얼굴을 드러내기보다 가면을 쓰는 걸 선호하는 이 독일인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 짐작이 맞다면, 마침 그가 나타나 우리의 모든 의구심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말발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어서 마차 바퀴가 연석을 긁는 소리가 들리더니, 벨이 거칠게 울렸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다.

"소리만 들어보니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군." 홈즈가 말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 아주 근사한 소형 브루엄 마차에 말 두 마리라니, 정말 일품이야. 말 한 마리당 150기니는 족히 나가겠어. 왓슨,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건에는 돈 냄새가 나네."

"이제 그만 가보는 게 좋겠네, 홈즈."

"전혀 아닙니다, 박사님. 그대로 계세요. 제 기록자인 박사님이 없으면 저는 막막할 뿐이니까요. 게다가 이번 사건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의뢰인께서—"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그럴지 모르니까요. 자, 저기 오네요. 박사님, 저 안락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요."

계단과 복도에서 들려오던 느릿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이어 위엄이 느껴지는 커다란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들어오게!" 홈즈가 말했다.

키가 족히 6피트 6인치(약 198cm)는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헤라클레스처럼 가슴과 팔다리가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매우 화려했는데, 영국식 기준으로 보자면 다소 천박해 보일 법한 과한 화려함이었다.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의 소매와 앞부분에는 아스트라칸 양식의 두툼한 띠가 장식되어 있었고, 어깨에 걸친 짙은 푸른색 망

토 안감은 불꽃 같은 색의 실크로 되어 있었다. 망토의 목 부분은 타오르는 듯한 베릴 원석 하나가 박힌 브로치로 고정되어 있었다. 종아리 중간까지 올라오는 장화의 윗부분은 고급스러운 갈색 모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의 전체적인 모습이 풍기는 야만적인 호사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손에 챙이 넓은 모자를 들고 있었다. 얼굴 윗부분에는 광대뼈 아래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순간 막 고쳐 쓴 듯 손을 여전히 가면 쪽으로 올리고 있었다. 얼굴 하단부만 보았을 때 그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였다. 두툼하게 처진 입술과 길고 곧은 턱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결단력이 강한 인상을 풍겼다.

"제 쪽지를 받으셨습니까?"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독일 억양이 아주 강하게 묻어났다.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는 마치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이는 듯,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 우선 앉으시지요." 홈즈가 말했다. "이쪽은 내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가끔 내 사건들을 도와주곤 하지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보헤미아의 귀족인 폰 크람 백작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인 이 신사분은 명예롭고 신중한 분이라 들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당신과 단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홈즈가 내 손목을 붙잡아 다시 의자에 앉혔다.

"둘 다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 신사분께는 저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백작은 넓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렇다면 먼저 시작해야겠군요." 그가 말했다. "두 분께 향후 2년 동안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 이 일은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사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사건이 유럽의 역사를 뒤흔들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하겠네." 홈즈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면을 쓴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기묘한 방문객이 말을 이었다. "저를 고용한 고귀한 분께서 자신의 대리인이 당신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고백해 두자면, 방금 제가 스스로를 일컬었던 직함은 제 본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사안이 매우 민감합니다. 자칫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 유럽의 왕가 중 하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 모든 예방 조치를 철저히 강

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일은 보헤미아의 세습 왕가인 오름슈타인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네." 홈즈가 중얼거렸다.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방문객은 눈에 띄게 놀란 기색으로 남자를 훑어보았다. 분명 그에게 소개되었을 때, 이 남자는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추리력을 가진 데다 가장 정력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으로 묘사되었을 터였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저 나른하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홈즈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거구의 의뢰인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폐하께서 직접 사건의 경위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가 말했다. "제가 더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러더니 절망적인 몸짓으로 얼굴에 쓰고 있던 가면을 홱 벗어 바닥으로 내던졌다.

"당신 말이 맞소!" 그가 외쳤다. "내가 바로 국왕이오. 굳이 숨길 이유가 무엇이겠소?"

"도대체 왜일까요?" 홈즈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제가 보헤미아의 세습 국왕이자 카셀-펠슈타인 대공이신 빌헬름 고트스라이히 지기스몬트 폰 오름슈타인 폐하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폐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이한 방문객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하얗고 높은 이마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제가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 말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민감한 탓에, 대리인에게 맡겼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당신과 상담하기 위해 프라하에서 신분을 숨긴 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홈즈가 다시 눈을 감으며 말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약 5년 전, 바르샤바에 오래 머물던 시절에 유명한 모험가인 아이린 애들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박사, 눈을 뜨지 말고 내 색인에서 그녀를 좀 찾아봐 주게." 홈즈가 눈을 감은 채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는 수년 전부터 사람이나 사물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일일이 색인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왔다. 덕분에 어떤 주제나 인물이든 질문만 하면 즉시 정보를 내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번에도 내 색인에서 그녀의 전기를 찾아냈는데, 마침 히브리 랍비의 기록과 심해어에 관한 논문을 쓴 참모령의 기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어디 봅시다!" 홈즈가 말했다. "흠! 1858년 뉴저지 태생. 콘트랄토 성부—음! 라 스칼라 극장, 음! 바르샤바 황립 오페라단의 프리마돈나

—그렇군! 지금은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했고—하! 현재는 런던에 거주 중! 제가 이해한 바로는, 폐하께서 이 젊은 여성과 얽히는 바람에 그녀에게 곤란한 내용의 편지를 몇 통 쓰셨고, 이제 그 편지들을 되찾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비밀리에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인 서류나 증명서는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폐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저 젊은 여인이 협박이나 다른 목적으로 편지를 내놓는다면, 그 편지가 진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글씨가 여기 있네."

"흥, 가짜겠지. 위조된 거야."

"제 개인용 메모지입니다."

"도둑맞았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인장이라네."

"흉내 낸 것이군요."

"제 사진입니다."

"샀군."

"우리 둘 다 그 사진 속에 있었어."

"이런, 세상에! 정말 큰일이군요! 폐하께서 정말이지 경솔한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저는 미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군."

"그때는 왕세자였을 뿐입니다. 아주 젊었지요. 지금은 겨우 서른 살입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셔야만 합니다."

"그녀는 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난당했다는 말이군."

"다섯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도둑들을 보내 그녀의 집을 두 번이나 샅샅이 뒤졌고, 그녀가 여행할 때는 짐을 한 번 가로챘습니다. 길목에서 그녀를 습격한 적도 두 번 있었고요.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흔적도 없단 말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꽤나 흥미롭고 예쁜 문제로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네." 국왕이 나무라듯 대답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사진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나를 파멸시키려는 것이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왕의 차녀, 클로틸드 로트만 폰 작스-메닝엔에게. 그녀의 가문이 얼마나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는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

다. 그녀 자신 또한 매우 섬세하고 고결한 사람이다. 만약 나의 행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긴다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아이린 애들러는요?"

"그녀는 그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녀를 모르겠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신은 그 누구보다 결연한 남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느니 차라리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아직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가?"

"확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에 보내겠다고 그녀가 말했거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 그럼 아직 사흘이나 남았군요." 홈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마침 지금 당장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일들이 한두 가지 있었거든요. 폐하께서는 당연히 당분간 런던에 머무시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랭엄 호텔에서 폰 크람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머물고 있을 테니, 그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식 전하도록 편지 한 통 쓰겠네."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안절부절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돈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사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왕국의 영토 중 하나라도 기꺼이 내주겠소."

"그럼, 당장 쓸 비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헤미아 국왕은 망토 아래에서 묵직한 사슴 가죽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금화로 300파운드, 지폐로 700파운드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홈즈는 수첩 한 장을 찢어 영수증을 휘갈겨 쓴 뒤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아가씨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가 물었다.

"세인트 존스 우드, 서펜타인 애비뉴에 있는 브라이어니 로지입니다."

홈즈는 그 내용을 받아 적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 사진은 캐비닛 사진이었습니까?"

"그랬었지."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폐하.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왓슨, 자네도 잘 자게."

왕실용 브룸 차량의 바퀴가 거리를 따라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가 덧붙였다.

"내일 오후 세 시쯤 괜찮다면 한 번 들러주게나. 이 작은 사건에 대해 자네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군."

정확히 3시가 되었을 때 나는 베이커가에 도착했지만,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집주인 여주인은 홈즈가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집을 나섰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얼마나 늦어지든 기다릴 생각으로 벽난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이미 홈즈가 맡은 사건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비록 이 사건이 내가 앞서 기록한 두 건의 범죄처럼 참혹하거나 기괴한 특징을 띠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이다. 사실 친구가 맡은 조사 내용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상황을 장악하는 그의 탁월한 능력과 날카

롭고 예리한 추론 방식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다. 홈즈가 그 복잡하게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빠르고 정교한 수법을 지켜보는 일은 내게 큰 즐거움이었다. 나는 그의 변함없는 성공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떠올리지조차 않았다.

네 시가 다 되어서야 문이 열리더니, 술에 취한 듯한 마부 한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고 구레나룻을 길렀으며,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데다 옷차림도 추레했다. 친구의 놀라운 변장술에 익숙해진 나였지만, 그가 정말 홈즈라는 사실을 확신하기까지는 세 번이나 다시 확인해야 했다. 홈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실로 사라졌다. 5분 뒤, 그는 예전의 모습처럼 단정한 트위드 정장을 차려입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벽난로 앞에 다리를 쭉 뻗고 앉더니, 한동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정말이지!" 그가 외쳤다. 그러더니 그는 숨이 막히는 듯 컥컥거리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는 기운이 다 빠진 채 의자에 몸을 늘어뜨리고 뒤로 기대앉아야만 했다.

"무슨 일인가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당신은 결코 짐작조차 못 할 겁니다."

"상상조차 안 가는군요. 아마 아이린 애들러 양의 습관이나, 어쩌면 그녀가 머무는 집까지도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전개가 꽤 특이했지요.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일자리를 잃은 마부로 변장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말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의 공감대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들 중 한 명만 되어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이어니 로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뒤편에 정원이 딸린 아담한 빌라였지만, 앞쪽은 도로까지 바짝 붙어 있는 2층 건물이었지요. 현관문에는 처브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는 가구가 잘 갖춰진 커다란 거실이 있었는데,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창문이 달려 있더군요. 게다가 그 창문 잠금장치는 아이도 열 수 있을 만큼 터무니없이 허술했습니다.

뒷부분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다만 마구간 지붕 위에서 복도 창문까지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점이 달랐지요. 저는 건물 주위를 돌며 모든 방향에서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 흥미로운 점은 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곧장 거리로 나와 한가롭게 거닐었다. 예상했던 대로 정원 담장 옆으로 난 골목에는 마구간이 하나 있었다. 나는 마부들이 말의 몸을 닦는 것을 거들었다. 그 대가로 나는 2펜스 동전과 하프 앤 하프 맥주 한 잔, 그리고 셔그 담배 두 줌을 얻었다. 게다가 아이린 애들러 양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울 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었다. 물론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이 근처 사람 대여섯 명의 일대기까지 억지로 들어줘야 하는 수고가 따르긴 했지만 말이다.

"아이린 애들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 동네 남자들은 죄다 그녀에게 홀렸다고들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운 아가씨예요. 서펜타인 미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죠. 그녀는 조용히 지내면서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매일 다섯 시에 마차를 타고 나가서 저녁 식사 시간인 일곱 시 정각에 맞춰 돌아옵니다. 노래 공연이 있는 날을 제외하면 좀처럼 외출하지 않죠. 찾아오는 남자는 딱 한 명뿐인데, 아주 자주 들릅니다. 검은 머리에 잘생기고 훤칠한 남자인데, 하루에 한 번은 꼭 오고 두 번 오는 날도 많아요. 이너 템플의 고드프리 노턴 씨라는 분이죠. 마부들이 얼마나 믿음직한 정보원인지 한번 보세요. 마부들이 그녀를 서펜타인 미우스 집까지 수십 번은 태워다 줬으니, 그 남자에 대해 모르는 게 없더군요."

마부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나는 다시 브라이어니 로지 근처를 서성거리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고드프리 노턴이라는 인물이 이번 사건에서 분명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듯했다. 그는 변호사였다. 그 사실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와 그녀는 어떤 관계이며, 그가 반복해서 찾아간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는 그의 의뢰인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만약 의뢰인이라면 그녀가 사진을 그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친구나 정부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았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내가 브라이어니

로지에서 조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템플 지구에 있는 그 신사의 사무실로 눈을 돌릴지가 결정될 것이었다. 이는 매우 미묘한 문제였고, 덕분에 내가 살펴야 할 범위도 넓어졌다. 이런 세세한 이야기로 당신을 지루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내가 겪은 이 작은 고민들을 말씀드려야만 했다."

"바짝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던 중, 브라이어니 로지 앞에 한 대의 한섬 택시가 멈춰 섰고 한 신사가 급히 내렸다. 그는 매우 잘생긴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다. 검은 머리에 매부리코를 가졌으며 콧수염을 기른 모습이, 내가 전해 들었던 바로 그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는 무척 서두르는 기색이었다.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더니, 문을 열어주던 하녀를 마치 제 집인 양 자연스럽게 지나쳐 들어갔다.

"그는 집 안에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그가 왔다 갔다 하며 흥분한 듯 말을 내뱉고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차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더니 아주 간절한 표정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쳤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주시오! 우선 리전트 가에 있는 그로스 앤 행키 상점으로 가고, 그다음엔 에지웨어 로드에 있는 성 모니카 교회로 가야 하오. 20분 안에 도착하면 반 기니를 주겠소!'"

그들은 떠나갔고, 나는 그들을 뒤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잠시 고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골목 위쪽에서 깔끔하게 생긴 작은 란도 마차가 올라왔다. 마부는 코트 단추를 채우다 만 채 넥타이는 귀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마구의 가죽끈들은 버클 밖으로 어지럽게 삐져나와 있었다. 마차가 채 멈추기도 전에 한 여인이 홀 문을 박차고 나와 마차에 올라탔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를 언뜻 볼 수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남자가 목숨을 바칠 만큼 매혹적인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다.

"존, 세인트 모니카 성당이야!" 그녀가 외쳤다. "20분 안에 도착하면 소버린 반 개를 줄게!"

"이건 놓치기엔 너무나 좋은 기회였네, 왓슨. 내가 이 기회를 잡으러 달려갈지, 아니면 그녀의 란도 승마차 뒤에 몰래 숨어 있을지 고민하던 참이었지. 그때 마침 거리로 마차가 한 대 지나가더군. 마부는 초라한 행색의 손님을 보고 두 번이나 쳐다봤지만, 나는 마부가 거절하기도 전에 얼른 올라탔네. '세인트 모니카 교회로 가주시오.' 내가 말했지. '20분 안에 도착하면 소버린 반 개를 주겠소.' 시계는 11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나 마나 뻔했네."

"마차 기사가 아주 빨리 달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처음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말들이 끄는 마차와 란도 마차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서둘러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가 뒤쫓던 두 사람과, 그들에게 무언가

항의하는 듯한 제복 차림의 성직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제단 앞에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우연히 들른 한가한 사람처럼 옆 통로를 따라 느긋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단에 있던 세 사람이 저를 향해 몸을 돌렸고, 고드프리 노턴이 저를 향해 전력 질주해 달려왔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가 외쳤다. "당신이면 충분해요. 어서, 어서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자, 어서요! 딱 3분이면 됩니다. 안 그러면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쯤 끌려가다시피 제단 앞에 섰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대로 응답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서약하며, 미혼인 아이린 애들러와 미혼인 고드프리 노턴의 결혼을 확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랑이 제게 고마워하고, 다른 쪽에서는 신부가 감사를 표하는 동안, 제 앞에서는 성직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이보다 더 황당한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방금 제가 웃음을 터뜨린 것도 바로 그 생각 때문이었고요. 알고 보니 결혼 허가 절차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증인을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운 좋게 나타난 제가 신랑을 도와준 셈이죠. 신랑이 거리로 뛰쳐나가 들러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게 말

입니다. 신부는 제게 1소버린을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시계 줄에 달아둘 생각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군요." 내가 말했다.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 계획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당장이라도 떠나버릴 기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템플 쪽으로 차를 몰아 떠났고, 여자는 자기 집으로 향했지요. 그녀는 그를 떠나며 '평소처럼 다섯 시에 공원으로 드라이브하러 나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고, 저도 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어떤 것 말입니까?"

"차가운 소고기 요리 조금이랑 맥주 한 잔 주게."

그는 벨을 울리며 대답했다.

"너무 바빠서 음식 생각할 겨를도 없었네. 오늘 저녁엔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 같군. 아, 참, 왓슨 박사. 자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에 거부감은 없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꺼리지 않으시고요?"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 대의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요!"

"그렇다면 제가 당신의 조력자가 되어 드리지요."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터너 부인이 쟁반을 가져오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네. 우선," 홈즈는 하숙집 여주인이 차려준 소박한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며 말을 이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야겠어. 시간이 별로 없거든. 벌써 다섯 시가 다 되었군. 두 시간 뒤에는 사건 현장으로 출발해야 하네. 아이린 양, 아니 마담이라고 불러야겠군. 그녀는 일곱 시에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올 걸세. 그녀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브라이어니 로지에 도착해 있어야 해."

"그래서,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은 내게 맡기게. 이미 어떻게 진행할지 다 짜두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은 반드시 지켜줘야겠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끼어들지 말게. 내 말, 알아듣겠나?"

"제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아마 작은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결국 제가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네다섯 분쯤 지나면 거실 창문이 열릴 겁니다. 당신은 그 열린 창문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십시오."

"네."

"나를 잘 지켜보게. 내가 자네 눈에 보일 테니까."

"네."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당신은 내가 건네주는 물건을 방 안으로 던지세요. 그러는 동시에 불이 났다고 크게 소리치십시오. 제 말, 제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길쭉한 시가 모양의 롤을 꺼내며 말했다.

"평범한 배관공용 연기 신호탄입니다. 양끝에 캡을 달아 놓아서 스스로 불이 붙도록 만들었죠. 당신이 할 일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따라 외칠 겁니다.

소리를 지른 뒤에는 거리 끝까지 걸어가 계십시오. 그럼 제가 10분 뒤에 합류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나는 중립을 지키며 창가로 다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신호가 떨어지면 이 물건을 던져 넣고, 곧바로 불이 났다고 외친 뒤 길모퉁이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좋군요. 이제 슬슬 제가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에 대해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더니 몇 분 후, 상냥하고 순박한 비국교도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넓은 검은 모자에 헐렁한 바지, 하얀 넥타이, 그리고 공감 어린 미소까지. 무언가를 살피는 듯하면서도 자애로운 호기심이 서린 그 모습은 오직 존 헤어 씨만이 흉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홈즈는 단순히 옷차림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가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표정과 태도, 심지어 영혼마저도 변하는 듯 보였다. 그가 범죄 전문 탐정이 되었을 때, 연극계는 뛰어난 배우 한 명을 잃었고 과학계는 명석한 논리학자 한 명을 잃었다.

베이커가를 나설 때는 6시 15분이었으나, 서펜타인 애비뉴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7시가 되려면 10분은 더 남은 시점이었다.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브라이어니 로지의 거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집 앞을 서성이는 사이 가로등에 막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집은 셜록

홈즈의 간결한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동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북적였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거리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한쪽 구석에서는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고, 숫돌을 돌리는 칼 가는 장수와 보모에게 추파를 던지는 근위병 두 명도 보였다. 게다가 입에 시가를 문 채 한가로이 거니는 옷차림 좋은 젊은이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보시다시피," 집 앞을 앞뒤로 서성이던 홈즈가 말했다. "이 결혼이 오히려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네. 이제 그 사진은 양날의 검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뢰인이 공주에게 사진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 역시 고드프리 노턴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네. 이제 문제는 하나뿐이야. 대체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지."

"도대체 어디 말입니까?"

"그녀가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캐비닛 판 크기거든요. 여자의 옷 속에 숨기기에는 너무 큽니다. 게다가 그녀도 국왕이 사람을 보내 자신을 길목에서 가로막고 몸수색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도가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녀가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란 말입니까?"

"은행가나 변호사겠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엔 둘 다 아닐 것 같네. 여자는 본래 비밀을 간직하려는 성향이 있고, 남에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챙기는 걸 좋아하거든. 굳이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나?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는 있어도, 사업가에게 가해질지도 모를 간접적인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력까지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 게다가 그녀는 며칠 내로 그 사진을 쓸 작정이었다는 걸 잊지 말게. 그렇다면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 분명 그녀의 집 안에 있을 걸세."

"하지만 벌써 두 번이나 도둑이 들었습니다."

"흥! 그들은 제대로 볼 줄을 몰랐던 거야."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직접 찾지는 않을 걸세."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직접 보여주게 만들겠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겁니다."

"그녀는 못 할 거다. 하지만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군. 그녀의 마차야. 자, 이제 내 명령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수행하도록."

그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가로수길의 굽이진 길 너머로 마차의 측면 등불이 번뜩이며 나타났다. 세련된 소형 란도 마차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브라이어니 로지의 문 앞까지 다가왔다. 마차가 멈춰 서자, 길모퉁이에서 빈둥거리던 사내 중 하나가 동전 한 푼이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문을 열기 위해 달려 나갔다. 하지만 똑같은 속셈을 품고 달려온 다른 부랑자에게 팔꿈치로 밀려나고 말았다. 곧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근처에 있던 두 명의 근위병이 한쪽 부랑자의 편을 들며 가세했고, 숫돌을 갈던 사내 또한 반대편 편을 들며 싸움에 뛰어들자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다. 주먹이 오가고 난리가 났고, 그 찰나에 마차에서 내린 숙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사내들이 뒤엉켜 주먹과 지팡이를 휘두르는 소란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홈즈는 숙녀를 보호하기 위해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홈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홈즈가 쓰러지자 근위병들은 한쪽 방향으로, 부랑자들은 다른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싸움을 구경만 하던 옷차림이 깔끔한 사람들은 숙녀를 돕고 부상당한 남자를 돌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아이린 애들러—나는 앞으로도 그녀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현관 불빛을 등진 채 우아한 자태로 계단 꼭대기에 서서, 뒤쪽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불쌍한 신사분은 많이 다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가 죽었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니요, 아니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쳤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기도 전에 숨이 넘어갈 겁니다."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한 여인이 말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부인의 지갑과 시계는 이미 털렸을 거예요. 아주 거칠고 흉악한 무리였거든요. 아, 이제야 숨을 쉬네요."

"길바닥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안으로 모셔도 될까요, 부인?"

"물론입니다. 그분을 거실로 모셔 오세요. 편안한 소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는 느릿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브라이어니 로지 안으로 실려 들어왔다. 그리고는 가장 큰 방에 눕혀졌다. 나는 여전히 창가에 자리를 잡은 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등불은 켜져 있었으나 블라인드는 내려가지 않은 상태였다. 덕분에 소파에 누워 있는 홈즈의 모습이 내 눈에 선명히 들어왔다.

그 순간 홈즈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공모하여 속이려 드는 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녀가 다친 남자를 얼마나 품위 있고 친절하게 돌보는지 목격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즈가 내게 맡긴 역할을 지금 와서 그만두는 것은 그를 향한 가장 지독한 배신이 될 터였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울스터 코트 아래에서 연막탄을 꺼냈다. 결국, 우리가 그녀에게 해를 끼

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그저 그녀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었다.

홈즈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공기가 필요한 사람처럼 손짓을 했다. 하녀 한 명이 달려와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와 동시에 홈즈가 손을 들어 올렸고, 나는 그 신호에 맞춰 "불이야!"라고 외치며 신호탄을 방 안으로 던져 넣었다.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사부터 마부, 하녀에 이르기까지 옷차림이 제각각인 구경꾼 무리가 일제히 "불이야!"라고 비명을 질러댔다. 짙은 연기가 방 안을 휘감더니 열린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갔다. 사람들의 형체가 급히 움직이는 모습이 언뜻 보였고, 잠시 후 방 안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번 일이 오보임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나는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헤치고 길모퉁이로 향했다. 10분쯤 지나 소란스러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내 팔을 붙잡아 주는 친구의 온기를 느끼며 안도했다. 홈즈는 에지웨어 로드로 이어지는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 때까지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걸었다.

"아주 훌륭하게 해내셨군요, 박사님." 홈즈가 말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진을 가져왔습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압니다."

"대체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녀가 직접 보여주더군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싶지는 않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사건은 아주 단순했어. 자네도 보았겠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공범이었지. 그들은 모두 그날 저녁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소란이 일어났을 때, 제 손바닥에는 젖은 빨간 페인트가 조금 묻어 있었죠. 저는 앞을 향해 달려들다 넘어지면서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주 가련한 모습이 되었지요.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그 점 또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저를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로서는 저를 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간 곳이 하필 제가 의심하던 바로 그 거실이었습니다. 사진은 그 거실 아니면 그녀의 침실, 둘 중 한 곳에 있을 터였고, 저는 어느 쪽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소파에 눕혔고, 제가 공기를 좀 쐬고 싶다는 몸짓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게 도움이 되긴 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는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며, 저는 이 점을 이용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달링턴 교체 스캔들 때도 도움이 되었고, 아른스워스 성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부녀라면 아이를 붙잡으려 들 것이고, 미혼 여성이라면 보석 상자로 손을 뻗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인에게도 집 안에서 우리가 찾는 물건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키려 달려들 것입니다.

화재 경보는 완벽했습니다. 연기와 고함 소리는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휘청거릴 만큼 충분했죠. 그녀는 아주 보기 좋게 반응했습니다. 사진은 오른쪽 벨 줄 바로 위, 미닫이 패널 뒤쪽 움푹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사진을 반쯤 꺼냈을 때 저는 그것을 언뜻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짓 경보라고 외치자 그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로켓을 한 번 쳐다보고는 방을 뛰쳐나갔는데,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해를 구한 뒤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당장 사진을 확보하려 시도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 마부가 들어와 저를 매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급한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었다.

"우리의 임무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내일 국왕 폐하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갈 겁니다. 원하신다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우

리는 응접실로 안내되어 그 여인을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우리도, 사진도 이미 사라진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그 사진을 되찾으신다면 무척 만족스러워하실 겁니다."

"언제쯤 다시 찾아오시겠습니까?"

"아침 8시로 정하겠네. 그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시간이니 방해받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우리는 서둘러야 하네. 이번 결혼이 그녀의 삶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지체 없이 국왕께 전보를 보내야겠군."

우리는 베이커가에 도착해 집 앞에 멈춰 섰다. 그가 주머니를 뒤지며 열쇠를 찾고 있을 때,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셜록 홈즈 씨."

당시 보도에는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인사는 급히 지나가던 울스터 코트를 입은 날렵한 체구의 청년이 건넨 것처럼 보였다.

"저 목소리,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

홈즈가 어둑한 거리를 응시하며 말했다.

"대체 누구였을지 정말 궁금하군."

그날 밤 나는 베이커가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토스트와 커피를 즐기며 식사를 하던 중 보헤미아 국왕이 방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정말 알아맞히셨군요!"

그는 셜록 홈즈의 양 어깨를 움켜쥐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외쳤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희망은 품고 계신 건가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어서 갑시다. 저도 빨리 떠나고 싶어 못 견디겠으니까요."

"마차를 불러야겠군."

"아니요, 제 브룸(Brougham)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훨씬 단순해지겠군요."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 브라이어니 로지로 다시 향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기혼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결혼이라니요! 언제 말입니까?"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입니까?"

"노턴이라는 이름의 영국 변호사에게 보낸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사랑할 리 없었다."

"그녀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째서 희망을 품는다는 말입니까?"

"폐하께서 앞으로 겪으실 번거로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폐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폐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폐하의 계획을 방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 하아! 그분이 저와 같은 신분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이지 최고의 왕비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다시 침울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우리가 서펜타인 애비뉴에 들어설 때까지 그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브라이오니 로지의 문은 열려 있었고, 계단 위에는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우리가 브룸(brougham) 마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냉소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셜록 홈즈 씨 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제가 홈즈입니다." 내 동행이 대답했다. 그는 의아함과 약간의 놀라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요! 주인님께서 손님이 오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오늘 아침 5시 15분 차링 크로스발 대륙행 열차를 타고 남편분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셜록 홈즈가 당혹감과 놀라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다. "그 여자가 영국을 떠났다는 말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서류들은 어떻게 되었소?" 국왕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야."

"두고 보면 알겠지."

홈즈는 하인을 밀치고 거실로 급히 뛰어 들어갔고, 국왕과 나도 그 뒤를 따랐다. 거실 안은 가구들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선반은 해체되어 있었고 서랍들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마치 여인이 도망치기 직전 서둘러 집안을 뒤진 듯한 모습이었다.

홈즈는 벨 줄로 달려가 작은 슬라이딩 덮개를 거칠게 열더니,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아이린 애들러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셜록 홈즈 귀하, 요청할 때까지 맡아 두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내 친구는 곧장 봉투를 뜯었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편지는 전날 밤 자정에 작성된 것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기 전까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당신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국왕께서 대리인을 고용하신다면, 그건 분명 당신일 것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당신의 주소까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당신은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도록 만들어냈군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후에도, 그토록 다정하고 친절한 노신사 성직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 역시 배우로 훈련받은 몸이잖아요. 남장을 하는 건 제게 그리 낯선 일도 아니고요. 남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종종 이용하곤 하죠. 그래서 마부인 존을 보내 당신을 감시하게 한 뒤, 저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떠날 때쯤 맞춰 아래층으로 내려온 것이랍니다."

"글쎄요, 당신의 집 앞까지 따라가서 확인했답니다. 유명하신 셜록 홈즈 씨가 정말로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건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경솔하게도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남편을 만나러 템플 지구로 향했죠."

"그토록 위협적인 적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 둘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일 찾아오셔도 둥지는 비어 있을 겁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마음 편히 가지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에게도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보헤미아 국왕은 자신에게 잔인한 상처를 입힌 이의

방해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좋습니다. 다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지켜줄 무기로 삼기 위해 사진을 간직할 뿐입니다. 국왕께서 원하신다면 소장할 수 있도록 사진 한 장은 남겨두겠습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에게,"

진심을 담아,

"아이린 노턴, 본명은 애들러."

"정말 대단한 여인이야. 오,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고!"

우리 세 사람이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보헤미아 국왕이 외쳤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녀가 왕비가 되었다면 얼마나 훌륭했을까? 그녀가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은가?"

"제가 그 여인을 지켜본 바로는, 확실히 폐하와는 격이 아주 다른 분인 듯합니다." 홈즈가 냉담하게 말했다. "폐하의 일을 더 성공적인 결말로 이끌어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천만에요, 친애하는 선생님." 국왕이 외쳤다.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진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폐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쁩니다."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 반지를 보십시오." 그는 손가락에서 에메랄드로 된 뱀 모양 반지를 빼더니, 손바닥 위에 올려 내밀었다.

"폐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것 중, 제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이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사진 말일세!"

보헤미아 국왕은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린의 사진 말입니까!" 보헤미아 국왕이 외쳤다. "물론입니다, 원하신다면 드리지요."

"폐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 홈즈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고는 국왕이 내민 손을 뒤로한 채 몸을 돌려, 나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렇게 거대한 스캔들이 보헤미아 왕국을 뒤흔들 뻔했다. 셜록 홈즈의 그 완벽했던 계획도 한 여인의 기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예전의 홈즈라면 여인들의 영리함을 두고 즐겁게 농담을 던지곤 했으나, 근래 들어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그가 아이린 애들러를 언급

하거나 그녀의 사진을 가리킬 때면, 그는 언제나 경의를 담아 '그 여인'이라는 칭호를 붙인다.

빨강머리 연맹

II. 빨강머리 연맹

지난해 가을의 어느 날, 나는 친구 셜록 홈즈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에 얼굴이 아주 붉고 풍채가 좋은 한 노신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홈즈를 발견했다. 불쑥 찾아온 것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려던 찰나, 홈즈가 갑자기 나를 방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내 뒤로 문을 닫아버렸다.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에 와줄 수는 없을 거네, 여보게 왓슨." 홈즈가 다정하게 말했다.

"바쁘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고말고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옆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윌슨 씨, 여기 이 신사는 제가 해결한 수많은 성공적인 사건에서 저의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어 준 사람입니다. 이번 윌슨 씨의 사건에서도 그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신사는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그러면서 살집이 잡힌 작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무언가 묻는 듯한 눈빛을 빠르게 보냈다.

"소파에 앉게나."

홈즈가 다시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말했다. 그는 판단을 내릴 때면 늘 그렇듯 양 손가락 끝을 맞대고 있었다.

"여보게, 왓슨. 자네도 나처럼 기이하고 평범한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난 사건들을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네. 자네가 그동안 내 소소한 모험담들을 기록해 온 열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실례가 안 된다면 덧붙이자면, 자네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꾸며내는 재주도 있더군."

"당신이 맡은 사건들은 정말이지 제게 큰 흥미를 주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며칠 전 메리 서덜랜드 양이 가져온 아주 단순한 사건을 다루기 직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할 겁니다. 기묘한 효과나 비범한 조합을 찾으려면 결국 삶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요. 삶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이 시도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한 법이니까요."

"실례를 무릅쓰고 그 제안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제 의견에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사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테니까요. 결국 박사님의 이성이 그 사실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여, 제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제이베즈 윌슨 씨가 오늘 아침 친히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제가 최근 들어 들은 것 중 가장 기이한 사건이 될 것 같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묘하고 독특한 일들은 대개 거대한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제 범죄가 일어났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 단연 가장 기이합니다.

윌슨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제 친구인 왓슨 박사가 앞부분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워낙 특이해서 당신의 입을 통해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는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단서만 들어도, 기억 속에 저장된 수천 가지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며 스스로 길을 찾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제가 아는 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정말이지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체격이 풍채 좋은 의뢰인은 약간의 자부심이라도 느끼는 듯 가슴을 쫙 폈다. 그러고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때가 타고 구겨진 신문을 한 장 꺼냈다. 그는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채 신문을 무릎 위에 펼쳐 놓고 광고란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신문을 보는 사이 남자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내 동료인 홈즈가 그러하듯, 그의 옷차림과 외양에 나타난 단서들을 읽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내 관찰로 얻은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전형적이고 평범한 영국 상인 그 자체였다. 그는 비대하고 거만했으며 행동은 느릿느릿했다. 헐렁한 회색 양털 체크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앞섶을 풀어헤친 검은색 프록코트는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 칙칙한 색의 조끼에는 묵직한 황동색 앨버트 체인이 걸려 있었는데, 장식용으로 구멍이 뚫린 사각형 금속 조각이 아래로 매달려 있었다. 그의 옆 의자에는 끝이 해진 실크햇과 벨벳 깃이 구겨진 빛바랜 갈색 오버코트가 놓여 있었다. 아무리 훑어보아도 그에게서 특별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타오르는 듯한 붉은 머리칼과, 얼굴에 가득한 극심한 분노와 불만 섞인 표정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셜록 홈즈의 날카로운 눈은 내 직업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내 시선이 질문을 던지듯 향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언젠가 육체노동을 했다는 사실, 코담배를 즐긴다는 점, 프리메이슨 단원이라는 것, 중국에 다녀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글을 꽤 많이 썼다는 점 같은 명백한 사실들 말고는, 더 이상 추론할 수 있는 게 없군."

제이베즈 윌슨 씨는 검지를 종이 위에 얹은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내 동료에게 향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알아내셨습니까, 홈즈 씨?" 그가 물었다. "예를 들어, 제가 육체노동을 했다는 건 또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배 목수 일을 시작했다는 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손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손이 왼쪽보다 훨씬 크군요. 이 손을 많이 써오신 모양입니다. 근육도 그만큼 발달해 있고요."

"자, 그럼 코담배와 프리메이슨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읽어냈는지 설명해서 당신의 지성을 모욕하고 싶지는 않군요. 특히 당신이 소속된 단체의 엄격한 규칙과는 다소 어긋나게도, 컴퍼스와 활 모양의 가슴 장식을 달고 있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소매 끝단 5인치 정도가 유난히 번들거리는 것과, 책상에 팔을 올릴 때 닿는 왼쪽 팔꿈치 근처에 매끄러운 자국이 남은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른쪽 손목 바로 위에 새긴 물고기 문신은 중국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저는 문신 문양을 소소하게 연구해 왔고, 관련 학술 논문에도 기여한 바가 있지요. 물고기 비늘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그 기법은 중

국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게다가 시계 줄에 중국 동전까지 걸려 있는 걸 보니, 이제 모든 의문이 명쾌하게 풀리는군요."

제이베즈 윌슨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아주 기발한 일을 해낸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 별거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군요."

"왓슨, 이제는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실수라는 생각이 드는군." 홈즈가 말했다. "'모르는 것이 위대해 보이는 법(Omne ignotum pro magnifico)'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속속들이 다 밝혀 버리면, 보잘것없는 내 명성마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겠어. 윌슨 씨, 그 광고를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네, 이제 찾았습니다."

그는 굵고 붉은 손가락을 신문 기사 중간쯤에 짚으며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보시지요."

나는 그에게서 종이를 건네받아 다음과 같이 읽어 내려갔다.

"빨강머리 연맹에 알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바논 출신의 고(故) 에제키아 홉킨스의 유산 상속으로 인해, 연맹의 새로운 결원이 발생했다. 해당 직무는 명목상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선발된 회원에게는 주당 4파운드의 급여가 지급된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21세 이상인 빨강머리 남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월요일 오

전 11시에 플리트가 포프 코트 7번지에 위치한 연맹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던컨 로스에게 접수하기 바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 기이한 공고문을 두 번이나 다시 읽어 내려간 나는 나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내뱉었다.

홈즈는 기분이 좋을 때면 늘 그러하듯 의자 위에서 몸을 들썩이며 낄낄 웃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있긴 하군요, 안 그렇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자, 이제 윌슨 씨,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지요.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광고가 당신의 형편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왓슨 박사, 우선 신문 이름과 날짜부터 좀 적어 두게나."

"1890년 4월 27일 자 《모닝 크로니클》 지입니다. 정확히 두 달 전의 일이지요."

"좋습니다. 그럼, 윌슨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셜록 홈즈 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이베즈 윌슨이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시티 근처 코버그 광장에서 작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사업은 아니지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의 수익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수를 두 명이나 두었지만, 지금은 한 명뿐입니다. 그 친구가 일을 배우

고 싶다며 임금의 절반만 받겠다고 해서 겨우 월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친절한 청년의 이름이 무엇인가?" 셜록 홈즈가 물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스폴딩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도 아니고요. 나이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군요. 홈즈 씨, 저는 그보다 더 유능한 조수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처지가 되어 제가 주는 임금의 두 배는 거뜬히 벌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괜한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직원을 두고 계시다니,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고용주가 이런 경험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조수도 그 광고만큼이나 대단한 인물일지 모르겠군요."

"아, 그 친구도 단점이 좀 있지요." 윌슨 씨가 말했다. "사진 찍는 데 아주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지식을 쌓아야 할 시간에 카메라만 들고 찰칵거려대기 일쑤고, 사진을 현상하겠다며 토끼가 굴속으로 숨어들듯 지하실로 쑥 들어가 버리곤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나쁜 버릇도 전혀 없고요."

"아직 같이 계신 모양이군요?"

"네, 손님. 그분과 열네 살 정도 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간단한 요리를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맡고 있지요. 저 말고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홀로 된 몸이라 가족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 세 사람은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며, 머물 집을 유지하고 빚을 갚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 광고였습니다. 정확히 8주 전 오늘, 스폴딩이 이 신문을 손에 들고 사무실로 내려왔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윌슨 씨, 정말이지 하늘에 빌고 싶을 정도군요. 저도 빨강머리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왜요?" 내가 물었다.

"이것 좀 보게." 그가 말했다. "빨강머리 연맹에 또 빈자리가 생겼군. 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꽤 큰 재산을 거머쥐게 될 거야. 내가 듣기로는 일할 사람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서, 수탁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더군. 내 머리카락 색만 바뀔 수 있다면, 바로 저 자리에 뛰어들어 아주 편하게 먹고살 텐데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홈즈 씨, 저는 워낙 집에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도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게 찾아오는 방식이라, 문밖으로 발을 내디딜 일이 몇 주씩 없을 때도 허다했지요. 그러다 보니 바깥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소식을 듣는 걸 반가워했고요."

"'빨강머리 연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으신가요?' 그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그거 참 의외군요. 당신이야말로 그 빈자리에 딱 맞는 적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죠?" 내가 물었다.

"아, 그저 일 년에 몇백 파운드 정도라네. 하지만 일은 아주 간단하고, 다른 본업을 크게 방해하지도 않으니 괜찮아."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건 짐작하시겠지요. 지난 몇 년간 사업이 그리 좋지 않았던 터라, 추가로 몇 백 파운드만 더 생겼더라면 정말 요긴했을 테니까요."

"자세히 말해 보게." 내가 말했다.

"자, 여기 광고를 좀 보게." 그는 광고지를 내보이며 말했다. "직접 보면 알겠지만, 연맹에 빈자리가 하나 있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힌 주소로 문의하면 되고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에제키아 홉킨스라는 미국인 백만장자가 이 연맹을 세웠다네.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지. 본인도 빨강머리였던 데다, 빨강머리 남자들에게 유독 동질감을 느꼈거든.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유산을 신탁 관리인들에게 맡기며 이런 지시를 남겼다더군. 그 막대한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빨강머리 남자들에게 편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보수도 아주 좋고 하는 일도 거의 없다네."

"하지만," 내가 말했다. "빨강머리를 가진 사람은 수백만 명이나 될 테니, 지원하려는 사람이 줄을 잇겠지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이 일은 오로지 런던 시민, 그것도 성인 남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 미국인은 젊었을 때 런던을 떠났다가, 이제 와서 옛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듣기로는 머리카락 색이 연한 빨강이나 어두운 빨강, 혹은 아주 밝고 강렬하게 타오르는 듯한 진한 빨강이 아니라면 지원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윌슨 씨, 만약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작 몇 백 파운드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움직일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자, 신사 여러분도 직접 보시다시피 제 머리카락은 색이 아주 짙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일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빈센트 스폴딩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당장 가게 셔터를 내리고 저와 함께 가자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마침 쉬고 싶어 했던 터라 흔쾌히 응하더군요.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광고에 적혀 있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홈즈 씨, 그런 광경은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머리카락에 붉은 기가 조금이라도 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광고를 보고 런던으로 몰려들었으니까요. 플리트 거리는 빨강

머리 사람들로 가득 찼고, 포프 코트는 마치 과일 장수의 오렌지 수레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그 광고 하나 때문에 전국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여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밀짚색부터 레몬색, 오렌지색, 벽돌색, 아이리시 세터 같은 색, 간색, 진흙색까지 온갖 색깔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폴딩이 말했듯이, 정말로 선명한 불꽃 같은 색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스폴딩은 들은 체도 하지 않더군요. 그가 어떻게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인파를 밀치고 당기고 들이받으며 저를 군중 사이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사무실로 이어지는 계단 앞까지 저를 데려다 놓았지요. 계단에는 희망에 찬 사람들과 낙담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이 양방향으로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갔고, 곧 사무실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셨군요."

의뢰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코를 큼지막하게 들이켜며 기억을 되짚는 사이, 홈즈가 말했다.

"부디 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지요."

사무실 안에는 나무 의자 두 개와 가공되지 않은 판재로 만든 탁자 하나뿐이었다. 그 탁자 뒤에는 체구가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머리색은 내 머리보다 훨씬 더 붉었다. 그는 지원자가 들어올 때마다 몇 마디 말을 건넸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어떤 결점을 찾아내어 탈락시키고야 말았다. 결국 빈자리를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

만 우리 차례가 되자, 그 작은 남자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나를 꽤 호의적으로 대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자 그는 문을 닫았다. 우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려는 듯했다.

"이쪽은 제이베즈 윌슨 씨입니다." 내 조수가 소개했다. "연맹의 빈 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그 일에 아주 적임자라네." 상대방이 대답했다.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거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은 본 기억이 없을 정도야."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고개를 한쪽으로 까딱이며 내 머리카락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도 집요해서 나는 쑥스러워질 정도였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내 손을 꽉 움켜쥐고는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망설이는 건 불공평한 처사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는 건 이해해 주리라 믿네." 말을 마친 그는 양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내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세게 잡아당겼다. "눈에 물기가 있군." 그가 나를 놓아주며 말했다.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으니 됐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가발에 두 번이나 속았고, 페인트에도 한 번 속았으니까. 구두 수선공이 쓰는 왁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자네는 인간 본성에 환멸을 느낄 걸세." 그는 창가로 걸어가더니, 빈자리가 채워졌다고 목청껏 소리쳤다. 그러자 아래쪽에서 실망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졌고, 마침내 관리인과 내 머리칼을 제외하고는 빨강머리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 이름은 던컨 로스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 역시 고귀한 은인이 남겨주신 기금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한 명이지요. 윌슨 씨, 결혼은 하셨습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즉시 생기가 사라졌다.

"이런, 세상에!"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기금은 당연히 빨강 머리들의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번식시키고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미혼이라는 사실이 정말이지 유감스럽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홈즈 씨, 제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맡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결격 사유가 치명적이었겠지만," 홈즈가 말했다. "당신처럼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번만큼은 예외를 두어야겠군요. 새로운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미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좀 곤란하군요." 내가 말했다.

"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윌슨 씨!" 빈센트 스폴딩이 말했다. "그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었다.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홈즈 씨, 전당포 일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급여일 직전인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을 활용해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제게는 아주 잘 맞는 일입니다. 게다가 제 조수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떤 일이 생기든 그가 잘 처리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거 참 좋겠군요." 내가 말했다.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4파운드라네."

"그럼 업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명목상일 뿐입니다."

"'명목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게 말이죠, 업무 시간 내내 사무실에 있거나, 적어도 건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자리를 비우면 그 즉시 자격이 영구히 박탈됩니다. 유언장에도 그 점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사무실을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조건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하루에 고작 네 시간뿐인걸요.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던컨 로스 씨가 말했다. "병치레든, 업무 때문이든, 그 무엇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정받은 자리를 잃게 될 테니까요."

"그럼 업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겁니다. 저기 벽장 안에 첫 번째 권이 들어 있어요. 잉크와 펜, 흡수지는 직접 준비하셔야 하지만, 책상과 의자는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럼 이만 작별 인사를 나누지요, 제이베즈 윌슨 씨. 운 좋게도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나를 배웅했다. 나는 조수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뜻밖의 행운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일에 대해 하루 종일 고민해 보았지만, 저녁이 되자 다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거대한 속임수나 사기임이 틀림없다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누군가 그런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그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단순한 일에 그런 거금을 지불한다는 것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빈센트 스폴딩은 저를 기운 나게 하려고 애썼지만,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이미 모든 일이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찌 됐든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1페니짜리 잉크병과 깃펜, 그리고 풀스캡 종이 일곱 장을 챙겨 들고 포프 코트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모든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탁자에는 내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고, 던컨 로스 씨도 내가 제대로 업무에 착수하는지 지켜봐 주었다. 그는 내게 알파벳 A부터 시작하라고 일러준 뒤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중간중간 들러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오후 두 시가 되자 그는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내가 쓴 글의 양이 꽤 상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내가 나간 뒤 사무실 문을 잠갔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홈즈 씨. 그러다 토요일이 되자 매니저가 들어오더니 제 일주일 치 급료로 금화 소버린 네 개를 툭 내려놓더군요. 그다음 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던컨 로스 씨가 아침에 한 번만 들르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순간도 방을 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조건이 워낙 좋고 제 형편에도 딱 맞아서, 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즉 수도원장과 궁술, 갑옷과 건축, 그리고 아티카에 대해 써 내려갔다. 머지않아 B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지런히 글을 썼다. 그동안 써 내려간 원고가 꽤 많아서, 연습장 한 선반을 거의 다 채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끝나버렸다.

"끝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보다 늦지는 않았고요. 평소처럼 10시에 출근했는데, 문이 닫힌 채 잠겨 있더군요. 문 중앙에는 작은 직사각형 판지 하나가 못에 박힌 채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접 읽어 보시지요."

그는 메모지 한 장 정도 크기의 하얀 판지를 들어 올렸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빨강머리 연맹은 해체되었다. 1890년 10월 9일."

셜록 홈즈와 나는 이 무뚝뚝한 통보와 그 뒤에 숨겨진 비통한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다른 모든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결국 우리 둘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딱히 웃길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칼 끝까지 얼굴이 붉어진 의뢰인이 외쳤다.

"저를 비웃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홈즈가 반쯤 일어서려던 그를 다시 의자에 밀어 앉히며 외쳤다.

"당신의 사건을 놓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주 신선할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 사건에는 어딘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문에 붙은 카드를 발견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근처 사무실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게 없더군요. 결국 1층에 사는 회계사인 건물주를 찾아가서 빨강머리 연맹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단체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컨 로스라는 분이 누구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 이름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4번지에 계신 신사분 말씀입니다." 내가 말했다.

"뭐라고요, 그 빨강머리 남자 말입니까?"

"네."

"아, 그 사람 말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인데, 사무실이 새로 준비될 때까지 제 방을 임시로 쓰고 있었죠.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를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아, 새로 옮긴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주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세인트 폴 성당 근처에 있는 킹 에드워드 가 17번지입니다."

"홈즈 씨, 저도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만, 그 주소에 도착해 보니 인공 무릎뼈를 만드는 공장이더군요. 그곳 사람들은 윌리엄 모리스 씨나 던컨 로스 씨라는 이름은커녕,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삭스 코버그 광장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조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더군요. 그저 기다리면 우편으로 소식이 올 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이렇게 허무하게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조언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장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의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군요. 기꺼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언뜻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심각합니다!" 제이베즈 윌슨 씨가 말했다. "일주일에 4파운드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당신 개인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홈즈가 말했다. "이 기묘한 연맹 때문에 손해를 본 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A'로 시작하는 온갖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돈도 30파운드 정도 더 벌지 않았습니까? 이 연맹 때문에 잃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에게 이런 장난을 친 목적이 무엇인지 꼭 알아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장난이었다면 말이죠. 그들에게는 꽤나 값비싼 농담이었을 겁니다. 무려 32파운드나 들었으니까요."

"그 점들은 저희가 명확히 밝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윌슨 씨,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죠. 광고를 처음 발견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는 그 조수는 당신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럼 한 달 정도 되겠군요."

"그가 어떻게 왔습니까?"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지원자는 그 사람뿐이었습니까?"

"아니요, 열두 개나 있었습니다."

"왜 그를 선택했습니까?"

"손재주가 있는 데다 몸값도 저렴할 테니까요."

"사실상 급여를 절반만 받는 셈이었죠."

"네."

"그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체구는 작고 단단한 데다 몸놀림이 아주 빠릅니다. 서른은 족히 넘었을 텐데 얼굴에 털이 하나도 없고요. 이마에는 산성 물질이 튄 듯한 하얀 자국이 있습니다."

홈즈가 꽤 흥분한 기색으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내 이럴 줄 알았네." 홈즈가 말했다. "그 사람 귀에 귀걸이를 하려고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걸 본 적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자 말로는 어렸을 적에 집시 한 명이 뚫어줬다고 하더군요."

"흠!" 홈즈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몸을 뒤로 젖혔다. "그자가 아직 당신과 함께 있단 말입니까?"

"아, 네, 선생님. 방금 그분을 뵙고 나오는 길입니다."

"부재중일 때 사업체는 어떻게 관리되었습니까?"

"불만스러울 건 없습니다, 선생님. 아침에는 딱히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윌슨 씨. 하루 이틀 내로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기꺼이 말씀드리죠. 오늘은 토요일이니, 월요일쯤이면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왓슨." 의뢰인이 떠나고 나서 홈즈가 입을 열었다. "방금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이지 미스터리한 사건이군요."

"보통은 말이야," 홈즈가 말했다. "기이한 사건일수록 오히려 미스터리는 풀기 쉬운 법이지. 정말로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자네가 말한 그 흔해 빠지고 특징 없는 범죄들이야. 평범한 얼굴이 누구인지 식별하기 가장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지. 하지만 이번 건은 서둘러 움직여야겠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물었다.

"담배를 피우려는 걸세." 홈즈가 대답했다. "파이프 세 개는 비워야 할 문제라네. 그러니 50분 동안은 나에게 말을 걸지 말아주게." 그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매처럼 날카로운 코끝까지 가느다란 무릎을 끌어올린 채였다. 그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검은 점토 파이프가 마치 기이한 새의 부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나도 그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 역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할 무

렵이었다. 그때 홈즈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치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단호한 몸짓이었다. 그는 파이프를 벽난로 선반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 오후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사라사테의 연주회가 있네." 홈즈가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자네 환자들이 몇 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가?"

"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네. 내 진료는 그리 바쁘지도 않고 말이야."

"그럼 모자 챙겨 쓰고 어서 나오게. 우선 시내 쪽을 좀 둘러본 다음, 가는 길에 점심이라도 먹으러 가세. 공연 프로그램에 독일 음악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더군. 이탈리아나 프랑스 음악보다는 독일 음악이 내 취향에 더 맞네. 독일 음악은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맛이 있지. 나도 지금은 그런 사색이 필요하거든. 어서 오게!"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올더스게이트까지 이동한 뒤, 조금 걸어서 색스 코부르크 광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우리가 오전 내내 들었던 기이한 사건의 현장이었다. 광장은 좁고 초라하며, 겉치레만 번듯한 동네였다. 낡은 2층 벽돌집 네 줄이 작은 울타리 안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잡초가 무성한 잔디밭과 빛바랜 월계수 덤불 몇 뭉치가 매연 가득한 척박한 공기에 맞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었다. 모퉁이에 있는 집에는 금색 공 세 개와 '제이베즈 윌슨'이라고 흰 글씨로 적힌 갈색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빨강머리 의뢰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셜록 홈즈는 그 집 앞에 멈춰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건물을 훑어보았다. 주름진 눈꺼풀 사이로 그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

났다. 그러더니 그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가 다시 모퉁이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집들을 예리한 시선으로 살폈다. 마침내 그는 다시 전당포로 돌아왔다. 홈즈는 지팡이로 보도를 두세 번 힘차게 내리친 뒤, 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다. 그러자 곧바로 인상이 밝고 깔끔하게 면도한 젊은 남자가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고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저 여기서 스트랜드까지 어떻게 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에서 우회전한 뒤, 네 번째에서 좌회전하세요." 조수가 문을 닫으며 즉시 대답했다.

"참 영리한 친구야." 우리가 멀어지며 걸을 때 홈즈가 말했다. "내 판단으로는 런던에서 네 번째로 똑똑한 사람이지. 그 대담함까지 고려한다면 세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예전에 그에 대해 좀 알아둔 적이 있거든."

"분명하군요." 내가 말했다. "빨강머리 연맹의 이 수수께끼에서 윌슨 씨의 조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봅니다. 당신이 길을 물어본 것도 순전히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게 틀림없고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지 무릎 부분이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군."

"왜 그렇게 길바닥을 헤매고 다닌 건가?"

"여보게, 왓슨 박사.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관찰을 해야 할 때라네. 우리는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야. 색스 코부르크 광장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이제 그 뒤편에 숨겨진 구역들을 조사해 보세나."

색스 코부르크 광장의 한적한 골목을 돌아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길은 방금 지나온 광장과는 마치 그림의 앞면과 뒷면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곳은 시티의 교통량이 북쪽과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였다. 도로에는 안팎으로 밀려드는 거대한 상업의 물결이 쉼 없이 몰려들었고, 보도에는 바삐 움직이는 보행자 무리가 검게 뒤덮인 듯 빽빽했다. 늘어선 화려한 상점들과 웅장한 사무용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번화한 거리의 바로 뒷면이 우리가 방금 떠나온 퇴락하고 정체된 광장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어디 보자."

길모퉁이에 서서 줄지어 늘어선 건물들을 훑어보며 홈즈가 말했다.

"이곳 집들이 어떤 순서로 있는지 기억해 두고 싶군. 런던의 지리에 정통한 것은 내 취미거든. 저기 모티머네 집이 있고, 담배 가게와 작은

신문 가판대, 시티 앤 서버번 은행의 코부르크 지점, 채식 식당, 그리고 맥팔레인의 마차 제작소가 있군. 여기까지 보면 바로 다음 블록으로 이어지지. 자, 왓슨 박사, 이제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좀 즐겨야겠어. 샌드위치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바이올린의 세계로 떠나자고. 그곳은 온통 달콤하고 섬세한 화음뿐이라네. 우리를 골치 아픈 수수께끼로 괴롭히는 빨강머리 의뢰인 따위는 없으니까 말이야."

내 친구는 열정적인 음악가였다. 그는 뛰어난 연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평범함을 훨씬 뛰어넘는 재능을 가진 작곡가이기도 했다. 오후 내내 그는 공연장 좌석에 앉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젖어 있었다. 음악의 박자에 맞춰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부드럽게 흔드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수사관 셜록 홈즈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냉철하고 명석하며 손이 빠른 범죄 해결사로서의 홈즈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

그의 독특한 성격 속에서는 이 두 가지 면모가 번갈아 나타나곤 했다. 나는 그가 가끔 보여주는 시적이고 명상적인 기질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소의 극도로 정확하고 영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의 성격은 극도의 나른함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급격히 요동쳤다. 내가 잘 알고 있듯, 홈즈가 가장 무서운 존재로 변할 때는 오히려 며칠 동안 안락의자에 기대어 즉흥 연주를 하거나 고서들을 뒤적이며 빈둥거릴 때였다.

그렇게 한참을 늘어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냥에 대한 갈망이 그를 덮쳤다. 그러면 그의 찬란한 추리력은 직관의 경지에 이르렀

다. 그의 수사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범상치 않은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날 오후,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음악에 깊이 빠져 있는 그를 보며 나는 직감했다. 그가 사냥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곧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을.

"집에 가고 싶으시겠지요, 박사님."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그가 말했다.

"네, 그러는 편이 좋겠군요."

"그리고 몇 시간은 더 걸릴 법한 일이 좀 있습니다. 색스 코부르크 광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꽤 심각하거든요."

"왜 그리 심각한가?"

"중대한 범죄가 계획되고 있네. 우리가 제때 움직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네. 하지만 오늘이 토요일이라 상황이 좀 복잡해졌군. 오늘 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몇 시에 말입니까?"

"열 시면 충분하겠군."

"10시에 베이커가로 가겠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박사님, 약간의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군용 리볼버는 주머니에 넣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는 손을 한 번 휘두르고는 발길을 돌려,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이웃들보다 유독 둔한 사람은 아닐 테지만, 셜록 홈즈를 상대할 때면 늘 스스로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홈즈가 들은 것을 나도 들었고, 그가 본 것을 나도 보았다. 하지만 홈즈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가 단순히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반면 나에게 이 모든 사건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기괴할 뿐이었다.

켄싱턴에 있는 집으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방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백과사전 필사자라는 빨강머리 사내의 기이한 이야기부터 색스 코부르 광장 방문, 그리고 홈즈가 나를 떠나며 남긴 불길한 말들까지 모두 떠올렸다. 대체 그 밤의 탐색은 무엇이며, 왜 내가 무기까지 챙겨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홈즈는 그 매끈한 얼굴을 한 전당포 조수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며, 아주 치밀한 수를 둘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었다. 나는 어떻게든 사건을 이해해 보려 애썼지만, 결국 절망하며 생각을 멈췄다. 밤이 찾아와 해답을 가져다줄 때까지 이 문제는 일단 미뤄두기로 했다.

집을 나서 공원을 가로질러 옥스퍼드 거리를 지나 베이커가로 향했을 때는 9시 15분이었다. 집 앞에는 한섬 두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위층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홈즈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홈즈는 두 남성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은 경찰 수사관인 피터 존스라는 것을 알아봤지만, 다른 한 명은 낯선 이였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슬픈 표정을 지은 남자였다. 아주 번

쩍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지나칠 정도로 격식을 차린 프록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 이제 우리 일행이 다 모였군." 홈즈가 피코트의 단추를 채우며 벽걸이에서 묵직한 사냥용 채찍을 집어 들고 말했다. "왓슨, 자네 스코틀랜드 야드의 존스 씨를 알고 있지? 오늘 밤 모험을 함께할 메리웨더 씨를 소개하겠네."

"박사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다시 2인 1조로 수색 중입니다." 존스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추격전을 시작하는 데 아주 탁월한 인물이죠. 그저 뒤쫓는 일을 도와줄 노련한 사냥개 한 마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추격이 허탕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메리웨더 씨가 침울하게 말했다.

"홈즈 씨를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경찰 요원이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그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드리자면, 조금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공상적이라는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탐정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숄토 살인 사건이나 아그라 보물 사건 때처럼, 한두 번은 공식 수사팀보다 홈즈가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스 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믿어야지요." 낯선 이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러버 게임 한 판을 못 하게 되니 영 아

쉽군요. 지난 27년 동안 토요일 밤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러버를 즐겨 왔는데, 이렇게 못 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판돈이 커질 것이고, 경기도 훨씬 흥미진진할 겁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메리웨더 씨, 당신이 걸게 될 판돈은 3만 파운드 정도가 되겠군요. 그리고 존스 씨, 당신이 걸게 될 판돈은 당신이 반드시 붙잡고 싶어 하는 바로 그놈이 될 겁니다."

"살인범이자 도둑이고, 위조지폐를 유통시키는 자에 문서 위조범까지, 바로 존 클레이입니다. 메리웨더 씨, 그는 젊은 친구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지요. 런던의 그 어떤 범죄자보다 차라리 그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편이 제 적성에 맞을 정도입니다. 젊은 존 클레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내입니다. 할아버지는 왕족 공작이었고, 본인도 이튼과 옥스퍼드를 나온 엘리트지요. 머리 회전이 손기술만큼이나 교묘해서, 가는 곳마다 그가 남긴 흔적을 마주치곤 하지만 정작 그놈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느 주에는 스코틀랜드에서 금고를 털다가도, 그다음 주에는 콘월에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돈을 모으고 있을 놈이니까요. 저는 수년 동안 그를 쫓아왔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그놈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그에게 소개해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존 클레이라는 자와 한두 번 가볍게 겨뤄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서 있다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벌써 열 시가 넘었으니 이제 출발해야겠군요. 두 분이 첫 번째 한섬 택시를 타시면, 왓슨과 나는 두 번째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겠습니다."

긴 이동 시간 동안 셜록 홈즈는 좀처럼 말을 아꼈다. 그는 마차 좌석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오후에 들었던 선율을 나지막이 흥얼거릴 뿐이었다. 가스등이 켜진 거리들이 끝도 없이 미로처럼 이어졌고, 마차는 그 사이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렸다. 마침내 우리는 패링턴가에 다다랐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친구가 말했다. "메리웨더라는 자는 은행 이사라 이 사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래서 존스도 함께 부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 친구가 자기 직업에서는 완전히 멍청하긴 해도,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 딱 하나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불독처럼 용감하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바닷가재처럼 끈질기다는 점이야. 자, 다 왔군.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아침에 마주쳤던 그 북적이는 대로에 다시 도착했다. 마차를 보낸 뒤, 메리웨더 씨의 안내를 따라 좁은 통로로 들어섰다. 그는 우리를 위해 옆문을 열어주었다. 문 안쪽에는 작은 복도가 이어졌고, 그 끝에는 아주 육중한 철문이 놓여 있었다. 그 문 역시 열리자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돌계단이 나타났으며, 계단 끝에는 또 다른 거대한 문이 버티고 있었다. 메리웨더 씨는 잠시 멈춰 등불을 켰다. 그러고는 흙내음이 풍기는 어두운 통로를 따라 우리를 이끌었다. 세 번째 문까지 열고 들어가자, 사방에 상자와 거대한 나무 궤짝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대한 지하 저장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위쪽은 별로 취약하지 않군." 홈즈가 랜턴을 들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아래쪽도 아닙니다." 메리웨더 씨가 바닥에 깔린 돌판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말했다. "세상에, 소리가 꽤 텅 비어 있군요!" 그는 놀란 기색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덧붙였다.

"제발 좀 조용히 해주게!" 홈즈가 엄하게 말했다. "자네 때문에 이번 조사가 완전히 망가질 뻔했네. 부디 저 상자 중 하나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 주겠나? 괜히 참견하지 말고 말이야."

엄숙한 표정의 메리웨더 씨는 몹시 상심한 기색으로 나무 상자 위에 걸터앉았다. 그사이 홈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랜턴과 확대경을 들고 돌 사이의 틈새를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홈즈는 만족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확대경을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한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네." 홈즈가 말했다. "그 선량한 전당포 주인 노인이 무사히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범인들이 움직이기 어려울 테니까. 하지만 일단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들은 단 일 분도 지체하지 않을 걸세. 일을 빨리 끝낼수록 도망칠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왓슨 박사,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런던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시티 지점의 지하 창고에 있네. 이사회의 의장인 메리웨더 씨가 왜 런던의 대담한 범죄자들이 지금 이 지하 창고에 그토록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 줄 걸세."

"우리 프랑스 금괴 때문이라네."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 금괴를 노리고 접근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벌써 여러 번 받았거든."

"그 프랑스 금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달 전 자금을 확충해야 할 일이 생겨, 그 목적으로 프랑스 은행에서 3만 나폴레옹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한 번도 꺼내 본 적이 없으며, 여전히 지하 저장고에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상자 안에는 납박을 겹겹이 쌓아 포장한 2,000나폴레옹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점이 보유한 금괴 비축량은 일반적인 지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라, 이사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지요." 홈즈가 말했다. "자, 이제 우리의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한 시간 안에는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웨더 씨, 그동안 저 검은 등불에는 가림막을 씌워 두어야겠습니다."

"그럼 어둠 속에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상황이 그렇게 됐군. 주머니에 카드 한 벌을 챙겨왔었네. 우리가 네 명이라서 결국엔 루비(rubber) 게임이라도 한 판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적들의 준비가 너무 철저해서, 불빛을 비추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겠어. 우선 우리가 위치부터 잡아야 하네. 상대는 대담한 자들이야.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더라도, 주의를 기울

이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어. 나는 이 상자 뒤에 서겠네. 자네들은 저 상자들 뒤로 몸을 숨기게. 그러다 내가 불빛을 확 비추면, 즉시 좁혀 들어가는 거야. 왓슨, 만약 적들이 총을 쏜다면 주저하지 말고 쏴 죽이게."

나는 몸을 숨기고 있는 나무 상자 뒤에서, 공이치기를 당긴 리볼버를 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홈즈는 랜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슬라이드를 밀어 닫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쳤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어둠이었다. 뜨거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랜턴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언제든 다시 빛을 내뿜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신경이 극도로 곤두서 있던 내게, 갑작스레 찾아온 어둠과 지하 저장고의 차갑고 축축한 공기는 왠지 모를 우울함과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놈들이 도망칠 곳은 단 한 군데뿐이네." 홈즈가 낮게 속삭였다. "집을 가로질러 색스 코부르 광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지. 존스, 내가 부탁한 일은 제대로 해두었겠지?"

"현관문 앞에 경위 한 명과 형사 두 명이 기다리고 있네."

"그럼 구멍은 전부 막은 셈이군. 이제는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

정말이지 기묘한 시간이었다! 나중에 내용을 대조해 보니 겨우 한 시간 남짓 흐른 시간이었지만, 내게는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몸은 굳고 뻣뻣했다. 자세를 조금

이라도 바꾸면 근육이 비명을 지를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은 극도로 곤두서 있었다. 청각 또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서, 동료들의 부드러운 숨소리는 물론이고 덩치 큰 존스의 깊고 무거운 들숨과 은행 이사의 가늘고 한숨 섞인 숨소리까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바닥 쪽을 향해 사건 현장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 빛이 번뜩이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돌바닥 위로 번뜩이는 섬뜩한 불꽃 하나가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더니 그 불꽃은 길게 늘어나 노란 선이 되었다. 그러다 아무런 예고도 소리도 없이, 마치 바닥이 쩍 갈라진 듯 구멍이 생기더니 손 하나가 쑥 나타났다. 희고 거의 여인처럼 가냘픈 손이었다. 그 손은 빛이 비치는 좁은 공간의 중앙을 더듬기 시작했다. 손가락을 꿈틀거리며 바닥 밖으로 삐져나온 그 손은 1분 넘게 머물렀다. 그러다 손은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다시 안으로 사라졌다. 돌 사이의 틈새를 비추는 섬뜩한 불꽃 하나를 제외하면, 주변은 다시 온통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넓고 하얀 돌 하나가 옆으로 뒤집히며 사각형의 커다란 구멍이 생겨났다. 그 구멍 사이로 랜턴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구멍 너머로 소년의 매끈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소년은 주위를 날카롭게 살피더니, 구멍 양옆을 손으로 짚고 어깨와 허리 높이까지 몸을 끌어올렸다. 이윽고 소년의 한쪽 무릎이 구멍 가장자리에 걸쳐졌다. 다음 순간, 소년은 구멍 옆에 완전히 일어선 채 동료를 끌어올리고 있

었다. 그 동료 역시 소년처럼 작고 날렵한 체구였는데, 창백한 얼굴에 아주 붉은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다.

"모두 확인했어." 그가 낮게 속삭였다. "끌이랑 가방은 챙겼나? 세상에! 뛰어, 아치, 어서 뛰어! 잡히면 내가 교수형이라도 받으마!"

셜록 홈즈는 쏜살같이 달려 나가 침입자의 덜미를 낚아챘다. 다른 한 명은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고, 존스가 그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쓰는 바람에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빛이 번쩍하며 권총의 총신이 드러났으나, 홈즈가 휘두른 승마용 채찍이 남자의 손목을 내리쳤다. 권총은 돌바닥 위로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다.

"소용없네, 존 클레이." 홈즈가 무심하게 말했다. "자네에게 승산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군." 상대방이 지극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친구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네. 자네가 그 친구의 옷자락을 붙잡긴 한 모양이지만 말이야."

"문 앞에 세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네." 홈즈가 말했다.

"오, 정말 그렇군요! 아주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 빨강머리 아이디어는 아주 참신하고 효과적이었거든요."

"곧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걸세." 존스가 말했다. "그 친구는 나보다 구멍을 타고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내가 수갑을 채우는 동안 잠시만 가만히 있게."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시오!"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며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자, 포로가 쏘아붙였다. "내 혈관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군. 예의를 갖추고 싶다면 나를 부를 때 항상 '경'이라 칭하고, 말끝마다 '부탁하오'를 붙이도록 하시오."

"좋습니다." 존스 경위가 눈을 부릅뜨며 낄낄거렸다. "자, 그럼 위층으로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나리? 전하를 경찰서까지 모셔다드릴 마차를 구해야 하니까요."

"그게 훨씬 낫군요." 존 클레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 세 사람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형사의 감시를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정말이지, 홈즈 씨."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우리를 따라오며 메리웨더 씨가 말했다. "은행 측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토록 치밀하고 단호한 은행 강도 시도는 본 적이 없는데, 홈즈 씨께서 이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막아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존 클레이 씨와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 있었지요." 홈즈가 말했다. "이번 일에 비용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은행 측에서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모로 독특한 경험을 한 데다, 빨강 머리 연맹에 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니까요."

"자네도 알다시피, 왓슨."

이른 새벽, 베이커가에서 위스키 소다를 한 잔씩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 홈즈가 설명했다.

"그 연맹의 광고를 내고 백과사전을 필사하게 만든 이 기묘한 사건은, 처음부터 목적이 아주 명백했네. 그다지 영리하지 못한 이 전당포 주인을 매일 몇 시간 동안 자리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지. 참으로 기발한 수법이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찾기 힘들었을 거야. 공범의 머리카락 색을 보고 클레이의 영리한 머릿속에서 이 계획이 나왔음이 틀림없네. 주당 4파운드라는 액수는 그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미끼였고, 수천 파운드를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그 정도 돈이 대수겠나? 그들은 광고를 냈고, 한 악당은 임시 사무실을 맡고, 다른 악당은 그 남자가 거기에 지원하도록 부추긴 거지. 그렇게 둘이 짜고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그를 자리에 없게 만든 걸세. 조수가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나는 그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네."

"하지만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집 안에 여자가 있었다면 그저 흔한 치정극이라고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사업 규모는 작았고,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그토록 치밀한 준비를 하거나 막대한 비용

을 들여야 할 만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원인은 반드시 집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체 무엇일까?

나는 조수가 사진 촬영을 즐긴다는 점과, 지하실로 홀연히 사라지곤 했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실! 엉킨 실타래를 풀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정체불명의 조수에 대해 조사했고, 그가 런던에서 가장 냉혹하고 대담한 범죄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말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건물로 이어지는 터널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팡이로 보도를 두드려 당신을 놀라게 했었죠? 그건 지하실이 건물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확인 결과, 지하실은 앞쪽이 아니더군요. 그다음 벨을 눌렀고, 제 바람대로 조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충돌은 있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그의 무릎이었으니까요. 그 무릎이 얼마나 해지고, 주름졌으며, 얼룩져 있었는지 당신도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 무릎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파헤치며 고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그가 무엇을 찾으려고 땅을 팠느냐는 것이었죠. 모퉁이를 돌아가 보니 시티 앤 서버번 은행이 우리 친

구의 건물과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순간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당신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스코틀랜드 야드와 은행 이사회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당신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오늘 밤 시도를 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물었다.

"연맹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건, 그들이 더 이상 제이베즈 윌슨 씨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터널 공사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터널이 들통나거나 금괴를 빼돌릴 기회를 놓치기 전에, 그들은 서둘러 터널을 이용해야만 했을 겁니다. 도망칠 시간을 이틀이나 벌 수 있는 토요일이 그들에게는 다른 어느 날보다 적기였겠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그들이 오늘 밤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추리였네." 나는 진심 어린 감탄을 담아 외쳤다. "사슬이 아주 길었음에도, 그 마디 하나하나가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군."

"그 덕분에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홈즈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아아, 벌써부터 지루함이 나를 짓누르는 게 느껴지는군. 내 삶은 일상의 평범함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끝없는 분투라네.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되지."

"당신은 인류의 은인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결국 아주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가 말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조르주 상드에게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품은 모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신원 미상의 사건

III. 신원 미상의 사건

"여보게," 베이커가에 있는 홈즈의 숙소에서 우리가 벽난로 양옆에 앉아 있을 때 셜록 홈즈가 말했다. "삶이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법이라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지. 만약 우리가 손을 맞잡고 저 창밖으로 날아올라 이 거대한 도시 위를 떠다닐 수 있다면 어떨까? 지붕들을 살짝 들어 올려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엿볼 수 있다면 말이야. 기묘한 우연들, 치밀한 계획들, 엇갈린 목적들, 그리고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가장 기상천외한 결과로 치닫는 경이로운 사건의 연쇄들 말일세. 그런 것들을 직접 본다면, 관습에 얽매여 결말이 뻔히 보이는 그 어떤 허구의 소설도 따분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걸세."

"하지만 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신문에 실리는 사건들은 대개 너무나 단조롭고 저속하기 마련이니까요. 경찰 보

고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극도로 사실적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혀 흥미롭지도, 예술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적인 효과를 내려면 적절히 골라내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네." 홈즈가 말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마도 치안판사의 진부한 말들을 더 강조한 모양이야. 하지만 관찰자에게는 그 세부 사항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법이지. 믿어도 좋네, 일상적인 평범함만큼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으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말했다. "세 대륙에 걸쳐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조언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하시니, 온갖 기이하고 별난 일들을 접할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여기"—나는 바닥에 떨어진 아침 신문을 집어 들었다—"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고른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이렇군요. '아내에게 잔인하게 구는 남편.' 기사가 반 칼럼 정도 이어지는데, 읽어보지 않아도 내용은 뻔할 겁니다. 분명 다른 여자가 끼어 있거나, 술 문제 때문이거나, 밀치고 때리고 멍이 들었다는 식의 이야기겠지요. 곁에서 안타까워하는 여동생이나 여주인이 등장하겠고요. 아무리 서툰 작가라도 이보다 더 진부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이지, 당신이 든 예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아주 부적절하군요."

홈즈가 종이를 건네받아 훑어보며 말했다.

"이건 던다스 이혼 사건이군요. 마침 저도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소한 점들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금주가였고, 내연녀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은 그게 전부였죠. 식사를 마칠 때마다 틀니를 빼서 아내에게 집어 던지는 버릇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꾼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 당신도 인정하시겠지요? 자, 왓슨 박사, 코담배나 한 쌈 하시고 당신의 예시에서 제가 한 수 앞섰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그는 뚜껑 중앙에 커다란 자수정이 박힌 오래된 황금제 코담배 통을 내밀었다. 그 화려함이 그의 소박한 생활 방식이나 평범한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해 한마디를 건네고 말았다.

"아," 그가 말했다. "몇 주 동안이나 당신을 못 봤다는 사실을 깜빡했군요. 이건 보헤미아 국왕이 보내온 작은 기념품입니다. 아이린 애들러의 서류 사건을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지요."

"그 반지는요?" 나는 그의 손가락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반지를 힐끗 보며 물었다.

"네덜란드 왕실에서 온 의뢰였네. 하지만 내가 맡았던 일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내 사건들을 한두 번 기록해 준 자네에게조차 차마 말할 수가 없군."

"지금 당장 맡겨진 사건은 없습니까?" 내가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열에서 열두 건 정도 됩니다만, 딱히 흥미를 끌 만한 사건은 없군요. 이해하시겠지만, 중요하기는 해도 흥미롭지는 않은 사건들 말입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사소한 문제야말로 관찰의 여지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빠르게 분석하며 수사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바로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지요. 대형 범죄는 오히려 단순한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가 커질수록 동기가 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마르세유에서 의뢰된 꽤 복잡한 사건 하나를 제외하면, 지금은 딱히 흥미로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오고 있는 분이 제 의뢰인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가 완전히 착각한 것이겠지만요."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나 벌어진 블라인드 사이로 무채색의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길 건너편 인도에 한 거구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목에 두툼한 모피 보아를 두르고 있었고, 넓은 챙이 달린 모자에는 커다란 붉은색 깃털 장식이 꽂혀 있었다. 모자는 마치 유혹하는 듯한 데번셔 공작부인 스타일로 그녀의 귀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여인은 그 화려한 차림새 뒤로 몸을 숨긴 채, 초조하고 망설이는 기색으로 우리 창문을 훔쳐보았다. 몸을 앞뒤로 흔들며 장갑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손길도 분주했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강둑을 박차고 나가는 수영객처럼 그녀는 도로를 가로질러 급히 달려왔다. 곧이어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전에도 본 적 있는 증상입니다."

홈즈가 피우던 담배를 화로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보도를 서성거리며 망설이는 건 언제나 연애 문제의 징후죠.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면서도, 혹시라도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끊어진 종 벨선 같은 게 나타나기 마련이죠. 지금 상황을 보니 사랑 문제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그 처녀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혹스러워하거나 슬퍼하는 상태인 것 같군요. 그런데 마침 의뢰인이 직접 찾아와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해주려나 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단추를 채운 제복을 입은 소년이 들어와 메리 서덜랜드 양이 왔음을 알렸다. 소년의 작은 검은 실루엣 뒤로 나타난 여인의 모습은, 마치 작은 도선선 뒤로 돛을 가득 펼친 거대한 상선이 나타나는 듯했다. 셜록 홈즈는 특유의 여유로운 예의를 갖추어 그녀를 맞이했다. 문을 닫고 그녀를 안락의자에 앉도록 안내한 홈즈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아주 세밀하면서도 마치 딴생각에 잠긴 듯한 눈길이었다.

"시력이 좋지 않으신데," 그가 말했다. "그렇게 계속 타자기를 치는 게 조금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편지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 갑자기 홈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듯,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

었다. 너그럽고 인자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다. "홈즈 씨,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군요!" 그녀가 외쳤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모든 걸 아실 수 있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제 일이니까요. 아마도 남들이 놓치는 것을 포착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 온 모양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왜 저를 찾아와 상담하겠습니까?"

"홈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건 이더리지 부인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고 포기했던 남편분을 선생님께서 손쉽게 찾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오, 홈즈 선생님, 제게도 그만큼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기계를 돌려 버는 푼돈 외에도 제 명의로 된 연간 100파운드의 수입이 있습니다. 호스머 엔젤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만 있다면, 그 돈을 전부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셜록 홈즈가 물었다. 그는 손가락 끝을 맞대고 천장을 응시하며 말했다.

메리 서덜랜드 양의 다소 멍한 얼굴에 다시금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네,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윈드뱅크 씨,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 태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걸 보고

화가 치밀었거든요. 아버지는 경찰에 갈 생각도 없으셨고, 당신을 찾아갈 생각도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아무 일도 아니라고만 하시니, 결국 참다못해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서 짐을 챙겨 곧장 당신에게로 달려온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말씀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아니, 성이 다른 걸 보니 의붓아버지겠군요."

"네, 새아버지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와 겨우 다섯 살 하고도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아, 네, 어머니는 잘 계세요. 하지만 홈즈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어머니가 재혼하셨을 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새로 오신 분은 어머니보다 무려 열다섯 살이나 어린 남자였거든요. 아버지는 토트넘 코트 로드에서 배관공을 하셨는데, 꽤 번듯한 사업체를 남겨주셨죠. 어머니는 현장 책임자인 하디 씨와 함께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셨고요. 하지만 윈드뱅크 씨가 나타나면서 어머니는 사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와인 상인이라며 아주 잘난 체를 했거든요. 권리금과 이자를 합쳐 4,700파운드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였습니다."

이런 두서없고 사소한 이야기가 이어지면 셜록 홈즈가 지루해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홈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당신이 따로 챙기는 적은 수입 말입니다." 그가 물었다. "그것도 사업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완전히 별개의 건이에요. 오클랜드에 계신 네드 삼촌께서 제게 남겨주신 겁니다. 뉴질랜드 국채인데, 이율은 4.5퍼센트예요. 원금은 2,500파운드였지만, 저는 이자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일 년에 100파운드라는 거금을 받으시는 데다 수입까지 더해지니, 분명 여행도 다니고 온갖 즐거움도 누리며 지내시겠지요. 제 생각에 독신 여성이라면 60파운드 정도의 수입만 있어도 아주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홈즈 씨, 사실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집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무는 동안에는 그 돈을 부모님이 쓰시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잠시뿐인 일이죠. 윈드뱅크 씨가 분기마다 제 이자를 인출해서 어머니께 전달해 주시는데, 저는 타자 일을 해서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당 2펜스를 받는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 정도는 거뜬히 칠 수 있거든요."

"당신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쪽은 내 친구인 왓슨 박사입니다. 나에게 말하듯 박사에게도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호스머 엔젤 씨와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서덜랜드 양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초조한 듯 재킷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가스 설비업자들의 무도회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쪽에서 아버지께 초대권을 보내주곤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고 어머니께 초대권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윈드뱅크 씨는 우리가 가길 원치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어디든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잔치에라도 가고 싶다고 하면 그는 아주 화를 내곤 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가 무슨 권리로 저를 막겠어요? 아버님의 친구분들이 모두 오시는 자리인데, 그곳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어요. 제가 서랍 속에 한 번도 꺼내지 않고 고이 모셔두었던 보랏빛 벨벳 드레스가 있는데도,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다고 타박했고요. 결국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회사 업무 때문에 프랑스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예전 작업 반장이셨던 하디 씨와 함께 무도회에 갔죠. 그곳에서 호스머 엔젤 씨를 만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윈드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이 무도회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화가 났을 것 같군요."

"아, 뭐, 그는 아주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어요.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여자에게는 무엇을 거절해 봐야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여자는 자기 뜻대로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스 설비업자 무도회에서 호스머 엔젤이라는 신사를 만나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그날 밤에 그분을 만났어요. 다음 날에는 저희가 집에 무사히 잘 도착했는지 물으러 오셨고요. 그 후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그러니까 말이죠, 홈즈 씨, 그분과 산책하며 두 번 만났어요. 하지만 그 뒤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셨고, 호스머 엔젤 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못했어요."

"아니라고요?"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급적이면 손님을 맞이하지 않으려 하셨고, 여자는 자기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머니께 늘 말씀드렸듯이, 여자에게는 우선 자신만의 세계가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저만의 세계를 갖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호스머 엔젤 씨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분이 당신을 만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아버지는 일주일 뒤에 다시 프랑스로 떠나실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호스머가 편지를 보내왔죠. 아버지가 떠나기 전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고요. 그동안에는 편지를 주고받기로 했고, 그분은 매일같이 편지를 써 보냈어요. 제가 아침마다 편지를 받아 챙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그 무렵에 그 신사와 약혼한 상태였습니까?"

"아, 네, 홈즈 씨. 첫 산책을 마치고 바로 약혼했어요. 호스머—엔젤 씨는 리든홀가에 있는 사무실의 출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무소 말입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홈즈 씨. 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는 그 건물에서 숙식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주소는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다만 그곳이 리든홀가였다는 점만 빼고요."

"그럼 편지 수신인은 어디로 적으셨습니까?"

"편지는 리든홀가 우체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 달라고 말이죠. 그분 말씀이, 만약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면 다른 사무원들이 여자한테 편지를 받는다고 놀려댈 거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편지처럼 직접 타자기로 쳐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죠. 제가 직접 쓰면 마치 저에게서 온 편지처럼 느껴지지만, 타자기로 치면 기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홈즈 씨,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분이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한 분이셨는지 아시겠죠?"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군." 홈즈가 말했다. "사소한 것이야말로 무한히 중요하다는 건 나의 오래된 원칙이라네. 호스머 엔젤 씨에 대해 기억나는 다른 사소한 특징은 없나?"

"그분은 아주 수줍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홈즈 씨. 남들의 눈에 띄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낮보다는 저녁에 저와 함께 걷는 걸 더 좋아하셨죠. 아주 내성적이면서도 신사적인 분이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부드러웠고요. 젊었을 때 편도선염을 앓고 임파선이 부었던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목이 약해져서 말을 할 때면 늘 머뭇거리며 속삭이듯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옷차림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약하셨는데, 제 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눈부심을 피하려고 색이 들어간 안경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붓아버지인 윈드뱅크 씨가 프랑스로 돌아간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스머 엔젤 씨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결혼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정말 진지한 태도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게만 충실하겠다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고요. 어머니는 그가 그렇게 맹세하게 한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만큼 나

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셨고, 심지어 저보다 그를 더 좋아하실 정도였죠.

그러다 두 분이 이번 주 안에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저는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된다고만 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설득해 보겠다고도 하셨고요. 홈즈 씨, 저는 그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저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으실 뿐인데, 제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몰래 무언가를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보르도에 있는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그곳에 회사의 프랑스 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가 결혼식 당일 아침에야 되돌아왔답니다."

"그럼, 그를 비껴갔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물건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가 막 영국으로 떠났거든요."

"하!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럼 결혼식은 금요일로 잡혀 있었던 건가요? 교회에서 올릴 예정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히 진행될 계획이었죠. 장소는 킹스크로스 근처의 세인트 세이비어 성당이었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세인트 판크라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스머가 한섬 택시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는데, 인원이 둘이다 보니 우리 둘

을 한 택시에 태우고 본인은 네 바퀴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침 그 거리에 남은 유일한 택시가 그 마차였거든요.

우리가 먼저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네 바퀴 마차가 다가오길래 그가 내리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부까지 마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마부는 분명히 그가 마차에 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도대체 그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홈즈 씨, 그게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할 만한 단서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으셨군요." 홈즈가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분은 저를 그렇게 버려두실 만큼 나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침 내내 제게 신신당부하셨는걸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만은 변치 말고 곁을 지키라고요. 설령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더라도, 제가 그분께 약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머지않아 그 약속을 확인하러 오겠다고도 하셨고요. 결혼식 날 아침에 나누기에는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재앙이라도 닥쳤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위험을 예견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분이 예견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전혀 짐작조차 못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녀는 화가 난 나머지, 다시는 이 일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는요? 말씀드렸나요?"

"맞아요.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호스머 씨 소식을 다시 듣게 될 거라고도 말했고요. 그분의 말대로라면, 대체 누가 저를 교회 문 앞까지 데려다 놓고는 그대로 버려두는 일에 관심을 갖겠어요? 만약 그분이 제 돈을 빌려 갔거나, 저와 결혼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겠지만, 호스머 씨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돈은 단 한 실링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는 거죠? 아, 생각할수록 미칠 것만 같아요. 밤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그녀는 머프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 위에 얼굴을 묻고는 격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한번 살펴볼 테니 걱정 마십시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분명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더는 마음 쓰지 마세요. 무엇보다 호스머 엔젤 씨는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것처럼, 기억 속에서도 깨끗이 지워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을 다시는 못 만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감이지만,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제게 맡겨 두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혹시 건네줄 수 있는 편지가 있다면 모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자 《크로니클》지에 그분을 찾는 광고를 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 그 광고를 오려 둔 것과 그에게서 온 편지 네 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캠버웰,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엔젤 씨의 주소는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군요. 그럼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펜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유명한 클라레 수입업체인 웨스트하우스 앤 마뱅의 외근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명확히 잘 들었습니다. 서류는 여기에 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린 조언을 꼭 명심하시고요. 이번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비밀로 부치십시오. 이 사건이 당신의 삶을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홈즈 씨,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호스머에게 충실하고 싶거든요. 그가 돌아왔을 때, 제가 변함없이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가 쓴 터무니없는 모자와 멍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보여준 순박한 믿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만드는 숭고함이 있었다. 그녀는 서류가 담긴 작은 꾸러미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언제든 부르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셜록 홈즈는 양손 끝을 맞댄 채 몇 분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다리는 앞쪽으로 길게 뻗었고, 시선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이윽고 그는 선반에서 낡고 기름때가 묻은 흙파이프를 꺼냈다. 그에게는 마치 상담가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불을 붙인 홈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그에게서 피어오른 짙푸른 연기 고리가 소용돌이치며 올라갔고,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나른함이 서려 있었다.

"꽤 흥미로운 사례였네, 그 아가씨 말이야." 홈즈가 말했다. "그녀가 가져온 문제 자체보다 그녀라는 사람에게 더 흥미를 느꼈네. 참고로 그 사건은 사실 그리 새롭지도 않은, 좀 진부한 내용이었거든. 내 색인을 찾아보면 77년도 앤도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작년 헤이그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지. 비록 뻔한 수법이었지만, 나조차도

생소하게 느낀 세부 사항이 한두 가지는 있었네. 하지만 그 아가씨 자체만으로도 아주 배울 점이 많은 사례였어."

"당신은 내가 전혀 알아채지 못한 그녀의 모습들을 아주 잘 읽어내는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라네, 왓슨. 자네는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몰랐기에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친 거야. 소매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엄지손톱이 어떤 암시를 담고 있는지, 혹은 신발 끈 하나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는지 자네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지. 자, 방금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읽어냈나? 한번 설명해 보게."

"그 여자는 챙이 넓은 회색빛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벽돌색에 가까운 붉은 깃털이 하나 달려 있었죠. 재킷은 검은색이었고, 검은 구슬이 수놓아져 있었으며 밑단에는 작은 검은색 흑옥 장식이 술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커피색보다 조금 더 짙은 갈색이었는데, 목과 소매 부분에는 보랏빛 벨벳 장식이 덧대어져 있었고요. 장갑은 회색빛이었는데 오른쪽 검지 부분은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장화는 보지 못했고요. 귀에는 작고 둥근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꽤 여유 있고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셜록 홈즈는 손뼉을 가볍게 마주치며 껄껄 웃었다.

"세상에, 왓슨. 자네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늘었군. 정말 잘해냈어. 중요한 단서들을 놓친 건 사실이지만, 이제 방법론을 터득했으니 색채를 포착하는 눈도 제법 날카로워졌어. 하지만 친구, 막연한 인상만 믿어서는 안 되네. 세부 사항에 집중해야 해.

나는 항상 여자의 소매부터 살피지. 남자의 경우에는 바지 무릎 부분을 먼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자, 보게나. 이 여자는 소매에 벨벳을 덧댔는데, 이건 흔적을 찾아내기에 아주 유용한 재질이라네. 타자기가 책상에 닿을 때 생기는 손목 윗부분의 이 이중 선을 보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지 않나? 수동 재봉틀도 비슷한 자국을 남기긴 하지만, 그건 왼쪽 팔의 엄지손가락 반대편에만 남는다네. 이 여자처럼 팔의 가장 넓은 부분을 가로지르며 남지는 않지.

그다음엔 그녀의 얼굴을 살폈네. 코 양옆에 코끝이 눌린 자국을 보고 그녀가 근시라는 걸 알아챘지. 그래서 시력이 나쁜 사람 중에 타자치는 이가 많다는 식으로 말을 건넸더니, 그녀가 꽤 놀라더군."

"그 일은 나를 놀라게 했네."

"하지만 분명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면서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는 장화가 겉보기에는 서로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전혀 다른 짝이었거든요. 한쪽은 앞코에 약간의 장식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아무 장식도 없는 평범한 형태였습니다. 단추도 제각각이었죠. 한쪽은 다섯 개의 단추 중 아래쪽 두 개만 채워져 있었고, 다른 쪽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단추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아주 깔끔한 젊은 여성이 장화 짝도

맞지 않고 단추도 반쯤 풀린 채 집을 나섰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급히 나왔다고 결론 내리는 건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닙니다."

"그다음은요?" 나는 물었다. 친구의 날카로운 추리에는 언제나 그렇듯, 나 역시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그녀는 옷을 다 갖춰 입은 뒤에 집을 나서기 전 쪽지를 썼더군요. 당신은 그녀의 오른쪽 장갑 검지 부분이 찢어진 것을 보았지만, 장갑과 손가락 모두에 보라색 잉크가 묻어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녀가 서둘러 글을 쓰다가 펜촉을 너무 깊게 담갔던 게 분명해요. 분명 오늘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손가락에 남은 자국이 이렇게 선명할 리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게 조금 우스꽝스럽고 기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야겠군요, 왓슨. 호스머 엔젤 씨에 대해 실린 광고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인쇄된 작은 종이 조각을 빛에 비추어 보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실종됨. 14일 오전, 호스머 엔젤이라는 신사. 키는 약 5피트 7인치, 건장한 체격, 창백한 안색, 검은 머리카락. 정수리 부분은 약간 벗겨졌으며, 검고 무성한 구레나룻과 콧수염이 있음. 색안경을 착용했으며, 말투가 약간 어눌함. 마지막 목격 당시 차림새는 실크를 덧댄 검은색 프록코트에 검은 조끼, 금색 앨버트 체인을 착용함. 회색 해리스 트위드 바지에 고무 밴드가 달린 부츠와 갈색 게이터를 신고 있었음. 리든

홀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발견 시 연락할 곳은…”

“그만하면 됐네.” 홈즈가 말했다. 그는 편지들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편지 내용은 아주 평범해. 발자크를 한 번 인용했을 뿐, 엔젤 씨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군. 하지만 분명 자네도 눈치챘을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네.”

“타자기로 친 것이군요.” 내가 말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명조차 타자로 쳐져 있어요. 아래쪽에 정갈하게 적힌 ‘호스머 엔젤’이라는 이름을 보세요. 날짜는 적혀 있지만, 리든홀가라는 주소 외에는 별다른 서신 문구가 없습니다. 그 주소도 다소 모호하고요. 서명에 관한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보게 친구, 이 사실이 사건과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건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약혼 불이행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가 자신의 서명을 부인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니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를 두 통 쓰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한 통은 시티에 있는 회사로 보낼 것이고, 다른 한 통은 그 젊은 여성의 의붓아버지인 윈드뱅크 씨에게 보낼 겁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군요. 남자 친척과 직접 거래하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자, 왓슨 박사, 이제 편지 답장이 올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이 작은 문제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죠."

내 친구가 지닌 예리한 추리력과 행동에 있어서의 놀라운 에너지를 믿을 만한 근거는 이미 충분했다. 그렇기에 홈즈가 해결해야 할 이 기이한 수수께끼를 대하는 태도가 그토록 확신에 차 있고 여유로워 보이는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보헤미아 국왕과 아이린 애들러의 사진이 얽힌 사건에서 그가 실패했던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서명' 사건의 기묘한 전개와 '주홍색 연구'에 얽힌 비범한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홈즈가 풀지 못할 복잡한 실타래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나는 검은 점토 파이프를 연신 빨아대고 있는 그를 뒤로하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확신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그를 찾아왔을 때, 홈즈는 메리 서덜랜드 양의 신랑이 왜 사라졌는지, 그 정체를 밝혀낼 모든 단서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당시 나는 매우 중대한 전문적인 사건을 맡아 집중하고 있었기에, 다음 날 내내 환자의 곁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저녁 6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한섬 택시를 잡아타고 베이커가로 향했다. 혹시라도 그 작은 미스터리의 결말을 지켜보는 데 늦을까 봐 마음이 조급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셜록 홈즈는 혼자였다. 그는 안락의자 구석에 길고 마른 몸을 웅크린 채 반쯤 잠들어 있었다. 염산의 톡 쏘는 냄새가 풍기는 수많은 병과 시험관이 즐비한 것을 보니, 홈즈가 온종일 자신이 그토록 애정하는 화학 실험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사건은 해결됐나?" 내가 들어가며 물었다.

"맞습니다. 중황산바륨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미스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외쳤다.

"아, 그거 말입니까! 제가 연구 중이던 그 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흥미로울 뿐이지 이 일에 미스터리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악당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이며, 서덜랜드 양을 버리고 떠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질문을 채 마치기도 전이었다. 홈즈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분은 그 소녀의 의붓아버지인 제임스 윈드뱅크 씨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여섯 시에 이곳으로 오겠다고 내게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중간 정도 키를 가진 서른 살 가량의 사내였다. 면도를 깔끔하게 한 그는 안색이 황색이었으며, 태도는 무미건조하면서도 은근히 남의 속을 파고드는 구석이 있었다. 특히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회색 눈동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우리 둘을 차례로 의아한 듯 훑어보더니, 반짝이는 실크햇을 찬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가장 가까운 의자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윈디뱅크 씨." 홈즈가 말했다. "이 타자기로 친 편지를 보니, 저와 6시에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네, 선생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요. 서덜랜드 양이 이런 사소한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집안 문제는 굳이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가 찾아오는 걸 결코 원치 않았지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워낙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아이라 한 번 마음을 먹으면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경찰 관계자도 아니시니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만, 이런 집안의 불행이 떠들썩하게 퍼지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호스머 엔젤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낸단 말입니까? 돈 낭비일 뿐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호스머 엔젤 씨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윈디뱅크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장갑을 떨어뜨렸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군요.” 그가 말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타자기도 사람의 필체만큼이나 저마다의 개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아주 새 제품이 아니라면, 똑같이 글자를 찍어내는 타자기는 세상에 단 두 대도 없습니다. 어떤 글자는 다른 글자보다 더 많이 마모되기도 하고, 어떤 글자는 한쪽 면만 닳기도 하죠. 윈디뱅크 씨, 당신이 보낸 이 쪽지를 보면 모든 경우에 'e'가 약간 뭉개져 있고, 'r'의 꼬리 부분에 미세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네 가지 특징이 더 있지만, 방금 말한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사무실에서는 모든 서신 업무를 이 기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낡은 편이지요.”

방문객이 대답했다. 그는 반짝이는 작은 눈으로 홈즈를 날카롭게 살피며 덧붙였다.

“윈디뱅크 씨, 이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홈즈가 말을 이었다. “조만간 타자기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 짧은 논문을 한 편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관심을 두고 살펴본 주제지요. 여기 행방불명된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지네 통이 있습니다. 모두 타자기로 친 것이지요. 각 편지를 보면 ‘e’는 뭉개져 있고 ‘r’은 꼬리가 잘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돋보기를 가져다 대고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다른 열네 가지 특징도 모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윈디뱅크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집어 들었다. “홈즈 씨,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놈을 잡을 수 있다면 어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을 마치는 대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이지.” 홈즈가 다가와 문에 열쇠를 꽂고 돌리며 말했다. “그럼 미리 알려두지. 내가 그놈을 잡았다는 사실을 말이야!”

“뭐라고요! 어디 말입니까?” 윈디뱅크 씨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는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채,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정말이지 안 돼요.”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윈디뱅크 씨, 이 일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뻔하거든요. 게다가 방금 저에게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건, 아주 무례한 결례였습니다. 자, 맞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방문객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닌 것 같아 걱정이군요. 하지만 윈디뱅크,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속임수보다도 비열하고 이기적이며 냉혹한 수법이었습니다. 아주 치졸한 방식이었죠. 자, 이제 사건이 어떻

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남자는 마치 모든 희망을 잃고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가슴팍으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홈즈는 벽난로 선반 모서리에 발을 올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몸을 뒤로 기댔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기보다, 마치 혼잣말을 하듯 입을 열었다.

"그 남자는 돈을 노리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의붓딸이 함께 사는 동안 그 딸의 재산을 마음껏 누렸지요.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꽤 큰 액수였고, 그 돈을 잃는다면 타격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지요. 의붓딸은 성격이 착하고 상냥하며 다정다감한 아이였습니다. 외모도 준수한 데다 약간의 수입까지 있으니, 그대로 두었다간 금방 결혼하게 될 게 뻔했죠. 하지만 딸이 결혼하게 되면 매년 100파운드에 달하는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리한 의붓아버지는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딸을 집에 가두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뻔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영원히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곧 깨달았지요. 딸은 점점 반항적으로 변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니, 급기야 어떤 무도회에 꼭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영리한 의붓아버지는 어떤 묘책을 떠올렸을까요? 도덕성보다는 잔머리를 굴린 결과였지요. 그는 아내의 묵인과 도움을 받아 변장을 했습니다. 색안경으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리고, 콧수염과 덥수룩한 구레나룻으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맑은 목소리는 교활한 속삭임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게다가 딸의 시력이 나쁘

다는 점까지 이용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호스머 엔젤'이라는 가짜 인물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애를 함으로써 다른 구혼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방문객이 신음하듯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몰입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그 젊은 여성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의붓아버지가 프랑스에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았지요. 신사가 보여준 정중한 태도에 그녀는 우쭐해졌고, 어머니가 옆에서 크게 감탄하며 치켜세우니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엔 엔젤 씨가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이 일을 가능한 한 멀리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만남이 이어졌고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일은 완전히 차단되었지요.

하지만 이런 기만술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로 떠나는 척하는 가짜 여행은 번거로운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끝내서,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남기고 당분간은 다른 구혼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성경에 대고 정절을 맹세하게 한 것도, 결혼식 당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준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제임스 윈디

뱅크는 서덜랜드 양이 호스머 엔젤에게 완전히 묶이기를 원했습니다. 엔젤의 운명이 불투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은 다른 남자의 말은 귀에 담지도 못할 만큼 말입니다.

그는 그녀를 교회 문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사륜마차의 한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낡은 수법을 써서 아주 편리하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윈디 뱅크 씨, 사건의 전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홈즈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방문객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차가운 비웃음을 띤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홈즈 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명석하다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차릴 만큼은 똑똑해야 할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그 문을 잠가둔다면, 당신은 폭행과 불법 감금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법이 당신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홈즈가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만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젊은 여인에게 오라비나 친구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당신의 등에 채찍질을 가해야 합니다. 세상에!" 남자의 얼굴에 서린 비열한 비웃음을 마주하자 홈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제 의뢰인에 대한 의무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침 여기 사냥용 채찍이 있으니 제 기분 전환 겸 한번 써볼까 합니다만—" 홈즈가 채찍을 잡으려 두 걸음

빠르게 내디뎠다. 그러나 채찍에 손이 닿기도 전에 계단 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창밖으로 제임스 윈디뱅크 씨가 전력 질주하며 길 아래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이군!" 홈즈가 다시 의자에 몸을 던지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놈은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러 교수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범죄를 거듭하며 계속 날뛰겠지. 이번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꽤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어."

"지금은 당신이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전부 이해하기 어렵군요." 내가 말했다.

"물론 처음부터 호스머 엔젤이라는 남자가 왜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그 뒤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자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의붓아버지뿐이라는 점도 명확했죠. 게다가 두 사람이 결코 함께 있지 않고,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색안경을 쓴 모습이나 기묘한 목소리, 그리고 덥수룩한 구레나룻 역시 변장을 암시하는 요소였고요. 결정적으로 그가 서명을 타자기로 친 행동을 보고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의 필체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아주 작은 글씨만 봐도 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보시다시피,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이 다른 사소한 단서들과 맞물리며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쫓던 자를 한 번 포착하고 나니, 증거를 확보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자가 일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었고요. 우선 인쇄된 인상착의를 입수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변장으로 꾸며낼 수 있는 요소들, 즉 구레나룻이나 안경, 목소리 같은 것들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회사에 인상착의를 보내면서, 혹시 이 모습이 그들의 영업 사원 중 누군가와 일치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죠. 이미 타자기의 특징도 파악해 둔 상태라, 그 남자에게 직접 사업장 주소로 편지를 보내 이곳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답장은 타자기로 작성되어 왔는데, 아까 봤던 그 사소하면서도 특징적인 결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군요. 같은 우편물로 펜처치 가의 웨스트하우스 앤 마반크 회사로부터 편지도 한 통 받았습니다. 그쪽 인상착의가 자신들의 직원인 제임스 윈디뱅크와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서덜랜드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에게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겁니다. 옛 페르시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 새끼를 건드리는 자에게도 위험이 따르지만, 여자의 환상을 가로채는 자에게도 위험이 따른다'라고 말입니다. 하피즈의 시에는 호라티우스의 시만큼이나 깊은 지혜와 세상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보스콤 계곡의 미스터리

4. 보스콤 계곡의 미스터리

어느 날 아침, 아내와 나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하녀가 전보 한 통을 들고 들어왔다. 셜록 홈즈가 보낸 전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며칠 정도 시간 좀 낼 수 있나? 보스콤 계곡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영국 서부 쪽에서 연락을 받았네. 자네가 함께 가준다면 정말 좋겠군.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주 일품이라네. 11시 15분 패딩턴행 열차를 타게나."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갈 건가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지금은 의뢰 목록이 꽤 길어서 말입니다."

"오, 안스트러에게 일을 맡기면 되잖아요. 요즘 안색이 좀 창백해 보이시더라고요.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신은 항상 셜록 홈즈 씨의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시잖아요."

"그들 중 한 명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떠나야 한다면 당장 짐을 싸야 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겨우 30분뿐이니까요."

아프가니스탄의 야영지에서 보낸 경험 덕분에, 나는 적어도 여행 준비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고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 필요한 물건도 적고 단순한 편이라,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짐가방을 챙겨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덜컹거리며 패딩턴 역을 향해 달렸다. 역 승강장에는 셜록 홈즈가 왔다 갔다 하며 걷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회색 여행용 망토와 몸에 딱 붙는 천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키가 크고 수척한 체격을 더욱 길쭉하고 야위어 보이게 만들었다.

"와줘서 정말 고맙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네처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내게 큰 힘이 된다네. 현지 조력자들은 대개 쓸모가 없거나 편향되어 있기 마련이니까. 자네가 구석 쪽 좌석 두 개를 맡아준다면, 내가 표를 구해오겠네."

마차 안에는 홈즈가 챙겨온 엄청난 양의 서류 뭉치 외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홈즈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읽어 내려갔다. 때로는 무언가를 메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며 그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다 우리가 레딩을 지나치자, 홈즈는 갑자기 서류들을 커다란 공 모양으로 둥글게 말더니 선반 위로 휙 던져 올렸다.

"그 사건에 대해 들은 거라도 있나?" 그가 물었다.

"한 마디도 못 들었네. 며칠 동안 신문도 한 권 못 봤거든."

"런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리 상세하지 않더군요.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고 최근 신문들을 전부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주 단순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무척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는군요."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특이함이란 거의 예외 없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거든. 범죄가 특징도 없고 평범할수록 오히려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더 어려워지는 법이지.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네. 그들은 살해당한 남자의 아들에게 아주 강력한 혐의를 입증해냈으니까."

"그럼, 살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다들 그렇게 추측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볼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죠."

"보스콤 계곡은 헤리퍼드셔주 로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골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존 터너라는 분인데, 호주에서 돈을 벌어 몇 년 전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터너 씨가 소유한 농

장 중 하나인 헤더리 농장은 찰스 매카시 씨에게 임대되었습니다. 매카시 씨 역시 호주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식민지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정착할 때 서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터너 씨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라 매카시 씨가 그의 세입자가 되었지만, 두 사람은 자주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던 듯합니다. 매카시 씨에게는 열여덟 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고, 터너 씨에게는 같은 나이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내와는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두 가족 모두 이웃인 영국인 가족들과는 교류를 피하며 은둔하듯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카시 부자는 운동을 좋아해서 근처 경마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매카시 씨는 남자 하인 한 명과 여자 하인 한 명, 이렇게 두 명의 하인을 두었습니다. 반면 터너 씨의 집은 적어도 대여섯 명은 되는 꽤 큰 규모의 가솔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제가 파악한 두 가족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건의 사실관계로 넘어가 보죠."

"6월 3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매카시는 헤더리에 있는 집을 나서서 보스콤 연못까지 걸어갔습니다. 보스콤 연못은 보스콤 계곡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이 넓게 퍼지면서 만들어진 작은 호수지요. 그는 오전 내내 하인과 함께 로스에 나가 있었는데, 3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하인에게 일러두었습니

다. 하지만 그 약속 장소로 향한 뒤, 그는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헤더리 농가에서 보스콤 연못까지는 4분의 1마일 거리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그를 목격한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노파였고, 다른 한 명은 터너 씨가 고용한 사냥터지기 윌리엄 크라우더였습니다. 두 목격자 모두 매카시 씨가 혼자 걷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냥터지기는 매카시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본 지 불과 몇 분 뒤에, 그의 아들인 제임스 매카시 씨가 총을 옆구리에 끼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당시 실제로 눈앞에 있었고, 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저녁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터지기 윌리엄 크라우더가 두 사람을 놓친 이후에도 매카시 부자는 목격되었습니다. 보스콤 연못 주변은 나무가 울창하며, 가장자리를 따라 풀과 갈대가 띠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스콤 계곡 저택의 관리인 딸인 열네 살 소녀 페이션스 모란은 당시 숲 중 한 곳에서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진술에 따르면, 숲의 경계이자 호수와 맞닿은 곳에서 매카시 씨와 그의 아들을 보았는데,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매카시 씨가 아들에게 매우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을 들었으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드는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너무나 격렬해 보여 겁에 질린 소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녀는 어머

니에게 매카시 부자가 보스콤 연못 근처에서 다투고 있었으며, 곧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 매카시가 관리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숲에서 아버지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총도 모자도 챙기지 못한 채 몹시 흥분한 상태였으며, 오른손과 소매에는 신선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간 사람들은 연못 옆 풀밭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뭉툭한 무기로 반복해서 얻어맞아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상처의 양상으로 보아 시신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풀밭에 놓여 있던 아들의 총 개머리판에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젊은 매카시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화요일에 열린 검시 결과 '고의적 살인'이라는 평결이 내려졌고, 수요일에 그는 로스의 치안판사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치안판사들은 이 사건을 다음 번 순회 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검시관과 경찰 법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주요 사실들입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군요." 내가 말했다. "정황 증거가 범인을 가리키는 사례가 있다면, 바로 이번 사건이 그 예일 겁니다."

"정황 증거라는 건 아주 까다로운 법이지." 홈즈가 사려 깊게 대답했다. "어떤 한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도,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똑같이 단호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군. 지금 상황은

그 청년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가 정말 범인일 가능성도 아주 높고 말이야. 하지만 이웃 사람들 중에는 그가 결백하다고 믿는 이들이 여럿 있네. 그중에는 인근 지주의 딸인 터너 양도 있지. 그들은 그를 돕기 위해 레스트레이드 경위를 고용했네. 자네도 『주홍색 연구』를 떠올리면 그를 기억하겠지.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다소 난항을 겪자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네. 그래서 지금 중년 신사 두 분이 집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즐기는 대신,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서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라네."

"유감스럽지만," 내가 말했다.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보신다 해도 얻을 수 있는 명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뻔한 사실만큼 사람을 속이기 쉬운 것도 없지." 홈즈가 웃으며 대답했다. "게다가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또 다른 명백한 사실들을 우리가 우연히 찾아낼 수도 있을 거야. 자네도 나를 잘 알테니, 내가 하는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나는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아예 활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의 가설을 증명하거나 혹은 완전히 무너뜨릴 걸세.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예만 들어보지. 자네 침실의 창문이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은 내 눈에 아주 명확히 보이는데,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이토록 자명한 사실조차 알아차렸을지는 의문이군."

"도대체 어떻게—!"

"여보게 친구, 난 자네를 아주 잘 아네. 자네 특유의 그 군인 같은 깔끔함도 잘 알고 있지. 자네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하지 않나. 게다가 요즘 같은 계절에는 햇빛을 받으며 면도를 하곤 하지.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면도가 점점 덜 된 게 눈에 띄더군. 턱 끝 모서리 부근에 이르면 아주 지저분해 보일 정도야. 이건 분명 그쪽 면이 반대편보다 빛이 덜 들어온다는 뜻이지. 자네처럼 깔끔한 습관을 지닌 사람이, 빛이 고르게 비치는데도 이런 결과에 만족할 리는 없지 않은가.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관찰과 추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소한 예시일 뿐이라네. 바로 그 지점이 나의 전문 분야이고,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검시 과정에서 드러난 사소한 점들이 한두 가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네."

"그게 대체 뭡니까?"

그가 체포된 것은 사건 직후가 아니라, 헤더리 농장으로 돌아간 뒤였다고 한다. 경찰 경위가 그에게 체포되었음을 알리자, 그는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그 말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가 보여준 이러한 태도 덕분에, 검시관 배심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건 자백이었어요!" 내가 외쳤다.

"아니요, 그 뒤에 결백을 주장하는 항변이 뒤따랐거든요."

"이토록 치명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터진 상황에서, 그 말은 적어도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 반대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가장 밝은 빛줄기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결백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이토록 명백한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아주 어리석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가 체포되는 순간 놀란 기색을 보이거나 억울하다는 듯 분노를 연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를 매우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놀라거나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니까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가 결백한 사람이거나, 혹은 상당한 자제력과 결단력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시신 곁에 서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날 그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완전히 잊은 채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증언이 매우 중요한 그 어린 소녀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아버지를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보인 자책과 회한은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징표로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훨씬 빈약한 증거만으로도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이 부지기수라네." 내가 말했다.

"실제로 그랬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그 젊은이가 직접 말하는 사건의 전말은 무엇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지지자들에게 그리 힘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시사하는 바가 있는 대목이 한두 군데 있긴 하죠. 여기 있으니 직접 읽어보시지요."

그는 짐 꾸러미에서 헤리퍼드셔 지역 신문 한 부를 꺼냈다. 그러고는 신문 지면을 접어 넘기더니, 불운한 청년이 사건 경위를 직접 진술한 대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마차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 기사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갔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망자의 외아들인 제임스 매카시 씨가 소환되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브리스톨에 사흘 동안 가 있었고, 지난 월요일인 3일 아침에야 막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녀로부터 마부 존 코브와 함께 로스로 말을 타고 나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돌아온 직후 마당에서 아버지의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버지가 마차에서 내려 급히 마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총을 챙겨 들고 보스콤 연못 쪽으로 한가롭게 걸어갔습니다. 연못 반대편에 있는 토끼 사육장을 들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사냥터지기 윌리엄 크라우더를 만났습니다. 그가 증언한 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뒤쫓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그의 착각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앞에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연못에서 백

야드쯤 떨어졌을 때, 아버지와 저 사이의 신호로 쓰던 "쿠이!"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으로 달려갔고, 연못가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무척 놀란 듯 보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다소 거칠게 물으셨습니다. 그 후 대화가 이어졌는데, 아버지는 성미가 매우 불같으신 분이라 말다툼이 격해졌고 거의 주먹다짐까지 갈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아버지를 뒤로한 채 헤더리 농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50야드도 채 가지 못해 뒤쪽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렸고, 저는 다시 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을 떨어뜨리고 아버지를 품에 안았지만, 아버지는 거의 즉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터너 씨의 관리인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부상을 입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태도가 다소 차갑고 쌀쌀맞아 인망이 높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딱히 원한을 살 만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검시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까?"

"증인: 그는 몇 마디 중얼거렸으나, 쥐를 언급하는 듯한 소리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시관: 방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증인: 그 말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헛소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검시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답변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검시관이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이 문제는 계속 밀어붙여야겠습니다."

"증인: 정말이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일이 뒤이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검시관: 그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귀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증인: 여전히 거절하겠습니다."

"검시관: 당신과 아버님 사이에 '쿠이(Cooee)'라는 외침이 흔히 쓰이던 신호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증인: 그랬습니다."

“검시관: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심지어 당신이 브리스톨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알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외침을 내뱉을 수 있었습니까?”

"증인(상당히 당황하며): 모르겠습니다."

“배심원: 비명을 듣고 달려와 아버님이 치명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을 때, 혹시 의심스러운 정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까?”

“증인: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검시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 저는 탁 트인 곳으로 급히 달려 나가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흥분한 나머지, 아버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모호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 나갈 때 제 왼쪽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색빛을 띤 무언가였는데, 어떤 종류의 코트나 아마도 격자무늬 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몸을 일으킨 뒤 그것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 전에 이미 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네,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 12야드 정도요."

"숲 가장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럭저럭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라진 시점은, 당신이 불과 12야드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을 때라는 말씀입니까?"

"네, 하지만 등을 돌리고 있었죠."

"이것으로 증인 신문을 마쳤다."

"그렇군요." 나는 기사 내용을 훑어내려가며 말했다. "검시관이 마지막 발언에서 젊은 매카시를 꽤나 몰아세웠군요. 매카시는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검시관은 이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매카시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한 점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기이하다는 점도 짚어냈고요. 검시관의 말대로, 이 모든 정황이 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홈즈는 나지막이 웃더니 쿠션이 깔린 좌석에 몸을 길게 뉘었다.

"당신과 검시관 모두 애를 많이 쓰셨군요." 홈즈가 말했다. "이 청년에게 유리한 점만을 골라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르시겠습니까? 당

신들은 번갈아 가며 이 청년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느니, 혹은 너무 부족하다느니 하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살 만한 싸움의 원인을 꾸며내지 못했다면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겠지요. 반대로, 죽어가는 순간에 쥐를 언급했다거나 천이 사라졌다는 식의 기괴한 이야기를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면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한 것이고요.

아니요, 선생. 나는 이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건에 접근하겠습니다. 그 가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지켜보자고요. 자, 이제 내 주머니 속의 페트라르카를 꺼낼 시간입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스윈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 20분 뒤면 도착할 겁니다."

아름다운 스트라우드 계곡을 지나고, 넓고 반짝이는 세번강을 건너 마침내 로스라는 예쁘고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네 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승강장에는 족제비처럼 마르고 눈매가 음흉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시골 분위기에 맞추려는 듯 연갈색 더스트코트에 가죽 각반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위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미리 방을 예약해 둔 헤리퍼드 암즈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마차를 불러 두었네." 우리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자네의 성미를 잘 알고 있지 않나. 사건 현장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과찬이십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저 기압 차이 때문일 뿐입니다."

레스트레이드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기압계는 어떤가? 스물아홉이라, 그렇군. 바람도 없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네. 여기 피워야 할 담배가 한 보따리나 있네만, 소파가 시골 호텔의 그 끔찍한 것들보다 훨씬 안락하군. 오늘 밤은 마차를 쓸 일이 없을 것 같네."

레스트레이드는 너그럽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신문 기사를 보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겠지요." 그가 말했다. "사건은 아주 명백합니다. 파고들수록 사실은 더 분명해지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확신에 찬 숙녀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분은 홈즈 씨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더군요. 제가 몇 번이나 '경위인 제가 이미 다 조치한 일이라 홈즈 씨가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꼭 홈즈 씨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기 문 앞에 마차가 도착했군요."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이었다. 내가 평생 본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인 중 한 명이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보랏빛 눈동자는 반짝였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으며, 양 볼에는 분홍빛 홍조가 감돌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흥분하고 걱정스러운 나머지, 평소 지니고 있던 차분한 태도조차 잊은 듯 보였다.

"오, 셜록 홈즈 씨!"

그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외쳤다. 그러더니 이내 여성 특유의 날카로운 직관으로 내 동료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와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사실을 알리려고 직접 차를 몰고 내려왔답니다. 제임스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으니, 홈즈 씨도 그 사실을 전제로 조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그 누구보다 그의 결점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혐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 거예요."

"터너 양, 그분의 결백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테니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나름의 결론을 내리셨을 테고요. 혹시 허점이나 결함 같은 건 보이지 않던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가 무죄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봐요, 이제!"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레스트레이드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외쳤다. "들으셨죠? 저 사람이 내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요!"

레스트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동료가 결론을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것 같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아, 그가 옳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제임스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다투었다는 문제도 그래요. 그가 검시관에게 입을 다물었던 건, 분명 제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말인가요?" 홈즈가 물었다.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군요. 제임스와 그의 아버지는 저를 두고 의견 차이가 많았어요. 매카시 씨는 우리가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하지만 제임스와 저는 언제나 남매처럼 서로를 아껴왔을 뿐이에요. 물론 그는 아직 젊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일로 다툼이 잦았는데, 이번 일도 분명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버님은 어떠셨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 결혼을 찬성하셨나요?"

"아니요, 그분도 반대하셨어요. 매카시 씨 말고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고요." 홈즈가 날카롭고도 의구심 어린 눈빛을 던지자, 그녀의 앳된 얼굴에 순식간에 홍조가 스쳤다.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내일 찾아뵙는다면 아버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유감스럽지만, 박사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군요."

"의사라고요?"

"네, 소식 못 들으셨나요? 아버지는 예전부터 몸이 약하셨지만, 이번 일로 완전히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계속 누워만 계시는데, 윌로우스 박사님 말씀으로는 몸이 만신창이가 된 데다 신경계까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시더군요. 매카시 씨는 옛날 빅토리아에서 지내던 시절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하! 빅토리아에서라니! 그건 아주 중요한 정보군요."

"네, 광산에서요."

"그렇고말고요. 제가 듣기로는 터너 씨가 금광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터너 양.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일 무슨 소식이라도 생기면 꼭 알려주세요. 제임스를 만나러 교도소에 가시겠지요. 아, 홈즈 씨, 만약 가신다면 제임스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다고 꼭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너 양."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아버님이 병세가 아주 위중하시거든요. 제가 곁을 떠나면 무척이나 그리워하실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시는 일이 부디 잘 풀리기를 기도할게요."

그녀는 방에 들어올 때만큼이나 급히 서둘러 방을 나갔다. 곧이어 그녀가 탄 마차 바퀴가 거리를 따라 달아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 당신이 정말 실망스럽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레스트레이드가 위엄 있는 태도로 입을 열었다.

"어차피 실망하게 될 일이라면 왜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건가? 내가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잔인한 처사야."

"제임스 매카시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은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가 수감된 교도소로 면회 갈 명령을 받아 두었습니까?"

"그래, 하지만 오직 당신과 나, 우리 둘뿐이야."

"그렇다면 외출하려던 계획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 오늘 밤 헤리퍼드행 기차를 타고 가서 그를 만날 시간은 아직 충분하겠지?"

"충분하군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왓슨, 자네에게는 아주 지루한 시간이 되겠지만, 난 두어 시간 정도만 비우면 되니까 말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역까지 걸어갔다. 그러고는 작은 마을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거닐다 결국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에 도착한 나는 소파에 누워 노란 표지의 소설책을 읽으며 주의를 돌려보려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깊은 미스터리에 비하면, 소설의 빈약한 줄거리는 너무나 시시했다. 사건의 전개보다 실제 사실에 자꾸만 마음이 쓰여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책을 방 저편으로 내던져 버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데 온전히 몰두하기로 했다.

만약 이 불행한 청년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그가 아버지와 헤어진 시점부터 비명 소리에 이끌려 숲속 공터로 달려 들어간 순간 사이에 대체 어떤 지옥 같은 일이, 어떤 예기치 못한 비극이 벌어졌단 말인가? 그것은 분명 끔찍하고 치명적인 무언가였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부상의 양상을 살핀다면 의사로서의 내 본능이 무언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벨을 눌러 검시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실은 지역 주간지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외과의의 증언에 따르면, 둔기에 의한 강한 타격으로 왼쪽 두정골의 뒤쪽 3분의 1과 왼쪽 후두골의 절반이 산산조각 났다고 했다. 나는 내 머리의 같은 부위를 짚어 보았다. 분명 뒤에서 내리친 타격이었음이 틀림없다. 이 점은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목격자들이 그가 다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버지와 서로 마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격 직전에 노인이 몸을 돌렸을 가능성도 있으니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홈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가치는 충분했다.

그리고 죽어가는 순간에 쥐를 언급한 기묘한 말도 있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단순한 섬망 증세는 아닐 것이다. 갑작스러운 타격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보통 섬망 상태에 빠지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설명을 찾아내려 머리를 짜냈다.

여기에 젊은 매카시가 목격했다는 회색 천 조각 사건도 있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도주 중에 옷의 일부, 아마도 외투를 떨어뜨렸다는 뜻이 된다. 또한 아들이 불과 열두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찰나에, 다시 돌아와 옷을 챙겨갈 만큼 대담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비현실적인가! 레스트레이드의 의견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면서도, 나는 셜록 홈즈의 통찰력을 굳게 믿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매카시의 무죄를 입증하는 듯 보였기에, 나는 결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셜록 홈즈가 돌아온 것은 밤이 깊어서였다. 그는 혼자 돌아왔다. 레스트레이드는 시내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압이 여전히 아주 높군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현장을 조사하러 나가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교한 작업에는 몸 상태가 아주 최상이고 정신도 맑아야 하는 법인데, 긴 여정에 지친 상태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젊은 맥카시 군은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때는 그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숨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보기에는 훤칠하고 마음씨도 착한 것 같지만, 머리가 그리 좋은 청년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이토록 매력적인 터너 양과의 결혼을 피하려 했다면, 그의 안목을 도저히 높게 평가할 수 없겠군요." 내가 말했다.

"아, 거기엔 꽤나 고통스러운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녀를 미친 듯이,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2년 전,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말입니다. 그녀가 기숙학교에서 5년 동안 타지에 나가 있었기에 그가 그녀를 제대로 알기도 전이었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브리스톨의 한 술집 여급에게 홀딱 넘어가서 구청에 가서 결혼까지 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지만, 본인이 눈을 뽑아 바칠 수 있을 만큼 간절히 원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로 비난을 받으니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지난번 아버지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터너 양에게 청혼하라고 몰아붙이자, 그는 이런 광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절규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스스로 생계를 유

지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매우 엄격한 분이라던 아버지는,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아들을 완전히 내쫓았을 겁니다. 그는 지난 사흘 동안 브리스톨에서 그 술집 여급인 아내와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일도 생겼습니다. 그 여급이 신문을 통해 그가 심각한 문제에 휘말려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녀는 그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러고는 버뮤다 조선소에 이미 남편이 있으니,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편지를 보내왔죠. 저는 그 소식이 젊은 매카시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을 달래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결백하다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아, 누구냐고요? 저는 두 가지 점에 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살해당한 남자가 연못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둘째는, 살해당한 남자가 아들이 돌아온 사실을 알기도 전에 '쿠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사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자, 이제 괜찮으시다면 조지 메러디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소한 문제들은 내일로 미뤄두기로 하고 말입니다."

홈즈의 예언대로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아침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밝아왔다. 9시 정각에 레스트레이드가 마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헤더리 농장과 보스콤 연못을 향해 길을 떠났다.

"오늘 아침 심상치 않은 소식이 있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홀 저택의 터너 씨가 병세가 너무 깊어, 이제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이 돌고 있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겠군요?" 홈즈가 물었다.

"예순 살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생활 때문에 기력이 다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죠. 이번 사건이 그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매카시의 오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듣기로는 그가 매카시에게 헤더리 농장을 임대료도 받지 않고 내주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군요! 흥미로운 일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그럼요! 그분은 다른 면에서도 수없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근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 맥카시가 터너에게 큰 신세를 졌으면서도, 여전히 터너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겠다고 떠들어대는 말 말입니다. 그 딸은 아마도 그 저택의 상속녀일 텐데 말이죠. 게다가 마치 청혼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릴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너 본인

은 그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상황은 더욱 기묘합니다. 딸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무언가 짐작 가는 구석이 없으십니까?"

"이제 연역과 추론의 단계까지 왔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나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홈즈, 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충분히 버거운데, 당신처럼 이론이나 공상 속으로 날아가 버리는 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소."

"맞는 말씀입니다."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을 다루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시군요."

"어쨌든, 당신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히 파악했소." 레스트레이드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맥카시 시니어가 맥카시 주니어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네. 그 반대되는 모든 이론은 그저 허황된 헛소리에 불과하고 말이야."

"뭐, 안개보다는 달빛이 훨씬 밝긴 하죠."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왼편에 보이는 저곳이 해더리 농장이 아니라면, 제가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네, 바로 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넓게 퍼진 형태의 안락해 보이는 2층 건물이었다.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 있었고, 회색 벽면에는 노란 이끼가 커다란 얼룩처럼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내려진 블라인드와 연기 한 점 나지 않는 굴뚝을 보니, 마치 그 끔찍한 사건의 무게가 여전히 건물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홈즈의 요청에 따라 하녀가 주인이 사망할 당시 신고 있었던 장화 한 켤레를 보여주었다. 아들의 장화도 한 켤레 가져왔는데, 비록 사망 당시 신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홈즈는 일곱여덟 군데의 지점을 골라 장화의 크기를 아주 세밀하게 측정했다. 측정을 마친 홈즈는 안뜰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모두는 보스콤 연못으로 이어지는 굽이진 길을 따라 그를 뒤따랐다.

셜록 홈즈는 이처럼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베이커가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논리적인 추론을 이어가던 모습만 보아온 사람이라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홈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며 어두운 빛을 띠었다. 눈썹은 두 줄기 검고 단단한 선처럼 일그러졌고, 그 아래로 번뜩이는 눈동자는 강철 같은 광채를 내뿜었다. 고개는 아래로 숙여졌으며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길고 근육질인 목에는 핏줄이 채찍 줄처럼 불거져 나왔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짐승 같은 본능적인 열망으로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듯했다. 눈앞의 사건에 온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누군가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짜증 섞인 짧은 으르렁거림으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홈즈는 초원을 가로질러 숲을 지나 보스콤 연못으로 이어지는 길을 빠르고 조용하게 나아갔다. 그 지역 전체가 그렇듯 땅은 축축하고 습한 늪지대였다. 길 위와 길 양옆의 짧은 풀밭 사이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홈즈는 때때로 발걸음을 재촉하다가도 갑자기 멈춰 서기도 했고, 한 번은 초원 쪽으로 한참을 돌아가기도 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경위는 홈즈를 무시하며 경멸 어린 태도를 보였지만, 나는 친구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홈즈의 모든 행동이 분명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보스콤 연못은 폭이 약 50야드 정도 되는, 갈대숲에 둘러싸인 작은 수면이다. 이 연못은 해더리 농장과 부유한 터너 씨의 개인 공원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연못 건너편을 따라 늘어선 숲 위로는, 부유한 지주의 저택이 있는 곳을 알리는 붉고 뾰족한 첨탑들이 보였다. 해더리 농장 쪽 연못 주변은 숲이 매우 울창했으며, 나무 끝에서 호수를 둘러싼 갈대숲에 이르기까지 20보 너비의 좁고 축축한 풀밭이 이어져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는 시신이 발견된 정확한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실제로 땅이 워낙 축축해서, 쓰러진 남자가 남긴 흔적이 내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홈즈의 열띤 표정과 살피는 눈빛을 보니, 그는 짓밟힌 풀밭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마치 냄새를 쫓는 사냥개처럼 주변을 휘젓고 다니더니, 이내 내 동료를 향해 몸을 돌렸다.

"무슨 일로 연못에 들어갔던 건가?" 그가 물었다.

"갈퀴로 바닥을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무기나 다른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아, 이런, 이런! 시간이 없군! 자네의 그 왼쪽 발은 안쪽으로 꺾여 있어서 발자국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두더지라도 이 흔적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인데, 갈대 사이로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군. 버팔로 떼처럼 몰려와서 온 사방을 헤집어 놓기 전에 내가 여기 왔더라면 얼마나 간단했을까. 여기는 숙박 관리인 일행이 지나간 자리인데, 시신 주변으로 6피트에서 8피트 정도는 발자국이 다 뭉개져 버렸어. 하지만 여기를 보게, 똑같은 발자국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군."

홈즈는 돋보기를 꺼내더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방수포 위에 몸을 뉘었다. 그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기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듯했다.

"이건 젊은 매카시의 발자국이야. 두 번은 걸었고, 한 번은 빠르게 뛰었군. 그래서 발바닥 자국은 깊게 남았고 뒤꿈치는 거의 보이지 않아.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지. 아버지가 쓰러진 걸 보고 뛰었을 거야. 그다음은 아버지가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며 걸었던 발자국이고. 그럼 이건 뭐지? 아들이 귀를 기울이며 서 있을 때 남겨진 총의 개머리판 자국이군. 그럼 이건? 하하! 이건 또 뭐지? 까치발이라니! 까치발이야! 게다가 아주 평범하지 않은 네모난 장화군! 왔다 갔다, 다시 또 오고—물론 망토를 챙기러 온 거겠지. 그런데 이 발자국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는 발자국을 찾았다 놓쳤다 하며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다 우리는 숲 안쪽 깊숙이 들어와, 이 근처에서 가장 큰 나무인 거대

한 너도밤나무 그늘 아래에 다다랐다. 홈즈는 나무의 반대편까지 발자국을 따라가더니, 만족스러운 듯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다시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를 뒤집어 보았다. 내 눈에는 그저 먼지처럼 보이는 것들을 봉투에 담기도 했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바닥뿐만 아니라 손이 닿는 곳까지 나무껍질을 샅샅이 조사했다. 이끼 사이에 놓인 들쭉날쭉한 돌 하나도 그는 주의 깊게 살펴본 뒤 챙겨 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숲속에 난 길을 따라갔고,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큰길에 이르러서야 멈추었다.

"꽤 흥미로운 사건이었네." 홈즈가 다시 평소의 태도로 돌아오며 말했다. "오른쪽에 있는 저 회색 집이 관리인 숙소인 모양이야. 저 안에 들어가서 모란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짧게 메모도 남겨둘까 하네. 일을 마치는 대로 점심을 먹으러 돌아가도록 하지. 자네는 먼저 마차로 걸어가게. 금방 따라가겠네."

우리가 다시 마차를 잡아타고 로스로 돌아가기까지는 10분 정도가 더 걸렸다. 홈즈는 숲에서 집어 들었던 그 돌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이것이 흥미로울지도 모르겠군." 홈즈가 물건을 내밀며 말했다. "살인은 바로 이것으로 저질러졌네."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군요."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밑으로 풀이 자라나 있었네. 놓여 있은 지 겨우 며칠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흔적도 전혀 없었어. 이 점은 상처 부위와도 일치하네. 다른 흉기가 있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고 말이야."

"그럼 살인범은요?"

"키가 크고 왼손잡이이며,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밑창이 두꺼운 사냥용 부츠에 회색 망토를 입었으며, 인도산 시가를 피우고 시가 홀더를 사용합니다. 주머니에는 무딘 펜나이프를 넣고 다니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단서가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수사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라 미안하군." 그가 말했다. "이론도 좋지만, 우리는 고집불통인 영국 배심원들을 상대해야 하니까 말이야."

"어디 한번 두고 보죠." 홈즈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을 쓰고, 나는 내 방식을 쓰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바쁠 것 같으니, 아마 저녁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건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겠다고요?"

"아니, 끝났네."

"하지만 미스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해결됐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분명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근처는 그리 인구가 많은 동네도 아니니까요."

레스트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왼손잡이에 한쪽 다리를 저는 신사를 찾겠다고 전국을 헤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간 스코틀랜드 야드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좋습니다."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여기 숙소예요. 그럼 이만. 떠나기 전에 편지 한 통 남기도록 하죠."

레스트레이드 경위를 그의 숙소에 내려준 우리는 우리가 묵는 호텔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점심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홈즈는 침묵에 잠긴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마치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마저 역력했다.

"이봐, 왓슨." 탁자를 정리한 홈즈가 말했다. "그냥 이 의자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으

니, 자네 조언이 꼭 필요하네. 시가에 불이나 붙이게.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젊은 매카시의 진술에서 우리 둘 모두의 눈길을 즉시 사로잡은 두 가지 지점이 있네. 비록 그 사실이 나는 그에게 유리하게, 자네에게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말이야. 하나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도 전에 '쿠이!'라고 외쳤다는 사실이네. 다른 하나는 그가 죽어가며 쥐를 언급했다는 기이한 점이지. 아시다시피 그는 몇 마디를 중얼거렸을 뿐이지만, 아들의 귀에 들린 것은 그게 전부였다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점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네. 우선 저 청년의 말이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해 보세."

"그럼 이 '쿠이!'라는 외침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분명 아들을 부르려던 게 아니었네. 아들이 아는 바로는 브리스틀에 있었으니까. 마침 아들이 근처에 있어서 들렸을 뿐이지. '쿠이!'라는 외침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네. 하지만 '쿠이'는 호주에서 쓰는 아주 독특한 외침이고, 주로 호주인들끼리 주고받는 말이라네. 따라서 매카시가 보스콤 연못에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은 호주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

"그렇다면 그 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셜록 홈즈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이건 빅토리아 식민지의 지도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어젯밤 브리스틀에 전보를 보내서 받았지요." 그는 지도 일부를 손으로 덮으며 물었다. "어디가 보이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ARAT," 나는 읽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가 손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발라랏."

"맞습니다. 그 남자가 내뱉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죠. 아들은 그 말의 마지막 두 음절만을 간신히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인 범인의 이름을 말하려 했던 겁니다. 바로 발라랏 출신의 아무개라고 말이죠."

"정말 놀랍군요!" 내가 외쳤다.

"명백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용의자의 범위를 상당히 좁혀 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회색 옷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세 번째 결정적 단서가 되었죠. 이제 막연한 추측에서 벗어나, 회색 망토를 입은 발라랏 출신의 호주인이라는 구체적인 형상에 도달한 겁니다."

"물론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연못은 농장이나 저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데, 낯선 이가 함부로 돌아다니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녀온 현장 조사가 바로 그 일이라네. 현장을 조사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몇 가지 사소한 단서들을 알아냈지. 물론 그 멍청한 레스트레이드 경위에게는 아주 조금만 알려주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내 방식은 당신도 잘 알지 않나. 아주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네."

"그의 보폭을 보면 대략적인 키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장화에 남은 흔적을 통해서도 그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장화였지요."

"하지만 그가 다리를 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른발의 자국은 언제나 왼발보다 희미했습니다. 오른발에 무게를 덜 실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뚝거렸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왼손잡이 아닙니까."

"검시 심리에서 의사가 기록한 부상의 양상을 보면 당신도 단번에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겁니다. 타격은 바로 뒤에서 가해졌는데, 정작 상처는 왼쪽에 나 있었으니까요. 공격자가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부친과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담배까지 피웠죠. 저는 그곳에서 시가 재를 발견했는데, 담배 재에 관한 저만의 전문 지식 덕분에 그것이 인도산 시가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분야에 꽤 공을 들여, 파이프와 시가, 궐련 담배의 재 140종을 다룬 소논문도 한 편 썼을 정도니까요. 재를 발견한 뒤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가 던져버린 시가 꽁초를 이끼 사이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로테르담에서 말아 만드는 종류의 인도산 시가였습니다."

"시가 홀더는요?"

"그의 입에 담배 끝이 물려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홀더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 담배 끝은 이빨로 씹어 끊은 게 아니라 잘려 나간 상태였지. 하지만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은 걸 보니, 무딘 펜나이프를 사용한 것이 분명해."

"홈즈," 내가 말했다. "당신은 이 남자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로 옭아매었소. 마치 교수형의 밧줄을 끊어낸 것처럼,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진정으로 구한 것이나 다름없소. 이 모든 정황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제 알 것 같군. 범인은 바로——"

"존 터너 씨 오셨습니다!"

호텔 웨이터가 우리 응접실 문을 열며 외치더니, 손님을 안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기이하면서도 인상적인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느릿느릿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와 구부정한 어깨는 노쇠한 느낌을 주었으나, 깊게 파인 주름과 바위처럼 거친 이목구비, 그리고 거대한 체구는 그가 비범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음을 보여주었다. 헝클어진 수염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아래로 처진 짙은 눈썹은 그에게 위엄과 위압감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고, 입술과 콧날 양옆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그는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소파에 앉으시지요."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쪽지를 받으셨습니까?"

"네, 관리인이 가져다주었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어서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지요."

"제가 그 저택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지친 눈빛에 절망을 가득 담은 채 내 동료를 바라보며 물었다.

"맞습니다." 홈즈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눈빛에 답하며 말했다. "사실입니다. 맥카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맙소사!” 그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젊은이가 해를 입게 두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맹세컨대, 순회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면 저는 반드시 사실대로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군요.”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이만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말했을 겁니다.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아이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뭐라고요?”

“나는 공식적인 대리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의 따님이 저를 불러주었기 때문이며, 저는 오로지 그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맥카시만큼은 반드시 무죄로 풀어줘야 합니다.”

“난 죽어가는 사람이라네.” 노인 터너가 말했다. “수년째 당뇨를 앓고 있지. 의사 말로는 한 달을 더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더군. 하지만 감옥에서 죽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죽고 싶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앞에 앉았다. 손에는 펜을 쥐고, 앞에는 서류 뭉치를 놓은 상태였다.

"그저 사실대로만 말씀하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다 적으면 서명하시고, 여기 왓슨 박사가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젊은 맥카시를 구해야 하는 최후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자백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건대,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서류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잘됐네." 노인이 말했다. "내가 순회재판이 열릴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니, 내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네. 하지만 앨리스가 충격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자, 이제 자네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겠네.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야기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걸세."

"당신은 이 죽은 자, 맥카시를 몰랐을 거요. 그자는 악마가 인간의 탈을 쓰고 나타난 존재였소. 내 장담하건대, 부디 당신만은 그런 자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기를 하늘에 비오. 그자는 지난 20년 동안 나를 움켜쥐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소. 우선 내가 어떻게 그놈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부터 말해주겠소."

"60년대 초반, 금광 채굴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전 혈기 왕성하고 무모한 청년이었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보려 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게 되었고,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채굴도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거친 황야로 나앉게 되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곳에서 말하는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여섯 명이었는데, 때때로 농장을 습격하거나 채굴장

으로 향하는 마차를 길목에서 가로채며 거칠고 자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저는 '발러랫의 블랙 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우리 일행은 여전히 이 식민지에서 '발러랫 갱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발라랏에서 멜버른으로 금괴 호송대가 내려오고 있었죠. 우리는 그 길목에서 매복했다가 습격했습니다. 기병 여섯 명에 우리도 여섯 명이라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지만, 첫 발을 쏘자마자 그들의 안장 네 개가 비어버릴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리품을 챙기기도 전에 우리 대원 세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차 몰이꾼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었는데, 그자가 바로 이 맥카시였습니다. 그때 그를 쏴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그자의 사악하고 작은 눈이 제 얼굴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금괴를 가지고 달아나 부자가 되었고, 의심을 사지 않은 채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곳에서 옛 동료들과 헤어진 뒤, 저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매물로 나온 이 저택을 샀고,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갚기 위해 제 재산으로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사랑스러운 딸 앨리스를 남겨주었지요. 앨리스는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그 무엇보다도 제 손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듯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새 삶을 살며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맥카시가 제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 문제로 시내에 나갔다가 리전트가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제대로 된 코트 한 벌 걸치지 않았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고 있지 않은 차림이었소."

"자, 왔네, 잭." 그가 내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는 자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될 걸세. 나랑 내 아들, 이렇게 둘이 있으니 자네가 우리를 돌봐주면 된다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말이야, 영국은 법을 아주 잘 지키는 나라니까 언제든 소리만 지르면 경찰이 달려올 걸세."

"결국 그들은 서부 지방까지 쫓아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따돌리려 해도 소용없었지요. 그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 뒤로 줄곧 내 가장 좋은 땅들을 공짜로 차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삶에는 안식도, 평화도, 망각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보든 그 교활하게 웃는 얼굴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앨리스가 자랄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놈은 내가 경찰보다도 앨리스에게 내 과거를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곧 눈치챘거든요. 그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놓아야 했습니다. 땅이든, 돈이든, 집이든,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놈은 내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앨리스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놈 아들도 다 컸고 내 딸도 성인이 되었지요. 게다가 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들이 재산 전체를 물려받는 게 그놈에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빌어먹을 집안 혈통을 내 가문과 섞을 수는 없었으니

까요. 딱히 그 아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맥카시는 협박을 해왔지요. 저는 오히려 마음대로 해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자의 집 중간에 있는 연못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내려갔을 때 그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나는 시가에 불을 붙인 채, 그가 혼자가 될 때까지 나무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내 안의 검고 쓰라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내 딸이 길거리의 천한 계집이라도 되는 양, 딸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들에게 결혼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저런 자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결속을 끊어낼 수는 없는 걸까? 나는 이미 죽어가는, 절망에 빠진 사내였습니다. 정신은 또렷하고 몸도 제법 튼튼했지만, 내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기억과 내 딸만큼은! 그 더러운 입을 다물게 할 수만 있다면, 둘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홈즈 씨, 그래서 제가 저질렀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기 위해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나를 옭아맸던 그 그물에 함께 휘말리는 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마치 사악하고 독이 오른 짐승을 처단하듯, 아무런 가책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비명 소리에 아들이 달려왔지만, 나는 이미 숲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도망치다 떨어뜨린 망토를 챙기러 다시 돌아가야

만 했지만 말입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당신을 판단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작성된 진술서에 노인이 서명을 마치자 홈즈가 말했다.

"부디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닥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역시 그러기를 빕니다, 선생님.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네. 하지만 자네도 잘 알다시피, 조만간 순회재판소보다 더 높은 법정에서 자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걸세. 자네의 자백은 내가 보관해 두겠네. 만약 매카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나는 이 자백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기록은 살아있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네. 자네가 살든 죽든, 자네의 비밀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켜질 걸세."

"그럼, 이만 작별을 고하겠네." 노인이 엄숙하게 말했다. "자네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누리게 된 이 평온을 떠올린다면 그 마지막 순간이 한결 수월할 것이네." 거구의 몸을 비틀거리며 떨던 노인은 느릿한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신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긴 침묵 끝에 홈즈가 입을 열었다.

"운명은 왜 이토록 가련하고 무력한 인간들에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나는 벡스터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곤 하죠. '신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셜록 홈즈 역시 저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제임스 매카시의 무죄 판결은 홈즈가 이끌어내어 변호인 측에 전달한 여러 항변 덕분에 순회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노인 터너는 우리가 만난 뒤로 7개월을 더 살았으나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과 딸은 자신들의 과거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을 알지 못한 채, 앞으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리라 믿는다.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V.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1882년부터 1890년 사이의 셜록 홈즈 사건들을 기록한 내 노트와 자료들을 훑어보다 보면, 기이하고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건들은 이미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고, 어떤 사건들은 내 친구가 지녔던 그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무대가 되지 못했다. 이 글들의 목적은 바로 그 재능을 보여주는 데 있다. 또한 어떤 사건들은 홈즈의 분석 기술조차 당혹스럽게 만들었기에, 이야기로 옮긴다 해도 결말 없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또 어떤 사건들은 부분적으로만 해결되었는데, 그 설명 역시 홈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절대적인 논리적 증거보다는 추측과 짐작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부류, 즉 부분적으로만 해결된 사건들 가운데 한 사건만큼은 그 세부 사항이 매우 독보적이고 결과 또한 충격적이었다. 비록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원히, 어쩌면 앞으로도 결코 완전히 밝혀지지 못할 부분들

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나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188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흥미로운 사건들을 수없이 마주했고, 나는 그 기록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 그해 12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분류해 보자면, '파라돌 방'의 모험, 가구 창고 지하 저장고를 호화로운 클럽으로 사용했던 '아마추어 구걸 협회' 사건, 영국 범선 '소피 앤더슨호'의 실종과 관련된 사실들, 우파 섬에서 벌어진 그라이스 패터슨 일가의 기묘한 모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버웰 독살 사건 등이 있다. 캠버웰 사건의 경우, 기억하는 이도 있겠지만 셜록 홈즈가 죽은 이의 회중시계를 감아본 덕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 홈즈는 시계가 두 시간 전에 태엽이 감겼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사망자가 그사이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추론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사건을 언젠가 요약해서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펜을 들어 기록하려는 이 기묘한 일련의 사건만큼 특이한 구석을 가진 것은 없다.

9월 말이었다. 추분 무렵의 강풍이 유독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바람은 울부짖었고, 비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려댔다. 거대하고 인공적인 도시 런던의 중심부에 있는 이곳에서조차, 우리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잠시 벗어나 거대한 자연의 힘을 실감해야 했다. 그 힘은 마치 우리 문명이라는 창살 안에 갇힌 야수처럼, 인류를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고 요란해졌으며, 굴뚝을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는 마치 아이가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로 변했다.

셜록 홈즈는 벽난로 한쪽에서 기분이 언짢은 듯 앉아 범죄 기록들을 대조하며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반대편에 앉아 클라크 러셀의 멋진 해양 소설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밖에서 들려오는 광풍의 포효는 책 속의 문장과 뒤섞이는 듯했고, 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긴 파동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아내는 친정어머니 댁에 가 있었기에, 나는 며칠 동안 다시 베이커가에 있는 옛 거처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다.

"방금 그 소리, 분명 벨 소리였지?"

나는 곁에 있는 동료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이 밤중에 누가 온단 말인가? 자네 친구인가?"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손님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의뢰인이 온 건가?"

"만약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사건이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날, 이런 시간에 사람이 직접 찾아올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엔 집주인의 지인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의 추측은 틀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홈즈는 긴 팔을 뻗어 램프를 돌렸다. 빛이 자신을 비추지 않게 하고, 새로 찾아올 손님이 앉아야 할 빈 의자 쪽을 향하게 했다.

"들어오게!" 그가 말했다.

들어온 남자는 젊었다. 아무리 많아 봐야 스물둘 정도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몸가짐에서도 세련미와 섬세함이 묻어났다. 손에 든 우산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길게 늘어진 번쩍이는 우비로 보아 그가 거친 날씨를 뚫고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등불의 밝은 빛 아래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무거운 눈매를 보니, 마치 커다란 근심에 짓눌린 사람 같았다.

"사과를 드려야겠군요." 그는 금색 핀스네(pince-nez)를 들어 눈에 걸치며 말했다.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비바람을 몰고 들어와 이 아늑한 방을 어지럽힌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코트와 우산을 이쪽으로 주게." 홈즈가 말했다. "여기 걸어두면 금방 마를 걸세. 보아하니 남서쪽에서 오셨군."

"네, 호샴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구두 앞코에 묻은 그 진흙과 분필 가루의 혼합물은 아주 독특하군요."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게 항상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홈즈 씨, 당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탠커빌 클럽 스캔들 때 당신이 프렌더가스트 소령을 어떻게 구했는지 소령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는 카드 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누명을 썼었죠."

"당신이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말이 좀 지나쳤군요."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네 번이나 패배했네. 세 번은 남자에게, 한 번은 여자에게 당했지."

"하지만 당신이 거둔 수많은 성공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체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벽난로 가까이로 좀 당겨 앉으시지요. 그러고 나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제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군요."

"내게 오는 사건 중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 나는 최후의 심판관이니까."

"하지만 선생님, 감히 여쭙건대 지금까지 겪으신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만큼이나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흥미롭군요." 홈즈가 말했다. "부디 처음부터 핵심적인 사실들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사항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젊은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젖은 발을 타오르는 불꽃 쪽으로 쑥 내밀었다.

"제 이름은 존 오픈쇼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제 개인적인 사정은 이 끔찍한 사건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를 이어 내려온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시려면, 일이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는 두 아들이 계셨습니다. 제 삼촌인 엘리어스와 저희 아버지 조셉이지요. 아버지는 코번트리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자전거가 발명될 무렵에 규모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오픈쇼 사의 파손되지 않는 타이어에 대한 특허권자이기도 하셨지요. 사업이 워낙 번창한 덕분에 아버지는 공장을 매각하고 넉넉한 자산을 챙겨 은퇴하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아스 삼촌은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에서 농장주가 되셨어요. 그곳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잭슨 장군의 군대에 소속되어 싸우셨고, 그 후에는 후드 장군 휘하에서 복무하며 대령까지 오르셨죠. 리 장군이 항복했을 때 삼촌은 농장으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3, 4년 정도 머무셨습니다. 그러다 1869년이나 1870년쯤 유럽으로 돌아오셔서 호샴 근처 서섹스의 작은 영지를 사셨어요. 미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지만, 흑인들을 혐오하신 데다 그들에게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공화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국을 떠나신 겁니다. 삼촌은 참 기이한 분이셨어요. 성미가 급하고 사나우셨으며, 화가 나면 입이 아주 거칠어지셨지만, 성격 자체는 매우 은둔적이셨죠. 호샴에 사시는 동안 마을에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집 주변에는 정원과 두세 개의 들판이 있었는데, 삼촌은 주로 그곳에서 운동을 하셨어요. 물론 몇 주 동안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을 때도 아주 많았지만요. 브랜디를 아주 많이 드시고 담배도 지독하게 피우셨지만, 사람 만나는 걸 꺼리셨고 친구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친형제조차 만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저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아주 예뻐하셨죠. 처음 뵈었을 때 제가 겨우 열두 살 정도였거든요. 때는 1878년이었고, 그분이 영국에 오신 지는 8, 9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께 저를 데려가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셨고, 그분만의 방식으로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술이 깨어 있을 때면 저와 함께 백개먼이나 체커 게임을 즐기곤 하셨어요. 또한 하인들이나 상인들을 상대할 때도 저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죠. 덕분에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집안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열쇠를 제가 관리했기에, 그분의 사생활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락방 위쪽에 그분만의 개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항상 잠겨 있었고 저를 포함해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년 특유의 호기심 때문에 열쇠구멍으로 안을 훔쳐본 적도 있었지만, 그저 그런 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트렁크와 꾸러미들이 쌓여 있는 모습 말고는 더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883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대령의 접시 앞 탁자 위에 외국 우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대령은 평소 편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다. 모든 청구서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결제해 버리는 데다, 딱히 교류하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왔군!"

대령은 편지를 집어 들며 말했다.

"폰디체리 소인이 찍혔어! 대체 이게 뭐지?"

그가 서둘러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말라비틀어진 작은 오렌지 씨앗 다섯 알이 툭 튀어나와 접시 위로 흩어졌다. 나는 그 모습이 우스워 웃음을 터뜨리려 했으나, 대령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웃음이 쏙 들어갔다. 대령의 입술은 축 처졌고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다. 얼굴

색은 찰흙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손에 쥔 봉투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K. K. K.!"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이내 절규하듯 덧붙였다.

"세상에, 맙소사! 내 죄가 나를 따라잡았구나!"

“삼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외쳤다.

“죽음이라.”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공포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봉투를 집어 들었다. 봉투 안쪽 날개, 접착제 바로 윗부분에는 붉은 잉크로 'K'라는 글자가 세 번 반복해서 휘갈겨 써 있었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씨앗 다섯 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를 그토록 압도적인 공포로 몰아넣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나는 아침 식사를 하던 식탁을 떠났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아래로 내려오는 그와 마주쳤다. 그는 한 손에 다락방 열쇠로 보이는 녹슨 낡은 열쇠를, 다른 한 손에는 금고처럼 생긴 작은 황동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결국 내가 그들을 막아내고 말 테니까.”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메리에게 전해줘. 오늘은 내 방

에 불을 지펴 달라고. 그리고 호샴의 변호사인 포덤에게도 연락을 넣어 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자 저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벽난로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화로 안에는 종이를 태운 듯한 검고 부드러운 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황동 상자가 뚜껑을 연 채 텅 비어 있었고요. 저는 상자를 힐끗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자 뚜껑에 아침에 봉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세 개의 K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네가 내 유언을 직접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삼촌이 말씀하셨다. "내 모든 재산을 그 장점과 단점까지 통째로 내 동생, 즉 네 아버지에게 남기겠다. 재산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거쳐 네게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네가 이 재산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조언을 따르거라. 얘야, 차라리 네 가장 지독한 원수에게 그 재산을 넘겨버리렴. 너에게 이토록 양날의 검 같은 것을 물려주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나도 알 수가 없구나. 포덤 씨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해 주겠니?"

"지시받은 대로 서류에 서명했고, 변호사가 그것을 챙겨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기이한 사건은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머릿속으로 온갖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 몇 주가 지나고 일상이

평온하게 흘러가면서 그 느낌이 점차 옅어지긴 했지만, 그때 느꼈던 막연한 공포만큼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삼촌은 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렸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보내곤 하셨지요. 그러다 가끔 술에 취해 광분한 상태로 방에서 나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삼촌은 권총을 손에 든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가 정원을 헤집고 다니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으며, 사람이나 악마 그 무엇도 자신을 우리에 갇힌 양처럼 가둘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그런 격정적인 발작이 끝나면, 삼촌은 마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를 더는 버텨낼 수 없는 사람처럼, 문을 향해 요란하게 달려 들어와 문을 잠그고 빗장까지 질러 버리곤 했습니다. 추운 날임에도 삼촌의 얼굴이 마치 대야에서 막 건져 올린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홈즈 씨. 당신의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고 싶지 않군요. 그가 술에 취해 평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아 나섰을 때는, 정원 끝자락에 있는 이끼 낀 작은 웅덩이에 그가 얼굴을 처박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 깊이도 고작 2피트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배심원단은 그의 평소 괴팍한 성격을 고려해 '자살'이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던 그를 잘 아는 저로서는,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제 아버지가 유산과 은행에 예치된 14,000파운드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홈즈가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 같군요. 우선 삼촌께서 편지를 받은 날짜와, 삼촌이 자살했다고 추정되는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편지는 1883년 3월 10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주 뒤인 5월 2일 밤, 그는 사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가 호샴 저택을 물려받으셨을 때, 제 부탁으로 항상 잠겨 있던 다락방을 꼼꼼히 조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황동 상자 하나를 찾아냈지만, 안의 내용물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상자 덮개 안쪽에는 'K. K. K.'라는 이니셜이 반복해서 적힌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편지, 메모, 영수증 및 장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록을 보고, 오픈쇼 대령이 파괴한 서류들이 어떤 성격의 것들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락방에는 흩어진 수많은 서류와 제 삼촌의 미국 생활이 담긴 수첩들 외에는 딱히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전쟁 당시의 기록이었는데, 삼촌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용맹한 군인으로서 명성을 떨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은 남부 재건 시기의 것이었는데, 대부분 정치와 관련된 내

용이었습니다. 삼촌은 북부에서 내려온 카펫백 정치인들에 맞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모양입니다."

"84년 초에 아버지가 호샴으로 이사를 오셨고, 85년 1월 전까지는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는 방금 뜯은 봉투를 들고, 다른 한 손바닥에는 말라비틀어진 오렌지 씨 다섯 알을 올려둔 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령님에 대해 늘 늘어놓던 이야기를 두고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며 비웃곤 하셨지만, 정작 본인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무척이나 겁에 질리고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세상에, 존,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심장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K. K. K.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그렇군!" 그가 외쳤다. "여기 글자들이 그대로 들어 있어. 그런데 이 글자들 위에 적힌 건 대체 뭐지?"

"해시계 위에 서류를 올려두게."

그의 어깨 너머로 훔쳐보며, 나는 그 글귀를 읽었다.

"무슨 서류요? 해시계라니요?" 그가 물었다.

"정원에 있는 해시계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 파기된 서류들이 그 서류들일 겁니다."

"흥!" 그는 용기를 내어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여기는 문명 사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장난이 통하게 둘 수는 없지. 대체 이 일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

"던디에서 왔군요." 소인을 훑어보며 내가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장난이군." 그가 말했다. "내가 해시계나 서류 따위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겠네."

"경찰에 꼭 알려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애써 노력한 대가가 비웃음뿐이라면,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네. 전혀 그럴 생각 없네."

"그럼 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안 돼, 금지하겠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소란을 피우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와 논쟁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불길한 예감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다.

편지가 도착하고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옛 친구인 프리바디 소령을 만나러 집을 나서셨다. 소령은 포츠다운 언덕에 있는 요새 중 한 곳을 지휘하는 분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집을 비우시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계실 때보다 오히려 위험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신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소령으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전보를 받았다. 아버지는 인근에 흔한 깊은 석회암 구덩이에 빠지셨고, 두개골이 함몰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다. 나는 서둘러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

정황을 살펴보니, 아버지는 황혼 무렵 페어험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던 듯하다. 아버지는 그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셨고, 석회암 구덩이에는 울타리조차 쳐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배심원단은 주저 없이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지만, 살인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폭행의 흔적도, 발자국도, 강도의 흔적도 없었으며, 길가에서 낯선 이를 목격했다는 기록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 아버지를 겨냥해 사악한 음모를 꾸몄으리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저는 이런 불길한 방식으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처분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겠지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닥

친 불행이 어떤 식으로든 삼촌의 과거 사건과 맞물려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옮긴다 한들 위험은 어디서든 똑같이 닥쳐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불행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건 1885년 1월이었어요. 그로부터 벌써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호샴에서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 가문에서 드디어 물러갔구나, 지난 세대에서 끝이 났구나 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일찍 안심했던 모양이에요. 어제 아침, 아버지에게 닥쳤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극이 다시 찾아왔거든요."

젊은이는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탁자 쪽으로 몸을 돌려, 봉투 위에 말린 오렌지 씨앗 다섯 알을 털어 놓았다.

"이게 그 봉투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런던 동부 구역에서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군요. 봉투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K. K. K.', 그리고 '해시계 위에 서류를 두어라'라고 말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홈즈가 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창백하고 마른 두 손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무력감뿐이었습니다. 뱀이 몸을 뒤틀며 다가올 때의 가련한 토끼가 된 기분이었지요. 어떤 예견이나 대비로도 막을 수 없는, 저항할 길 없는 거대한 악의 손아귀에 붙잡힌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이런!” 셜록 홈즈가 외쳤다. “이보게, 당장 움직여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끝장이야. 오로지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네. 지금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일세.”

“경찰을 만났습니다.”

“아!”

“하지만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경위는 이 편지들이 전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배심원단이 판결했듯이, 친척들의 죽음도 그저 사고였을 뿐 경고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홈즈가 움켜쥔 두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믿을 수 없는 멍청함이군!" 그가 외쳤다.

“하지만 그들이 경찰관 한 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저와 함께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하더군요.”

“오늘 밤 그분도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집에 머물라는 게 그의 명령이었습니다.”

홈즈는 다시 한번 허공에 대고 격렬하게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왜 나를 찾아왔나?" 그가 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곧장 오지 않고 망설였던 건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에서야 프렌더가스트 소령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분이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군요. 진작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내놓은 것 외에 더 이상의 증거는 없는 겁[]니까요?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단서나 암시적인 정황도 전혀 없습니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존 오픈쇼가 말했다. 그는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색이 변하고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다. "기억이 좀 납니다만," 그가 말을 이었다. "삼촌께서 서류를 태우시던 날, 재 사이에 남겨진 타지 않은 작은 가장자리들이 바로 이런 색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삼촌의 방 바닥에서 이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다른 서류들 사이에서 펄럭이며 밖으로 빠져나와 화를 면한 것 같습니다. 씨앗에 대한 언급 말고는 딱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일기장의 한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필체는 틀림없이 삼촌의 것이 맞습니다."

홈즈가 등불을 옮기자 우리 둘은 종이 한 장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 책에서 뜯어낸 것

이 분명했다. 종이 맨 위에는 '1869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4일. 허드슨이 왔다. 늘 보던 그 플랫폼이었다.

"7일 자. 맥컬리, 파라모어, 그리고 세인트 어거스틴의 존 스웨인에게 압박을 가할 것."

"9일. 맥컬리 통과."

"10일. 존 스웨인 결백함."

"12일. 파라모어 방문함. 모든 일 순조로움."

"고맙습니다!" 홈즈가 종이를 접어 방문객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제 단 한 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검토할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니까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당장 실행해야 해요. 방금 우리에게 보여준 그 종이를 당신이 설명한 그 황동 상자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은 모두 삼촌이 태워버렸으며,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것이라는 내용의 쪽지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써야 해요. 그렇게 한 뒤에는 지시받은 대로 즉시 상자를 해시계 위에 올려두세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수나 그와 비슷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법의 힘을 빌려 복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음모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이제 막 거미줄을 짜기 시작한 단계니까요. 우선은 당신을 위협하는 당면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이 미스터리를 밝혀내어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말했다. "덕분에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반드시 조언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매우 실질적이고도 임박한 위험이 닥쳐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니까요.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되십니까?"

"워털루역에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직 아홉 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일 테니 안전할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당신의 사건을 조사해 보지요."

"그럼, 호샴에서 뵙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비밀은 런던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곳도 바로 그곳이지요."

"그럼 상자와 서류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하신 조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따르도록 하지요." 그는 우리와 악수를 나누고는 작별을 고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빗줄기는 창문을 두드리며 세차게 들이쳤다. 이 기묘하고도 거친 이야기는 마치 폭풍우에 휩쓸려 온 해초 뭉치처럼, 휘몰아치는 자연의 광기 속에서 우리에게 날아들었다가 다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셜록 홈즈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타오르는 장작불의 붉은 빛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향해 쫓기듯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 고리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왓슨, 내 생각엔 말이야." 마침내 홈즈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맡았던 그 어떤 사건보다 이번 사건이 가장 기상천외한 것 같군."

"아마도 '네 사람의 표식' 정도를 제외하면 말이지."

"글쎄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아마 그 점만 빼면 다를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보기엔 이 존 오픈쇼라는 인물이 솔토스보다 훨씬 더 큰 위험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물었다. "그 위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짐작 가는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그것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럼 그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K. K. K.라는 자는 누구이며, 왜 이 불행한 가족을 쫓는 것입니까?"

셜록 홈즈는 눈을 감고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기댄 채 양 손가락 끝을 맞대었다.

"이상적인 추리가는 말이야," 홈즈가 말했다. "어떤 사실 하나를 그 모든 측면에서 파악하고 나면, 그 사실에 이르게 된 일련의 사건들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뒤따를 결과까지 모두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하네. 퀴비에가 뼈 하나만 보고도 동물 전체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련의 사건 중 단 하나의 연결 고리라도 철저히 이해한 관찰자라면 그 전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우리는 아직 이성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 감각의 도움을 빌려 해결책을 찾으려던 모든 이들을 좌절시킨 문제라도, 서재에 앉아 이성만으로 풀어낼 수 있다네.

하지만 이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추리가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교육이 보편화되고

백과사전이 넘쳐나는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리 흔치 않네. 물론 업무에 유용할 만한 지식까지 전부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나 또한 내 분야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네.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가 친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자네가 내 능력의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 준 적이 있었지."

"그렇다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참으로 기묘한 서류였죠.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철학, 천문학, 정치학 점수는 0점이었어요. 식물학은 가변적이었고, 지질학은 도시 반경 50마일 이내의 진흙 자국에 관해서라면 아주 심오했죠. 화학은 별나고 해부학은 체계가 없었고요. 선정적인 문학이나 범죄 기록 분야는 독보적이었고,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권투 선수, 검객, 변호사, 그리고 코카인과 담배로 자가 중독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점도 적혀 있었죠. 제 분석의 핵심은 아마 그것들이었을 겁니다."

홈즈는 마지막 항목을 보더니 씨긋 웃었다. "자," 그가 말했다.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말하겠네. 사람은 머릿속이라는 작은 다락방에 앞으로 쓸 법한 가구들을 잘 채워두어야 하네.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서재의 잡동사니 방에 넣어두면 되지. 그러다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니까 말이야. 자, 오늘 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네. 옆에 있는 선반에서 《아메리칸 백과사전》의 K 항목을 좀 건네주게. 고맙네. 이제 상황을 검토하며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지 살펴보세. 우선, 오펜쇼 대령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부터 시작할 수 있겠군. 그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이 습관을 전부 바꾸면서, 쾌적한 플

로리다의 기후를 버리고 영국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외롭게 지내려 하지는 않거든. 그가 영국에서 지독할 정도로 고독을 즐기는 것을 보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 그를 미국에서 쫓아낸 것도 바로 그 공포였다는 것을 가설로 세워볼 수 있겠지.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받은 위협적인 편지들을 검토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을 뿐이네. 자네, 그 편지들에 찍힌 우편 소인을 확인했나?"

"첫 번째는 폰디체리에서, 두 번째는 던디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런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스트 런던에서 온 것이라네. 그 사실로부터 무엇을 추론해낼 수 있겠나?"

"전부 항구들입니다. 필자가 배에 타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훌륭하군. 벌써 단서 하나를 잡았어. 글을 쓴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자, 이제 다른 점도 한번 생각해보지. 폰디체리 사건에서는 협박을 받은 뒤 실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7주가 걸렸지만, 던디에서는 고작 3,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 이 차이가 무언가 암시하는 게 있을까?"

"이동해야 할 거리가 더 멀어서겠지요."

"하지만 편지도 그만큼 더 먼 거리를 와야 했네."

"그렇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범선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기묘한 경고나 표식을 먼저 보내는 것 같더군요. 던디에서 신호가 오자마자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증기선을 타고 폰디체리에서 왔다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주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제 생각에 그 7주는 편지를 실어 나른 우편선과, 편지를 쓴 당사자를 실어 나른 범선 사이의 시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 이상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제 이 새로운 사건이 왜 이토록 절박한지, 그리고 왜 내가 젊은 오픈쇼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발신인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항상 그 시간이 다 흐른 뒤에야 비극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체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맙소사!" 내가 외쳤다. "이 끈질긴 박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픈쇼가 품고 있던 서류들은 그 항해선에 타고 있는 인물들에게 분명 매우 중요한 물건일 겁니다. 제 생각에 그 배에는 한 명 이상의 공모자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검시관 배심원단까지 속여가며 두 명의 죽음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 아닙니다. 분명 여러 명이 가담했을 것이고, 그들은 수완이 좋고 결단력 있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서류를 가진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은 어떻게든 그 서류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K. K. K.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이니셜이 아니라, 하나의 결사체를 상징하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들어본 적이라도 있나?" 셜록 홈즈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쿠 클럭스 클랜이라는 조직 말일세. 들어본 적이 없나?"

"전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홈즈는 무릎 위에 놓인 책장을 넘겼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여기 있군."

"쿠 클럭스 클랜. 소총의 공이를 당길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끔찍한 비밀 결사는 남북 전쟁 이후 남부 주에서 전직 남부 연합군 병사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이후 테네시, 루이지애나,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빠르게 지부를 형성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는데, 주로 흑인 유권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자신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이들을 살해하고 쫓아내는 데 사용했다.

이들의 만행이 저질러지기 전에는 보통 표적이 된 사람에게 기괴하지만 대개는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경고를 보냈다. 어떤 지역에서는

참나무 잎사귀를, 또 어떤 지역에서는 멜론 씨앗이나 오렌지 씨앗을 보내기도 했다. 경고를 받은 피해자는 이전의 행실을 공개적으로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마을을 떠나 도망쳐야 했다. 만약 끝까지 맞서려 한다면 죽음은 반드시 찾아왔으며, 대개는 아주 기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 결사의 조직력과 수법이 워낙 치밀했기에, 이들에게 맞서고도 무사했던 사례는 기록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만행을 저지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낸 경우도 거의 없었다. 미국 정부와 남부 사회의 상류층이 저지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수년 동안 번성했다. 그러다 결국 1869년에 이 운동은 다소 갑작스럽게 와해되었다. 다만 그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는 했다."

"책을 내려놓으며 홈즈가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사가 갑작스럽게 해체된 시점이 오픈쇼가 서류를 챙겨 미국에서 사라진 때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걸세.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그와 그의 가족이 아주 집요한 자들에게 쫓기고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네. 이 명부와 일기장이 남부의 유력 인사들 중 몇몇을 연루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자네도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기록을 되찾기 전까지는 밤잠을 설칠 이들이 아주 많을 걸세."

"그렇다면 우리가 본 그 페이지는——"

"우리가 예상할 만한 내용이군. 내 기억이 맞다면, 그 페이지에는 'A, B, C에게 씨앗을 보냄'이라고 적혀 있었네. 즉, 결사의 경고를 그들

에게 보냈다는 뜻이지. 그다음 기록을 보면 A와 B는 떠났다고, 즉 타국을 떠났다고 적혀 있고, 마지막에는 C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나오네. 안타깝게도 C에게는 불길한 결과가 초래된 것 같군. 자, 왓슨 박사, 이제 이 어두운 사건에 빛을 비춰보세나. 그사이 젊은 오픈쇼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일러준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라 믿네. 오늘 밤 더 이상 할 말도, 할 일도 없으니 내 바이올린을 건네주게. 이 끔찍한 날씨와 인간들의 더욱 끔찍한 행태는 잠시 잊어버리자고."

아침이 되자 날이 개었고, 거대 도시를 뒤덮은 흐릿한 장막 사이로 햇살이 은은하게 비쳐 들었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셜록 홈즈는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기다려 드리지 못해 미안하네." 홈즈가 말했다. "예감이 들지만, 젊은 오픈쇼의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첫 번째 조사를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결국 호샴까지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곳에 먼저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시내 쪽 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벨만 누르세요. 그러면 하녀가 커피를 가져다줄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탁자 위에 놓인 펼치지 않은 신문을 집어 들어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홈즈!" 내가 외쳤다. "너무 늦었소!"

"아!" 홈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홈즈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 역시 깊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챌 수 있었다.

내 눈에 오픈쇼라는 이름과 '워털루 다리 인근의 비극'이라는 제목이 들어왔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 워털루 다리 근처에서 근무하던 H 구역 소속 쿡 순경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과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워낙 어둡고 폭풍우까지 몰아친 탓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힘을 보탰음에도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즉시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상 경찰의 도움으로 결국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자는 호샴 근처에 거주하는 존 오픈쇼라는 이름의 젊은 신사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봉투를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쇼는 워털루 역에서 마지막 열차를 타려고 서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한 마음과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발을 헛디뎌, 강 유람선이 정박하는 작은 선착장 너머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신에서 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사건은 불행한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일로 당국이 강변 선착장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홈즈는 내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낙담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네, 왓슨."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분명 사소한 감정이겠지만, 내 자존심이 상했단 말일세. 이제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되었어. 신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당을 내 손으로 소탕하고 말겠네.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내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다니!"

홈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걷잡을 수 없는 불안함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거렸다. 창백한 뺨에는 홍조가 돌았고, 길고 가느다란 두 손은 초조한 듯 끊임없이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놈들은 분명 교활한 악마들일 거야." 마침내 그가 외쳤다. "어떻게 그를 그곳까지 유인할 수 있었지? 엠뱅크먼트는 역으로 가는 직행 경로가 아니잖아. 아무리 이런 밤이라 해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리가 너무 붐볐을 테고. 자, 왓슨,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될지는 두고 보자고. 난 이제 나가보겠네!"

"경찰에게 말입니까?"

"아니, 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내가 거미줄을 다 쳐 놓으면, 그때 가서 파리들을 잡아채도 늦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본업에 매달리느라 베이커가로 돌아온 것은 이미 늦은 저녁이었다. 셜록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안색이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선 것은 거의 열 시가 다 되어서였다. 홈

즈는 찬장으로 걸어가 빵 한 덩이를 뜯더니, 물을 길게 들이켜며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배가 고프시군요." 내가 말했다.

"배가 고프군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한 입도 못 먹었네.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자, 그럼."

"단서라도 찾은 건가요?"

"내 손안에 다 들어있네. 어린 오픈쇼의 원한을 갚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이보게, 왓슨. 그놈들이 저지른 악랄한 수법 그대로 되돌려주자고. 아주 기막힌 생각이 아닌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찬장에서 오렌지 하나를 꺼내더니, 껍질을 갈기갈기 찢어 테이블 위에 씨를 짜냈다. 그는 그 씨앗 중 다섯 개를 골라 봉투 안에 넣었다. 그러고는 봉투 덮개 안쪽에 'J. O.를 위한 S. H.'라고 적었다. 그런

다음 봉투를 봉하고, 받는 사람을 '조지아주 사바나, 범선 론 스타 호, 제임스 칼훈 대위'라고 적어 넣었다.

"그가 항구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게 될 걸세." 그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놈은 아마 잠 한 숨 못 자는 밤을 보내게 되겠지. 오픈쇼가 그랬던 것처럼, 그놈도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확실한 전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칼훈 대위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일당의 우두머리 말입니다. 다른 놈들도 다 잡아들이겠지만, 우선 그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셨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 위에는 날짜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로이드 선박 등록부와 옛 서류들을 뒤졌네." 홈즈가 말했다. "1883년 1월과 2월 사이에 폰디체리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향후 행적을 추적했지. 그 두 달 동안 그곳에 보고된 배는 꽤 규모가 큰 배들로 서른여섯 척이었네. 그중 '론 스타(Lone Star)'호가 단번에 내 눈길을 끌더군. 런던에서 출항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이름은 미국의 어느 주 이름과 같았거든."

"텍사스일 겁니다."

"그게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 배가 분명 미국에서 건조되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던디의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 1885년 1월에 론 스타호라는 범선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지요. 그 후에는 현재 런던 항에 정박 중인 선박들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론 스타호는 지난주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직접 앨버트 부두로 내려가 확인해 보니, 배는 오늘 아침 밀물 때 강을 따라 내려갔더군요. 사바나로 향하는 귀항 항로였습니다. 그레이브샌드에 전보를 보내 물어보니 배는 이미 얼마 전에 그곳을 지났다고 합니다. 지금 동풍이 불고 있으니, 분명 굿윈 암초를 지나 와이트섬 근처까지 갔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이미 꼬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와 두 명의 항해사는 이 배에 탄 유일한 미국 태생입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핀란드인과 독일인들이고요. 또한 어젯밤 세 사람 모두 배를 비웠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화물을 싣던 인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범선이 사바나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편선이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고 전보를 통

해 사바나 경찰에게 이 세 신사가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될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둔 인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빈틈은 있기 마련이다. 존 오픈쇼를 살해한 범인들은 결국 오렌지 씨앗을 받지 못했다. 그 씨앗은 자신들만큼이나 영리하고 단호한 추적자가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유일한 경고였다.

그해 추분 무렵의 폭풍은 유난히 길고도 매서웠다. 우리는 사바나에서 출발한 '론 스타호'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중에야 대서양 먼바다에서 배의 부서진 선미 기둥 하나가 파도 사이로 흔들리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 파편에는 'L. 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론 스타호'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직 그것뿐이다.

뒤틀린 입술의 사나이

6. 뒤틀린 입술을 가진 사나이

고(故) 엘리어스 휘트니 신학박사(D.D.), 세인트 조지 신학대학 학장의 동생인 아이사 휘트니는 아편에 깊이 중독된 사람이었다. 내가 듣기로는 대학 시절의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시작된 습관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한다. 그는 디 퀸시가 쓴 꿈과 감각에 관한 묘사를 읽고는, 그와 같은 환각을 경험해 보려고 담배에 라우다넘을 적셔 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그 역시 한 번 시작한 습관을 끊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후 수년 동안 약물의 노예로 살았고, 친구와 친척들에게는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누렇게 뜬 창백한 얼굴에 눈꺼풀은 힘없이 처져 있고, 눈동자는 바늘 끝처럼 작아진 채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던 모습 말이다. 고결했던 한 남자의 몰락한 잔해 그 자체였다.

어느 날 밤이었다. 1889년 6월의 어느 밤, 사람이 첫 하품을 내뱉으며 시계를 힐끗 쳐다볼 법한 시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켰고, 아내는 무릎 위에 두었던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못내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환자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가 주셔야겠어요."

나는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막 돌아온 참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두르는 듯한 말소리가 이어졌고, 곧이어 리놀륨 바닥을 급히 딛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베일을 쓰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입을 뗐다. 그러더니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내 아내의 목을 껴안은 채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 정말 큰일 났어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나," 베일을 걷어 올리며 아내가 말했다. "케이트 휘트니 아니니? 정말 깜짝 놀랐잖아, 케이트! 네가 들어올 때만 해도 누군지 전혀 몰랐단다."

"어찌할 바를 몰라 곧장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마치 등대를 찾는 새들처럼 내 아내를 찾아오곤 했다.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선 와인에 물을 좀 타서 드시지요. 그러고 나서 여기 편히 앉아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임스를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는 편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과 도움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사 때문에 그래요. 이이가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의사인 나에게는 환자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학창 시절 동창인 내 아내에게는 속 깊은 고민을 나누며 이야기를 해왔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들을 건네며 그녀를 달래고 위로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 우리가 그를 그녀의 곁으로 데려올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그랬던 모양이다. 최근 들어 남편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시티(City)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아편굴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전까지 그의 광란은 늘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저녁이면 몸을 떨며 초췌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법에 걸린 듯 벌써 마흔여덟 시간째 소식이 없었다. 그는 분명 부둣가 근처의 지저분한 곳에 누워 독한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약 기운이 가시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어퍼 스완덤 레인의 '바 오브 골드(Bar of Gold)'에 가면 그를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젊고 겁 많은 여자인 그녀가 어떻

게 그런 곳에 발을 들여, 남편을 둘러싼 무뢰한들 사이에서 그를 구해 낼 수 있겠는가?

사건이 터졌고, 해결할 방법은 당연히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를 이곳으로 직접 안내해도 괜찮을까? 그러고 보니, 애초에 그녀가 왜 와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나는 이사 휘트니의 주치의였고, 그만큼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혼자 움직이는 편이 일을 처리하기에 훨씬 수월할 터였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만약 환자가 그녀가 알려준 주소에 정말로 있다면, 두 시간 안에 반드시 택시를 보내 그를 집으로 모셔다드리겠노라고.

그렇게 10분 만에 나는 안락의자와 화기애애한 거실을 뒤로하고 떠났다. 당시 내가 느끼기에 이 임무는 무척이나 기묘한 일이었기에, 나는 낯선 용무를 띤 채 한섬 택시를 타고 동쪽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었는지는 오직 미래만이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 모험의 첫 단계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퍼 스완덤 레인은 런던 브리지 동쪽, 강 북쪽을 따라 늘어선 높은 부두들 뒤편에 숨어 있는 지저분한 골목이었다. 나는 옷가게와 진(gin) 가게 사이에 자리 잡은, 내가 찾던 은신처를 발견했다. 그곳으로 가려면 동굴 입구처럼 검게 입을 벌린 틈새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마차를 기다리라고 일러둔 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술 취한 이들의 끊임없는 발길에 가운데가 움푹 파인 계단이었다. 문 위에 달린 깜빡이는 기름등잔 불빛에 의지해 문고리를 찾아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길고 낮은 방이었는

데, 갈색 아편 연기가 자욱하고 무겁게 깔려 있었다. 방 안에는 이민선 선원들의 숙소처럼 나무 침상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기이하고도 기괴한 자세로 누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어떤 이는 어깨를 굽혔고, 어떤 이는 무릎을 꺾었으며, 또 어떤 이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로 생기 없는 검은 눈동자들이 새로 나타난 이를 향해 번뜩였다. 칠흑 같은 그림자 너머로는 작은 붉은 빛의 원들이 명멸했다. 금속 파이프 안에서 타오르는 독약의 기운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함에 따라, 그 빛도 밝아졌다 흐려지기를 반복했다. 대부분은 침묵을 지켰으나, 어떤 이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쏟아져 나오다가도 이내 뚝 끊겨 정적으로 돌아갔다. 다들 옆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각자 자신의 생각만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저 멀리 끝쪽에는 숯불이 타오르는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다. 그 옆 삼각 나무 의자에는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양 주먹에 턱을 괴고 팔꿈치를 무릎에 올린 채, 멍하니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혈색이 누르스름한 말레이인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왔다. 그는 내게 파이프와 아편 한 줌을 건네며 빈 침상으로 손짓해 안내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머물러 있으러 온 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이곳에 이사 휘트니 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입니다."

오른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어둠 속을 유심히 살피자,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에 머리칼까지 헝클어진 휘트니가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세상에! 왓슨 아니오!" 그가 외쳤다. 그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 듯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봐, 왓슨, 지금 몇 시인가?"

"열한 시가 다 되었군."

"무슨 요일 말씀입니까?"

"6월 19일 금요일 자다."

"세상에나! 난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네. 아, 정말 수요일이군. 대체 왜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건가?" 그는 양팔에 얼굴을 묻더니, 높은 음의 울음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보게, 오늘이 금요일이라니까! 부인이 이 이틀 동안이나 자네를 기다렸단 말일세.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그렇긴 하네. 하지만 왓슨, 자네가 착각한 모양이야. 난 여기 온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 파이프를 세 대 피웠나, 네 대 피웠나— 기억이 잘 안 나는군. 그래도 자네와 함께 집으로 가겠네. 가여운 어린 케이트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 내 손을 잡게! 택시는 잡았나?"

그래, 한 대 기다리게 해 두었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겠네. 하지만 내게 빚진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왓슨, 내가 무엇을 빚졌는지 찾아봐 주게. 몸 상태가 영 말이 아니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두 줄로 늘어선 침대 사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 걸었다. 약물의 역하고 아찔한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 숨을 죽인 채, 관리인을 찾아 주위를 살폈다. 화로 옆에 앉아 있는 키 큰 남자를 지나칠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니,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 앞을 지나간 다음, 나를 돌아보시오."

그 말은 내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 곁에 앉은 노인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무언가에 몰두한 듯 앉아 있었다. 매우 야위고 주름진 얼굴에 노쇠하여 몸을 굽히고 있었으며, 무릎 사이에는 아편 파이프가 매달려 있었다. 마치 지독한 무력감에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 툭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간 뒤 뒤를 돌아보았다. 경악 섞인 비명을 내지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다. 그는 오직 나에게만 보이도록 등을 돌리고 있었다. 노인의 체구는 건장해졌고 주름은 사라졌으며, 흐릿했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 있었다. 불가에 앉아 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싱긋 웃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셜록 홈즈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오라는 듯 가볍게 손짓했다. 그러고는 즉시 다시 사람들을 향해 얼굴을 반쯤 돌리더니, 다시금 입술이 늘어지고 비틀거리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홈즈!" 나는 속삭였다. "도대체 이 소굴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최대한 낮게 말하게." 그가 대답했다. "내 귀는 아주 예민하거든. 만약 자네의 그 술 취한 친구를 좀 치워주는 친절을 베풀어준다면, 자네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좋겠군."

"밖에 마차가 와 있습니다."

"그럼 그를 마차에 태워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 사람은 딱히 사고를 칠 만큼 기운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아울러 마부 편으로 부인께도 전갈을 하나 보내두는 게 좋겠군요. 이제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5분 안에 나가겠습니다."

셜록 홈즈의 요청을 거절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의 요구는 언제나 지극히 명확했고, 아주 차분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을 담아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휘트니가 마차에 올라타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내 임무가 사실상 끝났다고 느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내 친구와 함께 그의 일상인 그 기묘한 모험 중 하나에 동참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나는 몇 분 만에 짧은 메모를 남기고 휘트니의 계산을 마친 뒤, 그를 마차로 안내하여 어둠 속으로 떠나보냈다. 곧이어 아편굴에서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나타났고, 나는 셜록 홈즈와

함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두 블록 정도를 구부정한 허리와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자세를 곧게 펴고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왓슨, 자네 생각엔 내가 코카인 주사뿐만 아니라 아편까지 피우고 있을 것 같나?"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의학적 견해를 빌려 내게 지적해 온 그 온갖 사소한 약점들 말일세."

"거기서 당신을 마주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네를 발견했을 때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걸세.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적을 찾으러 왔네.

"적이라고요?"

"맞아. 내 천적 중 하나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내 먹잇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군. 요점만 말하자면, 왓슨, 나는 지금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조사 중이라네. 전에도 그랬듯이, 저 멍청이들이 횡설수설 떠드는 말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지. 만약 그 소굴에서 내 정체가 탄로 났다면, 난 한 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 거야. 전에도 내 목적을 위해 그곳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곳을 운영하는 비열한 라스카르 선원이 나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했거든. 폴 워프 모퉁이 근처, 그 건물 뒤편에는 함정 문이 하나 있네.

달빛조차 없는 밤마다 그 문을 통과해 간 것들에 대해, 그 문은 참으로 기괴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걸세."

"뭐라고요! 시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맞아, 왓슨. 그 소굴에서 죽어 나간 불쌍한 희생자 한 명당 1,000파운드씩만 받았어도 우린 이미 거부가 됐을 거야. 강변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 비열한 살인 함정은 없을 걸세. 네빌 세인트 클레어가 그 함정에 발을 들였으니, 이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군. 하지만 우리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네."

홈즈는 검지와 중지를 입에 물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멀리서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답신처럼 들려왔고, 곧이어 마차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이어졌다.

"자, 왓슨." 어둠을 뚫고 차체가 높은 이륜마차, 곧 도그카트 한 대가 달려왔다. 마차 옆에 달린 등불이 황금빛 터널 두 개를 길 위로 쏘아 보냈다. 홈즈가 말했다. "나와 같이 가주겠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군요."

"오, 믿음직한 동료는 언제나 도움이 되는 법이지. 기록을 남겨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더 시더스'에 있는 내 방은 침대가 두 개 놓인 방이라네."

"시더스 저택 말입니까?"

"네, 저곳이 세인트 클레어 씨의 저택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그곳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켄트주의 리 근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7마일을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곧 다 알게 될 거야. 자, 이쪽으로 올라오게. 좋아, 존. 자네는 여기 있을 필요 없네. 여기 반 크라운일세. 내일 11시쯤 내가 올 테니 기다리게. 자, 말이 알아서 달리게 고삐를 늦춰 주게. 그럼 이만!"

그가 채찍으로 말을 가볍게 내리치자,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적막한 거리 사이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거리는 점차 넓어지더니, 이윽고 탁한 강물이 발밑에서 느릿하게 흐르는 넓은 난간 다리를 가로질러 달렸다. 다리 너머에는 벽돌과 모르타르로 지어진 무미건조한 건물들이 황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이라고는 순찰 중인 경찰관의 무겁고 규칙적인 발소리, 혹은 뒤늦게 귀가하는 유흥객들의 노래와 외침뿐이었다. 하늘에는 흐릿한 구름 떼가 느릿하게 떠다녔고, 구름 사이로 별 한두 개가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가슴 쪽으로 숙인 채 침묵 속에서 말을 몰았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이번 새로운 사건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그의 정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그의 깊은 사색을 방해할까 두려워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몇 마일을 달려 교

외 빌라들이 늘어선 경계에 다다랐을 무렵, 그는 몸을 한번 떨고 어깨를 으쓱하더니, 마치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듯한 태도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자네는 침묵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재주가 있어, 왓슨." 홈즈가 말했다. "덕분에 동료로서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라네. 정말이지, 내게 대화 상대가 있다는 건 큰 행운이야. 내 생각들이 그리 유쾌한 것들만은 아니거든. 오늘 밤, 문앞에서 나를 맞이할 그 가련하고 작은 여인에게 대체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네."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리(Lee)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건의 전말을 말해줄 시간이 딱 맞겠군. 말도 안 될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도무지 실마리가 잡히질 않아. 실타래는 분명히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끝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단 말이지. 자, 왓슨, 내가 사건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네. 어쩌면 모든 게 캄캄한 내 눈에 자네는 한 줄기 빛을 찾아낼지도 모르니까."

"그럼, 계속하시게."

"몇 년 전, 정확히는 1884년 5월이었습니다. 네빌 세인트 클레어라는 이름의, 꽤 재력이 있어 보이는 신사가 리(Lee)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빌라를 빌려 정원을 아주 멋지게 꾸몄고, 대체로 품격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웃들과도 친분을 쌓았고, 1887년에는 지역 양조업자의 딸과 결혼하여 현재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딱히 하는 일은 없었지만 여러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통 아침에 시내로 나갔다가 매일 밤 캐넌 스트리트 역에서 출발하는 5시 14분 열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씨는 현재 서른일곱 살로, 절제된 생활 습관을 지녔으며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또한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덧붙이자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그의 총 채무는 88파운드 10실링인 반면, 캐피털 앤 카운티스 은행에는 220파운드의 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니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는 평소보다 좀 일찍 시내로 나갔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는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두 건이나 있다며,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줄 벽돌 상자를 사 오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도, 그가 집을 나선 직후인 바로 그 월요일에 그의 아내에게 전보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꽤 값나가는 소포가 애버딘 해운 회사 사무실에 도착해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죠. 런던 지리에 밝은 분이라면 그 회사의 사무실이 프레스노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 거리는 오늘 밤 제가 계셨던 업퍼 스완덤 레인에서 갈라져 나오지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점심을 먹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쇼핑을 좀 한 뒤에 회사 사무실로 가서 소포를 찾았고, 역으로 돌아가던 중 정확히 4시 35분에 스완덤 레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주 명백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월요일은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자신이 처한 동네가 마땅치 않다고 느껴, 마땅한 마차라도 보일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렇게 스완덤 레인을 따라 걷던 중, 그녀는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2층 창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손짓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남편의 표정은 몹시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녀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더니, 마치 뒤에서 누군가 강한 힘으로 잡아끌기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창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리한 여성 특유의 관찰력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 입던 것과 같은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깃이나 넥타이는 전혀 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 집은 바로 당신이 오늘 밤 나를 발견했던 그 아편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앞방을 가로질러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에서 내가 말했던 그 라스카르 놈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악당은 그녀를 밀쳐냈고, 그곳 조수로 일하는 덴마크인까지 가세하여 그녀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미칠 듯한 의구심과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골목을 따라 달려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프레스노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위와 여러 명의 순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위와 두 명의 순경이 그녀를 데리고 다시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저항했지만, 결국 그들은 세인트 클레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층 전체를 통틀어 그곳에 거주하는 듯한 흉측한 몰골의 불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불구자와 라스카르 놈 모두 오후 동안 앞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부인이 워낙 단호했기에 경위조차 당혹감을 느꼈고,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착각한 것이라 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로 달려들더니 뚜껑을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서 아이들 장난감 벽돌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집에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했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발견과 더불어 다리를 저는 남자가 보인 명백한 혼란을 보고, 경위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방 안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모든 정황은 끔찍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앞방은 거실로 쓰기에 충분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고, 그 안쪽으로 작은 침실이 이어졌다. 침실 창밖으로는 부두 중 한 곳이 내려다보였다. 부두와 침실 창문 사이에는 좁은 틈이 하나 있었는데, 썰물 때는 말라 있지만 밀물 때는 최소 4피트 반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침실 창문은 폭이 넓었으며 아래쪽에서 위로 여는 방식이었다. 창틀을 살펴보니 혈흔이 남아 있었고, 침실 나무 바닥 위에도 핏방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앞방의 커튼 뒤에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의 옷가지들이 코트를 제외하고 전부 숨겨져 있었다. 그의 장화와 양말, 모자, 그리고 회중시계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다. 옷가지 어디에서도 몸싸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며, 세인트 클레어 씨의 다른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출구가 전혀 없었기에 그는 분명 창문 밖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창틀에 남은 불길한 혈흔을 보건대, 그가 헤엄쳐서 탈출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비극이 일어난 순간은 밀물이 가장 높게 차오른 때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번 사건에 즉각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죄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그 라스카르 선원은 과거 행적이 매우 불량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이 창가에 나타난 지 불과 몇 초 만에 그 선원이 계단 아래에 있었다고 하니, 그는 범행의 공범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숙생인 휴 분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라진 신사의 옷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라스카르인 관리인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죠. 이제 아편굴 2층에 사는 불길한 불구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의 이름은 휴 분입니다. 시내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흉측한 얼굴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전문적인 거지인데,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성냥을 조금씩 파는 상인 행세를 하기도 하죠.

스레드니들 거리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왼쪽 벽이 안으로 굽은 작은 모퉁이가 나옵니다. 그 괴물 같은 남자는 매일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무릎 위에 적은 양의 성냥을 올려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죠. 그 모습이 워낙 가련해 보여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자선금이 옆에 놓인 기름진 가죽 모자 속으로 비처럼 쏟아집니다.

나는 이 남자를 정식으로 조사하기 전부터 몇 번이나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가 짧은 시간 동안 거둬들인 수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외모는 워낙 독특해서 지나가는 사람 중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헝클어진 오렌지색 머리카락, 끔찍한 흉터 때문에 윗입술 끝이 말려 올라간 창백한 얼굴, 불독 같은 턱, 그리고 머리카락 색과는 기묘하게 대비되는 아주 날카롭고 검은 눈동자까지. 이 모든 특징이 그를 흔한 거지 무리 사이에서 단번에 눈에 띄게 만듭니다. 게다가 재치까지 갖추고 있어서, 행인들이 놀리며 던지는 말에도 언제나 즉각 대꾸를 해대죠.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신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자, 아편굴의 투숙객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구자 아닙니까!" 내가 말했다. "한창때의 건장한 남자를 상대로, 혼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점에서는 불구자가 맞네. 하지만 그 외의 면을 보면 아주 건장하고 체격도 좋은 사람 같더군. 왓슨, 자네도 의

사로서 잘 알지 않나? 한쪽 팔다리가 약하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강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창문에 묻은 피를 보고 기절했다. 그녀의 존재가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그녀를 마차에 태워 집까지 호송했다. 사건을 담당한 바튼 경위는 현장을 매우 세밀하게 조사했으나,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분을 즉시 체포하지 않은 점은 실수였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분이 친구인 라스카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실수는 곧 바로잡혔다. 분은 붙잡혀 몸수색을 당했지만, 그를 범인으로 몰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오른쪽 셔츠 소매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는 손톱 근처가 베인 약지 손가락을 가리키며 피가 거기서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금 전에 창가에 다녀왔는데, 창문에서 발견된 혈흔도 분명 같은 상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를 본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자신의 방에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던 사실 역시 경찰만큼이나 자신에게도 미스터리라고 주장했다. 남편이 창가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인이 미쳤거나 꿈을 꾸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분은 거세게 항의하며 경찰서로 압송되었고, 경위는 썰물이 빠지면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나기를 바라며 현장에 남았다.

"결국 찾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흙 둑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수가 빠져나가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네빌 세인트 클레어가 아니라, 그가 입었던 코트였습니다. 자, 그 주머니 속에서 무엇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군요."

"아니요, 당신이 맞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머니마다 페니와 하프 페니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페니 421개에 하프 페니 270개였습니다. 그 정도 무게라면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두와 집 사이에는 거센 소용돌이가 치거든요. 옷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옷은 그대로 남고 알몸이 된 시신만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다른 옷가지들도 전부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이 코트 하나만 걸친 상태였을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손님. 하지만 사실관계를 아주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분이라는 자가 네빌 세인트 클레어를 창밖으로 밀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즉시 증거가 될 만한 옷가지들을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선 코트를 움켜쥐고 창밖으로 던지려던 찰나, 코트가 가라앉지 않고 물 위로 떠오를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겠지요. 시간은 촉박합니다. 아내가 억지로 올라오려 하며 아래층에서 벌어진 몸싸움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라스카르인 공범으로부터 경찰이 거리로 급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

까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는 구걸해서 모은 돈을 숨겨둔 비밀 장소로 달려가, 코트가 확실히 가라앉도록 손에 잡히는 대로 동전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코트를 던져버렸겠지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급히 다가오는 것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경찰이 나타나기 직전에 겨우 창문을 닫을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 다른 옷가지들도 똑같이 처리했을 겁니다."

"분명 실현 가능한 이야기군요."

"더 나은 가설이 없으니, 일단은 그것을 가설로 삼도록 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분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과거에 어떤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직업적인 거지로 알려져 왔지만, 삶 자체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결해야 할 의문들, 즉 네빌 세인트 클레어가 아편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곳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휴 분이 그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첫눈에는 이토록 단순해 보이면서도 막상 파고들면 이토록 까다로운 사건은 내 경험상 본 적이 없습니다."

셜록 홈즈가 이 기이한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우리는 거대 도시의 외곽을 가로질러 달렸다. 듬성듬성 늘어선 집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고 나자, 길 양옆으로는 시골 울타리만이 펼쳐졌다. 홈즈의 설

명이 끝날 무렵, 우리는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몇 군데 남아 있는 작은 마을 두 곳을 지나쳐 달리고 있었다.

"이제 리 근처에 다 왔네." 동행한 홈즈가 말했다. "짧은 거리였지만 미들섹스를 시작으로 서리주의 모퉁이를 지나 켄트주까지, 벌써 세 개의 주를 거쳐 왔군. 저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불빛이 보이나? 저곳이 '더 시더스'라네. 저 등불 옆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지. 내 생각엔 저 여인이 이미 잔뜩 긴장한 채로 우리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분명하네."

"그런데 왜 베이커가에서 사건을 지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이곳에서 조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거든.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친절하게도 방 두 개를 내어주었네. 내 친구이자 동료인 자네를 아주 기쁘게 맞아줄 테니 걱정 말게나. 남편의 소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인을 마주하는 건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지, 왓슨. 자, 다 왔네. 워, 워, 진정해!"

우리는 넓은 부지 안에 자리 잡은 커다란 저택 앞에 마차를 세웠다. 마구간 소년이 말의 머리 쪽으로 달려 나왔고, 나도 말에서 뛰어내려 홈즈를 따라 집으로 이어지는 작고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올라갔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벌컥 열렸다. 문틈 사이로 금발의 작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목과 손목에 폭신한 분홍색 시폰 장식이 달린 가벼운 실크 머슬린 옷을 입고 있었다. 쏟아져 나오는 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한 손으로 문을 잡

은 채,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듯 다른 한 손을 반쯤 들어 올리고 있었다. 몸을 약간 숙인 채 머리와 얼굴을 내민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했고, 살짝 벌어진 입술은 마치 온몸으로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그래서요? 어쩌면 좋죠?"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다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희망에 찬 비명을 질렀으나, 내 동행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깨를 으쓱하는 것을 보자 이내 그 비명은 신음 섞인 탄식으로 변했다.

"좋은 소식은 없나?"

"없습니다."

"나쁜 건 없습니까?"

"아니오."

"그거 참 다행이군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긴 하루를 보내느라 무척 고단하시겠어요."

"이쪽은 내 친구 왓슨 박사라네. 여러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아주 큰 도움을 주었지. 운 좋게도 이번 사건에는 박사를 데려와 함께 조사할 수 있게 되었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녀는 내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말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을 생각해서라도, 저희의 준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부인,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 사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부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혹은 여기 있는 제 친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저야말로 정말 기쁘겠습니다.”

“자, 셜록 홈즈 씨.”

우리가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으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는 차려진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여인이 우리를 향해 말을 건넸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군요. 부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부인.”

“제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기절할 만큼 나약한 사람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당신의 진솔하고도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네빌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셜록 홈즈는 그 질문을 받자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홈즈가 바구니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자, 그녀는 카펫 위에 선 채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살인이라고요?"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홈즈 씨, 제가 오늘 그에게서 편지를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셜록 홈즈는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가 고함을 질렀다.

"네, 바로 오늘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그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에게서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편지를 펼쳐 놓더니, 램프를 가까이 끌어당겨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홈즈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봉투는 아주 거친 종이였고, 그 위에는 그레이브샌드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바로 오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제 날짜였다. 이미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글씨가 거칠군요." 홈즈가 중얼거렸다. "부인, 이건 분명히 남편분의 필체가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안에 동봉된 편지는 남편의 필체가 맞습니다."

"봉투에 주소를 적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주소를 확인하러 직접 어디론가 가서 물어봐야만 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름 부분은 잉크가 완전히 말라붙을 정도로 아주 새까맣습니다. 반면 나머지 부분은 회색빛을 띠고 있는데, 이는 흡수지를 사용했다는 증거지요. 만약 글을 쓰자마자 바로 흡수지로 눌러 닦았다면, 이렇게 진한 검은색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먼저 쓴 뒤, 주소를 적기 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소를 잘 몰랐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만, 사소한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편지를 봅시다. 아! 여기 동봉된 것이 있군요!"

"네,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끼던 인장 반지 말입니다."

"이게 남편분의 필체가 확실합니까?"

"그의 손 중 하나 말입니다."

"하나라고요?"

"급하게 글씨를 쓸 때의 그이 필체랍니다. 평소 글씨와는 아주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겁먹지 마시오. 모든 게 잘 풀릴 것이오. 아주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오. — 네빌.' 8절판 크기의 책, 속표지에 연필로 적힌 글귀입니다. 워터마크도 없군요. 흠! 오늘 그레이브샌드에서 엄지손가락이 지저분한 남자가 부친 편지입니다. 하! 그리고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면, 편지 봉투의 접착면은 담배를 씹던 사람이 묻힌 흔적이 있군요. 부인, 이 글씨가 남편분의 필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겠지요?"

"전혀 없습니다. 네빌이 직접 쓴 글이에요."

"그 편지들은 오늘 그레이브샌드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자, 세인트클레어 부인, 이제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 살아 계실 겁니다, 홈즈 씨."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인하려는 교묘한 위조품이 아니라면 말이지. 결국 그 반지는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해. 누군가 그에게서 빼앗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이건 분명히 그가 직접 쓴 글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작성하고 오늘에서야 우체통에 넣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만약 그렇다면, 그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군요."

"오, 홈즈 씨, 제발 저를 낙담시키지 마세요. 그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이 너무나 잘 통하는 사이라, 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날, 그가 침실에서 손을 베었을 때도 식당에 있던 저는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확신을 품고 즉시 위층으로 달려갔을 정도니까요. 그런 사소한 일에도 반응하는 제가, 그의 죽음을 모르고 지나칠 리 있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직감이 분석적인 추론의 결론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니 당신의 생각이 옳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군요. 하지만 만약 남편분이 살아 있고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면, 대체 왜 당신 곁을 떠나 있는 것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월요일에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말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오."

"그럼 스완덤 레인에서 그를 보고 놀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고말고요."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불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듣기로는, 그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 채 비명만 질렀다고 하던데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생각했나?"

"네, 그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깜짝 놀라서 지른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무심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린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가 뒤로 끌려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로 뛰어올랐을 수도 있겠군요. 방 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 끔찍한 남자가 거기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스카르 선원은 계단 아래에 있었고요."

"그렇군요. 당신이 보기에 남편분은 평소 입던 옷차림 그대로였나요?"

"하지만 깃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맨 목덜미를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가 스완덤 레인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편을 복용한 기색을 보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부인.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핵심적인 사항들은 모두 정리된 것 같군요. 이제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고 쉬도록 합시다. 내일은 아주 바쁜 하루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넓고 안락한 더블 침대가 놓인 방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 모험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몹시 피곤했던 나는 곧장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달랐다. 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면 며칠, 심지어 일주일 동안이나 휴식도 없이 그 문제에 매달리곤 했다. 사실관계를 재배열하고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며,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거나 혹은 단서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방 눈에 띄었다. 홈즈는 코트와 조끼를 벗고 커다란 푸른색 가운을 걸치더니, 방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침대에서 베개를, 소파와 안락의자에서 쿠션을 가져왔다. 그는 이것들을 모아 마치 동양식 디반 같은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앞에는 거친 담배 한 줌과 성냥갑을 놓아두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홈즈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입에 오래된 브라이어 파이프를 물고 천장 구석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푸른 연기가 그에게서 소리 없이 피어올랐고,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등불 빛은 그의 강인하고 매부리코 같은 이목구비를 비추고 있었다.

내가 잠이 들 때까지 그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외마디 소리에 잠이 깼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였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파이프는 여전히 입에 물려 있었고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방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전날 밤 보았던 그 거친 담배 더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깨어 있나, 왓슨?" 그가 물었다.

"네."

"오전 중에 드라이브나 좀 다녀올까?"

"물론입니다."

"그럼 옷부터 갈아입게.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구간 소년이 어디서 자는지 알고 있으니 곧 마차를 준비할 수 있을 걸세." 홈즈는 혼자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전날 밤의 침울한 사색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옷을 입으며 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했다. 시각은 4시 25분을 지나고 있었다. 채 채비를 마치기도 전에, 소년이 말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홈즈가 돌아왔다.

"내 가설을 좀 시험해보고 싶군."

그는 장화를 신으며 말했다.

"왓슨, 자네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완벽한 바보를 마주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네. 여기서부터 채링 크로스까지 발길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지. 하지만 사건을 풀 열쇠는 이제 내가 쥐고 있는 것 같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욕실에 있네." 그가 대답했다. "아, 농담하는 게 아니야." 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읽었는지 그가 말을 이었다. "방금 거기 가서 직접 꺼내왔거든. 지금 이 글래드스톤 가방 안에 들어있네. 자, 어서 오게. 그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섰다. 길가에는 우리 마차와 말이 서 있었고, 옷을 반쯤 걸친 마부 소년이 말 머리맡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마차에 올라탔고, 곧장 런던 로드를 향해 질주했다. 대도시로 채소를 실어 나르는 시골 수레 몇 대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길 양옆으로 늘어선 저택들은 마치 꿈속의 도시처럼 고요하고 생기 없는 모습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었네."

홈즈가 말을 채찍질하며 속도를 높였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도 두더지처럼 눈이 멀어 있었어. 하지만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깨닫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나."

우리가 서리 쪽 거리를 지나 달릴 때, 도심에서는 이제 막 잠에서 깬 사람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워털루 다리 로드

를 따라 내려가 강을 건넌 뒤, 웰링턴 스트리트로 급히 올라가 오른쪽으로 급커브를 돌자 보우 스트리트에 도착했다. 셜록 홈즈는 경찰 내부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문 앞을 지키던 순경 두 명은 그를 보자 경례를 건넸다. 한 명은 말의 머리를 붙잡아 고정했고, 다른 한 명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당직자가 누구인가?" 홈즈가 물었다.

"브래드스트리트 경위입니다, 선생님."

"아, 브래드스트리트, 잘 지냈나?" 챙이 달린 모자에 장식이 달린 재킷을 입은 키 크고 체격이 건장한 관리가 돌바닥이 깔린 통로를 따라 내려오며 인사를 건넸다. "브래드스트리트, 자네와 조용히 나눌 이야기가 있네."

"물론입니다, 홈즈 씨. 이쪽 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방은 사무실처럼 작았다. 탁자 위에는 거대한 원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전화기 한 대가 튀어나와 있었다. 경위는 자신의 책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홈즈 씨,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분(Boone)이라는 그 거지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리 지역의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네. 그를 여기 데려왔나?"

"유치장 안에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가요?"

"아니요, 그자가 말썽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지독한 악당이지요."

"더럽다고요?"

"맞아요, 그 사람이 손이라도 씻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얼굴은 땜장이의 얼굴처럼 새카맣게 찌들었고요. 뭐, 사건이 일단 마무리되고 나면 제대로 된 교도소 목욕이라도 시켜줘야겠지요. 직접 보시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 사람, 정말 목욕이 절실해 보이거든요."

"그분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시겠다면야 어렵지 않지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방은 여기 두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는 우리를 복도로 안내하더니 창살이 달린 문을 열었다. 이어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가자, 양옆으로 문들이 늘어선 회칠한 복도가 나타났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그의 것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여기 있군요!" 그는 문 윗부분의 판을 조용히 떼어내고는 그 틈으로 안을 살폈다.

"그는 잠들었네." 그가 말했다. "아주 잘 보일 걸세."

우리 둘은 창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죄수는 우리를 향해 누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숨소리는 느릿하고 무거웠다. 그는 체격이 중간 정도인 남자로, 직업에 걸맞게 거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해진 코트 사이로 색깔 있는 셔츠가 삐져나와 있었다. 경위의 말대로 그는 매우 지저분한 상태였으나, 얼굴을 뒤덮은 때조차 그 흉측한 외모를 가리지는 못했다. 오래된 흉터가 눈에서 턱까지 넓게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흉터 때문에 입술 한쪽이 위로 말려 올라가 있어 마치 영원히 으르렁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이빨 세 개가 드러나 있었다. 눈과 이마 위로는 아주 밝은 붉은색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경위가 말했다.

"그 친구, 분명히 씻을 필요가 있겠군." 홈즈가 말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도구들을 좀 챙겨왔네." 그는 말을 하며 글래드스톤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케 할 만큼 커다란 목욕용 스펀지를 꺼내 놓았다.

"허허, 참! 당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군." 경위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 실례가 안 된다면 저 문을 아주 조용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곧 저 친구의 모습도 훨씬 번듯해질 겁니다."

"글쎄요,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위가 말했다. "그자가 보우 스트리트 유치부의 명예를 깎아먹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경위가 열쇠를 자물쇠에 끼워 돌리자, 우리 모두 아주 조용히 감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들어 있던 남자는 몸을 반쯤 뒤척이더니,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홈즈는 물병 쪽으로 몸을 숙여 스펀지를 적셨다. 그러고는 죄수의 얼굴 위로 스펀지를 가로세로로 두 번 힘차게 문질렀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외쳤다. "켄트주 리에 사는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입니다."

내 평생 그런 광경은 본 적이 없다. 스펀지로 문지르자 남자의 얼굴 피부가 마치 나무껍질처럼 벗겨져 나갔다. 거칠고 갈색빛이 돌던 안색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얼굴을 가로지르던 끔찍한 흉터와, 그 얼굴에 역겨운 비웃음을 띠게 했던 뒤틀린 입술마저도 깨끗이 사라졌다! 헝클어진 붉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벗겨내자, 침대에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머리에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창백하고 슬픈 표정의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졸음 섞

인 당혹감에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쓰러졌다.

"세상에!" 경위가 외쳤다. "정말로 실종된 그 사람이 맞군요.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죄수는 운명에 몸을 맡긴 사람 특유의 무모한 태도로 몸을 돌렸다. "그렇게 되라지." 그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목으로 기소된 건가?"

"네빌 세인트— 씨를 죽였다는 혐의 말입니까? 아, 이보쇼, 자살 시도로 몰아가지 않는 한 그런 죄목을 씌울 수는 없다고요." 경위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허, 내가 경찰 생활을 27년이나 했지만, 이번 건은 정말이지 기가 막히는군요."

"만약 제가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가 맞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법적인 구금입니다."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군요." 홈즈가 말했다. "차라리 아내를 믿는 편이 더 나았을 겁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었소. 아이들 때문이었단 말이오!" 죄수는 신음하듯 울부짖었다.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오. 세상에!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이제 난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셜록 홈즈는 소파에 앉아 그를 곁에 두고,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사건을 해결하려고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당연히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경찰 측에 당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납득시킨다면, 굳이 사건의 세부 내용이 신문에까지 실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브래드스트리트 경위가 당신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해서 관계 당국에 제출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건은 법정까지 갈 일도 전혀 없게 될 겁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죄수는 격정적으로 외쳤다. "내 비참한 비밀이 자식들에게 가문의 오점으로 남게 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오."

"제 이야기를 듣는 분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아버지는 체스터필드의 교사셨고,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곳을 여행하기도 했고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결국 런던의 저녁 신문사 기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이 런던의 구걸 실태에 관한 연재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자원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의 토대가 될 사실들을 수집하려면, 아마추어 구걸꾼이 되어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배우 생활을 했던 덕분에 분장법에는 이미 통달한 상태였고, 분장 실력이 뛰어나기로 대기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이번 기회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에 분장을 하고, 최대한 불쌍해 보

이도록 흉터도 정성껏 그려 넣었습니다. 살색 반창고를 작게 잘라 입술 한쪽을 비틀어 고정하기도 했지요. 그러고는 붉은 머리 가발을 쓰고 그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한 뒤, 겉으로는 성냥 장수로, 속으로는 구걸꾼으로 위장하여 시내 중심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곱 시간 동안 구걸을 한 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무려 26실링 4펜스나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글을 쓰며 그 일은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친구를 위해 어음을 보증 섰는데 25파운드에 달하는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던 차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채권자에게 2주만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용주에게 휴가를 청한 뒤, 변장한 채 시티(the City)에서 구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흘 만에 돈을 모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상상해 보세요. 얼굴에 물감을 좀 바르고 모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루에 그만큼을 벌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일주일에 2파운드나 받는 고된 일을 하며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존심과 돈 사이에서 긴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돈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자 일을 그만두었지요. 그리고 처음 정했던 구석 자리에 매일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끔찍한 얼굴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며 주머니를 동전으로 채웠습니다.

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스완덤 레인에 있는 싸구려 여관의 주인장이었죠. 저는 그곳에 머물며 매일 아침에는 지저

분한 거지로 나타났다가, 저녁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로 변신하곤 했습니다. 그 주인장은 라스카르(인도계 선원) 출신이었는데, 제가 방값을 넉넉히 쳐주었기에 제 비밀이 그에게서 새 나갈 일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런던 거리의 부랑자라면 누구나 연간 700파운드를 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금액은 제 평균 수입보다도 적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황을 적절히 꾸며내는 재주가 있었고, 재치 있는 대답을 주고받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능력은 더욱 좋아졌고, 덕분에 저는 금융가인 시티에서 꽤 이름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은화와 섞인 동전들이 끊임없이 제 주머니로 쏟아져 들어왔고, 하루에 2파운드도 채 벌지 못하는 날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야망도 커졌습니다. 전 시골에 집을 한 채 장만했고, 결국 결혼까지 했지요. 하지만 제 진짜 직업이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제가 시티(the City)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꿈에도 몰랐지요."

"지난 월요일, 그날의 일을 마치고 아편굴 위층에 있는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거리에서 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리려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속사정을 잘 아는 라스카르 선원에게 달려가, 아무도 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내가 이 계단을 올라올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거지 옷으로 갈아입은 뒤, 분장 도구와 가발을 썼습니다. 아무리 아내라 해도 이 완벽한 변장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 방을 뒤질 수도 있고, 제가 벗어둔 옷 때문에 정체가 탄로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바람에 그날 아침 침실에서 스스로 냈던 작은 상처가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코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입을 담아두던 가죽 가방에서 꺼내 코트 주머니에 옮겨 담은 구리 동전들 때문에 코트는 꽤 묵직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창밖으로 내던졌고, 코트는 템스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옷들도 따라 던지려 했으나, 바로 그 순간 순경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뒤, 저는 제가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로 확인되는 대신, 그의 살인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더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군요. 저는 가능한 한 오래 변장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내가 몹시 불안해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순경의 눈을 피

해 슬쩍 반지를 빼서 그 라스카르 선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아무 걱정 말라는 내용을 급히 휘갈겨 써서 함께 건네주었지요."

"그 편지는 어제야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세상에나!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경찰이 이 라스카르 선원을 계속 감시해 왔습니다." 브래드스트리트 경위가 말했다. "그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편지를 부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단골 선원 고객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을 테고, 그 고객이 며칠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거야." 홈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듯 말했다. "틀림없어. 그런데 자네, 구걸죄로 기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나?"

"여러 번 그랬지요. 하지만 벌금이 제게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브래드스트리트가 말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면, 휴 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맹세를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만약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야 할 겁니다.

홈즈 씨, 이번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지 정말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내 친구가 말했다. "베개 다섯 개를 깔고 앉아 샤그 담배를 한 온스나 피워댔지. 왓슨, 지금 바로 베이커가로 달려간다면 딱 맞춰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푸른 카벙클

VII. 푸른 카벙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친구 셜록 홈즈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려 그를 찾아갔다. 홈즈는 보라색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어 있었다. 오른편 손이 닿는 곳에는 파이프 거치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막 읽은 듯 구겨진 아침 신문 뭉치가 쌓여 있었다. 소파 옆에는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의자 등받이 모서리에는 낡고 초라한 펠트 모자가 걸려 있었다. 모자는 여기저기 해지고 여러 군데가 갈라져 있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의자 시트 위에는 돋보기와 집게가 놓여 있었는데, 이를 보니 누군가 모자를 조사하려고 이렇게 걸어둔 모양이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내가 말했다. "제가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연구 결과를 함께 논할 친구가 생겨서 오히려 기쁜걸요. 이 일은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홈즈는 낡은

모자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주 흥미롭고, 심지어 배울 점도 있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안락의자에 앉아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손을 녹였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탓에 창문에는 얼음 결정이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다.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건넸다. "겉보기에는 이토록 평범해 보여도, 분명 이 물건에는 치명적인 사연이 얽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미스터리를 풀고 범죄자를 처단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지요."

“아니, 아니요. 범죄는 아닙니다.” 셜록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사소하고 기묘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불과 몇 평방마일 안에 400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살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서로 맞물리며 온갖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범죄는 아니더라도, 눈에 띄게 기이하고 별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법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내가 말했다. “제 기록장에 최근 추가한 여섯 건의 사건 중 세 건은 법적인 범죄가 전혀 없는 경우였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아이린 애들러의 서류를 되찾으려 했던 일이나, 메리 서덜랜드 양의 기묘한 사건, 그리고 입술이 뒤틀린 남자의 모험을 말씀

하시는군요. 글쎄요, 이번 작은 사건도 그처럼 무해한 부류에 속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터슨이라는 배달원,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전리품은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의 모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가 발견한 겁니다. 주인은 누군지 모릅니다. 부디 이 찌그러진 중절모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지적인 문제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모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죠. 이 모자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살찐 거위 한 마리와 함께 말이죠. 그 거위는 지금쯤 필연적으로 피터슨의 벽난로 앞에서 구워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4시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터슨은 아주 정직한 친구인데, 가벼운 축제를 즐기고 토트넘 코트 로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가스등 불빛 아래로 키가 좀 큰 남자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어깨에는 흰 거위 한 마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구지 스트리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낯선 이와 불량배 무리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불량배 중 한 명이 남자의 모자를 쳐서 벗겨버렸고, 남자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머리 위로 지팡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뒤에 있던 상점의 유리창이 박살 나고 말았습니다.

피터슨은 공격자들로부터 그 남자를 보호하려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에 당황한 남자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 같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거위를 떨어뜨린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토트넘 코트 로드 뒤편에 얽힌 미로 같은 좁은 골목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량배들도 피터슨이 나타나자 도망쳤습니다. 결국 피터슨은 싸움터에 홀로 남게 되었고, 그 전리품인 이 찌그러진 모자와 아주 깨끗한 크리스마스 거위를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 물건을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겠지요?"

"이보게, 바로 그 점이 문제라네. 새의 왼쪽 다리에 묶인 작은 카드에 '헨리 베이커 부인에게'라고 적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이 모자 안감에 'H. B.'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 런던에는 베이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고, 그중 헨리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수백 명은 될 걸세. 그러니 이 잃어버린 물건을 그들 중 누구의 것인지 찾아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다면 피터슨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분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제게 모자와 거위 한 마리를 함께 가져다주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제 흥미를 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위는 오늘 아침까지 보관해 두었는데, 약간의 서리가 내리긴 했지만 더 지체하지 말고 얼른 먹어 치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거위를 발견한 사람이 거위의 숙명에 따라 맛

있게 먹어 치웠고, 저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잃어버린 이름 모를 신사의 모자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고를 내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오."

"그렇다면, 그의 정체를 알아낼 단서가 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만큼만 말입니다."

"모자에서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이 낡고 해진 펠트 모자에서 도대체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내 돋보기가 있네. 자네도 내 방식은 잘 알 테니, 이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자네 스스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게나."

나는 너덜너덜해진 물건을 손에 들고 다소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둥근 형태의 아주 평범한 검은 모자였는데, 재질이 딱딱하고 상태도 몹시 나빴다. 안감은 붉은 실크였던 모양이지만 색이 많이 변해 있었다. 만든 이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으나, 홈즈가 지적했듯이 한쪽에는 'H. B.'라는 이니셜이 휘

갈겨 써 있었다. 챙에는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를 끼우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고무줄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 외에도 모자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으며,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다. 누군가 잉크를 발라 변색된 부분을 가려보려 시도한 흔적도 보였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나는 친구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말했다.

"반대라네, 왓슨. 자네는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데 서툴 뿐이지.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너무 소심하게 구는 게 문제야."

"그렇다면, 이 모자를 보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 제발 말해 주시겠습니까?"

홈즈는 그것을 집어 들더니, 특유의 내성적인 태도로 가만히 응시했다.

"생각보다 단서가 많지는 않군요."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 명확한 추론을 몇 가지 끌어낼 수 있고, 적어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론도 몇 가지 보입니다. 우선 이 남자가 매우 지적인 인물이라는 점은 겉으로 봐도 명백합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은 꽤 유복한 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불행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는 예전에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의미하는데, 재산이 줄어든 상황과 맞물려 볼 때 아마도 술 같은 악한 영향이 그에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군요. 그의 아

내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 또한 이 점 때문일 겁니다."

"이보게, 홈즈!"

"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자존심은 지키고 있더군." 그는 나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며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야. 체력 단련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 중년의 나이에 머리는 희끗희끗하지. 며칠 전에 머리를 새로 깎은 모양인데, 라임 크림을 발라 관리하고 있어. 이건 그가 쓴 모자만 보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이지.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사람 집에는 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농담하시는 거겠지요, 홈즈."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주 멍청한 탓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이 사람이 지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아내셨습니까?"

홈즈는 대답 대신 모자를 머리에 덥석 눌러썼다. 모자는 이마를 덮더니 콧날 위에 툭 내려앉았다.

"부피의 문제라네." 홈즈가 말했다. "뇌가 이토록 크다면,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들어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모자는 3년 전 물건입니다.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 이런 형태의 챙 모자는 당시에 유행했지요. 아주 질 좋은 모자입니다. 골이 진 실크 띠와 훌륭한 안감을 보십시오. 만약 이 남자가 3년 전에 이렇게 값비싼 모자를 살 여유가 있었으면서도 그 이후로 모자를 새로 장만하지 못했다면, 분명 형편이 아주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그 점은 확실히 명확하군요. 하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도덕적 퇴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셜록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모자 고정 장치의 작은 원반과 고리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다.

"여기 선견지명이 있군요. 모자에는 이런 장치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이것을 따로 주문했다면, 바람에 대비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니 어느 정도 앞날을 내다보는 성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고무줄이 끊어진 채로 교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전보다 선견지명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성격이 약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면, 펠트 모자에 묻은 얼룩을 잉크로 덧칠해 가리려 애쓴 점을 보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당신의 추론은 확실히 일리가 있군요."

"그가 중년이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고, 최근에 머리를 잘랐으며, 라임 크림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안감 아랫부분을 면밀히 조사하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이발사의 가위로 깔끔하게 잘린 머리카락 끝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머리카락들은 모두 안감에 달라붙어 있고, 라임 크림 특유의 향도 뚜렷하게 납니다. 또한 이 먼지를 보십시오. 길거리의 거칠고 회색빛이 도는 먼지가 아니라 집 안에서 발생하는 부드러운 갈색 먼지입니다. 이는 이 물건이 대부분 실내에 걸려 있었다는 뜻이지요. 안쪽에 남은 습기 자국은 착용자가 땀을 아주 많이 흘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가 체력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모자는 몇 주 동안은 빗질조차 안 한 모양이군. 이보게, 왓슨. 자네 모자에 일주일 치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도 부인이 외출을 허락하다니, 아무래도 자네가 아내의 사랑을 잃을 만큼 불행한 처지에 놓인 건 아닌지 걱정되는걸."

"하지만 그가 미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는 아내에게 화해의 뜻으로 거위 한 마리를 사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네. 거위 다리에 묶여 있던 카드를 기억하게나."

"당신은 못 하는 말이 없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 집에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아낸 겁니까?"

"기름때가 한두 개 묻는 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개나 된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 사람은 평소에 타오르는 양초를 아주 자주 접하는 게 분명합니다. 밤마다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불이 꺼져가는 양초를 든 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틀림없어요. 어쨌든, 가스등을 쓸 때는 절대로 이런 기름때가 묻을 리 없으니까요. 이제 납득이 되십니까?"

"허허, 정말 기발한 수법이군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거위 한 마리를 잃은 것 말고는 아무런 피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그저 힘만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셜록 홈즈가 대답을 하려 입을 떼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곧이어 안내인 피터슨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경악에 빠진 사람 특유의 멍한 기색이 역력했다.

"거위입니다, 홈즈 씨! 거위라고요, 선생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예?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다시 살아나서 주방 창문으로 날아가 버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홈즈는 남자의 흥분한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소파 위에서 몸을 돌려 누웠다.

"이것 좀 보십시오, 선생! 내 아내가 이 새의 모이주머니에서 무엇을 찾아냈는지 보란 말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손바닥 중앙에 놓인 물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콩알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눈부시게 반짝

이는 푸른 보석이었다. 보석은 어찌나 순수하고 영롱한지, 그의 움푹 팬 손바닥 위에서 마치 전등 불빛처럼 번뜩였다.

셜록 홈즈가 휘파람을 불며 상체를 일으켰다. "세상에, 피터슨!" 홈즈가 말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보물인데. 자네, 지금 뭘 손에 넣었는지 알고 있나?"

"다이아몬드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아주 귀한 보석 말입니다. 그건 마치 진흙을 자르듯 유리를 매끄럽게 베어버리지요."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보석입니다."

"모카 백작부인의 블루 카벙클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외쳤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매일같이 《더 타임스》지에 실린 광고를 읽어왔으니, 그 물건의 크기와 모양 정도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라 가치를 짐작조차 할 수 없겠지만, 제시된 보상금 1,000파운드는 분명 시장 가치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천 파운드라고요! 세상에, 맙소사!" 안내원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백작부인에게는 보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서라도 지키고 싶은 감정적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내가 말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불과 닷새 전인 12월 22일의 일이지요. 배관공인 존 호너가 그 부인의 보석함에서 보석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사건은 이미 순회재판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여기 관련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는 신문 더미를 뒤지며 날짜를 훑어보더니, 마침내 신문 한 장을 찾아내 펼쳐 들었다. 그리고는 다음 단락을 읽어 내려갔다.

코스모폴리탄 호텔 보석 강도 사건. 배관공 존 호너(26세)가 이번 달 22일, 모카 백작부인의 보석함에서 '블루 카벙클'이라 불리는 값비싼 보석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호텔의 수석 종업원인 제임스 라이더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사건 당일, 그는 호너가 헐거워진 벽난로의 두 번째 창살을 납땜할 수 있도록 모카 백작부인의 옷방까지 안내했다. 라이더는 잠시 호너와 함께 머물렀으나, 결국 다른 용무로 자리를 비워야 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호너는 사라진 상태였고, 서랍장은 강제로 열려 있었다. 또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백작부인이 평소 보석을 보관하던 작은 모로코 가죽 상자가 화장대 위에 텅 빈 채 놓여 있었다. 라이더가 즉시 비명을 질러 알렸고, 호너는 그날 저녁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몸이나 숙소 어디에서도 보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백작부인의 하녀인 캐서린 커색은 도난 사실을 발견한 라이더의 당황한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곧장 방으로 달려갔고, 앞선 증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 B 구역의 브래드스트리트 경위는 호너

의 체포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호너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다. 피고인이 과거에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치안판사는 이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급 법원인 순회재판소로 회부했다. 재판 과정 내내 격한 감정을 드러내던 호너는 재판이 끝나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그대로 법정 밖으로 실려 나갔다.

"흠! 경찰 법정 이야기는 이쯤 해두기로 하지."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하며 신문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이거야. 한쪽에서는 보석함이 털렸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토트넘 코트 로드에서 발견된 거위의 모이주머니로 이어졌는가 하는 사건의 순서 말일세.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의 작은 추론들이 갑자기 훨씬 더 중요하고, 결코 가볍지 않은 국면을 맞이했네. 자, 보게. 보석이 있고, 그 보석은 거위의 모이주머니에서 나왔으며, 그 거위는 내가 자네를 지루하게 만들었던 그 이상한 모자를 쓴 신사, 헨리 베이커 씨로부터 온 것이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신사를 찾아내서, 그가 이 기묘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네. 우선은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겠네. 모든 저녁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한다면, 그때는 다른 수단을 써보도록 하겠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필이랑 그 종이 조각 좀 줘 봐요. 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굿지 스트리트 모퉁이에서 거위 한 마리와 검은색 펠트 모자를 발견함. 헨리 베이커 씨는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베이커가 221B로 오시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음.' 이 정도면 명확하고 간결하군요."

"그렇고말고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 신문들을 샅샅이 뒤질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손실은 뼈아픈 것이니까요. 창문을 깨뜨린 실수와 피터슨이 다가오는 소리에 겁을 먹은 나머지, 그는 오로지 도망칠 생각뿐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새를 떨어뜨리게 만든 그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겠지요. 게다가 그의 이름이 언급된다면 반드시 신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보고 그에게 알려줄 테니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피터슨. 광고 대행사에 가서 이 내용을 저녁 신문에 실어 주세요."

"어느 것 말씀입니까, 선생님?"

"아, 글로브, 스타, 팰 몰,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 이브닝 뉴스, 스탠더드, 에코, 그리고 그 외에 생각나는 신문은 무엇이든 상관없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래요, 보석은 제가 보관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피터슨, 돌아오는 길에 거위 한 마리만 사다 주겠나? 여기 나에게 맡겨 두게나. 자네 가족들이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그 거위 대신, 이 신사분께 대접할 거위가 꼭 필요할 것 같으니 말일세."

안내원이 물러가자, 홈즈는 그 보석을 집어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물건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반짝이며 빛나는 것 좀 보세요. 물론 이 보석은 범죄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제대로 된 보석이라면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보석은 악마가 던져놓은 매혹적인 미끼와도 같으니까요. 크고 오래된 보석들은 그 깎인 단면 하나하나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보석은 아직 생긴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남부 아모이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루비처럼 붉은빛을 띠는 카벙클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색깔만 푸른빛을 띤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죠. 하지만 이 어린 보석은 이미 불길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 40그레인 무게의 결정화된 탄소 덩어리 때문에 살인 사건이 두 건이나 일어났고, 황산을 뿌린 사건과 자살, 그리고 여러 차례의 강도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장신구가 교수대와 감옥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도구라니,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일단 제 금고에 넣어 잠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께 보석을 잘 받았다는 짧은 편지를 보내야겠군요."

"이 호너라는 자가 결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헨리 베이커라는 사람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에는 헨리 베이커가 결백할 가능성이 훨씬 높네. 자기가 들고 있는 새가 순금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테니까. 하지만 그 사실은 아주 간단한 시험을 거치면 알 수 있겠지. 우리가 낸 광고에 답장이 오기만 한다면 말이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정된 진료 일정을 계속 소화해야겠군요. 하지만 말씀하신 시간엔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 꼭 보고 싶거든요."

"만나서 정말 반갑네. 저녁 식사는 7시에 하네. 아마도 멧도요 요리가 나올 걸세.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허드슨 부인에게 멧도요의 모이주머니를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사건을 처리하느라 일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베이커가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이미 6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집 근처로 다가가니, 문 위 창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반원형 빛 속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스코틀랜드식 모자를 쓰고 턱 끝까지 단추를 채운 코트를 입은 키 큰 사내였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함께 홈즈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헨리 베이커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그의 태도에는 특유의 여유롭고 친근한 기색이 배어 있었다.

"베이커 씨, 이쪽 벽난로 옆 의자에 앉으시지요. 밤공기가 차갑습니다. 보아하니 혈액 순환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잘 맞는 체질이신 듯하군요. 아, 왓슨, 마침 잘 왔네. 베이커 씨, 그게 손님 모자입니까?"

"네, 손님. 틀림없이 제 모자가 맞습니다."

그는 어깨가 둥글고 머리가 거대한 체격이 큰 사내였다. 지적인 인상이 풍기는 넓은 얼굴은 아래로 갈수록 뾰족해졌는데, 거기에는 희끗희끗한 갈색의 뾰족한 수염이 나 있었다. 코와 뺨에 감도는 붉은 기운과 내민 손의 미세한 떨림을 보고, 홈즈는 그가 어떤 생활 습관을 지녔을지 짐작했다. 녹슨 듯 검은빛을 띠는 프록코트는 앞여밈을 끝까지 채운 채 깃을 세우고 있었으며, 소매 끝에는 커프스나 셔츠가 보이지 않아 마른 손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말을 할 때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가며 느릿느릿 끊어서 내뱉었다. 전체적으로는 학식 있는 문인이었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고초를 겪은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 물건들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의 주소를 적은 광고가 올라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왜 광고를 내지 않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방문객은 다소 멋쩍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만큼 실링이 넉넉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습격한 불한당들이 내 모

자와 새를 모두 가져갔다고 확신했거든요. 그걸 되찾으려 희망도 없는 일에 돈을 더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참, 그 새 말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걸 먹었다고요!" 흥분한 방문객이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외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여기 찬장 위에 있는 다른 거위가 당신의 용도에 충분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무게도 비슷하고 아주 싱싱하거든요."

"오, 그럼요, 당연하고말고요." 베이커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물론 손님께서 가져오신 새의 깃털과 다리, 모이주머니 같은 부속물들은 여전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신다면—"

그 남자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모험을 추억할 유물로서는 가치가 있겠지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인의 파편 같은 이런 물건들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저는 저기 찬장 위에 놓인 아주 훌륭한 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셜록 홈즈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나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자, 여기 모자가 있고, 여기 새가 있군." 그가 말했다. "그나저나,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새를 어디서 구했는지 알려줄 수 있겠나? 내가 조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잘 자란 거위는 참 보기 드물거든."

"물론입니다, 손님."

방금 전 얻어낸 물건을 겨드랑이에 끼워 넣으며 베이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희 중 몇몇은 박물관 근처에 있는 알파 여관을 자주 찾습니다. 낮에는 박물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지요.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주인인 윈디게이트 씨가 거위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주 몇 펜스씩 내면 크리스마스에 거위 한 마리씩을 나누어 갖기로 한 모임 말입니다. 저는 제 몫의 돈을 꼬박꼬박 냈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스코틀랜드식 모자는 제 나이나 체통에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거드름을 피우며 우리 둘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성큼성큼 제 갈 길을 갔다.

"헨리 베이커 씨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지."

문을 닫은 홈즈가 말했다.

"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은 아주 확실해. 왓슨, 자네 배고픈가?"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식사를 조금 미루고, 이 단서가 식기 전에 바로 뒤쫓아가는 게 좋겠군요."

"물론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밤이라 우리는 울스터 코트를 걸치고 목에 크라바트를 단단히 둘렀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마치 권총을 쏘는 소리처럼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졌다. 의사들이 모여 사는 윔폴가와 할리가를 지나 위그모어를 거쳐 옥스퍼드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내딛는 발소리가 경쾌하고 크게 울려 퍼졌다. 15분쯤 지나자 우리는 블룸즈버리에 도착했다. 홀본으로 이어지는 거리 모퉁이에 있는 '알파인'이라는 작은 선술집이었다. 홈즈는 개인용 바의 문을 밀고 들어가, 하얀 앞치마를 두른 얼굴 붉은 주인에게 맥주 두 잔을 주문했다.

"거위 맛이 이 정도라면, 맥주 맛도 아주 일품이겠군요." 그가 말했다.

"내 거위들이!" 남자는 깜짝 놀란 듯했다.

"그렇습니다. 불과 30분 전에도 당신네 거위 클럽 회원인 헨리 베이커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저희 거위가 아니랍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글쎄요, 코벤트 가든에 있는 판매원에게 두 다스나 샀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도 그중 몇 명은 압니다. 누구였습니까?"

"브레킨리지, 그게 그의 이름이라네."

"아, 그분은 모르는 분입니다. 자, 주인장,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번창함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이제 브레킨리지 씨 건을 처리하러 가세."

우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서자, 홈즈는 코트 단추를 채우며 말을 이었다.

"왓슨, 명심하게. 이 사건의 한쪽 끝에는 거위라는 아주 사소한 물건이 놓여 있지만, 반대쪽 끝에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분명히 7년의 강제 노역형을 살게 될 사람이 걸려 있네. 우리의 조사가 오히려 그의 유죄를 확인하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는 경찰이 놓친 수사 방향이 있네. 기묘한 우연이 우리에게 이 실마리를 쥐여준 셈이지. 끝까지 가보는 거야. 자, 남쪽을 향해, 속보로!"

우리는 홀본을 가로질러 엔델가로 내려갔다. 이어 지그재그로 이어진 빈민가 골목들을 지나 코번트 가든 시장에 도착했다. 가장 큰 가판대 중 하나에는 브레킨리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말처럼 탄탄한 체격을 가진 사내였는데, 날카로운 얼굴에 깔끔하게 다듬

은 구레나룻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 소년이 셔터를 올리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좋은 저녁입니다. 밤이 꽤 쌀쌀하군요." 홈즈가 말했다.

판매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동료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거위가 다 떨어진 모양이군." 홈즈가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대리석 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500마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되겠군."

"글쎄요, 가스등 불빛이 비치는 가판대 위에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아,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제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죠?"

"알파 여관의 주인이라네."

"아, 그럼요. 그에게 두 다스 정도 보냈습니다."

"새들이 아주 멋지군요. 그런데 이 새들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내 예상과는 달리, 그 질문을 듣자마자 판매원은 버럭 화를 냈다.

"자, 이보시오." 그가 고개를 까딱이며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다 말해 보라고."

"제 말은 충분히 솔직합니다. 당신이 알파에 공급한 그 거위들을 대체 누가 당신에게 팔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말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오, 전혀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소한 일에 이토록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군요."

"화를 낸다고요! 저처럼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당신도 똑같이 화가 날 겁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사려고 거금을 들였으면 거래는 거기서 끝이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위는 어디 있느냐', '거위를 누구에게 팔았느냐', '거위를 얼마에 팔 거냐'라며 사방에서 들볶아대니 원. 거위 하나 가지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 보면, 세상에 거위라고는 그것뿐인 줄 알겠습니다."

"글쎄요, 조사를 진행 중인 다른 사람들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홈즈가 무심하게 말했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기는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금류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 제 의견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먹은 그 새는 시골에서 자란 놈이라는 데 5파운드를 걸겠습니다."

"그럼 5파운드를 날린 셈이군요. 그건 도시에서 자란 놈이니까요." 판매원이 쏘아붙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군."

"내가 꼬마 시절부터 가금류를 다뤄왔는데, 나보다 새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나? 내 말 잘 들어, 알파로 갔던 그 새들은 전부 도시에서 자란 놈들이었어."

"그걸 믿으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을 거요."

"그럼, 내기할 건가?"

"내 말이 맞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 이건 그저 네 돈을 가져가는 것뿐이다. 하지만 고집 피우지 말라고 가르쳐 줄 겸, 네게서 소버린 한 닢은 받아 가마."

판매원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빌, 그 책들을 가져오게." 그가 말했다.

어린 소년은 작고 얇은 책 한 권과 등표지가 기름때로 얼룩진 두툼한 책 한 권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매달린 등불 아래에 두 책을 나란히 펼쳐 놓았다.

"자, 이보시오, 콕슈어 씨." 판매원이 말했다. "거위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가게에 거위가 딱 하나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요. 이 작은 책 보시오?"

"그래서요?"

"이건 제가 물건을 떼오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 페이지에 적힌 이들은 시골 사람들입니다. 이름 뒤에 붙은 숫자는 큰 장부에서 그들의 거래 계정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고요. 자, 이제 붉은 잉크로 적힌 이 다른 페이지를 보세요. 이건 제 도시 공급업자들의 명단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름을 보세요. 저에게 소리 내어 읽어 주시겠습니까?"

"브릭스턴 로드 117번지, 오크숏 부인—249번." 홈즈가 읽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번호를 장부에서 찾아보세요."

홈즈가 가리킨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있군. '브릭스턴 로드 117번지, 오크숏 부인, 달걀 및 가금류 공급업자.'"

"자, 그럼, 마지막 기록은 무엇입니까?"

"12월 22일. 거위 스물네 마리, 7실링 6펜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는요?"

"알파 여관의 윈디게이트 씨에게 12실링에 판매됨."

"이제 뭐라고 할 건가?"

셜록 홈즈의 얼굴에 깊은 불쾌감이 서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버린 금화 한 닢을 꺼내 선반 위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럽다는 듯 몸을 돌려 멀어졌다. 몇 야드 떨어진 가로등 아래에 멈춰 선 그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인 소리 없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모양의 수염을 기르고 주머니에 '핑크 운'(분홍색 스포츠 신문)을 꽂아둔 남자를 본다면, 언제든 내기를 걸어 정보를 캐낼 수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 앞에 100파운드를 내놓았더라도, 그가 나를 상대로 내기에서 이기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털어놓은 것만큼 완벽한 정보를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왓슨, 이제 우리가 쫓는 사건의 끝이 보이는 것 같군요. 이제 결정해야 할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바로 오크숏 부인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일로 미룰 것인지 말입니다. 그 무뚝뚝한 사내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말고도 이 사건에 애를 태우는 이들이 분명히 더 있는 듯하니, 나는—"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방금 우리가 떠나온 가판대 쪽에서 갑자기 커다란 소란이 일며 그의 말이 뚝 끊겼다. 고개를 돌려 보니, 흔들리는 등불이 비추는 노란 불빛의 한가운데에 쥐를 닮은 작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 옆으로는 가판대 문틀에 기대선 판매원 브레킨리지가 잔뜩 움츠러든 그 사내를 향해 맹렬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당신이랑 그 거위들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나!" 그가 소리쳤다. "차라리 다 같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군. 쓸데없는 소리로 계속 나를 괴롭힐 작정이라면, 당장 개를 풀어 쫓아버리겠어. 오크숏 부인

을 데려온다면 내가 직접 상대하겠지만, 당신들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당신들에게 거위를 사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요, 하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작은 남자가 칭얼거리듯 말했다.

"그럼, 오크숏 부인에게 가서 달라고 하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흥, 관심 없으니 프로이센 국왕에게나 가서 물어보든가! 난 이제 진저리가 나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그는 맹렬하게 달려들며 소리쳤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어둠 속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하! 덕분에 브릭스턴 로드까지 갈 일은 없겠군." 홈즈가 낮게 속삭였다. "나를 따라오게. 이 친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홈즈는 화려한 조명이 켜진 가판대 주변에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내 동료는 순식간에 그 작은 남자를 따라잡아 어깨를 툭 쳤다. 남자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가스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대체 누구십니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하겠습니다." 홈즈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방금 판매원에게 던지신 질문들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이요? 대체 누구십니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아시는 거죠?"

"내 이름은 셜록 홈즈요.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내 일이라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실례지만, 제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브릭스턴 로드에 사는 오크숏 부인이 브레킨리지라는 외판원에게 거위들을 팔았고, 그 브레킨리지가 다시 알파 여관의 윈디게이트 씨에게 넘겼지요. 그리고 윈디게이트 씨는 그 거위들을 자신의 클럽에 팔았고, 헨리 베이커 씨가 바로 그 클럽의 회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거위들을 추적하려는 것이지요?"

"오, 선생님, 바로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남자가 두 손을 내밀고 손가락을 파르르 떨며 외쳤다.

"이 사건에 제가 얼마나 깊이 몰두하고 있는지, 말로는 다 설명하기조차 어렵군요."

셜록 홈즈는 지나가던 사륜마차를 불러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이 몰아치는 시장통보다는 아늑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더 가기 전에,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된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제 이름은 존 로빈슨입니다." 그는 곁눈질을 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니요. 진짜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홈즈가 상냥하게 말했다. “가명을 쓰면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할 때 번거롭거든요.”

낯선 이의 창백한 뺨에 순식간에 홍조가 돌았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다. "제 본명은 제임스 라이더입니다."

“정확합니다. 코스모폴리턴 호텔의 수석 안내원이시죠. 우선 마차에 올라타시지요. 그러면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곧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체구의 남자는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눈앞에 굴러온 행운이 횡재일지, 아니면 재앙의 전조일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이윽고 그는 마차에 올라탔고, 30분 뒤 우리는 베이커가에 있는 거실로 돌아왔다. 마차를 타고 오는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으나, 새로 합류한 동행자가 내뱉는 가늘고 거친 숨소리와 연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에서 그가 몹시 긴장하고 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방 안으로 차례로 들어서자 홈즈가 쾌활하게 말했다.

“이런 날씨에는 벽난로 불꽃이 아주 제격이군요. 라이더 씨, 추워 보이십니다. 어서 이 안락의자에 앉으시지요. 당신의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저는 슬리퍼부터 좀 신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 거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 생각엔 그 거위 말이에요.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건 그 거위 한 마리였던 것 같군요. 꼬리 부분에 검은 줄이 가 있는 하얀 거위 말입니다.”

라이더는 감정에 북받쳐 몸을 떨었다. "오, 선생님!" 그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것이 이리로 왔습니다.”

“여기 말입니까?”

“그렇다네. 정말 놀라운 새였지. 자네가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해. 그 새는 죽은 뒤에 알을 낳았다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예쁘고 선명한 푸른빛을 띤 작은 알이었지. 지금 내 박물관에 보관 중이라네.”

방문객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손으로 벽난로 선반을 움켜쥐었다. 홈즈는 금고를 열고 푸른색 카벙클을 들어 올렸다. 보석은 마치 별처럼 차갑고 찬란한 빛을 사방으로 뿜어냈다. 라이더는 그것

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다고 잡아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노려보며 서 있었다.

"게임은 끝났네, 라이더." 홈즈가 나직하게 말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게, 안 그러면 벽난로 불 속으로 쓰러지겠어! 왓슨, 이 사람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게. 죄를 짓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만큼 피가 넉넉한 놈은 아니니까 말이야. 브랜디를 좀 먹이게나. 그래, 이제야 사람 몰골이 좀 나오는군.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놈이야!"

그는 잠시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브랜디를 마시자 뺨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을 빤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미 거의 모든 단서를 손에 넣었고, 필요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네. 그러니 자네가 내게 더 말해줄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네. 그래도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남은 부분까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 라이더, 모카 백작부인의 그 푸른 보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그 사실을 내게 말해준 사람은 캐서린 커색이었네."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군. 백작부인의 시녀였단 말이지. 그래, 갑작스럽게 큰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나 보군. 예전에 자네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으니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라이더, 내가 보기엔 자네는 아주 악랄한 악

당이 될 재목이야. 배관공인 호너라는 남자가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의심의 화살이 그에게 더 쉽게 향할 거라는 것도 계산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자네와 공범인 커색이 백작부인의 방에서 아주 사소한 일거리를 하나 만들었겠지. 그리고 호너가 호출되도록 상황을 조작했을 거야. 그가 떠나자마자 자네는 보석함을 뒤져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이 불행한 남자가 체포되게 만들었지. 그러고 나서 자네는—"

라이더는 갑자기 카펫 위로 몸을 던지더니, 내 동료의 무릎을 붙잡고 매달렸다. "제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제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에는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성경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오, 제발 이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제발요!"

"당장 의자에 앉으시오!" 홈즈가 엄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비굴하게 굴며 용서를 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소. 당신은 저 불쌍한 호너가 아무 죄도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아주 우습게 여겼지 않소."

"홈즈 씨, 저는 떠날 겁니다. 이 나라를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씌워진 혐의도 무너질 테니까요."

"흠!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지. 이제 다음 장면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어떻게 돌이 거위의 배 속으로 들어갔으

며, 그 거위는 또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된 건가? 사실대로 말하게. 그래야만 자네가 무사할 수 있을 테니까."

라이더는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일어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호너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당장 보석을 가지고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언제 저와 제 방을 수색할지 몰랐으니까요. 호텔 근처에는 보석을 숨겨둘 만한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심부름이라도 가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누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는 오크쇼트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브릭스턴 로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시장에 내다 팔 닭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마주치는 사람마다 전부 경찰이나 형사처럼 보였습니다. 날씨가 꽤 추운 밤이었는데도 브릭스턴 로드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누나가 무슨 일이냐며 왜 그렇게 안색이 창백하냐고 물었지만, 호텔에서 보석 도난 사건이 일어나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마당으로 나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모즐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지. 그 친구는 나쁜 길로 빠져서 얼마 전까지 펜턴빌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쳤다네.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 도둑들의 수법과 훔친 물건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나는 그 친구에 대해 한두 가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네. 그래서 그가 사는 킬번으로 곧장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지. 그 친구라면 이 돌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그를 만나러 갈 것인가? 호텔에서 이곳까지 오며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떠올랐네. 언제든 붙잡혀 몸수색을 당할 수도 있었고, 내 조끼 주머니에는 그 돌이 들어 있었으니까. 나는 벽에 기댄 채 발치에서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위들을 바라보고 있었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스쳤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탐정이라 할지라도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할 방법이 떠오른 것이네."

"몇 주 전 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위 중 마음에 드는 놈을 골라도 좋다고 말했었죠. 누이는 언제나 한 입으로 두말하는 법이 없으니, 저는 이번에 거위 한 마리를 골라 그 안에 돌을 넣어 킬번까지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뒤편으로 거위 한 마리를 몰았습니다.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아주 크고 하얀 놈이었죠. 거위를 붙잡은 뒤 부리를 억지로 벌리고는, 손가락이 닿는 데까지 돌을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거위가 꿀꺽하고 삼키는 게 느껴졌고, 돌이 식도를 지나 모이주머니까지 내려가는 것도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파닥거리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무슨 일인가 싶어 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누이에게 설명하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짐승 같은 거위가 몸을 빼내더니 다른 거위들 사이로 푸닥거리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젬, 그 새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니?" 그녀가 물었다.

"글쎄," 내가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 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느 놈이 제일 살쪘나 만져보고 있었어."

"아, 손님 몫은 따로 챙겨 두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젬의 새'라고 부르는 건데요. 저기 멀리 보이는 커다란 흰 새예요. 총 스물여섯 마리가 있으니, 손님 몫 하나, 우리 몫 하나, 그리고 나머지 스물네 마리는 시장에 내다 팔 거예요."

"고마워, 매기." 내가 말했다. "하지만 괜찮다면, 방금 내가 만지던 걸로 주겠니?"

"다른 하나는 세 파운드나 더 나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살을 찌워 두었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걸로 주시죠.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가 약간 뾰로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대체 뭘 원하시는 건데요?"

"무리 한가운데에 있는,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그 하얀 놈 말이야."

"아, 알았으니까 그냥 죽여서 가져가 버려요."

"홈즈 씨,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거위는 킬번까지 잘 운반했고요. 친구에게 제가 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편한 사람이거든요. 친구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어댔고, 우리는 칼을 가져와 거위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석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거든요. 뭔가 끔찍한 실수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거위를 그대

로 둔 채 누이의 집으로 달려가 뒷마당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거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기, 다들 어디 갔어?" 내가 외쳤다.

"딜러네 가게에 갔어, 젬."

"어느 상인 말입니까?"

"코번트 가든의 브레킨리지라고 하게."

"하지만 제가 고른 것과 똑같이 줄무늬가 있는 꼬리를 가진 다른 것이 또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그래, 젬. 줄무늬 꼬리를 가진 녀석이 두 마리 있었는데,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단다."

"그럼요, 당연히 전부 다 봤지요. 그래서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가 브레킨리지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건을 전부 곧장 팔아치운 뒤였고,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단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는 늘 저에게 그런 식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제 누이는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저조차 제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명예를 팔아 넘긴 그 재물에 손끝 하나 대보지도 못한 채, 제가 낙인찍힌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발작하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이라고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셜록 홈즈가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규칙적으로 톡톡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이윽고 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다.

"당장 나가게!" 그가 말했다.

"아니, 선생님! 오,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말하지 마라. 당장 나가!"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후다닥 뛰쳐나가는 소리, 계단을 우당탕 내려가는 소리,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거리에서부터 경쾌하게 또각또각 멀어져 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결국 왓슨," 홈즈가 흙파이프를 집어 들며 말했다. "경찰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려고 내가 고용된 건 아니니까. 호너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 친구가 증언을 거부한다면 사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내가 범죄를 눈감아주는 셈이 되겠지만, 어쩌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일지도 모르지. 이 친구는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너무나 겁에 질려 있거든. 지금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면, 평생 범죄자로 살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거야. 게다가 지금은 용서의 계절이 아닌가. 운명이 우리 앞에 아주 기묘하고도 엉뚱한 문제를 던져주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걸세. 박사, 실례가 안 된다면 벨 좀 눌러주게나. 그럼 새로운 사건을 시작해 보지. 이번에도 역시 새가 주인공이 될 것 같군."

얼룩 끈

8. 얼룩 끈 사건

지난 8년 동안 친구 셜록 홈즈의 수사 방식을 관찰하며 기록해 온 70여 건의 사건들을 훑어보았다. 그중에는 비극적인 사건도, 희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저 기이하기만 한 사건도 많았다. 하지만 평범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홈즈는 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기에, 특이하거나 심지어 환상적이기까지 한 사건이 아니라면 조사에 가담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토록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도 서리주의 스토크 모란에 사는 유명한 로일럿 가문과 관련된 사건만큼 기이한 특징을 지닌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내가 홈즈와 함께 베이커가에서 독신자로서 방을 나누어 쓰던 초기 시절에 일어났다. 진작에 이 기록을 남길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그동안 미뤄두어야 했다. 그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지난달, 약속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다.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리름스비 로일럿 박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미 널리 퍼진 소문들이, 실제 진실보다 사건을 훨씬 더 끔찍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883년 4월 초의 어느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셜록 홈즈가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채 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홈즈는 평소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다. 벽난로 선반 위 시계를 보니 겨우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쾌감마저 들었다. 나 자신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미안하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다들 깨어 있는 모양이야. 허드슨 부인이 나를 깨웠고, 나는 자네를 깨우러 온 셈이니까."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화재라도 난 건가요?"

"아니, 의뢰인이라네. 젊은 여성이 아주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서 꼭 나를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는 중이라네. 이 새벽에 젊은 여성이 런던 시내를 헤매다 잠든 사람들을 깨워 가며 찾아올 정도라면, 분명 아주 급박하게 전할 말이 있다는 뜻이겠지. 만약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자네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할 게 분명하네. 그래서 일단 자네를 불러서 기회를 좀 주려고 했네."

"여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않겠네."

홈즈가 직업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내게 큰 즐거움은 없었다. 직관만큼이나 빠른 그의 추론을 감탄하며 지켜보는 것도 즐거웠다. 그의 추론은 언제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삼았으며, 그 논리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들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친구를 따라 거실로 내려갈 채비를 마쳤다. 우리가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있던 검은 옷 차림의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얼굴을 짙은 베일로 가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인." 홈즈가 쾌활하게 인사를 건넸다. "제 이름은 셜록 홈즈입니다. 이쪽은 제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님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사님께도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하! 허드슨 부인께서 현명하게도 불을 지펴 놓으셨군요. 어서 불가로 가까이 앉으시지요. 부인께서 몸을 떨고 계신 걸 보니,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가져오라고 시켜야겠습니다."

"저를 떨게 만드는 건 추위가 아니에요."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요청받은 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공포 때문이에요, 홈즈 씨. 극심한 공포라고요."

그녀는 말을 하며 베일을 들어 올렸다. 그 모습에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은 수척하게 질려 잿빛이었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마치 쫓기는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이목구비와 체격은 서른 살 정도의 여인이었으나, 머리

카락에는 벌써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표정은 지치고 초췌했다. 셜록 홈즈는 특유의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그녀를 한눈에 훑어보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녀의 팔뚝을 다독이며 달래듯 말했다.

"분명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오셨군요."

"그럼, 저를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의 왼쪽 장갑 손바닥 부분에 왕복 승차권의 뒷면 절반이 끼어 있는 게 보이는군요. 분명 이른 아침에 출발하셨겠지요. 게다가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질척한 길을 따라 도그카트(이륜마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오셨고요."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 동료를 빤히 바라보았다.

"부인, 전혀 미스터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켓의 왼쪽 소매를 보십시오. 진흙이 일곱 군데나 튀어 있지 않습니까? 자국이 아주 선명한 걸 보니 방금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흙이 튀는 건 도그 카트(dog-cart)를 탔을 때뿐입니다. 그것도 마부의 왼편 좌석에 앉았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섯 시 전에 집을 나서서 20분에 레더헤드에 도착했고, 워털루행 첫차를 타고 왔어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분은 단 한 명뿐이지만, 그 가여운 분도 저를 도와드릴 힘이 거의 없거든요. 홈즈 씨,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셨다는 패린토시 부인께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덕분에 당신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 선생님, 제게도 도움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적어도 저를 둘러싼 이 짙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당신의 도움에 보답할 능력이 없지만, 한 달이나 여섯 주 뒤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제 수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 적어도 은혜를 잊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홈즈는 책상으로 몸을 돌려 자물쇠를 풀더니,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고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패린토시 사건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맞군요. 기억납니다. 오팔 티아라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왓슨, 자네가 이 일을 맡기 전의 일인 것 같군. 부인, 당신의 친구를 도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걱정 마십시오. 제 직업은 그 자체로 보람이니까요. 다만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쓰게 될 비용은 편하실 때 언제든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아!" 방문객이 대답했다. "제 상황이 정말 끔찍한 이유는 제 공포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제 의심은 아주 사소한 점들에 근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움과 조언을 구할 자격이 가장 충분한 사람에게조차, 제가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그저 신경질적인 여자의 망상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분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달래는 듯한 말투와 피하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홈즈 씨, 당신은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온갖 악행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위험 속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제게 조언을 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부인.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입니다. 저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서리주 서쪽 경계에 있는 스토크 모런의 로일럿 가문 출신이신데,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색슨 가문 중 하나인 그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이십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낯익은 이름이군요." 그가 말했다.

"한때 이 가문은 영국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습니다. 영지는 북쪽으로는 버크셔 경계까지, 서쪽으로는 햄프셔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지요. 하지만 지난 세기, 네 명의 후계자가 연이어 방탕하고 낭비벽이 심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리전시 시대에 도박꾼이 나타나면서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몇 에이커의 땅과, 막대한 저당이 잡힌 200년 된 저택뿐이었죠. 마지막 지주는 그곳

에서 귀족 빈민이라는 비참한 삶을 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아들인 제 의붓아버지는 상황이 변했음을 깨닫고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친척에게 미리 돈을 빌려 의학 학위를 땄고, 캘커타로 떠났지요.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의술과 강인한 성품을 바탕으로 큰 병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도둑질이 연이어 발생하자,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그곳의 인도인 집사를 때려죽이고 말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면하기는 했지만, 결국 오랜 기간 투옥되어야 했지요. 그 후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성격이 괴팍하고 낙담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일럿 박사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인 스토너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벵골 포병대의 스토너 소장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젊은 미망인이셨죠. 제 여동생 줄리아와 저는 쌍둥이인데, 어머니가 재혼하실 당시 저희는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간 1,000파운드가 넘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로일럿 박사와 함께 사는 동안 그 재산 전부를 박사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혼할 경우, 각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셨죠. 저희가 영국으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8년 전 크루 근처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후 로일럿 박사는 런던에서 의사로서 자리를 잡으려던 시도를 포기하고, 저희를 스토크 모런에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옛 저택으로 데려가 함께 살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저희가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에 충분했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 장애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새아버지에게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크 모란의 로일럿 가문이 옛 저택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왕래하던 그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집 안에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그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맹렬하게 다투며, 오직 싸움을 일삼기 위해서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격한 성미는 이 가문 남자들의 내력인 듯했습니다. 제 생각에 새아버지의 경우에는 열대 지방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탓에 그 성질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차례 수치스러운 싸움을 일으켰고, 그중 두 번은 경찰 법정까지 가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공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지닌 데다 분노를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을 대장간 일을 하는 사람을 담장 너머 시냇가로 내동댕이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면 제가 긁어모을 수 있는 돈을 전부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떠돌이 집시들 말고는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가문의 영지나 다름없는, 가시덤불로 뒤덮인 그 몇 에이커의 땅에 집시들이 진을 치고 머무는 걸 허락하곤 합니다. 그 대가로 집시들의 천막에서 대접을 받으며, 때로는 그들과 함께 몇 주씩이나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지요. 그는 인도에서 온 동물들에게도 집착합니다. 지인이 그에게 보내주는 동물들 말입니다. 지금은 치타 한 마리와 개코원숭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그의 영지 안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주인만큼이나 그 동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저와 제 누이 줄리아의 삶은 그리 즐겁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우리 곁에 머물려 하지 않았고, 덕분에 오랫동안 집안일은 온전히 우리 몫이었지요. 누이는 서른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제 머리카락이 벌써 희끗해진 것처럼 누이의 머리카락도 이미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누이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생활 방식을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비슷한 연령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해로 근처에 사는 이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미혼 자매인 호노리아 웨스트페일 양인데, 가끔 그곳을 방문해 짧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줄리아가 그곳에 갔다가 반액 봉급을 받는 해병대 소령 한 명을 만났고, 그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왔을 때 새아버지도 그 약혼 사실을 알게 되셨지만, 결혼에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를 잡고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유일한 동반자였던 언니를 앗아간 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셜록 홈즈는 눈을 감은 채 쿠션에 머리를 파묻고 의자에 몸을 기대어 쉬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눈꺼풀을 반쯤 들어 올리더니, 맞은편에 앉은 방문객을 슬쩍 훑어보았다.

“세부 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절의 모든 사건이 제 기억 속에 낙인처럼 찍혀 있으니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택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지금은 오직 한쪽 날개채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날개채의 침실들은 1층에 있고, 거실은 건물 중앙동에 자리 잡고 있지요. 침실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로일럿 박사의 방이고, 두 번째는 제 여동생의 방,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방입니다. 방들 사이에 서로 통하는 문은 없지만, 모두 같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세 방의 창문은 모두 잔디밭을 향해 나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 로일럿 박사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사가 즐겨 피우던 독한 인도산 시가 냄새 때문에 제 여동생이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자기 방을 나와 제 방으로 왔고, 곧 있을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며 한동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여동생은 작별 인사를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가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해 봐요, 헬렌." 그녀가 물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잠결에 스스로 휘파람을 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 몇 밤 동안 새벽 3시쯤이면 항상 낮고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잠귀가 밝은 편이라 그 소리에 매번 잠을 깨곤 합니다.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옆방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잔디밭 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당신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아니요, 들은 적 없습니다. 분명 저 농장에 사는 지긋지긋한 집시들 짓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소리가 잔디밭에서 난 것이라면, 당신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 하지만 난 당신보다 잠이 훨씬 깊거든요.”

“뭐, 어쨌든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녀는 나를 향해 미소 지어 보이고는 내 방문을 닫았다. 잠시 후, 문 잠금장치에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밤마다 항상 문을 잠그고 계셨던 건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사가 치타와 개코원숭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군요. 우리는 문을 잠그지 않으면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고말고요. 자, 계속 말씀해 보시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막연하게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 여동생과 저는 쌍둥이였습니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두 영혼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미묘한지는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밤은 거칠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휘몰아치는 폭풍우 소리를 뚫고 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여동생의 목소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숄을 몸에 두르고 복도로 달려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여동생이 묘사했던 것과 같은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잠시 후 금속 덩어리가 떨어진 듯한 챙그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달려가 보니 여동생의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문은 경첩을 따라 천천히 회전하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 공포에 질린 채 그 문을 응시했습니다. 복도 등불 빛에 비친 여동생의 모습이 문틈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동생은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도움을 청하려 손을 허우적거렸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을 비틀거리며 흔들거렸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지만, 그 순간 여동생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

졌습니다. 여동생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고, 사지는 끔찍하게 경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동생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동생 위로 몸을 굽히자, 여동생은 결코 잊지 못할 목소리로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세상에! 헬렌! 그 끈이었어! 얼룩 끈이야!' 여동생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동생은 로일럿 박사의 방 쪽을 향해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지만, 다시 찾아온 경련이 여동생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의붓아버지를 크게 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가운 차림으로 방에서 급히 달려 나오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여동생의 곁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의 목구멍에 브랜디를 부어 넣고 마을에 의료진을 불러달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여동생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서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여동생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했습니다."

"잠시만요." 홈즈가 말했다. "그 휘파람 소리와 금속성 마찰음이 확실합니까? 맹세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했냐는 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검시관이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다는 확신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강풍 소리와 낡은 집이 삐걱거리는 소음 때문에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동생분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오른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머리가, 왼손에는 성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 그녀가 성냥을 켜서 주변을 살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시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는 사건을 아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로일럿 박사의 행실이 이 지역에서 이미 악명이 높았기에 더욱 신중을 기했지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사인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 증언에 따르면,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넓은 철창이 달린 구식 덧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덧창은 매일 밤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벽면을 두드려 확인해 보았으나 사방이 모두 견고한 상태였고, 바닥 역시 철저히 조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뚝은 넓지만 네 개의 커다란 철제 고리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제 누이가 죽음을 맞이할 당시, 그곳에는 누이뿐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누이의 몸 어디에서도 폭행을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독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독이 있는지 검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네."

"그렇다면, 이 불행한 여인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순전히 공포와 신경 충격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믿네. 하지만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겁에 질리게 했는지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군."

"그 무렵 그 농장에 집시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곳에는 거의 항상 집시들이 얼마간 있기 마련이죠."

"아, 그럼 그 '끈'이라는 말, 그 '얼룩 끈'이라는 암시에서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때로는 그 말이 그저 섬망 증세로 인한 헛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녀가 말한 대상이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아마도 이 농장에 머무는 저 집시들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들 중 많은 이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점박이 무늬 손수건을 보고, 그녀가 사용한 그 기묘한 형용사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주 심오한 문제군요." 그가 말했다. "부디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 일이 있은 뒤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지요. 하지만 한 달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가 제게 청혼을 하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미티지, 퍼시 아미티지입니다. 레딩 근처 크레인 워터에 사는 아미티지 씨의 차남이지요. 의붓아버님께서도 이 혼사를 반대하지 않으셔서, 저희는 올봄 중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저택 서쪽 별채에 수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침실 벽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죽었던 방으로 옮겨와 언니가 누웠던 바로 그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런데 어젯밤, 언니의 비극적인 운명을 곱씹으며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적막한 밤공기를 가르고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낮은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을 때, 제가 느꼈던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등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날이 밝자마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크라운 여관에서 이륜마차(도그카트)를 빌려 레더헤드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당신을 만나 조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 아침 이곳까지 왔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렸군." 내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준 건가?"

"네, 전부 다요."

"로일럿 양, 당신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의붓아버지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홈즈는 답을 얻기 위해 방문객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덮고 있던 검은 레이스 장식을 걷어 올렸다. 하얀 손목 위에는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남긴 자국인, 다섯 개의 작은 검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당신은 모진 대우를 받았군요." 홈즈가 말했다.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다친 손목을 황급히 가렸다. "그분은 아주 완고한 분이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 본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사이 홈즈는 두 손에 턱을 괸 채,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모닥불을 멍하니 응시했다.

"이건 아주 복잡한 사건이군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세부 사항이 수천 가지는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스토크 모란으로 간다면, 의붓아버지 몰래 이 방들을 둘러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침 그가 아주 중요한 용무로 오늘 시내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아마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울 테니, 당신을 방해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가정부가 한 명 있긴 합니다만, 나이가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제가 손쉽게 자리를 비우게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군. 왓슨, 자네도 이번 여행이 싫지는 않겠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가도록 하죠. 당신은 직접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런던에 온 김에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 있네. 하지만 12시 기차를 타고 돌아올 테니, 자네가 도착할 시간에는 맞춰서 돌아와 있겠네."

"오후 일찍 찾아뵙도록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작은 용무가 좀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머무르며 아침 식사라도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 벌써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오늘 오후에 다시 뵙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검고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방을 나갔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셜록 홈즈가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댄 채 물었다.

"내가 보기엔 아주 어둡고 불길한 사건 같군."

"충분히 어둡고, 충분히 불길하군요."

"하지만 만약 바닥과 벽이 견고하고 문과 창문, 굴뚝까지 모두 통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여인의 말이 맞다면, 그녀의 언니는 그 기묘한 죽음을 맞이할 당시 의심할 여지 없이 혼자였던 셈이군요."

"그렇다면 밤마다 들려오던 그 휘파람 소리는 대체 무엇이며, 죽어가는 여인이 남긴 그 기이한 말들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각이 안 되는군."

"밤마다 들리는 휘파람 소리, 이 노박사와 친분이 두터운 집시 무리의 존재, 그리고 박사가 의붓딸의 결혼을 막으려 한다는 점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 죽기 직전 남긴 '끈'이라는 암시, 마지막으로 헬렌 스토너 양이 들었다는 금속성 쇳소리까지 더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아마도 덧창을 고정하는 금속 막대가 제자리로 떨어지며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 볼 때, 이 미스터리는 바로 이 방향에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시들은 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군요."

"그런 이론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스토크 모란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 그 문제들이 치명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거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동료가 비명을 내지른 건,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거구의 사내가 문틈을 가득 메우며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기묘했다. 검은 실크 햇에 긴 프록코트를 입고 높은 게이터까지 갖춰 신은 모습은 전문직 종사자 같으면서도 농부 같기도 했다. 손에는 사냥용 채찍을 흔들고 있었다. 키가 어찌나 큰지 모자는 문틀의 가로지르는 나무에 닿을 정도였고, 어깨너비는 문틀 양옆을 가득 채울 만큼 넓었다. 수천 개의 주름이 패인 커다란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누르스름했고, 온갖

악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깊게 파인 눈동자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높고 얇으며 살집 없는 코까지 더해지니 마치 사나운 늙은 맹금류를 연상케 했다.

"누가 홈즈입니까?" 그 형체가 물었다.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만, 아직 성함은 듣지 못했군요." 동행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스토크 모란의 그라임즈비 로일럿 박사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박사님." 홈즈가 무심한 듯 부드럽게 말했다. "자, 우선 좀 앉으시지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겠소. 의붓딸이 여기 왔었지. 내가 그 아이의 행적을 쫓았소. 그 아이가 당신에게 대체 무슨 말을 했단 말이오?"

"이맘때치고는 날씨가 좀 쌀쌀하군." 홈즈가 말했다.

"그 여자가 당신에게 대체 뭐라고 했단 말이오!" 노인이 분노를 터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크로커스가 아주 잘 피어날 거라는 소식은 들었네." 내 동료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하! 나를 따돌리려 했나?"

새로 찾아온 손님이 한 걸음 내딛으며 사냥용 채찍을 휘둘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악당 같으니! 네놈을 알고 있다. 전부터 들어온 이름이야. 네놈이 바로 참견쟁이 홈즈지?"

내 친구가 미소 지었다.

"홈즈, 그 참견쟁이 같으니라고!"

그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홈즈, 저 스코틀랜드 야드의 월권주의자 녀석!"

홈즈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대화가 아주 즐겁군요." 그가 말했다. "나가실 때 문 좀 꼭 닫아 주십시오. 찬바람이 꽤 들어오니까요."

"내 할 말을 다 마친 뒤에 갈 것이오. 내 일에 감히 끼어들 생각 말게! 스토너 양이 여기 왔었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오. 내가 직접 뒤를 쫓아 확인했으니까! 나를 적대시했다간 큰코다칠 줄 알게! 자, 이것 좀 보시오!" 그는 성큼 다가서더니 벽난로의 부지깽이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그 거대한 갈색 손으로 부지깽이를 구부려 곡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뒤틀린 화로 갈퀴를 벽난로 안으로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아주 상냥한 분 같군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내 체격이 그분만큼 건장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가 계속 남아 있었다면 내 손아귀 힘도 그에 못지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말을 마친 홈즈는 강철 화로 갈퀴를 집어 들더니, 순식간에 힘을 주어 다시 곧게 펴 놓았다.

"감히 나를 공권력의 탐정들과 혼동하다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군! 하지만 이 사건 덕분에 수사에 활력이 생겼으니 다행이야. 그 무식한 자가 그녀를 추적할 수 있게 내버려 둔 그녀의 경솔함 때문에, 우리의 작은 친구가 해를 입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네. 자, 왓슨, 이제 아침 식사를 주문하세.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닥터스 커먼스로 내려가 볼 생각이야. 이번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좀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네."

셜록 홈즈가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는 거의 한 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그의 손에는 메모와 수치들이 어지럽게 휘갈겨 써진 푸른색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고인이 된 부인의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유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유언장에 명시된 투자 자산의 현재 시세를 계산해 봐야만 했지요. 부인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총수입이 1,100파운드에 육박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750파운드를 넘지 못합니다. 유언에 따르면 딸들이 결혼할 경우, 각자 250파운드의 수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요. 따라서 두 딸이 모두 결혼한다면 이

신사에게 남는 돈은 쥐꼬리만큼도 없을 것이고, 딸 중 한 명만 결혼하더라도 그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작업이 헛되지 않았군요. 그가 왜 그런 일을 막으려 하는지, 그 강력한 동기를 확인했으니까요. 자, 왓슨,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이 우리가 자기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으니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준비되었다면 택시를 잡아타고 워털루로 갑시다. 아, 그리고 권총을 주머니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쇠부지깽이를 꼬아버릴 정도로 힘이 센 신사들에게는 엘리 No. 2 권총이 아주 훌륭한 설득 도구가 되거든요. 그거 하나와 칫솔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워털루 역에서 다행히 레더헤드로 가는 기차를 잡아탈 수 있었다. 역 근처 여관에서 마차를 한 대 빌린 우리는 아름다운 서리주의 시골길을 따라 4~5마일 정도 달렸다. 햇살은 눈부셨고 하늘에는 솜털 같은 구름이 몇 점 떠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날씨였다. 나무와 길가의 울타리에는 막 푸른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촉촉한 흙 내음이 기분 좋게 감돌았다. 적어도 나에게는, 봄이 가져다주는 이 달콤한 희망과 우리가 맡은 불길한 임무 사이의 괴리감이 묘하게 느껴졌다. 동행한 홈즈는 마차 앞좌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모자를 눈까지 눌러쓰고 턱을 가슴 쪽으로 떨군 모습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홈즈가 몸을 움찔하더니,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초원을 가리켰다.

"저길 봐!" 그가 말했다.

나무가 울창한 공원이 완만한 경사를 따라 펼쳐져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자 숲처럼 우거졌다. 나뭇가지 사이로는 아주 오래된 저택의 회색 박공벽과 높게 솟은 지붕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토크 모란 말씀입니까?" 그가 물었다.

"네, 손님. 저 건물이 바로 그라임즈비 로일럿 박사의 저택입니다." 마부가 말했다.

"저기 공사가 진행 중이군."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저기야."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마부가 왼쪽 멀리 모여 있는 지붕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저 저택으로 가시려면 이 계단을 넘어 들판을 가로지르는 오솔길로 가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저기 보이시죠? 여인이 걷고 있는 곳이 바로 저택입니다."

"저기 오는 숙녀분이 스토너 양인 것 같군요." 홈즈가 눈을 가리며 말했다. "네, 당신 제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차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했다. 그러자 마차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레더헤드로 되돌아갔다.

"그 친구가 우리가 건축가라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용무가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네."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 올라가며 홈즈가 말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입방정을 막을 수 있

을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토너 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찾아왔다는 걸 확인하셨겠군요."

오전에 만난 의뢰인은 기쁨이 역력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려 서둘러 달려 나왔다. 그녀는 우리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며 외쳤다. "두 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답니다. 로일럿 박사가 시내로 나갔으니, 저녁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박사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홈즈가 말하며 그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헬렌 스토너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세상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가 나를 따라온 거군요."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는 워낙 교활해서 언제쯤이면 그로부터 안전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그가 돌아오면 대체 뭐라고 말할까요?"

"그자가 자신보다 더 교활한 누군가가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반드시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피하십시오. 만약 그자가 폭력을 휘두른다면, 저희가 당신을 해로에 있는 고모님 댁으로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아껴야 하니, 저희가 조사해야 할 방으로 즉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건물은 회색빛 돌로 지어졌는데, 곳곳에 이끼가 얼룩덜룩하게 피어 있었다. 중앙 부분이 높게 솟아 있고, 양옆으로는 게의 집게발처럼 굽어 있는 두 개의 날개가 뻗어 나온 형태였다. 한쪽 날개는 창문이 깨진 채 나무판자로 막혀 있었고, 지붕 일부는 내려앉아 있어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없었다. 중앙 부분도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오른쪽 건물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듯했다. 창문에 내려진 블라인드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를 보니, 이쪽이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건물 끝벽에는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석조 벽면 일부는 파손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일하는 인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정돈되지 않은 잔디밭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며, 창문 바깥쪽을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

"제 짐작이 맞다면, 이 방은 당신이 쓰던 방이고, 가운데 방은 여동생의 방, 그리고 본관 옆에 붙은 방은 로일럿 박사의 방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운데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쪽 끝 벽면은 딱히 급하게 수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던데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제 생각엔 저를 방에서 쫓아내려는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 시사하는 바가 있군요. 자, 이 좁은 날개채 반대편에는 이 세 방과 연결된 복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복도에도 창문이 있겠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구멍들뿐이에요.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두 분 모두 밤에 문을 잠그셨으니, 그쪽으로는 방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의 덧창을 걸어 잠가 주시겠습니까?”

스토너 양이 그렇게 하자, 홈즈는 열린 창문 너머를 주의 깊게 살핀 뒤 덧창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칼날을 밀어 넣어 빗장을 들어 올릴 만한 틈새조차 없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경첩까지 살펴보았으나, 경첩은 두꺼운 석조 벽에 단단히 박힌 통철제였다.

"흠!"

홈즈는 난처한 듯 턱을 긁적이며 말했다.

"내 가설에 분명히 난관이 있군. 덧창이 잠겨 있다면 누구도 통과할 수 없을 테니까. 뭐, 일단 안쪽을 살펴보면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르지."

작은 옆문은 회칠을 한 복도로 이어졌고, 그 복도를 따라 세 개의 침실이 나 있었다. 홈즈는 세 번째 방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장 두 번째 방으로 향했다. 지금은 스토너 양이 잠들어 있는 방이자, 그녀의 언니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바로 그 방이었다.

방은 낮은 천장과 커다란 벽난로가 있는 소박하고 작은 공간이었다. 옛 시골 저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 구석에는 흰색 덮개를 씌운 좁은 침대가 있었다. 창문 왼쪽에는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방 중앙에 깔린 정사각형 모양의 윌튼 카펫을 제외하면, 이 가구들과 작은 고리버들 의자 두 개가 방 안의 전부였다. 벽면의 판자와 바닥재는 벌레 먹은 갈색 참나무로 되어 있었다. 나무가 워낙 오래되고 변색된 탓에, 아마 이 집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홈즈는 의자 하나를 구석으로 끌어다 놓고는 말없이 앉았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방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구석구석을 훑으며 위아래로 바쁘게 움직였다.

"저 벨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는 침대 옆에 늘어진 두꺼운 벨 줄을 가리켰다. 줄 끝에 달린 술은 베개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건 가사 도우미의 방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물건들보다 더 새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불과 2년 전쯤에 놓인 것입니다."

"당신의 누이가 부탁한 것이겠지요?"

"아니요, 그녀가 그걸 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건 직접 구하곤 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런 곳에 저렇게 근사한 벨 줄을 달아둘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 바닥을 좀 확인해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홈즈는 돋보기를 손에 든 채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바닥 판자 사이의 틈새를 샅샅이 살피며 앞뒤로 빠르게 기어 다녔다. 이어 방 안을 장식한 나무 벽면도 같은 방식으로 면밀히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침대 쪽으로 걸어간 그는 한동안 침대를 응시하며 벽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벨 줄을 손에 쥐고 힘차게 잡아당겼다.

"이건 가짜잖아요." 그가 말했다.

"벨이 울리지 않나요?"

"아니요, 전선에 연결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주 흥미롭군요. 보시다시피 환기구의 작은 구멍 바로 위쪽에 있는 갈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군요!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이상하군!"

홈즈가 밧줄을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이 방에는 아주 기묘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를 들어보지. 건축가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환기구를 옆방으로 연결했을까? 똑같은 수고를 들여서 차라리 바깥 공기가 통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것도 꽤 현대적이군요." 여인이 말했다.

"종을 매단 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인가 보군?" 홈즈가 말했다.

"네, 그 무렵에 몇 가지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종 줄이나 환기 기능이 전혀 없는 환기구처럼,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었군요. 스토너 양,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안쪽 방으로 들어가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라임즈비 로일럿 박사의 방은 의붓딸의 방보다 넓었지만, 가구 배치는 그만큼이나 단출했다. 눈에 띄는 주요 물건이라고는 야전 침대 하나와 기술 서적이 가득 꽂힌 작은 나무 선반, 침대 옆의 안락의자, 벽에 붙여 놓은 평범한 나무 의자, 원형 탁자, 그리고 커다란 철제 금고뿐이었다. 홈즈는 천천히 방 안을 돌며 이 모든 물건을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가 금고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다.

"의붓아버지의 사업 서류예요."

"아! 안을 들여다보셨군요?"

"몇 년 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요. 정말 엉뚱한 생각이군요!"

"자, 이것 좀 보게!" 그는 그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우유 접시를 집어 들며 말했다.

"아니요, 고양이는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타와 개코원숭이는 있지요."

"아,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치타는 그저 커다란 고양이일 뿐이지만, 우유 한 접시로는 그 녀석의 욕구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점이 딱 하나 있군요." 그는 나무 의자 앞에 쪼그려 앉더니, 아주 세심한 태도로 의자 시트를 살피기 시작했다.

"고맙네. 이제 다 해결됐군."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어라! 이거 흥미로운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물건은 침대 한쪽 구석에 걸린 작은 개 채찍이었다. 하지만 채찍은 돌돌 말려 있었고, 채찍끈을 고리 모양으로 묶어 놓은 상태였다.

"자네는 저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흔히 볼 수 있는 채찍이군요. 하지만 왜 이걸 묶어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명석한 사람이 그 머리를 범죄에 쓰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지요. 스토너 양, 이제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잔디밭으로 나가서 좀 걷도록 하죠."

조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 친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고 미간은 깊게 패어 있었다. 나는 그의 표정이 그토록 어둡게 가라앉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잔디밭을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며 걸었다. 스토너 양도 나도, 홈즈가 깊은 생각에서 스스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그의 사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스토너 양, 제 조언을 모든 면에서 철저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을 만큼 사안이 중대합니다.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우선, 제 친구와 저 둘 다 손님의 방에서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스토너 양과 나는 모두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틀림없을 겁니다. 설명해 드리지요. 저기 보이는 건 마을 여관이 맞지요?"

"네, 그게 바로 크라운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창문이 보입니까?"

"물론입니다."

"의붓아버지가 돌아오면 두통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방 안에만 머물러야 하네. 그러다 그가 잠자리에 드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창문의 덧창을 열고 걸쇠를 풀게나. 그리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창가에 등불을 놓아두게. 그 뒤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겨서, 예전에 지내던 방으로 조용히 몸을 피해야 하네. 그 방이 지금 수리 중이라 해도, 하룻밤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네."

"아, 그럼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겨 두십시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밤은 손님 방에서 묵도록 하죠.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소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조사해 봅시다."

"홈즈 씨, 이미 결론을 내리신 것 같군요." 스토너 양이 내 동료의 소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제 누이의 죽음이 대체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군요."

"적어도 제 생각이 맞는지, 그녀가 갑작스러운 공포 때문에 죽은 것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실질적인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자, 스토너 양,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로일럿 박사가 돌아와 우리를 본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제가 일러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당신을 위협하는 위험을 곧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크라운 여관에서 침실과 거실을 어렵지 않게 구했다. 방은 위층에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대로의 입구와 스토크 모런 저택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별채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해 질 녘, 그림자처럼 거대한 체구의 로일럿 박사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마차를 모는 소년의 왜소한 체구 옆으로 박사의 거대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소년이 육중한 철문을 여느라 잠시 애를 먹자, 박사의 쉰 목소리가 포효하듯 들려왔다. 우리는 박사가 주먹을 꽉 쥔 채 소년을 향해 격분하여 휘두르는 모습도 목격했다. 마차는 그대로 달려 나갔고, 몇 분 뒤 저택 거실 중 한 곳에 등불을 밝히자 나무 사이로 갑작스러운 빛이 번져 나왔다.

"왓슨, 그거 아나?"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방 안에서 함께 앉아 있던 홈즈가 말했다.

"오늘 밤 자네를 데리고 나가는 게 사실 조금 망설여지네. 위험한 기운이 분명히 느껴지거든."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당신이 와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겠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위험에 대해 말씀하시는군요. 분명 이 방 안에서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신 모양입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알아낸 것 같군요. 당신도 제가 본 것을 전부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을 매단 줄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그 줄이 대체 무슨 용도였을지는 저로서도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더군요."

"환기구도 보셨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방과 방 사이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쥐 한 마리조차 겨우 지나갈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었으니까요."

"스토크 모란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분명 환기구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네."

"이보게, 홈즈!"

"아, 그럼요, 그랬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기억하시나요? 언니가 로일럿 박사의 시가 냄새를 맡았다고 했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두 방 사이에 통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통로여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검시관 조사 과정에서 이미 눈에 띄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환기구일 것이라고 추론해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글쎄요, 적어도 날짜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점은 있습니다. 환기구가 만들어지고, 끈이 걸리고, 그 침대에서 잠을 자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은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군요."

"그 침대에서 아주 기이한 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아니오."

"침대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소. 침대를 그런 식으로 고정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군요."

"그 여인은 침대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침대는 환기구와 그 줄—뭐, 그냥 '줄'이라고 부르기로 하지요, 분명 종을 당기는 용도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까요—에 대해 항상 일정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홈즈!" 내가 외쳤다. "당신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소. 우리가 마침 제때 도착한 모양이군. 아주 교묘하고도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말이오."

"교묘하면서도 끔찍하군. 의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어떤 범죄자보다 위험한 법이라네. 대담한 배짱과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팔머와 프리처드도 자기 분야에서 손꼽히는 일류였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자는 그들보다 훨씬 더 치밀하지만, 왓슨,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끔찍한 일들을 충분히 겪게 되겠지.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일단 파이프 담배나 태우면서 몇 시간 동안은 좀 더 즐거운 일에 정신을 돌려보세나."

밤 9시쯤 되자 나무들 사이로 비치던 불빛이 꺼졌고, 저택 쪽은 온통 어둠에 잠겼다. 두 시간이 느릿하게 흘러갔다. 그러다 갑자기, 11시 정

각이 되는 순간 우리 바로 앞에서 밝은 불빛 하나가 번쩍이며 나타났다.

"저게 우리 신호야." 홈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가운데 창문에서 보내는 거야."

우리가 밖으로 나서자 홈즈는 집주인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아는 사람을 늦은 시간에 만나러 가는 길이며, 어쩌면 그곳에서 밤을 지낼지도 모른다는 설명이었다. 잠시 후 우리는 어두운 길 위로 나섰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우리의 침울한 행로를 안내하듯 앞을 비추고 있었다.

공원 담벼락 곳곳이 수리되지 않은 채 뚫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지나 잔디밭에 다다랐고, 그곳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월계수 덤불 사이에서 흉측하게 뒤틀린 아이처럼 보이는 형체가 튀어나왔다. 그 형체는 사지를 뒤틀며 잔디밭 위로 몸을 던지더니, 이내 어둠 속을 향해 잔디밭을 가로질러 빠르게 달려갔다.

"세상에!" 내가 나직이 속삭였다. "방금 보셨습니까?"

홈즈 역시 순간 나만큼이나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내 손목을 바이스처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러더니 이내 낮게 웃음을 터뜨리며 내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참으로 근사한 집이군요."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저게 바로 그 개코원숭이입니다."

그 박사가 기이한 애완동물들을 기른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치타도 한 마리 있었는데, 어쩌면 언제든 우리 어깨 위로 뛰어오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홈즈를 따라 신발을 벗고 침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마음이 한결 놓였다. 동료인 홈즈는 소리 없이 덧문을 닫고 램프를 탁자 위로 옮긴 뒤, 방 안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방 안은 낮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더니 홈즈는 내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손을 나팔 모양으로 모아 쥐었다. 그리고는 내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너무나 작은 목소리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들리면 우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걸세."

나는 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불을 끄고 앉아 있어야 하네. 저자가 환기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잠들지 마시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권총을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 두시오. 나는 침대 옆에 앉을 테니, 당신은 저 의자에 앉으시오."

나는 리볼버를 꺼내 탁자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홈즈는 길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가져와 침대 옆에 놓았다. 그 곁에는 성냥갑과 토막 난 양초를 나란히 두었다. 그러고는 램프를 끄자,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 끔찍했던 밤의 불침번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앉은 동료가 나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눈을 부릅뜬 채 불과 몇 피트 거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덧문이 빛 한 줄기조차 허용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기다림을 이어갔다.

밖에서는 밤새 우는 새의 울음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한 번은 우리 창문 바로 근처에서 고양이처럼 길게 끄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치타가 정말로 풀려났음을 알려주었다. 멀리서는 15분마다 울리는 교구 시계의 깊은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종소리가 울리는 15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열두 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이어서 한 시, 두 시, 세 시의 종소리가 이어졌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환기구 쪽에서 빛이 번쩍였다. 빛은 곧 사라졌지만, 뒤이어 타는 기름 냄새와 달궈진 금속의 매캐한 향이 강하게 풍겨왔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덮개 달린 등(각등)을 켠 모양이었다. 이윽고 무언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나는 30분 동안 귀를 바짝 세운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마치 주전자에서 증기가 끊임없이 새어 나오는 듯한 소리였

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홈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더니, 지팡이를 휘둘러 벨 줄을 사납게 후려쳤다.

"보이나, 왓슨?" 홈즈가 외쳤다. "보이냐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홈즈가 성냥을 그어 불을 밝히던 순간, 낮고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불빛이 피로에 지친 내 눈을 찔렀고, 그 때문에 친구가 그토록 격렬하게 후려친 대상이 무엇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홈즈의 얼굴이 죽은 듯 창백하게 질려 있으며, 공포와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홈즈는 후려치기를 멈추고 환기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내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은 점점 더 커지더니, 고통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한데 뒤섞인 거친 절규가 되어 울려 퍼졌다. 마을 아래쪽은 물론 멀리 떨어진 사제관에서 잠자던 사람들까지 그 비명 소리에 잠이 깼다고들 한다. 그 소리는 우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명이 시작되었던 정적 속으로 마지막 메아리마저 사라질 때까지, 나는 홈즈를 바라보았고 홈즈 역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네." 홈즈가 대답했다. "어쩌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일지도 모르지. 권총을 챙기게. 이제 로일럿 박사의 방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등불을 켜고 복도 끝으로 앞장서 나갔다. 그는 방문을 두 번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윽고 그가 손잡이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권총을 움켜쥔 채 그의 뒤를 바짝 뒤따랐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기이했다. 탁자 위에는 덮개가 반쯤 열린 어두운 등불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등불이 문이 살짝 열린 철제 금고를 향해 강렬한 빛줄기를 쏘아 올리고 있었다. 탁자 옆 나무 의자에는 로일럿 박사가 긴 회색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다. 가운 아래로는 맨 발목이 드러나 있었고, 발에는 뒤축이 없는 붉은색 터키식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낮에 우리가 보았던, 긴 채찍이 달린 짧은 손잡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턱을 치켜든 채, 천장 구석을 무섭도록 굳은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마 주위에는 갈색 반점이 섞인 기묘한 노란색 띠가 머리를 단단히 조이고 있는 듯했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섰음에도 그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 끈! 얼룩 끈 말이야!" 홈즈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 순간 그의 기묘한 모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머리카락 사이로 혐오스러운 뱀 한 마리가 솟아올랐다. 뱀은 뭉툭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머리와 부풀어 오른 목을 드러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늪살무사야!" 홈즈가 외쳤다. "인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이지. 저 자는 물린 지 10초도 안 되어 죽고 말았을 거야. 정말이지 폭력은 폭력

을 부르는 법이군. 남을 해치려 파놓은 함정에 결국 자신이 빠지고 말았어. 우선 이 짐승을 다시 구멍 속으로 밀어 넣자고. 그러고 나서 스토너 양을 안전한 곳으로 모신 뒤, 카운티 경찰에 사건을 알리도록 하지."

그는 말을 하며 죽은 이의 무릎 위에 놓인 개 채찍을 재빨리 낚아챘다. 그러고는 채찍의 고리를 뱀의 목에 걸어 끔찍한 은신처에서 끌어냈다. 홈즈는 뱀을 팔을 길게 뻗어 멀찍이 든 채 철제 금고 안으로 던져 넣고는 금고 문을 닫아버렸다.

스토크 모란의 로일럿 박사가 사망한 사건의 실상은 이러하다. 공포에 질린 소녀에게 비보를 전하던 과정이나, 다음 날 아침 기차에 소녀를 태워 해로에 있는 인자한 이모에게 인도하던 일, 그리고 경찰의 지루한 조사 끝에 박사가 위험한 애완동물을 부주의하게 다루다 변을 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굳이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건에 대해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나머지 사실들은,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셜록 홈즈가 들려주었다.

"내가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렸었네." 그가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데이터가 불충분할 때 추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네, 친애하는 왓슨. 집시들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그 가여운 소녀가 성냥불에 언뜻 본 형체를 설명하려고 '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 때문에 나는 완전히 잘못된 단서를 쫓고 말았지. 다만 내가 잘한 점이 있다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이 창문이나 문

을 통해서는 결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즉시 내 판단을 재검토했다는 점이라네.

이미 자네에게 말했듯이, 내 주의는 곧바로 이 환기구와 침대까지 내려온 종 줄로 향했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줄은 가짜였고, 침대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지.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줄이 구멍을 통과해 침대로 내려오는 무언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네. 뱀이라는 생각이 즉각 떠올랐고, 로일럿 박사가 인도에서 온 생물들을 공급받는다는 사실까지 결합해 보니 내가 아마도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더군.

화학 검사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독을 사용한다는 발상은, 동양에서 수련을 쌓은 영리하고 무자비한 자라면 충분히 떠올릴 법한 생각이었네. 또한 그에게는 독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도 유리했을 테지. 독니가 박힌 두 개의 작은 검은 구멍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검시관이 있다면, 그건 정말 눈썰미가 아주 예리한 사람일 걸세.

그러고 나서 휘슬 생각이 났네. 아침 햇살이 피해자에게 뱀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그는 반드시 뱀을 불러들여야만 했을 테니까. 아마 우리가 보았던 우유를 이용해, 부르면 돌아오도록 뱀을 길들였겠지. 그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간에 뱀을 이 환기구로 통과시켰을 것이고, 뱀은 줄을 타고 내려와 침대 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걸세. 침대에 누운 사람이 물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조만간 결국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의 방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린 상태였네. 의자를 살펴보니 그는 평소 그 위에 올라서곤 했던 모양이더군. 환기구에 손을 뻗으려면 당연히 그래야만 했을 테지. 금고와 우유가 담긴 접시, 그리고 채찍 끈을 보는 순간, 남아 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네. 스토너 양이 들었다는 금속성 굉음은, 의붓아버지가 금고 안에 있는 끔찍한 침입자를 가두려고 급히 금고 문을 닫을 때 난 소리가 분명하네. 일단 결심을 굳힌 뒤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자네도 분명 들었겠지만 나 역시 그 생물이 쉿쉿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즉시 불을 밝히며 놈을 공격했네."

"환풍구로 밀어 넣은 결과입니다."

"게다가 그 결과가 반대편에서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상황까지 초래했지요. 제가 지팡이로 내리친 타격 중 몇 대가 그놈에게 정통으로 들어갔고, 그 때문에 뱀의 성질이 뒤집혀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달려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로일럿 박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양심에 큰 가책이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지니어의 엄지손가락

9. 엔지니어의 엄지손가락

우리가 친분을 쌓아온 수년간, 내 친구 셜록 홈즈가 해결해 온 수많은 사건 중 내가 직접 그에게 소개한 사건은 단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해더리 씨의 엄지손가락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워버턴 대령의 광기 사건이었다. 후자가 예리하고 독창적인 관찰자에게 더 풍부한 연구 거리를 제공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전자는 사건의 시작부터가 기이했고 세부 내용 또한 극적이었다. 비록 홈즈가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쓰이는 그 연역적 추리법을 발휘할 기회는 후자보다 적었을지라도, 기록할 가치는 전자가 더 높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신문에도 여러 번 실린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대개 그렇듯, 신문 반 쪽 분량에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그 충격은 반감되기 마련이다. 사실이 눈앞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새로운 발견이 진실을 향한 계단이 되어 미스터리가 차츰 걷히는 과정을 지켜볼 때의 전율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당시 이 사건은 내게 깊

은 인상을 남겼으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여운은 여전히 생생하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89년 여름이었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다. 이제 나는 그 사건들을 요약하여 들려주려 한다. 당시 나는 민간 의사로서 진료를 재개한 상태였고, 홈즈와는 베이커가에 있는 그의 거처를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물론 나는 홈즈를 자주 찾아갔으며, 때로는 그를 설득해 그 특유의 방탕한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 집을 방문하게 하기도 했다.

나의 진료 업무는 꾸준히 늘어났다. 마침 내가 패딩턴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덕분에, 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 중 몇몇이 내 환자가 되어주었다. 그중 한 명은 고통스럽고 오래 끌던 병을 내 도움으로 완치한 뒤, 내 실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녔다. 그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자가 생길 때마다 나를 추천하려 애를 썼다.

어느 날 아침, 7시가 조금 되기 전이었다. 하녀가 문을 두드리며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패딩턴에서 온 남성 두 명이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경험상 철도에서 온 사건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오랜 동료인 경비원이 방에서 나오며 문을 꽉 닫았다.

"그를 여기 데려왔어."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너머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무사해."

"대체 그게 뭡니까?" 내가 물었다. 홈즈의 태도를 보니, 마치 내 방 안에 정체 모를 기이한 생물이라도 가둬 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새 환자입니다."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제가 직접 데려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몰래 빠져나가지 못할 테니까요. 자, 여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전 이제 가봐야 합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고는 이 믿음직한 안내인은 내가 고맙다는 인사조차 건넬 틈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떠나버렸다.

진료실로 들어서니 한 신사가 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헤더 트위드 소재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천으로 된 모자는 내 책들 위에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는 양손을 손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그 손수건은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젊은이였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강인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다. 하지만 안색은 몹시 창백했다. 그는 무언가 극심한 동요를 겪고 있는 듯 보였으며, 온 정신력을 다해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봬서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가 말했다. "밤사이에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패딩턴 역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물으니 친절한 분이 이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더군요. 하녀에게 명함을 건네주긴 했습니다만, 보니 옆 탁자 위에 그대로 두었나 봅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어 훑어보았다. "빅토리아가 16A, 3층, 수리학 엔지니어 빅터 헤더리 씨." 오전의 방문객이 누구인지, 직업은 무엇인

지, 어디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명함이었다. 나는 서재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밤새 이동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일은 그 자체로 참 지루한 법이지요."

"오, 제 밤은 지루했다고 할 수 없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댄 채 몸을 들썩이며 아주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높고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의사로서의 내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만하세요!" 내가 외쳤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고는 카라페에 담긴 물을 따라 주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커다란 위기가 지나간 뒤 강인한 성품을 가진 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히스테리적 발작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으나, 안색은 몹시 창백했고 기운은 매우 지쳐 보였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군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 좀 마셔 보세요." 나는 물에 브랜디를 조금 섞었다. 그러자 그의 창백한 뺨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좀 낫군요!" 그가 말했다. "자, 박사님, 이제 제 엄지손가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엄지손가락이 원래 있던 자리를 봐달라고 해야겠군요."

그는 손수건을 풀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단련된 내 신경이 떨릴 정도였다. 손가락 네 개가 툭 불거져 나와 있었고,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끔찍할 정도로 붉고 스펀지 같은 살점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뿌리째 잘려 나가거나 뜯겨 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세상에!" 내가 외쳤다. "정말 끔찍한 상처군요. 피가 꽤 많이 났겠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아마 꽤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어서, 손수건 한쪽 끝을 손목에 아주 단단히 동여매고 나뭇가지로 지혈했습니다."

"훌륭하군요! 당신은 외과 의사가 되셨어야 했어요."

"보시다시피 수리학에 관한 문제였으니, 제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일이었지요."

"상처를 보니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도구로 입힌 것이군요." 내가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식칼 같은 거였어요." 그가 말했다.

"사고였겠지요?"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요! 살인적인 공격이라니요?"

"정말이지 살벌하군요."

"당신은 정말 나를 경악하게 만드는군요."

나는 상처를 스펀지로 닦아내고 깨끗이 소독한 뒤, 드레싱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솜을 얹고 카볼산 소독액을 적신 붕대로 감싸 마무리했다. 그는 이따금 입술을 깨물기는 했지만, 통증 때문에 움찔거리는 기색도 없이 편안히 몸을 뒤로 젖혔다.

"좀 어떠십니까?" 처치를 다 끝낸 뒤 내가 물었다.

"훌륭합니다! 박사님의 브랜디와 붕대 덕분에 완전히 새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몸이 아주 허약해진 상태였는데, 그동안 겪은 일이 워낙 많았거든요."

"아마도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히 정신적으로 무척 괴로우신 모양이니까요."

"아니요, 지금은 안 됩니다. 경찰에게는 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 이 상처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경찰이 제 말을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워낙 기이한 이야기인 데다 뒷받침할 증거도 마땅치 않으니까요. 설령 그들이 제 말을 믿는다 해도, 제가 줄 수 있는 단서들이 너무나 모호해서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 내가 외쳤다. "만약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친구 셜록 홈즈 씨를 먼저 찾아가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아, 그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문객이 대답했다. "그분이 이 사건을 맡아주신다면 정말 기쁘겠군요. 물론 경찰 측에도 정식으로 의뢰는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를 만나러 데려다드리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같이 갑시다.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있겠어요?"

"네,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인을 시켜 마차를 부르겠습니다. 곧바로 따라가죠."

나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아내에게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그러고는 5분 만에 한섬 택시(hansom)에 올라탔다. 나는 새로 알게 된 이 신사분과 함께 베이커가로 향했다.

셜록 홈즈는 내 예상대로 가운 차림으로 거실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더 타임스>지의 광고란을 읽으며 아침 식사 전의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파이프에 채운 담배는 전날 피우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 벽난로 선반 구석에서 정성껏 말려둔 것이었다. 홈즈는 특유의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신선한 베이컨과 달걀 요리를 주문하더니, 우리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홈즈는 새로 만난 의뢰인을 소파에 앉히고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 주었다. 그러고는 의뢰인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브랜디를 섞은 물 한 잔을 놓아 주었다.

"해더리 씨, 당신이 겪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군요." 홈즈가 말했다. "자, 우선 저기에 편히 누우십시오. 아주 집처럼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되, 힘에 부치면 언제든 멈추셔도 좋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게 자극제라도 좀 드시면서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환자가 말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붕대를 감아 주신 이후로 몸 상태가 훨씬 나아졌어요. 당신이 가져온 아침 식사가 치료를 완결해 준 모양입니다. 귀한 시간을 최대한 뺏지 않도록, 곧바로 제가 겪은 기이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날카롭고 열정적인 본성을 감추려는 듯, 피로에 지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방문객이 들려주는 기묘한 이야기를 침묵 속에 경청했다.

"아시다시피," 그가 말했다. "저는 고아인 데다 미혼이라 런던의 하숙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수리학 엔지니어입니다. 그리니치의 유명한 회사인 베너 앤 매더슨에서 7년 동안 견습생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꽤 쌓았습니다. 2년 전, 견습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도 어느 정도 생긴 덕분에,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가에 사무실을 마련했지요."

"누구나 처음으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참으로 암울한 경험을 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 정도가 유독 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뢰받은 상담은 세 건뿐이었고, 작은 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일로 벌어들인 총수입은 27파운드 10실링에 불과했죠.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은 사무실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일감 하나 맡지 못할 거라는 확신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에 서기가 들어왔습니다. 업무차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신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서기는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곧이어 대령 본인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체격은 보통보다 조금 컸지만 무척이나 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른 사람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얼굴 전체가 코와 턱으로 뾰족하게 이어져 있었고, 툭 불거진 광대뼈 위로 뺨의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척함은 병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체질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은 형형했고 걸음걸이는 활기찼으며 태도 또한 당당했으니까요. 옷차림은 소

박했지만 깔끔했고, 나이는 서른 살보다는 마흔 살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헤더리 씨입니까?" 그가 약간의 독일식 억양을 섞어 물었다. "헤더리 씨, 당신은 제게 추천을 받고 왔습니다. 본업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입이 무겁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런 찬사를 들으면 어떤 젊은이라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실례지만, 저를 이토록 좋게 평가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고아인 데다 미혼이며, 런던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같은 경로로 전해 들었으니까요."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 직업적 역량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저를 찾아오신 건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서 아니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모두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에게 맡길 전문적인 의뢰가 하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는 혼자 지내는 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편이 더 마음이 놓이는 법이니까요."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말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 전적으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나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의심스럽고도 무언가를 캐묻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동안에도, 그 후에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침묵을 지키시는 겁니까? 말로든 글로든, 그 일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요?"

"이미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군." 대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번개처럼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문을 확 열어젖혔다. 하지만 복도는 비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다시 다가오며 말했다. "서기들이 가끔 주인의 일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는 내 의자 가까이 자신의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더니, 아까와 같은 의구심 가득하고 사색적인 눈빛으로 다시 나를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뼈만 남은 듯한 이 남자의 기괴한 행동을 보고 있자니, 내 안에서는 거부감과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의뢰인을 놓칠까 두려운 마음조차 나의 조바심을 억누르지는 못했다.

"용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 시간도 귀한 법이니까요." 내가 말했다. 방금 그 마지막 말은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온 뒤였다.

"하룻밤 일하고 50기니를 받는 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주 훌륭하군요."

"하룻밤 정도 걸릴 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고장이 난 유압식 스탬핑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 기계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만 짚어주시면, 수리는 저희가 직접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은 가벼워 보이는데 보수는 아주 후하더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 열차를 타고 와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버크셔주의 에이포드입니다. 옥스퍼드셔 경계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요. 레딩에서 7마일 이내에 있습니다. 패딩턴역에서 기차를 타면 밤 11시 15분쯤 도착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중 나가도록 마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 집은 아주 한적한 시골에 있어요. 에이포드 역에서 족히 7마일은 떨어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자정 전에는 도착하기 어렵겠군요. 돌아오는 기차도 없을 테고요. 결국 하룻밤 묵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잠자리는 어렵지 않게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 곤란하군요. 좀 더 편한 시간에 찾아뵈면 안 되겠습니까?"

"귀하를 늦게 부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젊은 분께 드리는 비용이지만, 이 금액이면 귀하가 속한 업계의 거물들에게서도 의견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끼친 불편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주십시오. 물론, 만약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결정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는 50기니라는 거금과 그 돈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떠올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의뢰인의 뜻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면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그렇고말고요. 우리가 요구한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무언가 약속을 받아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엿듣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이렇게 정리되는군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풀러스 어스(fuller's-earth)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게다가 영국 전역을 통틀어 겨우 한두 곳에서만 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레딩에서 10마일도 안 되는 곳에 작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아주 작은 땅이었지요. 운 좋게도 제 밭 중 한 곳에서 풀러스 어스(fuller's-earth) 광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그 광맥은 규모가 꽤 작았습니다. 대신 그 광맥은 좌우로 훨씬 더 큰 두 광맥을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문제는 그 두 광맥이 모두 이웃의 땅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웃들은 자신들의 땅에 금광만큼이나 값진 것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진가를 알아채기 전에 땅을 사들이는 것이 저에게는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땅을 살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몇 명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제안했습니다. 우선 우리 몫의 작은 광맥부터 조용히, 그리

고 비밀리에 채굴하자고요. 그렇게 돈을 모아 이웃의 밭들을 사들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있으며, 작업을 돕기 위해 유압 프레스를 한 대 설치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이 프레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집으로 유압 기술자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금세 의심을 살 것입니다. 그러다 사실이 밝혀지면, 이웃 땅을 사들여 계획을 완수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에이포드로 간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풀러스 어스(fuller's-earth)를 채굴할 때 유압 프레스가 대체 어디에 쓰인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물질은 구덩이에서 자갈을 파내듯 캐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 그가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흙을 벽돌로 압축해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게 옮기는 식이지요. 하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헤더리 씨, 이제 당신을 완전히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보여드렸고요." 그는 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11시 15분에 에이포드에서 뵙겠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가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길게, 무언가 묻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쥐더니, 서둘러 방을 나갔다.

"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을 때, 저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분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맡게 된 이 의뢰가 참으로 의아했거든요. 우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보수가 제가 직접 가격을 매겼을 때보다 적어도 열 배는 더 많았고, 이번 일이 다른 의뢰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얼굴과 태도가 무척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설명한 풀러스 어스(fuller's-earth) 이야기는 제가 왜 한밤중에 찾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제가 심부름 내용을 남에게 발설할까 봐 전전긍긍하는지를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로 했습니다.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패딩턴 역으로 향했죠. 입을 굳게 다물라는 지시를 글자 그대로 엄격히 따르면서 말입니다."

"레딩에서 마차를 갈아타야 했을 뿐만 아니라 기차역도 옮겨 타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에이포드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놓치지 않았고, 열한 시가 넘어서야 어둑한 작은 역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내린 승객은 저뿐이었고, 플랫폼에는 등불을 든 졸린 눈의 역무원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출입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사람이 문 너머 어둠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제 팔을 붙잡더니, 문이 열려 있는 마차 안으로 저를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양쪽 창문을

모두 올린 뒤 마차 벽면을 톡톡 두드렸고, 우리는 말이 달릴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길을 떠났습니다."

"말 한 마리뿐이라고요?" 홈즈가 말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네, 단 한 마리뿐입니다."

"색깔을 확인했나?"

"네, 마차에 올라탈 때 옆등에 비친 모습을 봤습니다. 밤색 말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입니까, 아니면 생기 있어 보입니까?"

"오, 아주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는군요."

"고맙습니다. 대화 중에 끼어들어 죄송하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곧 길을 떠났고,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마차를 타고 달렸다.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은 거리가 겨우 7마일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달린 속도와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12마일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대령은 이동하는 내내 내 옆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를 힐끗 볼 때마다 대령이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느낄 수 있었다. 그 지역은 도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모양인지, 마차는 덜컹거리며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려고 창밖을 내다보려 애썼지만, 창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 가끔 밝은 잔상으로 보일 뿐,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단조로운 여정의 지루함을 깨보려고 이따금 말을 건네보기도 했으나, 대령은 단음절로만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대화는 금세 끊기고 말았다.

마침내 울퉁불퉁하던 노면이 매끄러운 자갈길로 바뀌더니, 마차가 멈춰 섰다.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이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나도 그 뒤를 따르자, 대령은 눈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현관 안으로 나를 재빨리 끌어당겼다. 우리는 마치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홀로 들어선 것 같았다. 덕분에 나는 저택의 정면을 아주 잠깐이라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묵직하게 닫혔고, 마차가 멀어지며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대령은 성냥을 찾으려 더듬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길게 뻗은 황금빛 줄기가 우리 쪽을 향해 쏟아졌다. 빛의 폭이 점점 넓어지더니, 등불을 든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등불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린 채, 얼굴을 내밀고 우리를 살피듯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등불 빛이 그녀의 검은 드레스에 반사되어 매끄럽게 빛나는 것을 보니, 옷감이 아주 고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질문이라도 던지는 듯한 어조로 낯선 외국어를 몇 마디 내뱉었다. 내 동행이 퉁명스럽게 한 마디로 대답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등불을 떨어뜨릴 뻔했다. 스타크 대령은 그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고는 그녀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등불을 들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잠시만 이 방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가 다른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방은 작고 조용했으며 가구도 소박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원형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독일어 책 몇 권이 흩어져 있었다. 스타크 대령은 문 옆에 있는 하모니움 위에 등불을 내려놓았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책들을 훑어보았다. 독일어를 전혀 모르긴 했지만, 그중 두 권은 과학 논문이고 나머지는 시집이라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었다. 이어 나는 창밖으로 교외 풍경이라도 보길 바라며 창가로 걸어갔다. 하지만 창문은 두꺼운 창살이 달린 오크나무 덧창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집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복도 어딘가에서 낡은 시계가 크게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죽은 듯이 정지해 있었다.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이 독일인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외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곳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에이포드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다. 북쪽인지, 남쪽인지, 혹은 동쪽이나 서쪽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레딩이나 다른 대도시들도 이 거리 안에 있을 테니, 이곳이 생각만큼 아주 고립된 곳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

만 이 지독한 정적을 보니 우리가 확실히 시골에 와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나는 기운을 내보려 나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내가 받은 50기니의 수임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끼면서 말이다.

적막만이 감돌던 방 안,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내 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편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내 등불에서 흘러나온 노란 불빛이 그녀의 간절하고도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가 공포로 인해 몹시 앓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한눈에 알아차렸고, 그 모습에 내 심장마저 서늘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고는 부서질 듯한 영어로 몇 마디를 속삭였는데, 겁에 질린 말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자꾸만 뒤편의 어둠 속을 불안하게 살폈다.

"저라면 떠나겠어요."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저라면 떠날 거예요. 여기 머물지 않겠어요. 당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인," 내가 말했다. "저는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기계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문은 열려 있으니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아무도 막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자, 그녀는 갑자기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두 손을 꼭 맞

잡은 채 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제발, 하늘에 맹세코!”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늦기 전에 여기서 어서 떠나세요!”

“하지만 저는 본래 고집이 좀 센 편이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오히려 사건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제 수임료인 50기니와 지긋지긋한 여정, 그리고 눈앞에 닥친 불쾌한 밤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맡은 임무도 완수하지 못한 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않고 슬그머니 물러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이 혹시 정신에 병이라도 있는 광인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록 속으로는 당황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이곳에 머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인이 다시 간곡히 부탁하려던 찰나, 머리 위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도 여러 차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절망스러운 몸짓으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는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갑작스럽고 조용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과, 이중턱 주름 사이로 친칠라 같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키 작고 체격이 건장한 사내였다. 후자는 퍼거슨 씨라고 소개받았다.

“이쪽은 내 비서이자 관리인이라네.” 대령이 소개했다. “그나저나, 방금 문을 닫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불편하진 않았는지 모르겠군.”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방 안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제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군요." 그가 말했다. "퍼거슨 씨와 제가 당신을 기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모자를 쓰는 게 좋겠군요."

"아니요, 집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집 안에서 풀러스 어스를 캐고 있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그냥 압축해 놓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기계를 살펴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대령이 앞장서서 등불을 들었고, 그 뒤를 뚱뚱한 매니저와 내가 따랐다. 그곳은 마치 미로 같은 오래된 저택이었다. 복도와 통로가 얽혀 있었고,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과 낮은 문들이 이어졌다. 문턱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에 닳아 움푹 패어 있었다. 1층 위로는 카펫도 없었고 가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벽면의 회반죽은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고, 습기 때문에 생긴 녹색의 불쾌한 얼룩들이 곳곳에 번져 있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애썼지만, 비록 그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어도 그 여인이 했던 말들을 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두 동행인을 예의 주시하며 살폈다. 퍼거슨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는 우울한 인물처럼 보였으나, 그가 내뱉는

짧은 말들을 통해 그 역시 최소한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었다.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은 마침내 낮은 문 앞에 멈춰 서더니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작고 네모난 방이 나타났다. 방이 워낙 좁아 우리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힘들 정도였다. 퍼거슨은 밖에 남았고, 대령은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유압 프레스 안에 들어와 있네." 그가 말했다. "누군가 기계를 작동시킨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거야. 이 작은 방의 천장은 사실 하강하는 피스톤의 끝부분이라네. 피스톤이 내려오면 이 금속 바닥에 수 톤에 달하는 힘이 가해지지. 바깥쪽에는 그 힘을 받아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작은 측면 수주(水柱)들이 있는데, 자네도 그 원리는 잘 알고 있을 걸세. 기계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작동이 다소 뻑뻑하고 힘도 예전만 못하군. 부디 자네가 기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고칠 수 있을지 알려주게나."

"나는 그에게서 등불을 건네받아 기계를 아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기계는 정말 거대했고, 엄청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 기계를 제어하는 레버를 눌러보자마자, 슈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세한 누출이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고, 그 틈으로 물이 측면 실린더 중 하나를 통해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구동봉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던 고무 밴드 중 하나가 수축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밴드가 작동 경로인 소켓을 완전히 채우

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동력이 손실된 명백한 원인이었습니다. 나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내 설명을 아주 주의 깊게 듣더니, 어떻게 해야 기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실질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 나는 기계의 본체로 돌아가 호기심을 달래기 위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풀러스 어스(fuller's-earth, 세척용 점토)를 다룬다는 이야기는 순전히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엔진을 고작 그런 사소한 용도로 설계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지만, 바닥은 커다란 철제 수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니 표면 전체에 금속 침전물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몸을 굽혀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독일어로 나직하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대령의 창백한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가 물었다.

그가 늘어놓은 이야기가 이토록 정교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에 나는 화가 났다. "당신의 풀러스 어스(fuller's-earth)를 감상하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기계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당신에게 더 제대로 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말을 내뱉자마자 나는 내 경솔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회색 눈동자에는 불길한 빛이 번뜩였다.

"좋소." 그가 말했다.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전부 알려주지."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작은 문을 쾅 닫고는 열쇠를 돌려 잠가버렸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발로 차고 몸으로 밀쳐보아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봐요!" 나는 소리쳤다. "이봐요! 대령님! 제발 좀 내보내 주세요!"

정적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레버가 덜컥거리는 소리와 새는 실린더에서 물이 흐르는 쉭쉭 소리였다. 그가 엔진을 가동한 것이다. 수조를 조사할 때 내려놓았던 램프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다. 램프 불빛에 비친 검은 천장이 나를 향해 천천히, 덜컥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저 천장은 불과 1분 안에 나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덩어리로 짓이겨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품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몸을 던졌고, 손톱이 빠져라 자물쇠를 긁어댔다. 대령에게 제발 꺼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자비하게 울려 퍼지는 레버 소리에 내 비명은 묻혀버렸다. 천장은 어느덧 머리 위로 불과 1~2피트 거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손을 위로 뻗자 천장의 딱딱하고 거친 표면이 느껴졌다.

그때 문득 죽음의 고통이 내가 어떤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엎드린 채로 있다면 무게가 척추를 덮칠 것이고, 그 끔찍한 골절의 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다. 차라리 반대로 눕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

다. 하지만 저 치명적인 검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흔들리며 내려오는데, 차마 등을 대고 누워 위를 올려다볼 용기가 있을까?

이미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던 그때, 내 눈에 무언가가 포착되었다. 그 순간 억눌렸던 희망이 심장 속에서 다시 솟구쳤다.

"바닥과 천장은 철제였지만, 벽은 나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둘러 주위를 마지막으로 훑어보던 중, 나무 판자 사이로 가느다란 노란 빛줄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판자가 뒤로 밀려나자 그 틈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순간, 이곳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몸을 던져 안으로 뛰어들었고, 반쯤 정신을 잃은 채 반대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들어온 뒤 판자는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등불이 깨지는 소리와 잠시 후 금속판 두 개가 쾅 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간발의 차로 살아남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목을 미친 듯이 잡아채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좁은 복도의 돌바닥에 누워 있었다. 한 여인이 내 곁에 몸을 굽힌 채, 오른손에는 촛불을 들고 왼손으로는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토록 어리석게도 경고를 무시했던, 바로 그 소중한 친구였다.

"어서요, 어서!"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곧 그들이 도착할 거예요. 당신이 거기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아,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서요!"

이번만큼은 그녀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고, 그녀를 따라 복도를 지나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넓은 통로가 나타났다. 우리가 막 그곳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발소리와 두 사람의 외침이 들려왔다. 한 명은 우리가 있는 층에서, 다른 한 명은 바로 아래층에서 서로 응답하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안내하던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멈춰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침실로 이어지는 문을 벌컥 열었다. 창문 너머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게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예요." 그녀가 말했다. "높긴 하지만, 어쩌면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도 끝에서 불빛 하나가 나타났다. 한 손에는 랜턴을, 다른 한 손에는 정육점 칼처럼 생긴 무기를 든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의 마른 체구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침실을 가로질러 달려가 창문을 벌컥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정원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창문에서 정원까지의 거리는 채 30피트도 되지 않았다. 나는 창틀 위로 기어 올라갔지만, 선뜻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망설였다. 나를 구하러 온 사람과 나를 뒤쫓던 악당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해를 입었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돌아가 그녀를 도와주리라 다짐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전에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팔로 그를 껴안았다.

“프리츠! 프리츠!” 그녀가 영어로 외쳤다. “지난번 일을 기억해 줘,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아, 그 사람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엘리스, 너 미쳤구나!” 그가 그녀를 뿌리치려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자가 너무 많은 걸 봐버렸단 말이다. 비키라고 했지!” 그는 그녀를 옆으로 거칠게 밀쳐내고는 창가로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묵직한 무기를 휘둘러 나를 내리쳤다.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창틀에 손을 걸치고 매달려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의 일격이 내리꽂혔다. 둔탁한 통증이 느껴짐과 동시에 손의 힘이 풀렸고, 나는 아래층 정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는 바람에 몸이 휘청거리긴 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나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덤불 사이로 전력 질주했다.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멀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는 도중 갑자기 지독한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몰려왔다. 통증이 느껴지는 손을 내려다본 나는, 처음으로 내 엄지손가락이 잘려 나갔으며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급히 손수건을 상처에 둘러 지혈하려 했으나, 갑자기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장미 덤불 사이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알 수 없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달이 지고 밝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니, 분명 아주 긴 시간이 흘렀음이 틀림없다. 옷은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고, 코트 소매는 다친 엄지손가락에서 흘러나온 피로 축축했다. 상처의 쓰라림이 느껴지자

마자 지난밤 겪었던 모험의 모든 세세한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나는 추격자들에게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집도 정원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큰길 근처 울타리 구석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아래쪽에는 긴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곳으로 다가가 보니, 그 건물은 바로 내가 지난밤 도착했던 그 역이었다. 만약 손에 난 이 흉측한 상처가 아니었다면, 그 끔찍했던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은 그저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로 역 안으로 들어간 나는 아침 기차에 관해 물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레딩으로 가는 기차가 도착할 예정이었다. 확인해 보니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역무원이 근무 중이었다. 나는 그에게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는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혹시 전날 밤 마차 한 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처에 경찰서가 있느냐고 묻자,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다.

"몸이 약해진 데다 병까지 앓고 있어서 직접 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내로 돌아가 경찰에 사건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지요.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우선 상처를 치료하러 갔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주셨습니

다. 이제 이 사건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조언해 주는 대로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우리 둘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셜록 홈즈는 선반에서 묵직한 일상 기록장을 한 권 꺼냈다. 평소 그는 신문 스크랩을 이 책에 모아두곤 했다.

"당신이 흥미를 가질 만한 광고가 하나 있네." 홈즈가 말했다. "일 년 전쯤 모든 신문에 실렸던 내용이지. 잘 들어보게. '분실, 이달 9일, 26세의 유압 기술자 제레미아 헤일링 씨. 밤 10시에 숙소를 나선 뒤 소식이 끊김. 당시 차림새는……' 등등. 하! 내 생각엔 대령이 마지막으로 기계를 점검해야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군."

"세상에!" 내 환자가 외쳤다. "그렇다면 그 소녀가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요."

"의심할 여지가 없네. 그 대령은 아주 냉혹하고도 필사적인 인물이었음이 분명해. 마치 포획한 배에서 생존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는 해적들처럼, 자신의 사소한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차 없이 제거하려 했으니 말이야. 자, 지금은 일분일초가 급하네. 자네만 괜찮다면 아이포드로 떠나기 전에 우선 스코틀랜드 야드로 바로 가도록 하지."

그로부터 세 시간쯤 지났을까, 우리 모두는 레딩에서 버크셔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함께 몸을 실었다. 일행은 셜록 홈즈와 유압 기술자, 스코틀랜드 야드의 브래드스트리트 경위, 사복 형사 한 명, 그리

고 나였다. 브래드스트리트 경위는 좌석 위에 해당 지역의 측량 지도를 펼쳐 놓은 채, 컴퍼스로 아이포드를 중심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원은 마을로부터 반경 10마일 지점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분명 이 선 근처 어딘가일 겁니다. 선생님, 분명 10마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차를 타고 한 시간은 족히 달려야 하는 거리였다."

"그럼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그들이 당신을 그 먼 길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들려 어딘가로 옮겨졌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내가 말했다. "정원에서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했을 때, 왜 그들이 당신을 살려두었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의 간곡한 애원에 악당의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냉혹한 표정은 본 적이 없거든요."

"오, 곧 전부 해결될 겁니다." 브래드스트리트가 말했다. "자, 원은 다 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그 원의 어느 지점에 있을지만 알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군요."

"그게 무엇인지 딱 짚어낼 수 있을 것 같군." 홈즈가 나직하게 말했다.

"정말이지!" 경위가 외쳤다. "벌써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자, 어디 누가 당신 의견에 동의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 생각은 남쪽입니다. 그쪽이 훨씬 더 인적이 드무니까요."

"제 생각에는 동쪽입니다." 내 환자가 말했다.

"나는 서쪽이 좋네." 사복 형사가 말했다. "그곳에는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이 여럿 있으니까."

"나는 북쪽을 지지해." 내가 말했다. "그곳에는 언덕이 없으니까. 게다가 우리 친구 말로는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

"자, 자," 경위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의견이 아주 다채롭군요. 우리끼리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말았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두 틀렸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제 요점입니다." 홈즈는 원의 중심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12마일이나 마차로 달렸던 건 어떻게 된 거죠?" 해더리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왕복 12마일이라니, 이보다 더 단순할 순 없지. 자네도 말했잖나, 도착했을 때 말의 상태가 아주 싱싱하고 털에 윤기가 돌았다고 말이야. 험한 길을 12마일이나 달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확실히 그럴듯한 속임수군요." 브래드스트리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물론 이 조직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들은 대규모 위조범들입니다. 은을 대신해 쓰일 합금을 만들기 위해 그 기계를 이용한 겁니다."

"교묘한 범죄 집단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반 크라운 동전을 찍어내고 있었죠. 레딩까지 추적해 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은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수법이 아주 노련한 전문가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운 좋게 기회를 잡았으니, 이제는 그놈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위는 오판했다. 그 범죄자들은 정의의 손길에 붙잡힐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포드 역으로 들어서자, 근처의 작은 나무 숲 뒤편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 연기는 마치 거대한 타조 깃털처럼 풍경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집에 불이 났다고요?" 기차가 다시 증기를 내뿜으며 출발하자 브래드스트리트가 물었다.

"예, 손님!" 역장이 대답했다.

"언제 시작된 일입니까?"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베커 박사네 집입니다."

"말해 보세요." 엔지니어가 말을 끊으며 물었다. "베커 박사가 독일인인가요? 아주 마르고 코가 길고 날카로운 사람 말입니다."

역장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선생님. 베커 박사님은 영국인입니다. 이 마을을 통틀어 그분만큼 조끼를 잘 차려입는 분도 없을 겁니다. 다만 박사님 댁에 머무는 신사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환자라고 하더군요. 외국인인데, 버크셔산 소고기라도 좀 든든히 먹여야 할 정도로 수척해 보입니다."

역장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우리는 모두 불길이 치솟는 곳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길은 낮은 언덕 위로 이어졌고, 그 앞에는 하얗게 회칠을 한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다. 건물의 틈새와 창문마다 불길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건물 앞 정원에서는 소방차 세 대가 불길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바로 저겁니다!" 헤더리가 흥분하며 외쳤다. "저기가 자갈이 깔린 진입로이고, 저기가 제가 쓰러졌던 장미 덤불입니다. 저 두 번째 창문이 바로 제가 뛰어내린 곳이고요."

"뭐, 그래도 최소한" 홈즈가 말했다. "그들에게 복수는 하셨군요. 인쇄기에서 압착될 때 당신의 오일 램프가 터지면서 나무 벽에 불을 붙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당신을 쫓느라 너무 흥분해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이 군중 속에서 어젯밤 그 친구들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세요. 하지만 지금쯤은 아마 백 마일은 더 멀리 가 있을 것 같아 걱정이군요."

결국 홈즈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그 아름다운 여인이나 불길한 인상의 독일인, 혹은 침울한 표정의 영국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른 아침, 한 농부가 레딩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마차 한 대를 목격했다. 마차에는 몇 명의 사람과 아주 부피가 큰 상자들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레딩에 도착한 이후로 도망자들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다. 홈즈의 명석한 두뇌로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단 하나의 단서조차 찾아낼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내부에서 발견한 기이한 광경에 크게 당황했다. 2층 창틀에서 갓 잘려 나간 듯한 사람의 엄지손가락까지 발견하자 그들의 당혹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해 질 녘 무렵, 소방관들은 마침내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미 지붕은 무너져 내린 뒤였다. 건물 전체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탓에, 뒤틀린 원통형 부품과 철제 파이프

몇 개를 제외하고는 불운한 그 지인에게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기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별채에서는 니켈과 주석 덩어리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나 동전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던 그 부피 큰 상자들이 왜 있었는지는 아마 이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측 수리학 엔지니어가 정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지점까지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드러운 흙이 남긴 흔적이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분명 두 사람에게 들려 옮겨진 것이었다. 한 명은 발이 눈에 띄게 작았고, 다른 한 명은 유난히 발이 컸다. 정황상 침묵을 지키던 그 영국인이 동행한 이보다 덜 대담하거나 덜 잔인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의식을 잃은 남자를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여성을 도와 그를 옮겨준 것으로 보였다.

"참으로, 나에게는 꽤나 곤혹스러운 일이었소!"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 앉자, 우리와 동행했던 엔지니어가 후회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엄지손가락도 잃고, 50기니나 되는 수수료도 날렸으니 말이오. 대체 내가 얻은 게 무엇이란 말이오?"

"경험이라니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간접적으로는 꽤 쓸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을 말로만 잘 풀어내 보세요. 그러면

남은 평생 동안 아주 흥미로운 대화 상대라는 명성을 얻게 될 테니까요."

독신 귀족

X. 고결한 독신남의 모험

세인트 사이먼 경의 결혼과 그 기묘한 결말은, 불운한 신랑이 드나드는 상류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 흥미를 잃은 주제가 되었다. 새로운 스캔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고, 더 자극적인 세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의 입방아는 4년 전의 이 사건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이 사건의 전말은 대중에게 결코 온전히 공개된 적이 없다. 게다가 내 친구 셜록 홈즈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공을 세웠기에, 그의 회고록을 기록하면서 이 놀라운 일화를 빼놓는다면 결코 완전한 기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결혼하기 몇 주 전의 일이다. 당시 나는 아직 베이커가에서 홈즈와 방을 같이 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나갔던 홈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는 그를 기다리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날은 가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나는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물러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유물처럼

내 몸 한구석에 박혀 있는 제자일 탄환이 둔탁한 통증을 끊임없이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안락의자 하나에는 몸을 기대고 다른 의자에는 다리를 올린 채, 신문 더미에 파묻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마침내 당일의 소식들을 모두 읽고 나면, 나는 신문들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에 새겨진 커다란 문장과 인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고귀한 인물이 대체 누구일지 느긋하게 상상하곤 했다.

"아주 유행을 선도하는 편지군요." 홈즈가 들어서자 내가 말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오늘 아침에 온 편지들은 생선 장수와 세관원이 보낸 것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게 오는 편지들은 확실히 다채로운 매력이 있지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중에서도 보잘것없는 편지들이 대개 더 흥미롭습니다. 이 편지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거나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아주 성가신 사교적 초대장 중 하나처럼 보이는군요."

그는 봉인을 뜯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자, 어서요. 어쩌면 꽤 흥미로운 일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사교적인 편지가 아니란 말이군요?"

"아니, 분명히 업무에 관한 거야."

"귀한 손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영국에서 손꼽히는 높은 직위 중 하나지요."

"이보게 친구, 정말 축하하네."

"왓슨, 빈말이 아니라 내 의뢰인이 어떤 신분인지는 이 사건이 얼마나 흥미로운가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사건에서도 신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자네, 요즘 신문을 아주 부지런히 읽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죠." 나는 구석에 놓인 커다란 꾸러미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말했다. "그것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었거든요."

"운이 좋군요. 당신이 나에게 상황을 좀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범죄 관련 기사나 '애고니 칼럼(Agony Column)'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거든요. 후자는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주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최근 사건들을 면밀히 지켜봐 왔다면, 세인트 사이먼 경과 그의 결혼식에 관한 기사는 분명 읽었겠지요?"

"오, 그럼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편지는 세인트 사이먼 경이 보낸 것입니다. 제가 편지를 읽어 드릴 테니, 당신은 그 답례로 이 서류들을 넘겨보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게 보여주십시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에게.

백워터 경으로부터 당신의 판단력과 신중함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혼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당신을 찾아가 상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이미 이 사건을 맡아 조사 중입니다만, 그는 당신이 협력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으시더라도 부디 미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매우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경의,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그로브너 맨션에서 작성된 편지군. 깃펜으로 썼고, 귀하신 나리께서 불행히도 오른쪽 새끼손가락 바깥쪽에 잉크를 묻히셨어." 홈즈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그는 네 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 시이니, 한 시간 뒤면 도착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좀 도와준다면, 이 문제를 파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당신은 그 서류들을 넘겨보며 발췌된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그동안 나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훑어보겠습니다."

홈즈는 벽난로 옆에 놓인 참고서들을 뒤적이다가 붉은 표지의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책을 무릎 위에 펼쳐 놓으며 말했다.

"찾았군요. '로버트 윌싱엄 데 베어 세인트 사이먼 경, 발모럴 공작의 차남.' 흠, '문장: 청색 바탕, 상단에 검은색 가로띠를 두고 그 위에 세 개의 철갑창 배치. 1846년생.' 마흔한 살이라, 결혼하기에 딱 적당한 나이군요. 지난 정부에서는 식민지부 차관을 지냈고, 그의 부친인 공작은 한때 외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가문은 직계로는 플랜태저넷 가문의 혈통을, 모계로는 튜더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군요. 하! 뭐, 이 내용만으로는 딱히 배울 만한 건 없겠네요. 왓슨,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정보는 당신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찾으려는 정보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워낙 기이한 일이라 눈에 잘 띄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에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신이 다른 일로 방해받는 걸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로브너 광장의 가구 운반 밴 사건을 말씀하시는군요. 그 일은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답은 뻔했지요. 자, 이제 신문에서 골라온 기사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찾은 첫 번째 공고는 이것입니다. 《모닝 포스트》지의 개인 광고란에 실린 것인데, 보시다시피 몇 주 전 날짜입니다. '결혼이 성사되었다'라고 적혀 있군요. '소문에 따르면, 발모럴 공작의 차남인 로버

트 세인트 사이먼 경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알로이시우스 도란 씨가 외동딸 해티 도란 양 사이의 결혼이 곧 치러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간결하고 핵심만 짚었군." 홈즈가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벽난로 쪽으로 쭉 뻗으며 말했다.

"그 주에 발행된 어느 사교계 신문에도 이 내용을 확대해서 다룬 기사가 실렸더군요. 아, 여기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 시장에서도 보호 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자유 무역 원칙이 우리 국산품에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영제국의 명문가 경영권이 대서양 건너에서 온 아름다운 사촌들의 손으로 하나둘 넘어가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매력적인 침입자들이 휩쓸어 간 전리품 목록에 중요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지난 20년 넘게 사랑의 신이 쏜 화살을 가볍게 피해 온 세인트 사이먼 경이, 캘리포니아 백만장자의 매혹적인 딸 해티 도란 양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웨스트버리 하우스의 연회에서 우아한 자태와 눈부신 미모로 많은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도란 양은 외동딸이다.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의 지참금은 향후 기대 수익을 포함해 6자릿수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발모럴 공작이 소장하던 그림들을 어쩔 수 없이 매각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인트 사이먼 경 또한 버치무어의 작은 영지 외에는 개인 재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국의 숙녀에서 영국 귀족 부인으로 손쉽게 신분을 갈아탈 수 있게 된 이 결합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비단 캘리포니아의 상속녀뿐만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더 필요한 건 없나?" 홈즈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오,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모닝 포스트》지에 실린 다른 기사도 있어요. 결혼식은 아주 조용하게 치러질 것이며, 장소는 해노버 광장의 세인트 조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객은 친한 친구 여섯 명뿐이며, 예식이 끝나면 알로이시우스 도란 씨가 빌린 랭커스터 게이트의 가구 완비 주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이틀 뒤인 지난 수요일에는 결혼식이 거행되었다는 짧은 공고가 떴습니다. 신혼여행은 피터스필드 근처에 있는 백워터 경의 저택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신부가 사라지기 전까지 발표된 기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무엇의 전이라고요?" 홈즈가 깜짝 놀라 물었다.

"여인의 실종."

"그럼 그녀는 언제 사라졌습니까?"

"결혼식 축하 오찬 때 말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사실, 꽤 극적인 상황이군요."

"네,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식 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신혼여행 중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토록 즉각적으로 사라진 사례는 기억에 없군요. 부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말 잘 들으시오. 자료가 아주 불충분하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두겠소.”

“어쩌면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 내용이 대략 이러합니다. 어제 자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 한 편에 모두 담겨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지요. 제목은 '상류층 결혼식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입니다."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의 가문이 결혼식과 관련해 벌어진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 자 신문에서 짧게 보도된 바와 같이, 결혼식은 지난날 아침에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떠돌던 기묘한 소문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제야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지인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중의 관심이 너무나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모두가 입에 올리는 화젯거리를 모르는 척 외면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해노버 광장의 성 조지 교회에서 거행된 결혼식은 매우 조용하게 치러졌다. 참석자는 신부의 부친인 알로이시우스 도란 씨와 발모럴 공작 부인, 백워터 경, 유스타스 경, 클라라 세인트 사이먼 레이디(신랑의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앨리시아 휘팅턴 레이디뿐이었다. 예식이 끝난 뒤 일행은 모두 란카스터 게이트에 있는 알로이시우스 도란 씨의 저택으로 이동하여 아침 식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이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자신이 세인트 사이몬 경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혼식 하객들이 저택에 들어선 뒤 억지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집사과 하인이 나서서 길고 소란스러운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겨우 그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다행히 불쾌한 소동이 벌어지기 전에 저택에 들어온 신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방으로 물러났다. 신부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졌고, 부친이 그녀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하녀로부터 신부가 방에 잠시 들러 울스터 코트와 본넷을 챙겨 입고는 곧장 복도로 급히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한 하인은 그런 차림을 한 여성이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신부는 손님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 여성이 자신의 주인인 신부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알로이시우스 도란 씨는 신랑과 함께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현재 경찰이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이한 사건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젯밤 늦은 시각까지도 실종된 신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 사건에 범죄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경찰은 처음에 소란을 피웠던 여성을 체포했다. 질투나 다른 동기로 인해 신부의 기이한 실종 사건에 그 여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조간신문에도 짧은 기사가 하나 실렸네만, 꽤 시사하는 바가 크군."

"그리고 그것은 바로—"

"소동을 일으켰던 플로라 밀러라는 여성이 실제로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예전에 알레그로 극장의 무용수였고, 신랑과도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으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제 모든 사건이 귀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말이야. 그런데 왓슨, 벨이 울리는군. 시계를 보니 4시를 몇 분 넘겼으니, 틀림없이 우리의 귀한 의뢰인이 도착한 모양이야. 왓슨,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 내 기억을 확인해 줄 증인이 곁에 있는 편이 훨씬 좋으니까."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이십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시종이 외쳤다. 곧이어 한 신사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쾌활하면서도 교양 있는 인상을 지녔는데, 코는 높고 안색은 창백했다. 입가에는 약간의 심술궂은 기색이 서려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형형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복종을 받아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다.

그의 몸가짐은 활기찼지만, 전체적인 외양은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였다. 걸을 때마다 몸을 약간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였고 무릎도 조금

굽히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아주 말려 올라간 챙이 달린 모자를 벗자, 머리카락은 가장자리부터 희끗희끗했고 정수리 부분은 숱이 적었다.

차림새는 멋을 부리다 못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 듯했다. 높은 칼라의 검은 프록코트에 흰 조끼를 입었으며, 노란 장갑과 에나멜 구두, 그리고 밝은색 각반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금테 안경을 매단 줄을 오른손으로 흔들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린 채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세인트 사이먼 경."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쪽 바구니 의자에 앉으시지요. 이분은 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불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으시지요. 그럼 바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홈즈 씨, 짐작하시겠지만 제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에요.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이미 이런 까다로운 사건들을 여러 차례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저와 같은 계층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려가는 중입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런 부류의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국왕을 모신 적이 있네."

“아, 정말입니까! 전혀 몰랐군요. 그런데 어느 나라 국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칸디나비아 국왕이지."

“뭐라고요! 아내를 잃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귀하의 사건에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 것처럼, 다른 의뢰인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제가 결례를 범했군요, 사과드립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라면, 당신이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무엇이든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 기사로 나온 내용은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기사에 적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예를 들어, 신부가 사라졌다는 이 기사 내용 말입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이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래, 적힌 내용만 놓고 보면 틀린 데는 없군.”

“하지만 누군가 의견을 내놓으려면 보충해야 할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당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편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빠를 것 같군요.”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티 도란 양을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1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말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셨습니까?”

“네.”

“그때 약혼하신 건가요?”

“아니오.”

"하지만 두 분은 우호적인 사이였나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고, 그녀 또한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가요?”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는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광업을 하더군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금광을 발견한 뒤에 그 돈을 투자해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자, 그럼 그 젊은 여성, 아니 당신의 부인에 대한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족은 안경을 조금 더 빠르게 흔들더니 타오르는 모닥불 속을 내려다보았다.

"홈즈 씨, 잘 들어보시오." 그가 말했다. "내 아내는 아버지가 부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스무 살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내는 광산촌을 마음껏 누비고 다녔고, 숲과 산을 헤매며 지냈지요. 그래서 아내의 교육은 학교 선생님보다는 대자연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영국식으로 말하자면 아내는 소위 '톰보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거칠고 자유로우며, 그 어떤 전통에도 얽매이지 않지요. 성미도 급합니다. 방금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치 화산처럼 폭발적인 면도 있습니다. 결단이 빠르고,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두려움 없이 밀어붙이지요. 하지만, 만약 아내의 본성이 고결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지금의 성(姓)을 아내에게 물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품위 있게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저는 아내가 영웅적인 자기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또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 무엇이든 혐오할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는 로켓을 열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사진이 아니라 상아로 그린 미니어처였는데, 화가는 여인의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과 커다란 어두운 눈동자, 그리고 정교한 입술의 매력을 완벽하게 살려냈다. 홈즈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진지하게 응시했다. 그러고는 로켓을 닫아 세인트 사이먼 경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그럼 그 젊은 여성이 런던으로 왔고, 두 분이 다시 만났다는 말씀이군요?"

"네, 지난 런던 사교 시즌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데려왔었죠. 저는 그녀를 몇 번 만난 뒤 약혼했고, 이제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듣기로는 그 여인이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을 가져왔다던데, 맞습니까?"

"꽤 괜찮은 지참금이지요. 우리 집안에서 보통 이 정도는 해줍니다."

"결혼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당연히 이것은 당신의 몫으로 남는 것이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네."

"당연히 못 보셨겠지요. 결혼식 전날에 도란 양을 보긴 하셨습니까?"

"네."

"그녀의 기분은 괜찮았습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었지. 그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더군."

"정말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혼식 당일 아침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적어도 예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때 그녀에게서 어떤 변화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성미가 다소 날카롭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야기하기에 너무 사소한 사건이라,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겁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 정말 유치한 일이에요. 우리가 제의실 쪽으로 걸어갈 때 그녀가 꽃다발을 떨어뜨렸거든요. 마침 앞쪽 좌석 앞을 지나가던 참이었는데, 꽃다발이 좌석 안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죠. 잠시 지체되는 듯하더니, 좌석에 앉아 있던 신사가 꽃다발을 다시 건네주더군요. 떨어뜨렸다고 해서 꽃이 상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에 대해 말을 건네자,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마

차 안에서도, 고작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말도 안 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정말입니까! 예배석에 신사가 한 명 앉아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몇 명 더 있었단 말씀이시군요?"

"아, 맞습니다. 교회가 개방되어 있을 때는 그들을 배제할 방법이 없지요."

"이 신사분이 부인 친구 중 한 분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의상 신사라고 부르긴 했지만, 사실 아주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점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세인트 사이먼 부인은 결혼식에 갈 때보다 훨씬 침울한 기분으로 돌아왔겠군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선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여자가 하녀와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그녀의 하녀는 누구입니까?"

"이름은 앨리스예요. 미국인인데, 그녀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왔답니다."

"신뢰할 만한 하인 말입니까?"

"지나치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주인 여자가 하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것 같더군요. 뭐, 물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다르게 생각하겠지만요."

"그 앨리스라는 여자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아, 몇 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생각을 좀 하느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까?"

"세인트 사이먼 부인이 '권리를 가로채다'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평소에도 그런 속어를 자주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식 속어는 때로 감정이 아주 잘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부인이 하녀와 대화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아침 식사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 팔짱을 끼고서요?"

"아니요, 혼자였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는 아주 독립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앨리스라는 이름의 이 하녀는 자신이 방으로 들어가 신부의 드레스를 긴 울스터 코트로 덮어둔 뒤, 보닛을 쓰고 밖으로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 그녀가 플로라 밀러와 함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플로라는 현재 구금 중인 여성인데, 그날 아침 이미 도란 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젊은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당신이 그녀와 어떤 관계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은 어깨를 으쓱하며 눈썹을 치켜세웠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니,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녀는 알레그로에서 일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나에게 불만을 가질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당신도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플로라는 참 사랑스러운 아가씨였지만, 성미가 몹시 급하고 나에게 지독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에게 끔찍한 편지들을 써대더군요. 사실 결혼식을 아주 조용히 치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소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됐거든요.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도란 씨의 집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억지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협박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 두 명을 미리 대기시켜 두었고, 그들이 곧 그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소란을 피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닫자 그녀도 곧 조용해지더군요."

"부인이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다행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가 바로 이 여자와 함께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위도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플로라가 제 아내를 유인해낸 뒤, 끔찍한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음,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법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도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플로라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할 아이예요."

"그렇긴 합니다만, 질투라는 건 사람의 성격을 참 묘하게도 바꾸어 놓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저는 이론을 제시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떤 가설을 찾아보려고 온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굳이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군요. 이번 사건이 불러일으킨 흥분과, 자신이 그토록 엄청난 사회적 도약을 이뤄냈다는 자각이 제 아내를 다소 신경과민 상태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그녀가 갑자기 미쳐버렸다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정말이지 그녀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저 개인을 향해 등을 돌렸다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많은 이들이 성공하지 못한 채 갈망해 온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세인트 사이먼 경, 이제 필요한 정보는 거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혹시 창밖을 잘 볼 수 있는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길 건너편과 공원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더는 붙잡아 두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도록 하죠."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운이 좋으시다면 말입니다."

의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해결했네."

"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 풀었다고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제 아내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나 나보다 훨씬 현명한 이들이 나서야 할 문제 같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옛 방식 그대로 품격 있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세인트 사이먼 경께서 제 머리를 본인의 것과 같은 급으로 높게 평가해 주시다니, 참으로 과분한 영광이군요." 셜록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지긋지긋한 심문이 끝나면 결국 위스키 소다 한 잔과 시가 한 대를 피워야겠습니다. 의뢰인이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보게, 홈즈!"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몇 건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즉각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제 추측은 확신으로 바뀌더군요. 때로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로가 예로 들었듯이, 우유 속에서 송어를 발견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은 내용은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기존 사례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몇 년 전 애버딘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이듬해에는 뮌헨에서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네. 이번 건도 그런 사례 중 하나야. 그런데, 어라, 레스트레이드가 왔군! 좋은 오후네, 레스트레이드! 찬장 위에 여분의 유리잔이 있으니 가져다 쓰게나. 시가는 상자 안에 들어있네."

경찰 형사는 피코트와 크라바트를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선원 같았다. 그는 손에 검은색 캔버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자리에 앉아, 권해 받은 시가에 불을 붙였다.

"무슨 일인가?" 홈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표정이 그리 좋지 않군."

"게다가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네. 저 지긋지긋한 세인트 사이먼 결혼 사건 때문이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군."

"정말입니까! 놀랍군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나? 모든 단서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군. 하루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었네."

"옷이 아주 흠뻑 젖었군요." 홈즈가 피코트 소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네, 서펜타인 호수를 그물로 훑으며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체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세인트 사이먼 부인의 시신을 찾아서.”

셜록 홈즈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트라팔가 광장의 분수대 물을 다 퍼냈나?” 그가 물었다.

“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에서든 저곳에서든, 그 여인을 찾아낼 확률은 똑같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는 내 동료를 향해 분노 섞인 눈길을 던졌다. "당신은 이미 전부 알고 있겠지." 그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글쎄요, 사실관계는 이제 막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만, 제 결심은 이미 확고합니다.”

“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서펜타인 호수가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친절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말을 하며 가방을 열었다. 그러자 물결무늬 실크로 만든 웨딩드레스와 흰색 새틴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신부의 화관과 면사포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들은 모두 색이 변해 있었고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는 쌓인 옷가지 위에 새 결혼반지를 올려두며 말했다. "홈즈 씨, 당신이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여기 있군요."

"오, 정말인가!" 내 친구가 공중에 푸른 담배 연기 고리를 내뿜으며 말했다. "서펜타인 호에서 건져 올린 건가?"

"아니요. 공원 관리인이 물가 근처에서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녀의 옷이었고, 옷이 그곳에 있다면 시신도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명석한 논리라면, 사람의 몸은 누구나 옷장 근처에서 찾을 수 있겠군요. 도대체 이 말로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플로라 밀러가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일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레스트레이드가 약간의 비아냥을 섞어 외쳤다. "홈즈, 당신의 추론과 추측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군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두 번이나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옷은 분명 플로라 밀러 양이 연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드레스 안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카드 케이스가 들어 있고요. 카드 케이스 안에는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쪽지 말입니다." 그는 눈앞의 탁자 위에 쪽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내용을 들어 보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만나도록 하죠. 즉시 오세요. F. H. M.' 제 이론은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플로라 밀러가 세인트 사이먼 부인을 유인해냈고, 그녀가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실종시킨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 그녀의 이니셜이 적힌 쪽지가 있습니다. 분명 문앞에서 부인의 손에 몰래 건네져, 그녀를 그들의 손아귀로 유인했을 쪽지입니다."

"아주 좋군, 레스트레이드."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 정말 대단해. 어디 한번 보세." 홈즈는 무심한 듯 종이를 집어 들었으나, 이내 시선이 그곳에 완전히 못 박혔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야." 홈즈가 말했다.

"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그럼요, 아주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숙였다. 그러더니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반대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이쪽이 맞습니다."

"오른쪽이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여기 보세요, 이쪽에 연필로 적힌 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 영수증 조각으로 보이는 것이 있군요. 아주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전에도 이미 확인해 봤어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10월 4일, 객실 8실링, 아침 식사 2실링 6펜스, 칵테일 1실링, 점심 식사 2실링 6펜스, 셰리 와인 한 잔 8펜스.' 이 내용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게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메모 역시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 머리글자만큼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허비했군." 레스트레이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근거 없는 이론이나 늘어놓으며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는 실무를 믿네. 그럼 이만 가보겠네, 홈즈 씨. 사건의 실체를 누가 먼저 밝혀내는지 두고 보자고." 그는 옷가지들을 챙겨 가방에 쑤셔 넣고는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만 주지."

경쟁자가 사라지기 직전, 홈즈가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을 알려주겠네. 세인트 사이먼 부인이라는 여자는 환상일 뿐이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애초에 있었던 적도 없네."

레스트레이드는 슬픈 눈으로 내 동료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이마를 세 번 톡톡 두드리고는 엄숙하게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가 문을 닫기가 무섭게 홈즈가 일어나 코트를 입었다. "저 친구가 야외에서 일한다는 말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그러니 왓슨, 자네는 서류 작업에 집중하게. 나는 잠시 나가봐야겠네."

셜록 홈즈가 나를 떠난 것은 5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주 커다란 납작 상자를 든 제과점 배달원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함께 데려온 청년의 도움을 받아 상자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나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다. 우리의 초라한 하숙집 마호가니 탁자 위로, 미식가들이나 즐길 법한 근사한 저녁 식사가 차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멧도요 두 쌍과 꿩 한 마리, 그리고 푸아그라 파테 파이가 놓였고, 그 곁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오래된 병들이 함께 차려졌다. 이 호사스러운 음식들을 모두 늘어놓은 뒤, 두 방문객은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정처럼 홀연히 사라졌다. 이 음식들은 이미 계산이 끝났으며, 이 주소로 배달하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였다.

9시가 되기 직전, 셜록 홈즈가 활기찬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으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니 홈즈가 내린 결론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나 보군." 그는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손님이 올 것 같군요. 다섯 사람분으로 상을 차리셨네요."

"그래요, 손님이 찾아올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이 벌써 도착했을 법한데 아직 안 오시다니 의외입니다. 하! 지금 계단을 올라오는 저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오후에 찾아왔던 그 손님이었다. 그는 안경을 평소보다 더 거칠게 흔들며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왔다. 귀족적인 이목구비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내 심부름꾼이 당신에게 도착했나 보군?" 홈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저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최상입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은 의자에 몸을 파묻듯 주저앉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가문의 일원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작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순전히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아, 당신은 이런 일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군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그 방식이 너무 갑작스러웠던 점은 분명 유감스럽지만 말입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선생.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란 말입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 가여운 처지의 소녀를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정 봐줄 생각 없습니다. 정말이지 몹시 화가 나는군요.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벨 소리가 들린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계단참에서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세인트 사이먼 경, 만약 제가 이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대신 더 설득력 있게 나설 변호사를 한 분 모셔 왔습니다."

홈즈는 문을 열고 한 숙녀와 신사를 안으로 안내했다. "세인트 사이먼 경, 프랜시스 헤이 몰턴 씨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미 구면이실 겁니다."

새로 들어온 이들을 보자 의뢰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존심이 상해 불쾌해하는 사람의 전형 같았다. 여인이 서둘러 다가와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결심을 굽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여인의 간절한 표정은 차마 거절하기 힘들 만큼 애처로웠기 때문이다.

"로버트, 당신 화가 났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하겠지요."

"내게 사과할 필요 없네." 세인트 사이먼 경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다는 거 잘 알아요. 떠나기 전에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여기서 프랭크를 다시 본 순간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제단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기절해 버리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예요."

"몰턴 부인, 이 일을 설명하시는 동안 저와 제 친구는 잠시 방을 비워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낯선 신사가 말을 건넸다. "이 일은 이미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다뤄져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과 미국 전역에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알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는 체구는 작지만 근육질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사내였다. 면도를 깔끔하게 한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태도는 매우 기민해 보였다.

"그럼 바로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인이 말했다. "프랭크와 저는 84년에 로키산맥 근처에 있는 맥콰이어 캠프에서 만났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계셨죠. 프랭크와 저는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거대한 금맥을 발견하면서 큰 돈을 만지게 된 반면, 불쌍한 프랭크는 광산이 바닥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아버지가 부유해질수록 프랭크는 점점 가난해졌어요. 결국 아버지는 우리의 약혼을 더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고, 저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버리셨죠. 하지만 프랭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따라 샌프란시스코까지 왔고,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저를 만났죠. 아버지가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게 뻔했기에, 우리는 우리끼리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어요. 프랭크는 자신도 큰돈을 벌어오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만큼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저를 데리러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러자 프랭크가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결혼하면 안 될까? 그래야 내가 자네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돌아올 때까지는 남편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게.'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프랭크가 미리 성직자까지 섭외해 두는 등 모든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해

둔 덕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식을 올렸죠. 그러고 나서 프랭크는 성공을 찾아 떠났고, 저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답니다."

"프랭크에 대해 다음에 들은 소식은 그가 몬태나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애리조나로 가서 광산을 찾으러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다음엔 뉴멕시코에서 소식이 왔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아파치 인디언들이 광부 캠프를 습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망자 명단에 우리 프랭크의 이름이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 후로 몇 달 동안이나 앓아누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폐병에 걸린 줄 알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사들을 죄다 데려다 놓으셨죠. 그 뒤로 일 년 넘게 아무런 소식도 없어서, 저는 프랭크가 정말 죽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다 세인트 사이먼 경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셨고, 저희는 런던으로 건너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지만, 저는 내내 생각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여운 프랭크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물론 세인트 사이먼 경과 결혼했다면 그에 대한 도리를 다했을 거예요. 사랑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행동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내가 되겠다는 다짐을 품고 제단 앞에 섰어요. 하지만 제단 난간에 다다랐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가 첫 번째 줄 좌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프랭크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의 유령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마치 제가 그를 보고 기쁜지 아니면 슬픈지 묻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신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목사님의 말씀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예식을 중단하고 교회에서 소란이라도 피워야 할까요? 다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 쪽지를 쓰는 것이 분명했어요.

예식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그의 좌석을 지나치며 꽃다발을 그쪽으로 떨어뜨렸고, 그가 꽃을 돌려주며 제 손에 쪽지를 쥐여주었어요. 쪽지에는 제가 그가 신호를 보낼 때 합류해 달라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죠. 물론 그 순간부터 저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돌아오자마자 캘리포니아 시절부터 그를 알고 지내며 늘 친구로 지내온 하녀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저는 하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짐 몇 가지를 챙기고 울스터 코트도 준비해 두라고 명령했죠. 세인트 사이먼 경에게 직접 말했어야 했다는 건 알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 귀한 분들 앞에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일단 도망치듯 떠난 뒤에 나중에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었죠.

식탁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창밖 길 건너편에서 프랭크를 발견했어요. 그는 저에게 손짓을 하더니 공원 쪽으로 걷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얼른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다가와 세인트 사이먼 경에 대해 무언가 떠들어댔어요. 제가 들은 짧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에게도 결혼 전부터 숨겨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여인을 따돌리고 곧 프랭크를 따라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차에 올라탔고, 그가 고든 스퀘어에 구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한 진짜 결혼식은 바로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프랭크는 아파치 인디언들에게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왔죠. 그곳에서 제가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영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저를 쫓아 영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두 번째 결혼식이 열리던 바로 그날 아침, 저를 찾아낸 것이었고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미국인이 설명했다. "이름과 교회는 적혀 있었지만, 그 여인이 어디에 사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프랭크는 모든 걸 솔직하게 밝히자고 했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라리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었죠. 그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버지께 제가 무사하다는 소식 정도만 편지로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귀족분들이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프랭크가 제 웨딩드레스와 소지품들을 뭉치로 묶어두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버려서 제가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없게 하려고요. 원래대로라면 내일 바로 파리로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홈즈

씨라는 친절한 신사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죠. 도대체 어떻게 저희를 찾아내셨는지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요. 그분은 제가 틀렸고 프랭크가 옳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지키려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도요. 그러고 나서 홈즈 씨는 세인트 사이먼 경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셨고, 저희는 곧장 그분의 거처로 달려왔어요. 자, 로버트,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부디 저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세인트 사이먼 경은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이 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제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떠벌리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떠나기 전에 악수조차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기꺼이요."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가 건넨 손을 차갑게 맞잡았다.

"함께 즐겁게 저녁 식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만." 홈즈가 제안하듯 말했다.

"그건 좀 과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경이 대답했다. "최근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거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그렇다면 적어도 당신만은 저와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몰턴 씨, 미국인을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요.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먼 과거에 군주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대신이 실수를 저지른다 한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유니언 잭의 일부와 성조기를 합친 깃발 아래, 하나의 거대한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건이었네." 손님들이 떠난 뒤 홈즈가 말했다. "언뜻 보기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알고 보면 얼마나 단순하게 풀릴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니까. 이 부인이 설명한 사건의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네. 하지만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위 같은 사람이 본 결과물은 그만큼이나 기괴했지."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처음부터 두 가지 사실이 내 눈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왔네. 하나는 그 여인이 결혼식을 치를 의사가 충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 돌아온 지 불과 몇 분 만에 그 결정을 후회했다는 점이지. 그렇다면 분명 그날 아침에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야. 그게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외출 중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없

었네. 신랑과 함께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누군가를 보기라도 한 걸까? 만약 그랬다면 분명 미국인일 것이네. 이 나라에 머문 기간이 워낙 짧아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완전히 바꿀 만큼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자, 보게나. 우리는 이미 소거법을 통해 그녀가 미국인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그렇다면 그 미국인은 누구이며, 왜 그녀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까? 연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겠지. 그녀의 젊은 시절이 거친 환경과 낯선 조건 속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네. 세인트 사이먼 경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내가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네.

하지만 경이 예배당 좌석에 앉아 있던 한 남자에 대해 말해주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지. 신부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점, 꽃다발을 떨어뜨리는 식의 뻔한 수법으로 쪽지를 얻어내려 했다는 점, 그리고 신뢰하는 하녀에게 의지하며 '점유권 침해(claim-jumping)'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언급했다는 점 말일세. 광부들의 은어로 점유권 침해란 타인이 먼저 권리를 주장한 것을 가로채는 것을 뜻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네. 그녀는 어떤 남자와 함께 떠났고, 그 남자는 연인이거나 혹은 전남편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확률로 따지자면 후자 쪽이 더 유력하네."

"도대체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신 겁니까?"

상황은 어려웠을지 모르나, 친구 레스트레이드는 스스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다. 물론 그 이니셜

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일주일 사이에 런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한 곳에서 숙박비를 결제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그곳이 고급 호텔이라는 걸 추리해내셨습니까?"

"그 비싼 가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침대 숙박비 8실링에 셰리주 한 잔에 8펜스라니, 이건 아주 고급 호텔 중 하나라는 뜻이죠. 런던에서 이 정도 요금을 받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방문한 노섬벌랜드 애비뉴의 호텔에서는 장부를 조사해 보니, 프랜시스 H. 몰턴이라는 미국 신사가 바로 전날에 체크아웃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숙박 기록을 훑어보던 중, 제가 복사된 청구서에서 보았던 항목들을 똑같이 발견했고요. 그의 편지는 고든 스퀘어 226번지로 보내달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다정한 부부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제가 감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좀 건넸습니다. 대중에게나 특히 세인트 사이먼 경에게나, 두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이곳으로 와달라고 권했고, 보시다시피 결국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었지요." 내가 말했다. "그의 태도는 확실히 그리 정중하지 못했습니다."

"아, 왓슨,"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도 마찬가지일 걸세. 온갖 정성을 다해 구애하고 결혼까지 마쳤는데, 순식간에 아내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면 자네 역시 너그럽게 대처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 세인트 사이먼 경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네. 우리에게는 그런 불행이 닥칠 일이 없을 테니 차라리 운이 좋다고 생각하자고. 자,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게나. 그리고 내 바이올린 좀 건네주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이 쓸쓸한 가을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뿐이니까."

베릴 왕관

XI. 베릴 왕관의 모험

"홈즈," 어느 날 아침, 베이커가 집의 돌출형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던 내가 말했다. "저기 미치광이 한 명이 걸어오고 있군. 친척들이 저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내 친구는 안락의자에서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가운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내 어깨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맑고 상쾌한 2월의 아침이었다. 어제 내린 눈이 땅 위에 여전히 두껍게 쌓여 있었고, 겨울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베이커가 중앙은 지나다니는 마차와 사람들 때문에 갈색의 부서진 눈길로 변해 있었지만, 길 양옆과 보도 가장자리에는 눈이 내렸을 때처럼 하얗게 쌓여 있었다. 회색빛 보도는 눈을 치우고 긁어냈음에도 여전히 미끄러워 위험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지나다니는 행인이 적었다. 실제로 메트로폴리탄 역 방향에서는, 기이한 행동으로 내 눈길을 끌었던 그 신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고 있었다.

그는 쉰 살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사내였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큼직한 얼굴에 위엄 있는 체격까지 갖추고 있었다. 검은색 프록코트에 윤기 나는 모자, 깔끔한 갈색 게이터, 그리고 재단이 잘 된 진주빛 회색 바지까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품격 있는 옷차림이나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다리에 무리가 가는 일에 익숙지 않은 지친 사람이 내딛듯, 가끔씩 발을 가볍게 구르며 몹시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달리는 내내 그는 손을 위아래로 휘저었고, 머리를 흔들었으며,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렸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내가 물었다. "집 번호를 하나하나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그가 곧 여기로 올 것 같군." 홈즈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여기 말입니까?"

"맞아요. 제 생각에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눈에 보이는군요. 하!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홈즈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가 벨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온 집안에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가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손짓을 해댔지만, 눈에는 슬픔과 절망이 너무나도 깊게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를 향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과 연민으로 바뀌

었다. 그는 한동안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몸을 흔들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뿐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머리를 세게 들이받기 시작했다. 그 기세가 너무나 사나워 우리 둘은 급히 달려들어 그를 붙잡고 방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셜록 홈즈는 그를 안락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그의 곁에 앉아, 홈즈 특유의 능숙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의 손을 다독이며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신 게 맞지요?" 그가 말했다. "서둘러 오시느라 무척 지치신 모양이군요. 우선 기운을 좀 차리실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작은 문제라도 맡겨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가슴을 들썩이며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분명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가 말했다.

"상당한 고초를 겪으신 모양이군요." 홈즈가 대답했다.

"하느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재앙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끔찍해서 제 이성마저 마비시킬 정도입니다. 평생 결점 하나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대중의 비난을 받는 일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 또한 누구나 겪는 운명이라지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것도 이토록 무시무시한 형태로 닥치니 제 영혼이 통째

로 흔들리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가장 고귀한 분들조차도 화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선생님."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문객이 대답했다. "스레드니들 스트리트에 있는 홀더 앤 스티븐슨 은행의 알렉산더 홀더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런던 금융가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설 은행의 수석 파트너를 가리키는 것이었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런던의 저명한 시민 중 한 명이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 우리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시간은 금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경찰 경위가 당신의 협조를 구하라고 권해서 서둘러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베이커가에 도착한 뒤에는 곧장 걸어왔지요. 눈 때문에 마차가 너무 느리게 가더군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찬 겁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이제 좀 진정이 되었으니, 제가 아는 사실들을 최대한 짧고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은행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고객을 늘리고 예금자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자금을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능력

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 중 하나는 담보가 확실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소유한 그림이나 장서, 혹은 은식기 등을 담보로 잡아 거액을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아침, 은행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직원이 명함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글쎄요, 당신에게는 그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군요—영국에서 가장 높고 고귀하며 존엄한 이름 중 하나였으니까요. 나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더 씨," 그가 말했다. "돈을 미리 빌려주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가 확실하다면 회사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당장 5만 파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친구들에게 이 정도 소액을 열 번이라도 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정식 사업으로 처리해서 직접 운영하고 싶군요. 제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남에게 빚을 지는 일이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실례지만, 이 돈을 얼마 동안 빌리고 싶으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가 받을 큰돈이 들어옵니다. 그때가 되면 빌려주신 원금은 물론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자까지 얹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 제게는 매우 절실합니다."

"제 개인 돈으로 더 이상의 협상 없이 선뜻 비용을 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엔 제 주머니 사정이 너무 버겁군요." 내가 말했다. "반대로 만약 제가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파트너에 대한 예의로서 당신의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비즈니스적인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게 좋겠군요."

그가 의자 옆에 두었던 검은색 모로코 가죽 케이스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베릴 왕관에 대해서는 분명 들어보셨겠지요?"

"제국의 가장 소중한 공공 자산 중 하나군요." 내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부드러운 살구색 벨벳 위에 그가 말했던 그 화려한 보석이 놓여 있었다. "여기 서른아홉 개의 거대한 베릴이 들어 있습니다. 금 세공의 가치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이 왕관의 가치는 제가 요구한 금액의 두 배는 될 겁니다. 이 물건을 담보로 맡겨 두겠습니다."

나는 그 귀중한 상자를 손에 들고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망 높은 의뢰인을 바라보았다.

"그것의 가치가 의심스럽다는 말인가요?" 그가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의구심이 들 뿐—."

"제가 이것을 맡겨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심하시는 모양인데,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흘 뒤에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그저 절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담보물은 충분합니까?"

"충분하군."

"홀더 씨,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 들은 바를 바탕으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관을 온갖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이 왕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사회적 스캔들로 번질 것이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왕관에 흠집이라도 난다면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 될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보석들에 필적할 만한 베릴은 없으며, 다시 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이 물건을 맡깁니다. 월요일 아침에 내가 직접 와서 찾아가도록 하죠."

의뢰인이 서둘러 떠나고 싶어 하는 눈치였기에, 나는 더는 말을 얹지 않았다. 대신 출납원을 불러 1,000파운드권 지폐 50장을 내어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 귀중한 상자를 마주하자, 막중한 책임감에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국가적 자산이었으므로,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끔찍한 스캔들로 번질 것이 자명했다. 애초에 이 일을 맡기로 승낙한 것 자체가 후회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상황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나는 결국 상자를 개인 금고에 넣어 잠근 뒤, 다시 업무로 눈을 돌렸다.

"저녁이 되자, 이토록 귀중한 물건을 사무실에 두고 가는 건 경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금고도 털리는 세상인데, 제 금고라고 안 될 게 있겠습니까?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제가 처할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상자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단 한 순간도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마차를 불러 보석을 챙긴 채 스트레텀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석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옷방 서랍장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홈즈 씨,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우선 저희 집 식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부와 시종은 집 밖에서 지내니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하녀는 세 명 있는데, 모두 저와 오랫동안 일해온 이들이라 신뢰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녀인 루시 파는 제2 시녀로, 일한 지는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판이 워낙 훌륭한 데다 일 처리도 늘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라 가끔 집 주변을 서성이는 추종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유일한 문제라면 그것뿐이지만, 모든 면에서 아주 성실한 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인들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죠. 제 가족은 규모가 워낙 작아서 설명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홀로 된 몸이고, 아들 아더가 하나 있습니다. 홈즈 씨, 아들은 제게 늘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주 뼈아픈 실망이었지요. 물론 제 잘못이라는 점은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아이를 망쳤다고 말입니다.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들이 제 삶의 전부라고 느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단 한 순간이라도 사라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이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좀 더 엄격하게 대했다면 우리 둘 모두에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내 사업을 그가 물려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가 체질이 아니었지요. 성격이 거칠고 제멋대로인 데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액의 돈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적에 그는 귀족 클럽의 회원이 되었는데, 매너가 워낙 좋았던 덕분에 돈이 많고 사치스러운 사람들과 금세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카드 게임에 거액을 걸고 경마에 돈을 탕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빚을 갚아야 한다며, 제게 와서 생활비를 미리 달라고 애

원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위험한 무리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몇 번이나 노력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친구인 조지 번웰 경의 유혹에 넘어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조지 번웰 경 같은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가 아더를 데리고 우리 집을 자주 찾아왔는데, 저조차도 그가 풍기는 매력에 저항하기가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아더보다 나이가 많고, 손끝 하나하나까지 세상을 다 아는 노련한 인물입니다. 온갖 곳을 다 누비며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대화 기술도 화려하고 외모 또한 아주 수려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화려한 분위기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그를 떠올려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가 내뱉는 냉소적인 말투와 눈빛에서 스치는 기운을 보면, 결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우리 어린 메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겠군요. 제 조카딸입니다. 하지만 5년 전 형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제가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그 뒤로 줄곧 제 딸처럼 아끼며 키워왔지요. 아이는 우리 집의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상냥하고 다정하며 아름다운 데다, 집안 살림도 아주 야무지게 잘 해내지요. 그러면서도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차분하며 온화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제게는 오른팔과도 같은 아이라, 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제 뜻을 거스른 적이 있긴 합니다. 제 아들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두 번이나 청혼했지만, 그때마다 아이는 거절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었다면 바로 그 아이였을 것이고, 결혼을 통해 아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아,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군요. 영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자, 홈즈 씨. 제 집에 누가 사는지도 이미 알고 계시니, 그럼 비참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나는 아서와 메리에게 내가 겪은 일과 우리 집에 보관 중인 그 귀중한 보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뢰인의 이름만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커피를 가져다준 루시 파는 분명 방을 나갔겠지만, 문을 닫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아서와 메리는 무척 흥미로워하며 그 유명한 왕관을 보고 싶어 했으나, 나는 굳이 왕관을 꺼내 보여주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걸 어디에 두었나?" 아서가 물었다.

"내 개인 서랍장 안에서 말이야."

"부디 밤사이에 집이 털리는 일만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잠가 두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 그 서랍장은 아무 열쇠나 다 맞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창고 캐비닛 열쇠로 직접 열어본 적도 있다니까요."

"그는 평소 말이 거칠고 두서가 없어서, 그가 하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내 방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말했다. "저에게 200파운드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안 됩니다!" 내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에게 이미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정말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클럽에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없을 테니까요."

"정말 다행이군요!" 내가 외쳤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제가 불명예를 안은 채 그곳을 떠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시겠지요." 그가 말했다. "저는 그 치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빌려주지 않으시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요구라니,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내게서 단 한 푼도 받아낼 생각 마시오!' 내가 소리치자,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가 떠나자 나는 서랍장을 열어 보물들이 무사한지 확인한 뒤 다시 잠갔다. 그러고 나서 집안 곳곳을 돌며 문단속을 시작했다. 평소라면 메리가 맡아 했을 일이지만, 그날 밤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복도 옆 창가에 메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메리는 창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다.

"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보기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었다. "오늘 밤 하녀 루시에게 외출해도 좋다고 허락하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방금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옆문 쪽으로 나갔던 모양인데, 아무래도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일은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직접 그녀에게 말하게나. 원한다면 내가 대신 말해도 좋고. 그런데 문과 창문은 모두 제대로 잠갔는지 확실히 확인했나?"

"정말이에요, 아버지."

"그럼, 잘 자요." 나는 그녀에게 입을 맞춘 뒤 다시 침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다.

"홈즈 씨,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법한 내용은 전부 말씀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만에요, 당신의 설명은 아주 명료합니다."

이제 내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었으면 하는 대목에 이르렀다. 나는 잠귀가 꽤 밝은 편인데, 당시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감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져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집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잠이 깼다. 내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소리는 멎었지만, 마치 어디선가 창문이 살며시 닫힌 듯한 여운이 남았다.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누워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갑자기, 공포스럽게도 바로 옆방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에 가슴을 떨며 침대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옷방 문 모퉁이 너머를 살짝 엿보았다.

"아서!"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 악당 같은 놈! 도둑놈 같으니라고! 감히 네가 어떻게 그 왕관에 손을 댈 수 있어?"

"가스등은 내가 켜둔 대로 절반쯤 올라와 있었고, 셔츠와 바지만 입은 불쌍한 아들은 등불 옆에 서서 왕관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왕관을 비틀거나 구부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비명을 지르자 아이는 왕관을 떨어뜨리고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얼른 왕관을 집어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금색 모서리 한쪽이 떨어져 나갔고, 그 안에는 베릴 보석 세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비열한 자식!" 나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소리쳤다. "네놈이 망쳐놓았어! 내 명예를 영원히 더럽혔단 말이다! 네가 훔쳐 간 보석들은 어디에 있느냐?"

"도둑맞았어!" 그가 외쳤다.

"그래, 도둑놈 같으니라고!" 나는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소. 사라진 게 있을 리가 없단 말이오." 그가 말했다.

"세 개가 없어졌어. 그리고 당신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도둑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까 다른 조각을 뜯어내려던 것도 내가 똑똑히 봤는데 말이야."

"그동안 모욕은 충분히 당했네." 그가 말했다. "더는 참지 않겠어. 자네가 나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더 하지 않겠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네."

"경찰에 맡겨 두게! 경찰이 알아서 하게 두란 말이야!"

나는 슬픔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외쳤다.

"이 사건의 끝까지 파헤쳐서 진상을 밝혀내고 말 테니까!"

"내게선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거다!" 그가 외쳤다. 평소의 그라면 결코 보이지 않았을 격정적인 모습이었다. "경찰을 부르겠다면 마음대로 해라. 경찰이 알아낼 수 있는 만큼이나 알아내 보라고!"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깨어났다. 메리가 가장 먼저 내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녀는 왕관과 아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메리는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즉시 하녀를 시켜 경찰을 불렀고, 사건 조사를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

경위와 순경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팔짱을 낀 채 침울하게 서 있던 아서가 나에게 물었다. 자신을 절도죄로 고발할 작정이냐는 물음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일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섰다고 말이다. 망가진 왕관은 국가의 재산이기에, 이제는 공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결심했다.

"적어도 저를 곧장 체포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가 말했다. "제가 5분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것이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이득이 될 겁니다."

"도망치려는 속셈이거나, 아니면 훔친 물건을 숨기려는 속셈이겠지." 내가 말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고는 그에게 간곡히 애원했다. 내 명예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고귀한 분의 명예까지 걸린 문제라고 말이다. 또한 그가 일으키려는 스캔들이 온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라진 세 개의 보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해주기만 한다면,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이미 현장에서 붙잡히셨으니, 자백한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베릴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하신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나 그 용서를 베푸시오.' 그는 비웃음을 띠며 나를 외면한 채 대답했습니다. 내 어떤 말로도 그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는 이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지요. 나는 경위를 불러 그를 구금했습니다. 즉시 그의 몸은 물론 방 안과 보석을 숨겼을 법한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보석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는 우리의 간청과 협박에도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는 독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경찰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이 사건을 해결할 당신의 명석한 능력을 빌리고자 서둘러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현재로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이미 1,000파운드의 현상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세상에, 이제 난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명예와 보석,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오, 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마치 슬픔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차올라, 슬픔에 잠긴 아이처럼 웅얼거리며 중얼거렸다.

셜록 홈즈는 미간을 찌푸린 채 타오르는 불꽃에 시선을 고정하고, 몇 분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손님이 자주 오나요?" 그가 물었다.

"제 파트너와 그 가족들, 그리고 아서의 친구가 가끔 들르는 것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지 번웰 경은 최근 몇 차례 방문했고요. 제 생각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교 모임에 자주 나가십니까?"

"아서는 나가지만, 메리와 나는 집에 머물러요. 우리 둘 다 외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젊은 처자에게서 보기 드문 일이군요."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에요. 게다가 아주 어린 편도 아니고요. 스물네 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사건은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군요."

"끔찍하군요! 그녀는 저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두 분 모두 아드님의 유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으신 건가요?"

"그가 손에 왕관을 든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소?"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군요. 남은 왕관 부분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당신은 그분과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도대체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 의도가 결백했다면,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만약 그가 유죄라면, 왜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침묵을 지킨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기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경찰은 그 소리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던가요?"

"그들은 아서가 침실 문을 닫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온 집안 식구가 깨도록 문을 쾅 닫겠소? 그럼, 보석이 사라진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그것들을 찾아낼 희망을 품고, 여전히 바닥 판자를 두드려 보거나 가구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집 밖을 살펴볼 생각은 안 한 건가요?"

"네, 아주 열성적으로 움직이더군요. 정원 전체를 이미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 선생님." 홈즈가 말했다. "이제는 이 사건이 당신이나 경찰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속사정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척 복잡한 일입니다. 당신의 가설대로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옷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왕관을 꺼낸 뒤, 힘을 써서 그 일부분을 떼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서른아홉 개의 보석 중 세 개를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숨긴 뒤, 남은 서른여섯 개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들킬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과연 그런 가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은행가가 절망적인 몸짓을 하며 외쳤다. "그의 의도가 정말 결백했다면, 왜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러니 홀더 씨,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스트레텀으로 함께 출발

하시지요. 가서 한 시간 정도 세부 사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이번 탐정에 반드시 동행하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 역시 기꺼이 응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나의 호기심과 동정심을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은행가 아들의 죄는 불행한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도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홈즈의 판단을 깊이 신뢰했다. 그가 현재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분명 희망을 품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남부 교외로 향하는 내내 홈즈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턱을 가슴팍에 괸 채 모자를 눈까지 눌러쓰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반면 의뢰인은 방금 얻은 작은 희망 덕분에 기운을 차린 듯했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자신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기까지 했다. 짧은 기차 여행과 그보다 더 짧은 산책 끝에, 우리는 거물 금융가의 소박한 저택인 페어뱅크에 도착했다.

페어뱅크는 도로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자리 잡은, 흰 석조로 지은 제법 커다란 저택이었다. 눈 덮인 잔디밭과 함께 두 갈래로 갈라진 마차 진입로가 앞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끝에는 입구를 가로막은 커다란 철제 정문 두 개가 서 있었다. 저택 오른쪽에는 작은 나무 덤불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난 좁은 길은 도로에서 주방 문까지 이어지는 깔끔한 울타리 사이를 지나며 상인용 출입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마구간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은 부지를 통과하지 않고 외부로 나 있었다. 비록 통행량은 적었지만 공용 도로였다.

홈즈는 우리를 문 앞에 세워둔 채, 집 앞을 가로질러 상인용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고는 뒤편 정원을 돌아 마구간 길까지 천천히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홈즈가 워낙 오래 머무는 바람에 홀더 씨와 나는 식당으로 들어가 그가 돌아올 때까지 벽난로 옆에서 기다려야 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보통보다 조금 컸고 날씬했으며, 검은 머리카락과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검은 눈동자는 창백하다 못해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짙어 보였다. 나는 여자의 얼굴에서 이토록 죽음과도 같은 창백함을 본 적이 없었다. 입술 또한 핏기가 없었지만, 눈은 울어서 발그레하게 부어 있었다.

그녀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에 만났던 은행가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특히 그녀가 스스로를 강하게 다스릴 줄 아는, 성격이 아주 강인한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슬픔은 더욱 눈에 띄었다. 그녀는 내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삼촌에게 다가가,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아빠, 아서가 풀려나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렇죠?" 그녀가 물었다.

"아니, 아니란다, 얘야. 이 일은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 봐야만 해."

"하지만 그가 결백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합니다. 여자의 직감이 어떤 것인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가 결백하다면, 대체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그가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그가 왕관을 손에 들고 있는 걸 직접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 하지만 그는 그저 살펴보려고 그것을 집어 들었을 뿐이에요. 제발, 제발 그가 결백하다는 제 말을 믿어 주세요. 이 일은 이제 그만 덮어두고 더는 언급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서가 감옥에 갇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보석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일을 덮지 않을 거야. 절대로, 메리! 당신은 아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나에게 닥칠 끔찍한 결과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일을 은폐하기는커녕, 나는 이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런던에서 신사 한 분을 모셔 왔단 말이야."

"이분이신가요?"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니요, 그분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혼자 있게 해 달라고 하셨지요. 지금은 마구간 길 쪽에 가 계십니다."

"마구간 길이라고요?" 그녀가 짙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그곳에서 무엇을 찾겠다는 거죠? 아, 저분이 바로 그분이신가 보군요. 선생님, 제 사촌 아서가 이번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꼭 밝혀주시길 믿겠습니다. 저는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확신하니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홈즈가 대답하며 신발에 묻은 눈을 털어내기 위해 매트 위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메리 홀더 양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을 한두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본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삼촌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뿐이죠.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전날 밤에 창문과 문을 모두 닫으셨군요. 창문은 전부 잠그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전부 잠겨 있었습니까?"

"네."

"하녀에게 애인이 있단 말입니까? 어젯밤 삼촌께 그 하녀가 애인을 만나러 나갔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분은 응접실에서 시중을 들던 그 소녀예요. 삼촌이 왕관에 대해 하신 말씀도 들었을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나갔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강도질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런 막연한 이론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은행가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서가 왕관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홀더 씨. 그 문제는 다시 다뤄야겠습니다. 그 하녀 말입니다만, 홀더 양. 그 아가씨가 주방 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셨겠지요?"

"네, 맞아요. 밤이 되어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러 나갔다가, 그녀가 몰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남자도 보았고요."

"그를 아십니까?"

"아, 맞아요! 우리 집에 채소를 배달해 주는 채소 가게 주인이에요. 이름은 프랜시스 프로스퍼라고 해요."

"그는 문 왼편에 서 있었군요." 홈즈가 말했다. "다시 말해, 문에 다다를 필요가 없을 만큼 길을 따라 더 위쪽에 서 있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자가 의족을 한 사람인가요?"

젊은 여인의 표정이 풍부한 검은 눈동자에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쳤다. "세상에, 마치 마법사 같으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홈즈의 얇고 열띤 얼굴에는 화답하는 미소가 없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 좋겠군요." 그가 말했다. "집 외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아래층 창문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그는 창문들을 하나씩 빠르게 훑으며 지나갔다. 그러다 홀에서 마구간 길 쪽을 내다보는 커다란 창문 앞에서만 잠시 멈춰 섰다. 그는 그 창문을 열더니, 강력한 확대경을 꺼내 창틀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은행가의 탈의실은 소박하게 꾸며진 작은 방이었다. 회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커다란 서랍장과 긴 거울이 놓여 있었다. 홈즈는 먼저 서랍장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유심히 살폈다.

“어떤 열쇠로 열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제 아들이 직접 가리켰던 것 말입니다. 바로 잡동사니 방에 있는 찬장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가지고 계십니까?”

“화장대 위에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셜록 홈즈는 그것을 집어 들고는 서랍장을 열었다.

“소리 없이 열리는 자물쇠군요.” 홈즈가 말했다. “잠에서 깨지 않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 상자 안에 왕관이 들어있을 것 같군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왕관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보석 세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엄한 물건이었으며, 박힌 서른여섯 개의 보석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단연 최고였다. 그런데 왕관 한쪽 가장자리가 깨져 있었는데, 보석 세 개가 박힌 모서리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자, 홀더 씨.” 홈즈가 말했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유실된 부분과 일치하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떼어내 주시겠습니까?”

은행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제가 해보죠." 홈즈가 갑자기 힘을 주어 그것을 비틀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은 드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손가락 힘이 남들보다 월등히 강하긴 하지만, 이걸 부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자, 홀더 씨, 만약 제가 이걸 부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권총을 쏘는 것 같은 굉음이 들리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침대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다 보면 조금씩 밝아질지도 모르죠. 홀더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 삼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당혹스럽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드님을 보았을 때,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까?"

"바지와 셔츠 말고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놀라운 행운을 누려왔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잘못일 것입니다. 홀더 씨,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혼자 가겠다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발자국이 남으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시간 넘게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마침내 돌아온 그의 발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으나, 표정은 여느 때처럼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무심했다.

"홀더 씨,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이 당신을 돕는 데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석은요, 홈즈 씨. 그 보석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가는 두 손을 꽉 맞잡으며 괴로워했다.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단 말입니까!" 그가 울부짖었다. "제 아들은요? 정말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 의견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젯밤 제 집에서 벌어진 이 수상쩍은 일의 정체가 대체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베이커가에 있는 내 사무실로 찾아오신다면,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석을 되찾아오기만 한다면, 비용 집행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하시고 금액에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그때 사이에 조사해 보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저녁이 되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와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동행자의 마음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내게도 분명히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몇 번이나 슬쩍 떠보려 애썼다. 그러나 그는 매번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버렸고, 결국 나는 절망 섞인 마음으로 질문을 포기하고 말았다.

다시 우리 방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세 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홈즈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마치 평범한 부랑자처럼 차려입고 다시 나타났다. 깃을 세운 칼라와 번들거리고 해진 코트, 붉은 넥타이, 그리고 낡은 장화까지. 그는 그 부류의 사람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모습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군."

홈즈가 벽난로 위에 놓인 거울을 힐끗 보며 말했다.

"왓슨, 자네도 같이 가면 좋으련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아쉽네.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잡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허상을 쫓는 것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곧 판가름이 날 걸세. 몇 시간 뒤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네."

그는 찬장 위에 놓인 소고기 덩어리에서 고기 한 점을 썰어내더니 빵 두 조각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이 투박한 끼니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곧장 조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막 차를 다 마신 참이었다. 그는 분명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고, 손에는 측면에 고무를 댄 낡은 장화 한 짝을 흔들며 들어왔다. 그는 장화를 구석에 툭 던져놓고는 스스로 차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른 것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아, 웨스트엔드 건너편으로 가야 해요. 돌아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늦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수사는 어떻게 돼 가나?"

"아, 그저 그래요. 딱히 불평할 건 없고요. 지난번에 뵙고 나서 스트레이텀에 다녀왔지만, 그 집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라,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계속 잡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 지저분한 옷은 얼른 벗어 던지고 다시 품격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만족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눈은 반짝였고, 창백한 뺨에는 생기마저 돌았다.

홈즈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몇 분 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을 시작하러 떠났음을 알려주었다.

자정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그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기에,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홈즈가 사건의 실마리를 쫓을 때면 며칠 밤낮을 연달아 집을 비우는 일은 흔했으므로, 그가 늦는다고 해서 딱히 놀랍지는 않았다. 그가 몇 시쯤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그는 한 손에는 커피잔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든 채 아주 생생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왓슨, 자네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시작해서 미안하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이 오늘 아침 일찍 약속이 있다는 걸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벌써 9시가 넘었군요." 내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맞다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방금 벨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는 정말로 우리의 친구인 금융가였다. 나는 그의 변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본래 넓고 듬직한 골격을 가졌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핼쑥하게 패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적어도 한 톤은 더 희끗해 보였다. 그는 전날 아침에 보여준 격정보다도 더 고통스러워 보이는 무력감과 권태를 띤 채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밀어준 안락의자에 힘없이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나는 세상 근심 하나 없이 행복하고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롭고 치욕스러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슬픔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조카 메리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말입니다."

"당신을 버렸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의 침대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현관 탁자 위에는 저에게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죠. 어젯밤 저는 슬픈 마음을 담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제 아들과 결혼했더라면 아이에게도 별일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경솔한 말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쪽지에서 언급한 내용도 바로 그 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촌께,

삼촌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채 삼촌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 곁을 영원히 떠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 앞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준비해 둔 방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찾으려 애쓰지 말아 주세요. 저를 찾는 일은 아무런 결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삼촌을 사랑하는…”

“메리.”

“홈즈 씨, 그녀가 남긴 그 쪽지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자살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겁니다. 홀더 씨, 이제 곧 고생도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 그렇단 말입니까! 홈즈 씨, 분명 무언가 들으신 게 있군요. 무언가 알아내신 게 분명해요! 보석은 어디 있습니까?”

“보석 하나당 1,000파운드라면 과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1만 파운드라도 내겠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000파운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조금 더 얹어주셔야 할 것 같군요. 수표책은 가져오셨습니까? 여기 펜이 있습니다. 차라리 4,000파운드로 적어 주시지요.”

은행가는 멍한 표정으로 요구받은 수표를 작성했다. 홈즈는 책상으로 걸어가더니 보석 세 개가 박힌 작은 삼각형 모양의 금 조각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의뢰인은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낚아챘다.

"찾았군요!" 그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살았다! 이제 살았어!"

기쁨의 반응은 슬픔만큼이나 격렬했다. 그는 되찾은 보석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홀더 씨, 당신이 갚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다소 엄중한 어조로 말했다.

"빚이라니요!" 그는 펜을 집어 들며 말했다. "금액을 말씀하십시오. 바로 지불하겠습니다."

"아니요, 채무 관계는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 고결한 청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는 이번 일을 대처함에 있어, 만약 내게도 자식이 생긴다면 내 아들이 저토록 행동해주길 바랄 만큼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가져간 건 아서가 아니란 말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군요! 그럼 당장 그에게 달려갑시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모두 해결했을 때 그와 면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는 끝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지 않기에 제가 먼저 사건의 전말을 읊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말이 맞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고는 아직 제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들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당신이 가져온 소식이라면, 그가 입을 열지도 모르겠군요."

"제발 부탁이니, 도대체 이 기이한 수수께끼가 무엇인지 말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죠. 하지만 그전에, 저로서도 입을 떼기 가장 어렵고 당신에게도 듣기 괴로운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지 번웰 경과 당신의 조카 메리 사이에 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함께 도망친 상태입니다."

"내 메리가? 그럴 리가!"

"불행히도 그건 가능성을 넘어선 확실한 사실입니다. 당신과 아드님은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당시, 그자의 본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파산한 도박꾼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당이며, 양심도 인정도 없는 자지요. 조카딸은 그런 부류의 남자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자가 이전에도 수백 명의 여자에게 그랬듯 그녀에게 사랑을 맹세했을 때, 그녀는 자신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는 악마만이 알겠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그자의 도구가 되어 거의 매일 저녁 그를 만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은행가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그렇다면 어젯밤 당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지요. 당신의 조카딸은 당신이 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자마자 슬그머니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마구간 골목으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 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남자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눈 위에는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왕관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금에 대한 남자의 사악한 탐욕에 불이 붙었고, 그는 그녀를 자기 뜻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을 집어삼키는 여자들도 있는 법이지요. 그녀도 분명 그런 여자였을 겁니다. 그녀가 남자의 지시를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창문을 닫고는, 하녀 중 한 명이 의족을 한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늘어놓았지요. 그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었고요."

"아드님인 아서가 당신과 면담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클럽에 진 빚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한밤중에 아서는 문 앞을 지나가는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는데, 사촌 누이가 복도를 따라 아주 살금살금 걸어가더니 당신의 옷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지만, 일단 옷을 챙겨 입고는 이 기묘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 등불 빛 아래서 아들은 그녀가 그 귀중

한 왕관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자, 공포에 질린 아들은 급히 달려가 당신의 문 근처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는 홀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녀가 살며시 창문을 열고는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왕관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창문을 닫고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녀는 아들이 숨어 있는 커튼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현장에 있는 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끔찍한 망신을 당하게 만들 수 없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이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될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맨발인 상태 그대로 급히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창문을 열고 눈 쌓인 밖으로 뛰어내려 골목을 따라 달렸지요. 그곳에서 그는 달빛 아래 어두운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조지 번웰 경이 도망치려 했지만, 아더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당신의 아드님은 관의 한쪽을, 상대방은 다른 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난투 중에 아드님이 조지 경을 가격하여 그의 눈가를 베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드님은 손에 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급히 되돌아왔습니다. 창문을 닫고 당신의 방으로 올라온 아드님은, 몸싸움 중에 관이 뒤틀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쓰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은행가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는 당신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오히려 그를 비난하며 화를 돋우었군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니, 그가 돌봐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을 배신하는 꼴이 되고 마니까요. 하지만 그는 기사도적인 태도를 택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 쪽을 말입니다."

"그 왕관을 보자마자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홀더 씨가 울부짖었다. "오, 세상에! 내가 얼마나 눈먼 바보였단 말입니까! 그가 딱 5분만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가여운 친구는 사라진 조각이 사건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내가 그를 얼마나 잔인하게 오해했는지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홈즈가 말을 이었다. "나는 도움이 될 만한 흔적이 눈 위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고 집 주변을 아주 세심하게 살폈네. 전날 저녁 이후로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과,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만큼 강한 서리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상인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가 보았지만, 이미 발에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네. 하지만 주방 문 건너편 쪽을 보니, 한 여인이 서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흔적이 있었지. 남자의 발자국 중 한쪽이 둥근 모양인 것을 보니 의족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 흔적들이 누군가에 의해 흐트러졌다는 사실도 알아냈지. 여인이 문 쪽으로 급히 뛰어갔거든. 발가락 부분은 깊게 찍히고 뒤꿈치는 가볍게 남은 자국이 그걸 증명해주었네. 의족을 한 남자는 잠시 기다리다가 떠났고 말이야. 당시에는 자네가 이미 말했던 하녀와 그녀의 연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

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더군. 정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는 경찰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무작위한 발자국들 말고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네. 하지만 마구간 길로 들어섰을 때, 내 눈앞의 눈 위에는 아주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네."

장화 신은 남자가 남긴 두 줄의 발자국이 있었고, 그 옆으로 맨발인 사람이 남긴 또 다른 두 줄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발자국을 발견한 순간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당신의 설명을 듣자마자, 맨발의 주인공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화 신은 남자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지만, 맨발의 남자는 아주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곳곳에서 맨발의 발자국이 장화 자국 위를 덮고 있는 것을 보니, 맨발인 사람이 나중에 지나갔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발자국을 따라갔고, 그것들이 현관 창문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에는 기다리느라 발을 구른 탓에 장화 자국이 남은 눈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골목 끝, 즉 백 야드 이상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장화 신은 남자가 몸을 돌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치 몸싸움이라도 벌인 듯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몇 방울의 혈흔까지 발견하자,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장화 신은 남자는 그 뒤에 골목 아래로 달려갔고, 또 다른 작은 혈흔이 그가 다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목 끝 대로에 다다랐을 때, 이미 보도가 깨끗이 치워져 있었기에 그 단서는 거기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돋보기를 들고 현관 창문의 문턱과 창틀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지요. 젖은 발이 들어올 때 찍힌 발등의 윤곽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그는 도둑을 뒤쫓아 몸싸움을 벌였을 겁니다. 두 사람은 왕관을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합세해 힘을 쓰는 바람에 혼자서는 결코 입힐 수 없었을 상처가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아드님은 전리품을 챙겨 돌아왔지만, 상대방의 손에는 왕관의 파편 하나를 남겨두고 온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왕관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남은 것이 아무리 믿기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 저의 오래된 원칙입니다. 자, 저는 당신이 그것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당신의 조카딸과 하녀들뿐이었죠. 하지만 만약 하녀들이 범인이었다면, 왜 당신의 아들이 하녀들 대신 혐의를 뒤집어쓰려 했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촌 누이를 아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비밀을 지켜줘야만 했던 아주 명확한 이유가 생깁니다. 그 비밀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치스러운 것

이었기에 더욱 그랬겠지요. 당신이 그 창가에서 그녀를 보았던 일, 그리고 그녀가 왕관을 다시 보고 기절했던 일을 떠올리자 제 추측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공범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분명 연인이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과 고마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외출이 거의 없고 교우 관계도 매우 좁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인맥 중에는 조지 번웰 경도 있었지요. 전부터 그가 여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츠를 신고 사라진 보석들을 챙긴 사람도 분명 그였을 겁니다. 아서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안전하다고 자만했을 겁니다. 아서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가문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테니까요."

"글쎄요, 그다음엔 제 상식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우선 한량처럼 차려입고 조지 경의 저택을 찾아갔지요. 거기서 집사 녀석과 안면을 트는 데 성공했고, 주인님이 전날 밤 머리를 다쳤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6실링을 들여 그가 버린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덕분에 모든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 신발을 들고 스트리엄까지 내려가 확인해 보니, 발자국 모양이 신발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어제 저녁 골목에서 옷차림이 불량한 부랑자를 한 명 봤습니다." 홀더 씨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노리던 자를 알아냈기에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스캔들을 막으려면 기소는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게다가 그토록 영악한 악당이라면 우리가 이 문제로 손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일어난 일을 아주 상세히 읊어주자, 그는 큰소리를 치며 벽에 걸린 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자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휘두르기도 전에 권총을 그의 머리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그가 가진 보석들을 개당 1,000파운드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슬픈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이런 제기랄!' 그가 말했습니다. '세 개를 600파운드에 넘겨버렸단 말이오!'

저는 절대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보석을 받아 간 장물아비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곧장 그를 찾아가 한참을 흥정하고 나서, 보석을 개당 1,000파운드에 되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아드님을 찾아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이지 고된 하루를 보낸 끝에,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커다란 사회적 망신을 당할 뻔한 위기를 넘긴 날입니다." 은행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

겠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은 제가 전해 들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달려가, 제가 저지른 잘못을 사과해야겠습니다. 가여운 메리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도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는 없겠지요."

"그녀가 어디에 있든, 서 조지 번웰이 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단언해도 좋겠군." 홈즈가 대답했다. "또한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든, 머지않아 그에 합당하고도 넘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역시 확실해."

구릿빛 너도밤나무

XII. 구리빛 너도밤나무 사건

"예술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일세," 셜록 홈즈가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광고지를 옆으로 던지며 말했다.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지."

홈즈가 말을 이었다. "왓슨, 자네가 이 진리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군. 자네가 친절히 기록해 준 우리 사건들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지. 가끔은 자네가 문장까지 멋지게 다듬어 주기도 했지만 말이야. 자네는 내가 연루되었던 그 수많은 유명 사건이나 자극적인 재판들을 부각하기보다는, 그 자체로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나의 특기인 연역적 추리와 논리적 종합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주로 다루어 주었네."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기록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저 역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네가 실수한 것 같군."

그가 집게로 타오르는 불덩이를 집어 들며 말했다. 그는 명상에 잠기기보다 논쟁을 즐기는 기분이 들 때면 평소 쓰던 점토 파이프 대신 이 긴 벚나무 파이프를 꺼내곤 했다. 그는 불덩이로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사건을 기록할 때,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그 엄밀한 추론 과정을 담아내는 데만 집중했어야 했네. 사실 그 논리야말로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핵심이지. 그런데 자네는 그 핵심 대신, 진술 하나하나에 색채를 입히고 생동감을 불어넣으려 애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공정하게 대우해 준 것 같군."

나는 다소 차갑게 말했다. 내 친구의 기이한 성격 속에서 몇 번이고 목격했던 그 강렬한 자기중심적 태도에 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니, 이기심이나 자만심 때문이 아니네." 홈즈가 대답했다. 그는 평소처럼 내 질문이 아니라 내 생각에 답하고 있었다. "내가 내 기술의 정당성을 온전히 주장하는 이유는, 이 일이 나 개인을 넘어선, 지극히 객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네. 범죄는 흔하지만, 논리는 드물지. 그

러니 자네는 범죄 그 자체보다 논리에 더 집중해야 하네. 자네는 강연이 되어야 할 내용을 그저 한낱 이야기 모음으로 전락시켜 버렸어."

초봄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다. 우리는 베이커가에 있는 오래된 방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양옆에 앉아 있었다. 짙은 안개가 갈색빛 집들이 늘어선 거리 사이로 밀려들었고, 두꺼운 황색 안개 너머로 마주 보는 창문들은 형체 없는 어두운 잔상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아직 식탁을 치우지 않은 터라, 가스등 불빛이 하얀 식탁보와 은은하게 빛나는 도자기, 금속 식기 위를 비추고 있었다. 셜록 홈즈는 아침 내내 침묵을 지키며 연달아 신문의 광고란을 뒤적였다. 그러다 마침내 찾던 것을 포기한 듯 보이더니, 몹시 언짢은 기색으로 나타나 나의 문학적 재능이 부족하다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그는 긴 파이프를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는 모닥불을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동시에 말입니다, 자네가 쓴 글들이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네가 관심을 두고 다뤄준 사건들을 보면, 그중 상당수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범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내가 보헤미아 국왕을 돕고자 애썼던 사소한 일이나, 메리 서덜랜드 양이 겪은 기이한 경험, 입술이 뒤틀린 사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고결한 독신 신사에게 일어난 사건까지, 이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선정성을 피하려다 보니, 자칫 사소한 일들에만 치중하게 된 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결과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수법이 꽤나 참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에이, 이 사람아. 대중이 뭘 알겠나? 관찰력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그 무지한 대중 말일세. 치아 모양만 보고 직업이 직조공인지, 엄지손가락만 보고 식자공인지조차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분석과 추리의 그 미묘한 차이를 알 리가 없지!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사소한 일에 매달린다고 해도 탓하지는 않겠네. 위대한 사건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인간, 적어도 범죄자라는 인간들은 이제 모험심도 독창성도 잃어버렸어. 내 작은 사업도 이제는 잃어버린 연필을 찾아주거나 기숙학교 아가씨들에게 조언이나 해주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드디어 바닥을 친 모양이야. 오늘 아침에 받은 이 쪽지가 내 밑바닥을 상징하는 것 같네. 자, 읽어보게!"

홈즈는 구겨진 편지 한 통을 내 쪽으로 휙 던졌다.

편지에는 몬태규 플레이스라는 주소와 함께 전날 저녁의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애하는 홈즈 씨에게,

저에게 가정교사 자리가 제안되었는데, 이 일을 맡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 귀하의 조언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올림,"

"바이올렛 헌터."

"그 젊은 여성을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나는 아니야."

"지금은 10시 반이군."

"맞습니다. 저건 분명 그녀가 누른 초인종 소리일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변덕스러운 해프닝처럼 보였던 '푸른 카벙클' 사건이 결국 중대한 수사로 이어졌던 걸 기억하시겠지요? 이번 건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길 바라야지요. 하지만 곧 의문이 풀릴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바로 저기 문제의 인물이 나타났으니까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밝고 생기가 넘쳤으며, 물떼새 알처럼 주근깨가 콕콕 박혀 있었다. 또한 세상에서 제 뜻을 펼치며 살아온 여성 특유의 활기찬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내 동료가 그녀를 맞이하려 일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정말이지 기이한 일을 겪었거든요. 조언을 구할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헌터 양, 여기 앉으시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돕겠습니다."

새로 찾아온 의뢰인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들었는지, 홈즈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이 내 눈에도 보였다. 홈즈는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이내 눈꺼풀을 낮게 내리고 손가락 끝을 맞댄 채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스펜스 먼로 대령님 댁에서 5년 동안 가정교사로 일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두 달 전, 대령님께서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발령을 받으셨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시는 바람에 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죠. 구인 광고도 내보고 다른 곳의 공고에도 응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결국 모아둔 돈마저 바닥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웨스트엔드에는 웨스트웨이즈라는 유명한 가정교사 중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일자리가 새로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곳을 들르곤 했지요. 웨스트웨이는 이 사업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지만, 실제 운영은 스토퍼 양이 맡고 있습니다. 스토퍼 양은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스토퍼 양이 장부를 확인하며 조건에 맞는 일감이 있는지 살핀 뒤, 한 명씩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진행합니다."

"글쎄요,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는 평소처럼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토퍼 양 혼자가 아니더군요. 아주 인상이 좋아 보이

는, 엄청나게 뚱뚱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두툼한 턱살이 목 위로 겹겹이 접혀 있었고, 코에는 안경을 걸친 채 들어오는 여성들을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재빨리 스토퍼 양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정도면 됐네." 그가 말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어. 아주 좋아! 정말 최고야!" 그는 무척 열정적인 모습이었으며, 아주 친근한 태도로 두 손을 맞잡아 비볐다. 그는 인상이 워낙 좋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다.

"일자리를 찾으시나요, 아가씨?" 그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교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급여는 얼마나 원하십니까?"

"스펜스 먼로 대령님 댁에서 일할 때는 한 달에 4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오, 세상에!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그는 마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통통한 두 손을 허공에 내저으며 외쳤다.

“저토록 매력적이고 재능까지 겸비한 숙녀에게, 어떻게 저런 한심한 액수를 제안할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 제 능력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잘것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음악과 그림을 약간 아는 정도입니다.”

"쯧쯧, 아니지요!" 그가 외쳤다. "지금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숙녀로서의 품위와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요점은 딱 이겁니다. 만약 품위가 없다면, 당신은 훗날 나라의 역사에 중대한 역할을 할지도 모를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품위가 있다면, 어떤 신사가 그런 분께 세 자리 숫자에도 못 미치는 급료를 받아 달라고 어찌 청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저와 함께하신다면 당신의 연봉은 연간 100파운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홈즈 씨,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저는 빈털터리나 다름없었기에, 그 제안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사분은 제 얼굴에 서린 불신을 읽으셨는지, 지갑을 열어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제 관습이기도 합니다만,” 그가 아주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소가 워낙 깊어 하얀 얼굴 주름 사이로 눈이 가느다란 빛줄기처

럼 보일 정도였다. “젊은 숙녀분들께 급여의 절반을 미리 선불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생길 만한 자잘한 비용이나 의복 마련에 보태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그토록 매력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듯했다. 마침 상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던 터라 미리 받은 선불은 큰 도움이 되었지만, 거래 과정 전반에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정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례지만 어디에 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햄프셔예요. 아주 매력적인 시골 마을이죠. 윈체스터 건너편으로 5마일쯤 가면 나오는 '코퍼 비치스'라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랍니다, 아가씨. 아주 정겨운 시골 저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제 업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는 딱 하나예요. 이제 겨우 여섯 살 된, 아주 사랑스러운 꼬마 개구쟁이죠. 아, 그 아이가 슬리퍼로 바퀴벌레를 잡는 걸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탁! 탁! 탁! 눈 깜짝할 사이에 세 마리나 해치웠다니까요!"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또다시 눈이 가느다란 틈처럼 파묻힐 만큼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장난이 좀 기괴해서 잠시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웃는 것을 보니 그저 농담을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제가 맡을 유일한 임무는 아이 한 명을 돌보는 것뿐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가씨!" 그가 외쳤다. "아가씨의 현명한 판단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아가씨의 도리는 제 아내가 내리는 작은 지시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시가 숙녀로서 마땅히 따를 만한 품격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을 두고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유행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까다롭긴 해도 마음씨는 착한 사람들이죠.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옷을 입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당신도 우리의 이런 작은 변덕을 딱히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오." 그의 말에 꽤나 놀란 내가 대답했다.

"아니면 여기 앉거나 저기 앉는 건 어떠십니까? 당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면 저희에게 오시기 전에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오시겠습니까?"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즈 씨, 보시다시피 제 머리카락은 꽤 풍성한 데다 색깔도 아주 독특한 밤색입니다. 예술적이라는 찬사까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머리카락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작은 눈을 빛내며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살피고 있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건 꼭 그래야만 할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제 아내의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말입니다. 부인도 아시다시피, 여인들의 취향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으실 거죠?"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른 점들은 참 훌륭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쉽군요. 그렇다면 스토퍼 양, 실례가 안 된다면 지원한 다른 숙녀분들도 몇 분 더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여사장은 그동안 우리 두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서류 작업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나를 힐끗 쳐다보는데, 그 얼굴에 짜증이 가득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꽤 짭짤한 수수료를 놓쳤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함이 장부에 기록되길 원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스토퍼 양.”

“정말이지 무의미한 일이군요. 이런 식으로 훌륭한 제안들을 거절하시니 말이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을 위해 이런 기회를 다시 마련해 주려고 우리가 애쓸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실례하죠, 헌터 양.” 그녀는 탁자 위의 징을 세게 쳤고, 시종의 안내를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글쎄요, 홈즈 씨. 숙소로 돌아와 찬장을 뒤져봤지만 먹을 게 거의 없고, 탁자 위에는 고지서만 두세 장 놓여 있는 걸 보고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건 아닌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괴한 취향을 가졌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복종하기를 바란다 해도, 적어도 그 괴팍함에 대한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려 했으니까요. 영국에서 연봉 100파운드를 받는 가정교사는 극히 드뭅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서 인상이 좋아진 사람들도 많으니, 저 역시 그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이 되자 제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다음 날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존심을 꾹 누르고 중개소에 다시 가서 자리가 아직 비어 있는지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 신사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으니 제가 직접 읽어 드리지요."

“윈체스터 근처의 ‘코퍼 비치스’라네.

"친애하는 헌터 양에게,

스토퍼 양이 친절하게도 귀하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귀하께서 결정을 재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아내는 귀하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무척 매료된 나머지, 귀하가 꼭 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의 변덕스러운 요구로 인해 귀하께 번거로움을 끼칠 수도 있기에, 그 보상으로 분기당 30파운드, 즉 연간 120파운드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요구가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제 아내는 특정한 색조의 일렉트릭 블루를 무척 좋아해서, 귀하가 아침에 실내에서 그 색깔의 드레스를 입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드레스를 새로 사는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 가 있는 제 사랑하는 딸 앨리스의 옷 중에 귀하에게 아주 잘 맞을 만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저기 앉아 있거나, 저희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일 역시 귀하께 전혀 불편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머리카락에 관해서는, 짧은 면담 중에 제가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인상된 급여가 머리카락을 포기하는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업무 또한 매우 가볍습니다. 부디 오기로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윈체스터에서 이륜마차를 몰고 마중 나가겠습니다. 이용하실 열차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서명)"

"제프로 루캐슬."

“방금 받은 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홈즈 씨.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모든 사정을 당신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헌터 양. 이미 마음을 굳히셨다면 더는 논쟁할 필요가 없겠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거절하지 말라고 조언하시는 건 아니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누이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홈즈 씨?”

“아, 아직 수집된 자료가 없군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 어떤 의견을 세우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가능한 해결책은 단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루캐슬 씨는 아주 친절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혹시 그의 아내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정신병원에 끌려갈까 봐 두려워 사건을 조용히 덮어두려는 것이라면, 그녀가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온갖 비위를 다 맞춰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사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유력한 가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집은 젊은 여성이 머물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군요.”

"하지만 홈즈 씨, 그 돈은 어쩌고요, 그 돈은!"

"그래요, 보수가 좋은 건 당연하죠. 아니,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40파운드만 줘도 사람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1년에 120파운드나 주겠습니까? 분명 그 이면에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만 들어도 제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두셔도 좋습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이 가져온 이 작은 문제는 지난 몇 달간 내가 맡았던 사건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겁니다. 몇몇 특징들은 아주 독특하고 새롭기까지 하니까요. 만약 의구심이 생기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위험이라니요! 어떤 위험이 닥칠 거라는 말씀입니까?"

홈즈는 엄숙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정체를 확실히 밝혀낼 수만 있다면 더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낮이든 밤이든, 언제라도 전보만 보내 주십시오. 바로 달려가 돕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는 얼굴에서 불안함을 씻어내듯 활기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마음 편히 햄프셔로 내려갈 수 있겠어요. 당장 루캐슬 씨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밤엔 가엾은 제 머리카락을 희생하고서라도 내일 바로 윈체스터로 떠나야겠군요." 그녀는 홈즈에게 몇

마디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우리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길을 떠났다.

"적어도,"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빠르고 단호한 발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말했다. "스스로를 충분히 지킬 줄 아는 젊은 숙녀인 것 같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겠지요."

내 친구의 예측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나는 이 외로운 여인이 인간 경험의 어떤 기묘한 골목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 궁금해하며 자주 그녀를 떠올리곤 했다. 이례적인 급여와 수상한 조건, 그리고 가벼운 업무량까지. 이 모든 정황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어떤 음모인지, 혹은 그 남자가 자선가인지 악당인지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홈즈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멍한 표정으로 30분씩이나 넋을 놓고 앉아 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내가 그 점을 언급하자, 그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잘랐다.

"자료! 자료가 필요해!"

그는 참을성 없게 외쳤다.

"진흙이 없으면 벽돌을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는 늘 마지막에는 자신의 누이 중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며 중얼거리곤 했다.

결국 도착한 전보가 온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마침 나는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고, 홈즈는 그가 자주 빠져드는 밤샘 화학 실험에 몰두하려던 참이었다. 홈즈는 밤늦게 내가 방을 나설 때도 플라스크와 시험관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도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곤 했다. 홈즈는 노란 봉투를 열더니, 전보 내용을 훑어보고는 내 쪽으로 휙 던졌다.

"브래드쇼 열차 시간표에서 찾아보게."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화학 실험에 몰두했다.

부름은 짧고도 긴박했다.

"내일 정오에 윈체스터에 있는 블랙 스완 호텔로 와 주십시오."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발 꼭 와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헌터."

"함께 가시겠습니까?" 홈즈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러고 싶군요."

"그럼 직접 찾아보세요."

"9시 반에 기차가 있네." 나는 브래드쇼 철도 시간표를 훑어보며 말했다. "윈체스터에는 11시 30분에 도착할 거야."

"그거 참 좋군. 그럼 아세톤 분석은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 내일 아침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정말 싱그럽고 아름답지 않나요?" 베이커가의 안개를 막 헤치고 나온 사람 특유의 열띤 목소리로 내가 외쳤다.

하지만 홈즈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왓슨, 그거 아나?" 홈즈가 말했다. "나처럼 한 분야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주 같은 점이 하나 있지. 모든 것을 내 전문 분야와 연관 지어서만 보게 된다는 거야. 자네는 저 흩어져 있는 집들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겠지만, 나는 저 집들을 보며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들 뿐이라네. 저 집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얼마나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말이야."

"세상에!" 내가 외쳤다. "이토록 평화롭고 정겨운 마을에 누가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겠소?"

"그곳들을 볼 때면 언제나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네. 왓슨,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런던의 가장 낮고 비열한 골목길조차 미소 짓

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만큼 끔찍한 죄악의 기록을 품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네."

"정말 소름 끼치는군요!"

"하지만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여론의 압박은 법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도시 안에서 해내곤 하죠. 아무리 비천한 골목이라 해도, 고통에 찬 아이의 비명이나 술취한 자의 거친 구타 소리가 들리면 이웃들은 동정심과 분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사법 기구 전체가 워낙 가까이 있어서, 불만 섞인 말 한마디만으로도 곧장 그 기구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범죄가 저질러지는 순간부터 피고인석에 서기까지는 불과 한 걸음 차이뿐입니다.

하지만 이 외딴 집들을 보십시오. 저마다 넓은 들판에 둘러싸여 있고, 대부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는 지옥 같은 잔혹한 행위나 은밀한 악행이 몇 년이고 계속되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부인이 윈체스터에 살고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녀를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5마일 남짓한 시골 땅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개인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니요. 우리를 만나러 윈체스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망치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녀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아무런 설명도 해주실 수 없는 건가요?"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가설을 세워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이 가설들 중 어느 것이라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중 무엇이 정답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정보가 밝혀줘야 할 문제입니다. 자, 우선 대성당의 종탑부터 가보죠. 헌터 양이 들려줄 이야기도 곧 모두 듣게 될 테니까요."

블랙 스완은 하이 스트리트에 있는 유명한 여관으로, 역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이미 응접실을 빌려 두었고, 탁자 위에는 우리가 먹을 점심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와 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녀가 간곡하게 말했다. "두 분 모두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정말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조언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서둘러야겠습니다. 루캐슬 씨에게 세 시 전까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내에 다녀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가 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홈즈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벽난로 쪽으로 쭉 뻗으며, 경청할 준비를 마친 듯 자세를 가다듬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루캐슬 부부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래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그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면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건가?"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대로 전부 들려드리지요. 제가 도착했을 때, 루캐슬 씨가 여기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륜마차에 저를 태워 코퍼비치로 데려갔지요. 그가 말한 대로 위치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집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커다란 사각형 모양의 건물인데, 흰칠을 해두긴 했으나 습기와 악천후 때문에 얼룩지고 줄이 가 있습니다. 집 주변에는 정원이 있고 세 면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머지 한 면에는 사우스햄턴 대로로 이어지는 경사진 들판이 있는데, 이 도로는 현관문 앞 약 100야드 지점을 지나 굽어 흐릅니다. 집 앞의 이 땅은 저택 소유지만, 주변을 둘러싼 숲은 모두 서더턴 경의 사유림입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구리빛 너도밤나무 숲이 이 저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용주께서 저를 데려다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아주 친절한 분이었죠. 그날 저녁, 그분의 소개로 부인과 아이를 만났습니다. 홈즈 씨, 베

이커가에 있는 당신의 방에서 우리가 추측했던 일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루캐슬 부인은 미치지 않았더군요. 제가 본 부인은 말수가 적고 안색이 창백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젊어 보였는데, 제 생각에 서른 살을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남편은 적어도 마흔다섯은 되어 보였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아낸 바로는, 결혼한 지는 7년 정도 되었고 남편은 재혼한 처지라고 합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얻은 외동딸은 지금 필라델피아로 떠난 상태고요. 루캐슬 씨는 따로 저를 불러, 딸이 집을 떠난 이유가 새엄마에 대해 이유 없는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적어도 스무 살은 되었을 테니, 젊은 새엄마와 함께 지내는 상황이 꽤 불편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루카슬 부인은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조차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딱히 좋은 인상도, 그렇다고 나쁜 인상도 아니었죠. 그저 존재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남편과 어린 아들에게는 지극정성이라는 점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연한 회색 눈동자는 끊임없이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살피며, 아이의 작은 필요까지도 미리 알아채려 애쓰더군요. 남편 역시 특유의 쾌활하고 거친 방식으로 부인을 다정하게 대했고, 전반적으로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모를 슬픔이 있는 듯했습니다.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겨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곤 했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가끔은 아이의 성격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

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버릇없고 심술궂은 아이는 생전 처음 봤거든요. 아이는 나이에 비해 체구는 작으면서 머리만 유독 커서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일상은 사나운 발작과 우울한 뒤끝 사이를 오가며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게 유일한 낙인 것 같더군요. 쥐나 작은 새, 곤충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재주만큼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그 아이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 싶지 않군요. 사실 제 이야기와는 별 상관도 없는 아이니까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해주게." 내 친구가 말했다. "자네 눈에 그것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네."

"중요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즉시 눈에 띈 불쾌한 점은 하인들의 모습과 행동이었습니다. 하인은 남편과 아내, 단 두 명뿐입니다. 이름이 톨러라는 그 남자는 거칠고 무례한 사람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졌으며 늘 술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는 벌써 두 번이나 만취한 모습을 보였지만, 루카슬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키가 매우 크고 건장한 데다 표정까지 험악한 여자입니다. 루카슬 부인만큼이나 말이 없으며 성격도 훨씬 까칠합니다. 참으로 불쾌한 부부입니다. 다행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아실과 제 방에서 보내는데, 두 방은 건물 한쪽 구석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코퍼 비치에 도착한 후 이틀 동안은 아주 평온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에 루카슬 부인이 내려오더니 남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 그럼요."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헌터 양, 저희의 변덕에 맞춰 머리카락까지 잘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단언컨대, 머리를 자른 것이 양의 미모를 조금이라도 해치지는 않았으니 안심하세요. 이제 그 전기빛 푸른색 드레스가 양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 차례군요. 방 안 침대 위에 드레스를 준비해 두었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옷을 갈아입어 주시면 저희 둘 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드레스는 아주 특이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어요. 재질은 아주 훌륭한 베이지색이었지만, 분명 누군가 입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마치 제 몸 치수를 미리 재서 만든 것처럼 옷이 몸에 딱 맞았어요. 루카슬 부부는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린다며 기뻐했는데, 그 반응이 지나칠 정도로 격렬해서 오히려 과장된 느낌마저 들 정도였죠.

부부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은 집 전면을 따라 길게 뻗은 아주 넓은 방이었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다란 창문이 세 개나 있었죠. 중앙 창문 앞에는 의자 하나가 창을 등진 채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았고, 루카슬 씨는 방 반대편을 왔다 갔다 하며 제가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웃느라 기운이 다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유머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루카슬 부인은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슬프고 불안한 기색을 띠며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한 시간쯤 지났을까, 루카슬 씨가 갑자기 이제 오늘의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드레스를 갈아입고 보육실에 있는 어린 에드워드에게 가 보라고 했죠."

"이틀 뒤,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 역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고용주가 가진 방대한 레퍼토리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가 특유의 솜씨로 들려주는 농담에 다시 한번 유쾌하게 웃어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노란색 표지의 소설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그림자가 책장에 드리워지지 않도록 의자를 옆으로 살짝 옮긴 뒤, 그가 부탁한 대로 책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의 중간 부분부터 읽어 내려가 약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문장 중간에 갑자기 그가 읽기를 멈추라고 명령하더니,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홈즈 씨, 이 기이한 행동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는 건 충분히 상상하실 겁니다. 그들은 제가 창밖을 보지 못하도록 항상 아주 주의를 기울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곧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침 손거울이 깨져 있었기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거울 조각 하나를 손수건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다음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웃음을 터뜨리는 척하며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살짝 조절해가며 제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제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니, 사우샘프턴 로드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수염을 기른 작은 체구의 남자였는데, 제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 길은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라 보통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우리 밭을 둘러싼 울타리에 몸을 기댄 채,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내리고 루카슬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손에 거울이 있다는 사실과 제가 등 뒤를 훔쳐보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프로," 그녀가 말했다. "저기 길가에 아주 무례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계속 헌터 양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

"헌터 양, 당신의 친구는 아닌가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이 근처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나!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군! 미안하지만 뒤로 돌아서 저 사람에게 가 버리라고 손짓을 해 주게."

"차라리 못 본 체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아니, 아니, 그냥 두면 저자가 늘 여기서 서성거릴 걸세. 미안하지만 뒤로 돌아서 저렇게 손을 흔들어 쫓아 주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자마자 루카슬 부인이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창가에 앉지 않았고, 그 파란 드레스도 입지 않았으며, 길거리에 나타난 그 남자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하시게." 홈즈가 말했다.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군."

"이야기가 다소 두서없게 느껴지실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사건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코퍼 비치에 도착한 첫날, 루카슬 씨는 저를 주방 문 근처에 있는 작은 부속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쇠사슬이 거칠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커다란 짐승이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기 좀 보게!" 루카슬 씨가 판자 사이의 틈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희미한 형체와 번뜩이는 두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겁먹지 말게." 내가 깜짝 놀란 모습을 보고 고용주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내 마스티프 개, 카를로일 뿐이라네. 내 개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집 마부인 늙은 톨러만이 저 녀석을 다룰 수 있지. 하루에 한

번만 먹이를 주는데, 그것도 아주 조금만 주거든. 그래서 저 녀석은 언제나 먹잇감을 향해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 기세라네. 톨러가 매일 밤 저 녀석을 풀어놓는데, 만약 카를로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달려드는 침입자가 있다면 신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걸세.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밤에는 절대로 문턱을 넘지 말게나.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이틀 뒤 새벽 두 시쯤, 나는 우연히 침실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달빛이 유난히 아름다운 밤이었다. 집 앞 잔디밭은 은빛으로 물들어 대낮처럼 환했다. 나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러다 구리너도밤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형체가 달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것은 송아지만큼이나 거대한 개였다. 황갈색 털에 턱은 아래로 처져 있었고, 주둥이는 검은색이었으며, 거대한 뼈가 툭 불거져 나와 있었다. 개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천천히 걷더니 반대편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끔찍한 파수꾼을 마주한 순간, 내 심장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그 어떤 도둑을 마주했을 때보다도 더한 공포였다.

"이제 아주 기묘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런던에서 머리카락을 잘랐고, 그 머리카락을 뭉쳐서 커다란 덩어리로 만든 뒤 트렁크 바닥에 넣어두었죠.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방 안의 가구들을 살펴보며 소소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방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하나 있었는데, 위쪽 두 칸은 비어 있는 채로 열려 있었고 맨 아래 칸만 잠겨 있었죠. 저는 위쪽 두 칸

에 세탁물을 채워 넣었는데, 아직 챙겨야 할 짐이 많이 남아 있던 터라 세 번째 서랍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무척 짜증스러웠어요.

단순히 실수로 잠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열어보려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열쇠가 아주 딱 들어맞더니 서랍이 스르르 열렸어요. 그 안에는 물건이 딱 하나 들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지 전혀 짐작조차 못 하실 거예요. 바로 제가 말한 그 머리카락 뭉치였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색깔은 특유의 빛깔 그대로였고 두께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서랍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어 내용물을 전부 쏟아냈고, 맨 밑바닥에서 제 머리카락을 찾아냈습니다. 그 두 가닥을 나란히 놓아보았는데, 단언컨대 두 머리카락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봐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머리카락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러캐슬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잠가둔 서랍을 열어본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홈즈 씨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본래 관찰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집 전체의 구조를 꽤 정확하게 그려둘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톨러의 숙소로 이어지는 문 맞은편에 이 별채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언제나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러캐슬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손에 열쇠 꾸러미를 쥐고 그 문을 통해 나오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제가 알던 둥글둥글하고 쾌활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의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미간에는 분노로 인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는 격앙된 감정 때문에 핏대가 불거져 있었지요. 그는 문을 잠그더니, 저에게 말 한마디 건네거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쳐 갔습니다."

이 일로 호기심이 생긴 나는, 돌보던 아이를 데리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 슬쩍 집 옆면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서는 저택의 창문들이 잘 보였다. 창문은 네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세 개는 그저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덧창이 굳게 닫혀 있었다. 분명히 모두 비어 있는 방들 같았다. 내가 창문들을 이따금 훑어보며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러캐슬 씨가 평소처럼 유쾌하고 쾌활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아!" 그가 말했다. "아가씨,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업무 생각에 잠겨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고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위층에 빈 방이 꽤 많은 것 같더군요. 그중 한 방은 덧창이 닫혀 있네요.'

그는 내 말을 듣고 놀란 기색이었으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움찔하기까지 했다.

"사진은 제 취미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 위층에 암실도 만들어 두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난 아가씨를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믿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농담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 눈에는 의구심과 불쾌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홈즈 씨, 그 방들에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죠. 물론 저도 호기심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보다는 일종의 의무감에 가까웠어요. 이곳을 파헤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흔히들 여성의 직감에 대해 말하곤 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직감이 저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모양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 느낌을 놓치지 않았고, 금지된 문 안으로 들어갈 기회만 엿보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답니다."

"기회는 바로 어제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러캐슬 씨 외에도 톨러 부부는 이 텅 빈 방들을 사용하며 나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커다란 검은색 린넨 가방을 들고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을 본 적도 있지요. 최근 들어 그는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문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그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러캐슬 부부는 아래층에 있었고 아이도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 문을 연 뒤, 그 사이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내 앞에는 종이를 바르지도, 카펫을 깔지도 않은 좁은 통로가 있었고, 그 끝은 직각으로 꺾여 있었다. 모퉁이를 돌면 문 세 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은 열려 있었다. 각 문 너머로는 먼지가 자욱하고 쓸쓸한 빈 방이 이어졌다. 한 방에는 창문이 두 개, 다른 방에는 하나가 있었으나, 창문에 때가 너무 두껍게 끼어 있어 저녁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다.

가운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 바깥쪽에는 철제 침대에서 떼어 낸 듯한 넓적한 막대 하나가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막대의 한쪽 끝은 벽에 달린 고리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쪽 끝은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문 자체도 잠겨 있었는데,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이 바리케이드가 쳐진 문은 밖에서 본 덧창이 달린 창문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을 보니 방 안이 어둡지는 않았다. 분명 위쪽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천창이 있는 모양이었다.

내가 통로에 서서 그 불길한 문을 바라보며, 저 문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의아해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빛을 배경으로 그림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홈즈 씨,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광기 어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곤두서 있던 신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나는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손이 내 치맛자락을 붙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나는 통로를 지나 문

을 박차고 나갔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러캐슬 씨의 품에 그대로 안기듯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을 때, 분명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정말 무서워 죽겠습니다!" 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가씨, 아가씨! 세상에, 아가씨!"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 할 겁니다. "대체 무엇이 아가씨를 이토록 겁먹게 했나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달콤했습니다. 너무 과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를 아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비어 있는 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희미한 불빛 아래 그곳이 너무나 쓸쓸하고 기괴해서, 겁이 나는 바람에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아, 그 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겨우 그뿐인가?" 그가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다.

"아니,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가 물었다.

"내가 왜 이 문을 잠가 두는지 아십니까?"

"정말 모릅니다. 확실해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분명히—"

"자, 이제 알았으면 됐네. 만약 한 번만 더 이 문턱을 넘는 날에는!" 순간, 그의 미소는 분노 섞인 비웃음으로 돌변했다. 그는 악마 같은 얼굴로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덧붙였다. "그땐 당장 마스티프 개에게 던져버릴 줄 알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를 지나쳐 제 방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온몸을 떨며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다 홈즈 씨,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조언 없이는 그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집도, 그 남자도, 여자도, 하인들도, 심지어 아이까지도 모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게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당신만 모실 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집을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만큼이나 호기심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곧 결심을 내렸지요. 당신에게 전보를 보내기로 말입니다. 모자와 망토를 챙겨 입고 집에서 약 반 마일 정도 떨어진 사무실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는 혹시 개가 풀려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끔찍한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톨러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셨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을 다룰 줄

알거나, 혹은 짐승을 풀어놓을 만한 사람은 그 집에서 톨러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고, 당신을 만날 생각에 기뻐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윈체스터까지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시 전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러캐슬 부부께서 외출하셔서 저녁 내내 집을 비우실 예정이라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거든요. 홈즈 씨, 이제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홈즈와 나는 이 기이한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숨을 죽인 채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엄숙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톨러는 아직도 취해 있나?" 그가 물었다.

"네,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루카슬 부인에게 말하는 걸 들었죠. 남편을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요."

"그렇군요. 그럼 루카슬 부부는 오늘 밤 외출하는 건가요?"

"네."

"튼튼하고 커다란 자물쇠가 달린 지하실이 있습니까?"

"네, 와인 저장고 말입니다."

"헌터 양, 당신은 이번 사건 내내 아주 용감하고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큰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주 특별한 여성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결코 이런 부탁은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친구와 나는 일곱 시쯤이면 코퍼 비치스 저택에 도착할 걸세. 그때쯤이면 루카슬 부부는 떠났을 테고, 톨러도 무력화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지. 이제 경계해야 할 사람은 경보를 울릴지도 모르는 톨러 부인뿐이라네. 만약 자네가 어떤 심부름을 핑계로 그녀를 지하실로 보낸 뒤, 문을 잠가버릴 수 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훌륭하군요! 그럼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봅시다. 물론 가능한 설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흉내 내기 위해 그곳으로 불려간 것이고, 진짜 주인은 이 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그 죄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으로 떠났다고 알려진 루카슬 양, 즉 앨리스 루카슬 양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키와 체격, 그리고 머리카락 색이 그녀와 닮았다는 이유로 선택되었겠지요. 그녀는 아마도 병을 앓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잘라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머리카락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묘한 우연으로 당신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된 것이군요. 길에서 마주친 그 남자는 분명 그녀의 친구, 어쩌면 약혼자였을 겁니다. 당신이 그 소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외모마저 닮았으니, 그는 당신의 웃음소리와 몸짓을 보고 루카슬 양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

으며 더 이상 자신의 관심을 원치 않는다고 확신했을 테지요. 밤마다 개를 풀어놓는 것도 그가 그녀와 접촉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고요. 여기까지는 상황이 꽤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게 사건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외쳤다.

"여보게 왓슨, 자네는 의사니까 부모를 연구함으로써 아이가 어떤 성향을 띠게 될지 끊임없이 알아내지 않나?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나? 나 역시 아이들을 관찰함으로써 부모의 성품을 꿰뚫어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네. 이 아이의 기질은 그저 잔인함 그 자체를 즐길 정도로 비정상적이야. 내가 짐작하기로는 웃음이 많은 아버지를 닮았거나 혹은 어머니를 닮았을 텐데, 어느 쪽이든 부모의 손아귀에 있는 저 가련한 소녀에게는 불길한 징조일 뿐이라네."

"홈즈 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의뢰인이 외쳤다. "당신이 정답을 찾아냈다는 확신이 드는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 이 가여운 사람을 돕기 위해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우 교활한 자를 상대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7시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군요. 7시 정각에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후에는 머지않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길가 주막에 마차를 세우고 코퍼 비치 저택에 도착하니 정확히 7시였다. 지는 해를 받아 닦아 놓은 금속처럼 어두운 잎사귀들이 번뜩이는 나무 무리가 저택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었다.

만약 문 앞 계단에 헌터 양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지 않았더라도, 그 나무들만으로 저택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해냈나?" 홈즈가 물었다.

아래층 어딘가에서 쿵쾅거리는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지하실에 있는 톨러 부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남편분은 부엌 양탄자 위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고요. 여기 열쇠들이 있는데, 루카슬 씨의 열쇠를 복제한 거예요."

"정말 잘해주었네!" 홈즈가 열띤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앞장서게. 이 검은 음모의 끝을 곧 밝혀낼 수 있을 테니."

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이윽고 헌터 양이 설명했던 바로 그 바리케이드 앞에 다다랐다. 홈즈는 밧줄을 끊어내고 가로막고 있던 막대기를 치웠다. 그러고는 자물쇠에 여러 열쇠를 꽂아 보았으나 소용없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흐르자 홈즈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했다. "헌터 양, 당신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군요. 우리끼리 먼저 들어가 보지요. 자, 왓슨, 어깨로 밀어붙여 보게.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

낡고 삐걱거리는 문은 우리가 힘을 합쳐 밀치자마자 맥없이 열렸다. 우리는 곧장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방은 비어 있었다. 작은 간이침대와 작은 탁자, 그리고 리넨이 가득 담긴 바구니 하나 외에는 가구라

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천장의 채광창은 열려 있었고, 죄수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곳에 어떤 악행이 저질러졌군." 홈즈가 말했다. "이 아름다운 범인이 헌터 양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그녀를 낚아채 달아나 버렸어."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천창을 통해서 들어갔군. 그가 어떻게 그랬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홈즈는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아, 여기 있군!" 그가 외쳤다. "처마 밑에 긴 사다리가 놓여 있었어. 바로 이 방법으로 들어온 거야."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헌터 양이 말했다. "루카슬 부부가 떠날 때만 해도 사다리는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그자가 돌아와서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군. 분명 영리하면서도 위험한 자야. 지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의 주인공이 그자라고 해도 난 전혀 놀라지 않을 걸세. 왓슨, 자네도 권총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아주 뚱뚱하고 건장한 체격에 손에는 묵직한 지팡이를 든 사내였다. 그를 본 헌터 양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셜록 홈즈는 곧장 앞으로 달려 나가 그와 맞섰다.

"이 악당 같으니!" 그가 외쳤다. "네 딸은 어디 있느냐?"

뚱뚱한 남자는 주위를 한 번 둘러보더니, 열려 있는 천창을 올려다보았다.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할 말이다!" 그가 비명을 질렀다. "이 도둑놈들! 스파이에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를 잡았다, 그렇지? 너희는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몸을 돌리더니, 온 힘을 다해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갔다.

"그가 개를 잡으러 갔어요!" 헌터 양이 비명을 질렀다.

"내게는 리볼버가 있네." 내가 말했다.

"앞문을 얼른 닫으시오!"

홈즈가 외쳤다. 우리는 모두 함께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현관에 다다랐을 무렵, 사냥개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뒤이어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무언가를 처절하게 물어뜯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듣기조차 괴로운 소리였다. 그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사지가 떨리는 한 노인이 옆문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나왔다.

"세상에!" 그가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개를 풀어놓았어! 이틀 동안이나 먹이를 못 먹었다고. 어서, 어서 움직여야 해! 안 그러면 너무 늦어버릴 거야!"

홈즈와 나는 톨러가 뒤를 급히 쫓아오는 가운데, 집 모퉁이를 돌아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곳에는 굶주린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루카슬의 목덜미에 검은 코를 처박고 있었다. 루카슬은 바닥에서 몸을 뒤틀며 비

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짐승에게 달려들어 총을 쏴서 머리를 날려 버렸다. 그러자 짐승은 날카로운 흰 이빨을 루카슬의 목에 깊게 박아 넣은 채 그대로 쓰러졌다. 우리는 간신히 짐승과 루카슬을 떼어놓은 뒤, 처참하게 상처 입은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옮겼다. 거실 소파에 그를 눕히고, 정신을 차린 톨러에게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고 오라고 보낸 뒤, 나는 루카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우리가 모두 그를 둘러싸고 모여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수척한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톨러 부인!" 헌터 양이 외쳤다.

"네, 아가씨. 루카슬 씨께서 아가씨를 만나러 올라가시기 전에, 돌아오시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아, 아가씨, 미리 계획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아가씨의 노력이 헛수고라는 사실을 제가 미리 알려드렸을 겁니다."

"하!" 홈즈가 그녀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말했다. "톨러 부인이 이 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디 앉으시지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아직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 말입니다."

"곧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지하실에서 나갈 수만 있었다면 벌써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 이 일로 경찰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당신 편에 섰다는 사실과 앨리스 양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앨리스 양은 아버지가 재혼한 뒤로 집에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자기 의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았죠. 하지만 친구 집에서 파울러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앨리스 양은 유언장에 따라 자신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라, 권리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모든 것을 루카슬 씨의 처분에 맡겨버렸죠. 루카슬 씨는 그녀를 상대로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모두 요구할 남편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아버지는 상황을 종결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앨리스 양에게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 했어요. 그래야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앨리스 양이 거부하자 아버지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결국 그녀는 뇌열에 걸려 6주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다행히 겨우 기운을 차리긴 했지만, 몸은 그림자처럼 야위었고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도 잘려 나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남자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진실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답니다."

"아," 홈즈가 말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도 사건의 윤곽은 충분히 드러난 것 같군요. 남은 부분은 제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캐슬 씨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두는 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파울러 씨가 불쾌할 정도로 끈질기게 구는 것을 떨쳐내려고, 런던에 있는 헌터 양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파울러 씨는 유능한 선원답게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포위하듯 지키고 서 있었죠. 그러다 당신을 만났고, 금전적인 수단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든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과 같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납득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파울러 씨는 말씀도 아주 친절하게 하시고, 인심도 넉넉한 신사였어요." 톨러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당신 남편이 마실 술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는 한편, 주인님이 외출한 바로 그 순간에 사다리가 준비되어 있도록 손을 써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어난 그대로입니다."

"톨러 부인, 사과를 드려야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부인 덕분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의문들이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시골 의사 선생과 러캐슬 부인이 오고 있으니, 왓슨, 우리는 헌터 양을 윈체스터까지 배웅해 드리는 게 좋겠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곳에 더 머물 명분이 그리 없어 보이거든."

그렇게 문 앞에 구리빛 너도밤나무가 늘어선 그 불길한 저택의 미스터리는 풀렸다. 러캐슬 씨는 살아남았으나 늘 폐인이 된 채 지냈고, 오직 헌신적인 아내의 보살핌 덕분에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그들은 여전히 옛 하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마도 하인들이 러캐슬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는 그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듯했다. 파울러 씨와 러캐슬 양은 도주한 다음 날 사우샘프턴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결혼했다. 그는 현재 모리셔스 섬에서 정부 관직을 맡고 있다. 바이올렛 헌터 양에 대해서는, 내 친구 홈즈가 사건의 중심이 사라지자마자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녀는 현재 월솔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